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老子》의 虛詞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愛 實

2021年 8月

The Study on the Function Words used in
《Laozi(老子)》

Ae-sil Kim

(Supervised by professor Yeong-Ho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iterature

2021. 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Joong-Sub Kim

Man-Ki Yang

Kwan-Sik Byun

Eun-Hee Kim

Thesis director, Yeong-Ho Lee, Prof.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21. 7.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國文 要約】

I. 緒論	1
1. 研究 概況 및 目的	1
1) 研究 概況	1
2) 研究 目的	4
2. 研究 範圍 및 方法	6
1) 研究 範圍	6
2) 研究 方法	9
II. 《老子》 副詞 用法	11
1. 副詞 用法 分析	11
1) 否定 表示	11
2) 時間·頻度 表示	27
3) 程度 表示	34
4) 狀態 表示	36
5) 範圍 表示	40
6) 推測 表示	47
7) 關係 表示	51
2. 副詞 用法 特徵	52
III. 《老子》 前置詞 用法	57
1. 前置詞 用法 分析	57
1) 時間 表示	58
2) 對象 表示	59
3) 場所 表示	65
4) 道具 表示	69

5) 方式 表示	70
6) 根據 表示	71
7) 原因 表示	74
8) 被動 表示	75
2. 前置詞句의 統辭 構造	76
1) 前置詞와 目的語의 結合 形態	76
2) 前置詞 目的語의 意味 分類	85
3) 前置詞句와 述語의 結合 形態	91
3. 前置詞 用法 特徵	96
IV. 《老子》 接續詞 用法	102
1. 接續詞 用法 分析	103
1) 竝列關係 表示	103
2) 連接關係 表示	107
3) 轉換關係 表示	119
4) 漸層關係 表示	122
5) 因果關係 表示	124
6) 假定關係 表示	134
7) 讓步關係 表示	138
8) ‘之’의 特殊用法	139
2. 接續詞 用法 特徵	146
V. 《老子》 助詞 用法	150
1. 助詞 用法 分析	152
1) 構造助詞	152
2) 語氣助詞	174
3) 接尾辭	205
2. 助詞 用法 特徵	208

VI. 結論	213
參考文獻	221
Abstract	228

《老子》의 虛詞 研究

金 愛 實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教授: 李 滢 鎬)

【國文 要約】

본 연구는 중국 戰國 시기 문헌인 《老子》의 虛詞를 정량 조사하여 그 용법을 일일이 분석하고, 도출한 데이터를 통해 《老子》에 쓰인 虛詞의 특징을 밝힌 논문이다.

《老子》는 《道德經》이라고도 불리며 총 81章, 5千字로 이루어졌다. 《老子》는 중국 戰國 시기의 언어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또한 고대 중국어는 허사의 용법을 알아야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老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철학·문헌학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어법 등 언어학적 연구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본 연구의 범위는 《老子》에 사용된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이다. 또한 판본의 차이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陳鼓應의 《老子注譯及評介》에 실린 <老子校定文>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본 연구 결과 얻어진 《老子》의 허사 용법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老子》의 부사 용법을 고찰하였다.

《老子》의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既’, ‘終’, ‘常’, ‘復’, ‘又’, ‘亦’,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등 34개가 있다. 이들은 부정·시간·정도·상태·범위·추측·관계 표시 등으로 쓰였다. 이 중에 부정 표시 용법이 6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출현한다.

둘째, 《老子》의 전치사 용법을 고찰하였다. 각 전치사의 용법과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老子》의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 등 6개가 있다. 전치사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어 문장의 부사어나 보어로 쓰인다. 부사어는 68회(58%) 쓰이고, 보어는 44회(38%) 쓰인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시간·대상·장소·도구·방식·근거·원인·피동을 표시한다. 전치사별 출현 빈도는 ‘以’가 63회(53%)로 가장 높고, 다음은 ‘於’가 43회(37%) 쓰였다. 이어서 ‘爲’·‘與’·‘當’은 각 3회, ‘自’는 1회이다.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는 전치사와 목적어의 결합 형태,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 분류, 전치사구와 술어의 결합 형태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뒤에 놓여 ‘전치사+목적어’의 구조로 쓰인다. 하지만, 전치사 ‘以’의 경우에 그 목적어는 전치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以+목적어’, ‘목적어+以’, ‘以+(목적어 생략)’의 출현 빈도는 29 : 6 : 28의 비율이다. 이는 ‘以’의 목적어가 전치되거나 생략되는 용례가 매우 빈번함을 의미한다.

《老子》에 쓰인 전치사의 목적어는 의미에 따라 유정물, 무정물, 동작 행위, 추상적 개념으로 분류된다. 추상적 개념 목적어는 40회(34%), 무정물 목적어는 20회(18%), 동작 행위 목적어는 16회(14%), 유정물 목적어는 12회(10%) 출현한다.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의 술어는 타동사 78회(67%), 자동사 16회(14%), 형용사 18회(16%)가 사용되었다. 또한 전치사 ‘以’의 경우에 술어가 생략된 용례도 4회(3%) 출현하였다.

셋째, 《老子》의 접속사 용법을 고찰하였다.

《老子》의 접속사는 且, 與, 而, 以, 斯, 則, 安, 然後, 而後, 而況於, 雖, 爲, 故, 是以, 是故, 其, 使, 若, 若使, ‘之’ 등 20개가 있다. 이들은 의미에 따라 앞뒤 두항의 병렬·연접·전환·점층·양보·인과·가정 관계를 표시한다. 또한 ‘주어+之+술어’의 구조도 다수 출현하였다. 접속사 중 ‘而’는 108회(32%)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연접·전환·병렬·점층 관계를 표시한다. 이어서 ‘故’는 57회(17%) 사용되며, 인과 관계를 표시한다. ‘以’는 39회(11%) 사용되며, 연접·인과·가정 관계를 표시한다. ‘是以’는 35회(10%) 사용되며 인과 관계를 표시한다. ‘之’는 32회

(9%) 사용되며,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주어+之+술어’ 구조를 이룬다. ‘주어+之+술어’는 독립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고, 문장성분 중의 하나로 쓰이거나 복문 중의 단문으로 사용된다.

넷째, 《老子》의 조사 용법을 고찰하였다.

《老子》의 조사는 ‘之’, ‘者’, ‘所’, ‘是’, ‘蓋’, ‘夫’, ‘載’, ‘故’, ‘乎’, ‘其’, ‘也’, ‘矣’,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然’, ‘焉’ 등 22개가 있다. 이들은 구조조사, 어기조사, 접미사로 분류된다.

구조조사는 ‘之’, ‘者’, ‘所’, ‘是’가 있다.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는 ‘之’, ‘者’, ‘所’가 있으며, 사서에 변화를 주는 구조조사는 ‘之’와 ‘是’가 있다.

어기조사는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이 있다. 이들은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문두 어기조사, 문중 어기조사, 문말 어기조사로 세분하였다. 문두 어기조사는 ‘蓋’, ‘夫’, ‘載’, ‘故’가 있다. 문중 어기조사는 ‘之’, ‘其’, ‘也’, ‘者’, ‘兮’, ‘矣’, ‘乎’가 있다. 문말 어기조사는 ‘乎’, ‘焉’, ‘兮’, ‘也’, ‘邪’, ‘與’, ‘矣’, ‘已’, ‘哉’, ‘者’, ‘也哉’, ‘也夫’가 있다.

접미사는 ‘然’, ‘焉’이 있다. 이들과 결합한 단어는 문장에서 술어나 부사어로 쓰인다.

본 연구는 《老子》에 쓰인 허사를 정량 조사하여 허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先秦 시기 허사의 용법을 밝히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허사 용법의 傳承 관계를 살피는 통시적 연구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 緒論

1. 研究 概況 및 目的

1) 研究 概況

《老子》는 春秋時代 楚나라 사람인 老聃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¹⁾ 先秦시기 道家를 대표하는 중국 고대의 哲學書로 중국의 전통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老子》는 《道經》과 《德經》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道德經》이라고도 불리며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韻文體의 형식의 문장으로 약 5천자로 쓰여져 그 분량은 많지 않지만 논리가 정연하고 내용이 심오하다.

《老子》의 注釋書는 그 수가 《論語》 다음으로 많다고 알려질 만큼 어떤 先秦 文獻에 못지않다.²⁾ 《老子》의 최초 注釋書는 戰國 말기 韓非子の 《解老》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漢 河上公의 《老子道德經章句》，魏 王弼의 《老子道德經注》，唐 傅奕의 《道德經古本篇》，南宋 范應元의 《老子道德經古本集註》 등의 善本이 있고, 그 외에 宋 蘇轍의 《道德眞經注》，明 憨山の 《老子道德經解》，清 魏源의 《老子本義》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馬叙倫의 《老子校詁》，高亨의 《老子正詁》，陳鼓應의 《老子註釋及評介》 등이 《老子》를 연구하고 정리한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래에 지하에 묻혀 있던 유물과 함께 문헌들이 출토되면서 《老子》의 판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1973년에 중국 湖南省 長沙市の 馬王堆 3號 漢墓에서 帛書 《老子》가 발견되었다. 이는 河上公本이나 王弼本보다 오래된 판본이다. 1993년에는 湖北省 荊門市 郭店村的 郭店 1號 楚墓에서 竹簡 804枚가 발

1) 《老子》는 비록 후대의 제자들에 의하여 增補되었을 것이나, 《老子》에 사용된 단어, 문형, 내용에 따른 사상 등을 통해서 볼 때 《老子》는 戰國시기 한 개인의 著作으로 볼 수 있다. 饒尚寬 譯註, 《老子》, 中華書局, 2016, 前言 7쪽.

2) 嚴靈峰이 편집한 《無求備齋老子集成》(1965)에는 350 종의 주석본을 소개하고 있다. 朴庸鎭·崔南圭·陳明鎬 共著, 《郭店楚墓竹簡1 老子考釋》, 圖書出版 德, 2011, 9쪽.

견되었다. 郭店楚簡에는은 16편의 先秦시기 문헌이 있는데, 그 중 竹簡本 《老子》(甲·乙·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이른 시기의 《老子》 판본이다. 이 竹簡本 《老子》에는 오늘날 通行本の 5분의 2에 해당하는 2,000여자가 수록되었다. 郭店楚墓의 墓主가 戰國시기 楚나라 사람이므로, 竹簡本 《老子》는 戰國시기의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9년 초 北京大學校에 西漢시기 竹簡이 기증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죽간은 漢武帝 후기 판본으로 隸書로 쓰였으며 3,346 枚 중 1,600여 枚가 온전하고, 복원을 거쳐 2,300 枚가 정리되었는데, 篇章 구조가 가장 잘 갖춰진 出土 《老子》 古本이 포함되어 있다.³⁾

이처럼 《老子》의 출토 문헌이 계속 발굴됨에 따라서 많은 학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帛書 《老子》에 관한 연구를 CNKI(中國知網)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문화, 문물, 서예, 판본 비교, 문자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趙鋒 注譯 《帛書老子》 등의 해석서가 출판되었다. 이어서 竹簡本 《老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자료는 2002년 李零의 《郭店楚簡校讀記(增訂本)》, 2003년 劉釗의 《郭店楚簡校釋》과 廖名春의 《郭店楚簡老子校釋》, 2010년 丁四新的 《郭店楚竹書老子校注》 등이 있으며, 일본 자료는 2004년 池田知久의 《郭店楚簡儒敎研究》, 2008년 李承律의 《郭店楚簡儒敎の研究》 등이 있다.⁴⁾ 국내 자료는 2003년 梁芳雄 集解의 《楚簡老子》, 2011년 朴庸鎭·崔南圭·陳明浩 共著의 《郭店楚墓竹簡1 老子考釋》, 2016년 荊州市博物館 編著·崔南圭 譯註의 《郭店楚墓竹簡》 등의 출토 문헌 해석서가 발간되었다.

문헌자료에 있어서는 2008년 王弼 注·樓宇烈 校釋의 《老子道德經注校釋》, 2015년 陳鼓應의 《老子註譯及評介》, 2016년 饒尚寬의 《老子》와 吳怡의 《新譯老子解義》 등이 있다. 특히 陳鼓應의 《老子註譯及評介》는 《老子》의 주석과 해석에 있어서 오늘날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이 큰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에 양희석의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은 《老子》의 對句와 押韻의 특징을 살려 문장 구성을 설명하고 字句 풀이와 해설을 하였으며, 韻文體 특징을 담아 번역을 하였고 다른 번역서에 비해 직역을 하여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2019년에 조은정의 《죽간에 반영된 『노자』

3)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編, 《北京大學藏西漢竹書·貳》, 上海古籍出版社, 2012, 前言.

4) 朴庸鎭·崔南圭·陳明鎬 共著, 《郭店楚墓竹簡1 老子考釋》, 圖書出版 德, 2011, 264-283쪽.

의 언어》는 郭店本 《老子》를 언어 문자학적으로 재조명하여, 郭店本 《老子》의 원문과 후대 판본의 차이를 통사적·어휘적·문자학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일부 글자가 후대에 어법적·어휘적·통사적으로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밖의 번역서로는 김학주의 《老子》, 김학목의 《老子 道德經 王弼注》, 김경수의 《老子譯註》, 김홍경의 《老子》, 김용일의 《노자도덕경 재해석》, 이석명의 《노자 도덕경 하상공장구》 등이 있다.

또한, 《老子》의 어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단행본으로는 중국에 趙榮珦의 《老子道德經語法讀本》이 있다. 趙榮珦은 王弼本을 底本으로 하고 기타 판본을 참고한 텍스트에 어법 분석을 하였다. 그밖에, 《老子》의 虛詞에 관한 단편논문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張玉金の <談今本《老子》中被刪掉的虛詞>와 <談《老子》中被替換的虛詞>, 張麗靜의 <郭店楚簡《老子》甲組虛詞探析>, 王志東의 <《老子》中介詞“以”的用法研究>, 孫惠惠·吳開兵的 <《老子乙本卷前古佚書》副詞初探>, 黃德寬의 <《老子》的虛詞刪省與古本失真> 등이 있다. 학위논문으로는 謝俊濤의 <《老子》句型研究>, 陳浩의 <《老子》虛詞研究>, 龍丹萍의 <郭店楚簡《老子》詞類研究>, 宋斌의 <馬王堆帛書《老子》虛詞研究>, 張艷의 <帛書《老子》詞匯研究>, 張鈺의 <《郭店楚墓竹簡》虛詞研究> 등이 있다.⁵⁾

국내에서는 7편의 《老子》의 허사 관련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 양만기는 <《老子》‘以’자 用法 考察>에서 주로 통행본 王弼本 《老子》를 분석 텍스트로 하여 先秦 시기에 활발히 사용된 ‘以’의 용법을 고찰하였다. 최남규는 <《郭店楚簡》의 ‘於(于)’의 용법에 대한 고찰>에서 《郭店楚簡》에 쓰인 ‘於’의 용법을 고찰하였다. 조은정은 <《老子》 여기서 ‘兮’ 고찰—출토문헌과 전래문헌 5종 판본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여기서 ‘兮’ 字의 판본별 사용 현황을 살피고 그 용법을 고찰하였다. 그밖에 김애실·이영호의 <《老子》의 前置詞句 研究>, 김애실·양만기의 <《老子》의 否定詞 用法 考察>과 <《老子》의 接續詞 用法 考察>, 김애실의 <《老子》의 語氣詞 用法 考察> 등이 있다.⁶⁾

기존의 국내외 연구 현황을 보면, 《老子》에 대한 어법적 연구는 중국의 경우

5) 中國智網(CNKI)에서 《老子》의 虛詞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단편논문 6편, 학위논문 6편이 검색되었다. 검색 사이트: www.cnki.net, 검색일: 2021. 4. 20.

6)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老子》의 虛詞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단편논문 7편이 검색되었다. 검색 사이트: http://www.riss.kr, 검색일: 2021. 4. 20.

에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老子》의 품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虛詞 용법에 관한 자세한 예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편 논문의 수량도 극히 적어서 注釋書, 思想, 文獻學 등의 연구에 비하면 어법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老子》에 관한 虛詞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 수량은 미미하며, 《老子》의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虛詞의 용법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老子》의 虛詞 연구는 戰國 시기의 고대 중국어 虛詞 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2) 研究 目的

《老子》는 대표적인 道家의 경전으로 철학적인 저서이다. 그동안 《老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철학, 문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던 반면, 어법 등 언어학적 연구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老子》는 늦어도 戰國 시기 초기의 언어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先秦시기 虛詞의 용법을 밝힘은 물론, 나아가 虛詞 용법의 傳承 관계를 살피는 通時的 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다.

고대 중국어는 한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하므로, 虛詞의 용법 분석은 문장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예(1) 載營魄抱一，能無離乎? 《老子·10章》

예(2) 禍兮福之所倚，福兮禍之所伏. 《老子·58章》

예(3) 今舍慈且勇；舍儉且廣；舍後且先；死矣! 《老子·67章》

예(1)에서 ‘載營魄抱一’의 ‘載’에 관하여, 王弼은 ‘載’를 동사로 보았으나, 陳鼓應은 ‘載’를 助語詞(조사에 해당)라고 하였다. 王弼은 ‘載, 猶處也. 營魄, 人之常居處也.’(‘載’는 ‘머무르다’와 같다. ‘營魄’은 사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하였다.⁸⁾ 王弼에 따르면, 예(1)은 ‘혼백을 지니고서 하나(一)를 껴안아 능히 떨어

7) 조은정은 《老子》는 문자언어학적 관점에서 戰國시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하였고, 陳鼓應은 《老子》는 늦어도 戰國시기 초 이전에는 이미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은정, <문자언어학적 각도에서 살펴본 《老子》판본의 선후 관계>, 《中語中文學》 第60輯, 2015, 166쪽. 陳鼓應, 《老子註釋及評介》, 中華書局, 2016, 22쪽.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석된다. 즉, 王弼은 ‘載營魄’에서 ‘載’를 동사로, ‘營魄’을 목적어로 보았다. 반면, 陳鼓應은 陸希聲의 《道德真經傳》의 ‘載, 猶夫也. 發言之端也.’(‘載’는 ‘夫’와 같다. 발언의 시작이다) 등을 근거로 ‘載’를 어조사로 보았다. 陳鼓應에 따르면, 예(1)은 ‘대저 혼백이 하나로 합하면 능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해석된다. 즉, 陳鼓應은 ‘載營魄抱一’에서 ‘載’는 어조사로 보고, ‘營魄’은 주어로, ‘抱’는 술어 동사로, ‘一’은 목적어로 보았다. 이처럼 ‘載’를 實詞로 보느냐 虛詞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게 된다.

예(2)에 쓰인 ‘兮’에 관해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는 文中語氣詞로 볼 수 있다. ‘재앙이여! 복이 기대는 바이로다. 복이여! 재앙이 숨어있는 바이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⁹⁾ 또 다른 견해는 주어의 뒤에서 休止를 표시하는 文中語氣詞로 보는 것이다.¹⁰⁾ ‘화는 복이 기대있는 바이며, 복은 화가 숨어있는 바이다.’라고 해석된다. 前者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고, 後者는 주어의 뒤에서 休止(잠시 멈춤)의 어기를 표시한다.

예(3)은 ‘且’가 3회 쓰인다. 이 예문의 ‘且’의 용법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다. 王弼, 陳鼓應은 ‘且’를 동사로 보았다. 王弼은 ‘且, 猶取也.’(且는 ‘취하다’는 뜻이다.)라고 注 하였다.¹¹⁾ 또한 陳鼓應도 ‘且’는 ‘取’라고 하였다.¹²⁾ 즉, ‘且’는 술어 동사이며, 그 뒤에 쓰인 ‘勇’, ‘廣’, ‘先’은 각각 ‘且’의 목적어로 본 것이다. 따라서 ‘舍慈且勇’은 ‘동사+목적어+동사+목적어’의 구조가 되어 ‘舍慈’(자애로움을 버리다)와 ‘且勇’(용감함을 취하다)가 서로 대응된다. 반면, 趙榮珣은 ‘舍慈且勇’ 문장을 ‘舍棄慈愛, 怎能勇敢?’(자애를 버리고 어떻게 용감할 수 있겠는가)이라고 해석하여, ‘且’를 의문대명사 ‘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³⁾ 또 다른 견해도 있다. 양희석은 ‘舍慈且勇’를 ‘자애를 버리고 장차 용감하면…’이라고 해석하여, ‘且’를 ‘將’(장차)의 의미인 부사로 보았다.¹⁴⁾

8)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22쪽.

9) 양희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66쪽.

10)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72쪽,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105쪽, 趙榮珣,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70쪽, .

11)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70쪽.

12) 陳鼓應, 《老子註釋及評介》, 中華書局, 2016, 296쪽.

13) 趙榮珣은 《古書虛字集釋》을 근거로 ‘且’를 ‘何’의 용법으로 풀이하었다. 趙榮珣,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320쪽.

14) 양희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02쪽.

위의 예와 같이 고대 중국어에서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학자들마다 해석에 차이가 생긴다. 특히 虛詞의 용법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해석이 달라지며 때로 誤譯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대 중국어의 虛詞는 용법이 다양하여 虛詞를 이해해야만 정확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중국어의 虛詞에 대한 용법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2. 研究 範圍 및 方法

1) 研究 範圍

본 연구는 《老子》에 사용된 虛詞를 연구범위로 삼는다. 虛詞와 實詞의 구분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異見이 존재한다. 대체로 명사, 동사, 형용사가 實詞이고, 전치사, 접속사, 조사가 虛詞라는 구분에는 학자들 간에 異見이 없지만, 대명사와 부사를 實詞 혹은 虛詞에 포함하는 데는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¹⁵⁾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을 대체하는 단어로서 크게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관형어로 쓰이며 가리키는 대상도 구체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명사를 實詞로 분류하고,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사는 實詞로 볼 것인지, 虛詞로 볼 것인지, 혹은 半實 半虛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¹⁶⁾

먼저 부사를 實詞로 분류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 前言 1쪽.

16) 박상령은 <고대한어 부사의 정의>에서 부사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實虛詞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부사를 實詞로 분류한 학자는 陳承澤의 《國文法草創》, 黎錦熙의 《新著國語文法》, 呂叔湘의 《中國文法要略》, 許世瑛의 《中國文法講話》, 殷國光的 《呂氏春秋詞類研究》 등이 있다. 둘째, 부사를 虛詞로 분류한 학자는 王力的 《中國現代語法》, 朱德熙의 《語法講義》, 劉景農의 《漢語文言語法》, 廖序東의 《文言語法分析》, 郭錫良의 《古代漢語》, 楊伯峻·何樂士의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廖振佑의 《古代漢語特殊語法》 등이 있다. 셋째, 부사를 半實半虛로 분류한 학자는 易孟醇의 《先秦語法》, 張能甫의 《鄭玄註釋語言詞類研究》 등이 있다. 박상령, <고대한어 부사의 정의>, 《인문사회과학연구》제20집, 2008, 119-121쪽.

呂叔湘은 《中國文法要略》에서 限制詞(부사에 해당)를 指稱詞, 關係詞, 語氣詞와 더불어 補助詞로 분류하였다. 補助詞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의미가 비교적 공허한 것으로, 實義詞를 도와서 자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補助詞 중에 指稱詞와 限制詞(부사에 해당)는 그 의미가 구체적이거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고 하였으니, 이 둘을 實詞로 본 것이다.¹⁷⁾

殷國光是 《呂氏春秋詞類研究》에서 부사를 實詞로 분류하고, 부사는 다른 단어의 수식을 받지 않으며 단독으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며,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충당된다고 하였다.¹⁸⁾

다음은 부사를 虛詞로 분류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朱德熙는 《語法講義》에서 부사는 부사어로만 충당될 수 있는 虛詞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부사는 덧붙여지는 것이지만 단독으로 문장을 만들 수 없고, 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을 뿐 관형어, 술어, 보어로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¹⁹⁾

劉景農은 《漢語文言語法》에서 부사를 虛詞로 분류하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부사는 기본적으로 부사어로 쓰이지만 ‘甚’ 같은 것은 보어로도 자주 쓰인다고 하였다.²⁰⁾

郭錫良·李玲璞은 《古代漢語》에서 부사는 부사어로만 쓸 수 있는 虛詞라고 하였다. 부사가 비록 일정한 단어의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 사물을 나타내거나, 동작 행위나 성질 상태를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하였다.²¹⁾

楊伯峻·何樂士는 《古漢語語法及其發展》에서 부사는 주로 술어를 수식하여 동작 행위 혹은 상태 성질의 각종 특징을 나타냄과 동시에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하여, 술어와 관계가 발생할 때의 방식, 상태, 범위 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였다. 또한 부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며, 더욱이 술어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였다.²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은 부사의 實·虛詞 구분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부사의 품사론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부사

17)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2014, 22-25쪽.

18) 殷國光, 《呂氏春秋詞類研究》, 華夏出版社, 1987, 21쪽, 272쪽.

19) 朱德熙, 《語法講義》, 常務印書館, 1982, 192쪽.

20)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64-65쪽.

21) 郭錫良·李玲璞主編, 《古代漢語》(下), 語文出版社, 1993, 645쪽.

2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26쪽.

를 구분할 때 형용사, 동사, 명사 등이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는 부사로 분류하지 않고, 오직 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부사로 분류한다. 또한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그중 하나의 의미가 오직 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는 단어도 부사로 분류한다. 아래의 용례를 살펴보자.

- (4) 多言數窮, 不如守中. 《老子·5章》
(많이 말하면 자주 막히게 되니, 가운데를 지키는 편이 낫다.)
- (5) 大音希聲. 《老子·41章》
(커다란 음악은 거의 소리 나지 않는다.)
- (6) 大道甚夷, 而人好徑. 《老子·53章》
(큰길이 심히 평탄한데도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 (7) 人多利器, 國家滋昏. 《老子·57章》
(사람들이 이로운 기물이 많아지면 나라는 더욱 혼란해진다.)
- (8)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老子·37章》
(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 (9) 人之迷, 其日固久. 《老子·58章》
(사람이 미혹된 지는 그런 날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위 예(4)-(6)은 형용사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용례이다. 예(4)의 ‘多’는 ‘많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예(5)의 ‘希’는 ‘드물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예(6)의 ‘甚’은 ‘심하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多’, ‘希’, ‘甚’은 형용사로서 술어의 앞에 놓여 부사어로 쓰인 것이므로, 본 연구는 이들은 부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7)-(9)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가 부사어로만 사용되는 용례이다. 예(7)의 ‘滋’는 ‘불어나다’는 뜻의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더욱’의 의미로서 부사로 쓰인 것이다. 예(8)의 ‘將’은 ‘장군’이라는 뜻의 명사가 아니라, ‘장차’의 의미로서 부사로 쓰인 것이다. 예(9)의 ‘固’는 ‘굳다’, ‘견고하다’는 뜻의 형용사가 아니라, ‘確實’(확실히)의 의미로 쓰인 부사이다. 이처럼 ‘滋’, ‘誠’, ‘固’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중 하나의 의미가 부사어로만 충당되므로 부사에 포함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에서 오직 부사어로만 쓰이는 부사는 그 의미가 약하고 문법적 기능이 강하며, 또한 否定 표시 부사와 같은 일부 부사를 제외하면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도 없으므로 虛詞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老子》에 쓰인 副詞, 前置詞, 接續詞, 助詞를 연구범위로 설정한다.

2) 研究 方法

본 연구는 《老子》에 출현한 虛詞를 定量 調査하여 그 용법을 분석하고, 《老子》에 사용된 虛詞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老子》는 언어적 修辭가 매우 精練한 韻文體의 문장으로 표현이 간결하며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해석에 차이가 있다. 또한 출토 문헌과 통행본 주석서에 따라 판본도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는 판본의 차이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陳鼓應의 《老子注譯及評介》에 실린 <老子校定文>을 분석 텍스트로 삼는다.²³⁾

아울러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陳鼓應의 《老子注譯及評介》·《老子今注今譯》, 饒尚寬의 《老子》, 吳怡의 《老子解義》, 趙榮珦의 《老子道德經語法讀本》, 김학주의 《老子》, 김학목의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양희석의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등의 저서를 참고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각 장절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 개황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老子》의 副詞 용법을 고찰한다. 부사는 부정·시간·정도·상태·범위·추측·관계 표시 부사 등 7종으로 구분하여, 그 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老子》의 前置詞 용법을 고찰한다. 전치사의 용법을 분석하고, 또한 전치사구의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老子》의 接續詞의 용법을 고찰한다. 접속사를 병렬, 연결, 전환,

23) 陳鼓應은 《老子》가 錯簡(죽간의 순서가 바뀜), 衍文(추가된 문장), 脫字 및 誤字가 많으므로, 왕필본을 底本으로 하고 竹簡本, 帛書本 및 傳奕本 등의 古本을 참고하고, 기존 학자들의 해설을 참고하여 수정한 《老子》校定文을 내었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介》, 中華書局, 2015, 429쪽.

접충, 양보, 인과, 가정 표시, ‘之’의 특수용법 등 8종으로 구분하여 서로 연결된 두 항의 어법적 관계를 고찰하고, 그 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老子》의 助詞 용법을 고찰한다. 조사는 구조조사, 어기조사, 접미사 등 3종으로 구분하여, 그 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6장 결론에서는 2장-5장에서 고찰한 虛詞의 용법별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예문의 해당 글자는 밑줄로 표시하고, 판본의 차이로 추가한 글자들은 대괄호 “[]”로 표시하기로 한다. 아래의 예와 같다.

- (10)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 (11) 從事於道者, [道者]同於道.

또한, 한중간 문법 용어 변환은 대체로 중국언어연구회의 <중국어 문법 용어 통일 시안>을 따랐다.²⁴⁾ 아래 <표1-1>과 같이 변환한다.

<표1-1> 한중 용어 변환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謂語	술어	單句	단문
賓語	목적어	複句, 復句	복문
定語	관형어	分句	절
狀語	부사어	主句	주절
介詞	전치사	從句	종속절
連詞	접속사	偏正結構	수식구조, 주종구조
結構助詞	구조조사	介賓結構	전목구조
語綴助詞	접사	固定短語	관용구
前綴助詞	접두사	承接	연접
后綴助詞	접미사	轉折	전환
短語, 詞組	구	遞進	접충
句子	문장	假設	가정

24) 중국언어연구회편, 《中國語 動詞 研究》, 1992, 213-218쪽.

II. 《老子》 副詞 用法

副詞은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쓸 수 있는 虛詞이며, 비록 어느 정도 어휘의 의미를 지니지만, 구체적인 사물, 동작 행위, 성질 상태를 나타낼 수는 없고, 다만 동작 행위나 성질 상태의 시간, 정도, 범위, 긍정, 부정, 정태, 어기를 나타낼 뿐이다.²⁵⁾

즉, 부사는 문장성분이 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이거나, 또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중 하나가 부사어로만 쓰이는 단어를 말하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도 없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술어나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데, 고대 중국어에서는 명사 술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老子》에 사용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既’, ‘終’, ‘常’, ‘復’, ‘又’, ‘亦’, ‘將’, ‘既’, ‘終’,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등 총 37개이다.

1. 副詞 用法 分析

《老子》에 사용된 부사는 술어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나 성질 상태의 否定, 時間·頻度, 程度, 狀態, 範圍, 推測, 關係 등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否定 表示

부정을 표시하는 부사는 술어의 앞에 쓰여서 否定이나 禁止를 나타낸다.²⁶⁾ 부

25) 郭錫良·李玲璞主編, 《古代漢語》(下), 語文出版社, 1993, 645쪽.

26)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320쪽.

정 부사는 甲骨文, 金文에서도 이미 다양하게 쓰이기 시작한 매우 오래된 것이다.²⁷⁾ 《老子》에 쓰인 부정부사는 ‘不’, ‘弗’, ‘無’, ‘非’, ‘未’, ‘勿’ 등이 있다.²⁸⁾ 이들을 의미에 따라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용법과 금지 부정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구분하였다.

(1) 陳述 否定 表示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부정 부사는 동작 행위나 상태의 부정을 표시하는데, 부정부사 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대중국어 ‘不’의 용법에 해당한다. 동사·형용사·명사 술어의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로 쓰인다. 《老子》에서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부정부사는 ‘不, 弗, 非, 未, 無’가 있다.

① 不

《老子》에는 부정부사 ‘不’가 236회 출현하며, 모두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용법으로만 사용된다. ‘不’는 동사(구), 형용사, 명사의 앞에서 부정을 표시한다. 《老子》에서 ‘不’가 수식하는 성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부정부사 ‘不’가 수식하는 문장구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不+형용사’, ‘不+동사+(목적어)’, ‘不+대명사+동사’, ‘不+조동사+동사(구)’, ‘不+명사’, ‘不+전치사(구)+동사’, ‘不+부사+동사’ 등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不’+형용사

부사 ‘不’는 형용사의 앞에 쓰여서 상태의 부정을 표시한다. 《老子》에는 38회 출현한다.

27) 張玉金에 따르면, 甲骨文의 부정부사는 ‘勿, 弜, 不, 弗, 毋, 非, 妹’ 등이 있으며, 金文의 부정부사는 ‘不, 弗, 弜, 毋, 非, 亡, 無, 靡, 莫’ 등이 있다.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學林出版社, 2001, 3쪽. 張玉金, 《西周漢語語法研究》, 商務印書館, 2004, 65-66쪽.

28) 《老子》에 쓰인 否定詞는 ‘不’, ‘弗’, ‘無’, ‘非’, ‘未’, ‘勿’ 등의 부정부사 외에 無定代詞 ‘莫’이 있다. 無定代詞는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莫’은 ‘沒有什麼人’, ‘沒有什麼東西’의 의미이며, 총 16회 출현한다. 김애실·양만기, <《老子》의 否定詞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73집, 2019, 17쪽.

- (1)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老子·5章》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로 여긴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로 여긴다.)
- (2) 其上不皦, 其下不昧, 繩繩不可名, 復歸於無物. 《老子·14章》
(그것은 위로는 밝지 않고, 아래로는 어둡지 않다. 끊임없이 이어져 이름 붙일 수 없으니 '사물 없음'으로 돌아간다.)
- (3) 夫亦將知止, 知止可以不殆. 《老子·32章》
(또한 장차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 (4) 信言不美, 美言不信. 《老子·81章》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예(1)의 '天地不仁'과 '聖人不仁'에서 부사 '不'는 형용사 '仁'을 부정한다. '以萬物爲芻狗'와 '以百姓爲芻狗'에서 '以A爲B'는 'A를 B로 여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의 두 절과 뒤의 두 절은 문장구조가 같다. 예(2)의 '其上不皦, 其下不昧'에서 대명사 '其'는 '道'를 가리킨다.²⁹⁾ 부사 '不'는 형용사 '皦'와 '昧'를 부정한다.

예(3)의 '知止可以不殆'에서 동목구 '知止(그칠 줄을 안다)'는 주어로 쓰였다. '可'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며, 뒤의 '不殆'를 수식한다. 이때 부사 '不'는 형용사 '殆'를 부정한다. 예(4)의 '信言不美, 美言不信'에서, 문두의 형용사 '信'과 '美'는 모두 명사 '言'을 수식하는 한정어로 쓰였다. 부사 '不'는 형용사 술어인 '美'와 '信'을 부정한다.

b. '不'+동사+(목적어)

《老子》에서 부사 '不'가 동사술어를 부정하는 경우는 144회이다. 동사의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 (5) 不尙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老子·3章》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만든다. 얻기 힘든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지 않게 만든다. 욕심낼만한 것을 내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만든다.)
- (6) 湛兮, 似或存.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老子·4章》
(깊구나, 아마도 혹 존재하는 듯하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나, 조물주의 선조

29) '其'는 앞 단락에 쓰인 '此三者不可致詰, 故混而爲一(이 세 가지는 세밀하게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래 하나로 뒤섞인 것이다)'의 '一'을 가리키는 것으로, '道'를 말한다. 趙榮珮,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57쪽.

인 듯하다.)

- (7) 持而盈之, 不如其已. 《老子·9章》
(움켜쥐고서 그것을 넘치게 채우는 것은 제때에 멈추는 것만 못하다.)
- (8)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老子·23章》
(본래 광풍은 아침 내내 이어지지 않고, 폭우는 종일토록 계속되지 않는다.)
- (9)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不去. 《老子·2章》
(남아주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해주어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네. 무릇 차지하지 않으니 그래서 (공로가) 떠나지 않네.)
- (10) 勝而不美, 而美之者, 是樂殺人. 《老子·31章》
(이겨도 찬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찬미한다면, 이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함이라.)
- (11) 知不知, 尙矣, 不知知, 病也. 聖人不病, 以其病病. 《老子·71章》
(알되 안다고 하지 않음이 최상이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함이 병폐이다. 성인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병폐를 병폐로 여기기 때문이다.)

예(5)에서 동사 ‘尙’, ‘貴’, ‘爲’, ‘見’는 모두 목적어를 수반한다. 각각 형용사 ‘賢’, 명사구 ‘難得之貨’, 명사 ‘盜’, 동사구 ‘可欲’은 목적어로 쓰였다. 부사 ‘不’는 동사의 앞에서 동작이나 행위를 부정한다. 예(6)에서 부사 ‘不’는 동사 ‘知’를 부정한다. ‘知’의 목적어는 명사구 ‘誰之子’이다.

예(7)의 ‘持而盈之’에서 ‘而’는 접속사, ‘盈’은 동사, ‘之’는 대명사이다. ‘不如其已’에서 ‘不’는 동사 ‘如’를 부정하며, 동사구 ‘其已’를 목적어로 취했다. ‘其’는 시간부사 ‘將, 將要’의 의미이고, ‘已’는 동사이다. 예(8)에서 ‘故’는 접속사로서 결과를 표시하는 ‘所以’의 의미이다. ‘飄風’과 ‘驟雨’는 문장의 주어이다. 동사 ‘終’의 목적어는 각각 ‘朝’와 ‘日’로 ‘아침을 다하다’, ‘하루를 다하다’로 직역할 수 있다.³⁰⁾ 부사 ‘不’가 동사 ‘終’을 부정하였다.

예(9)에서 부정부사 ‘不’와 ‘弗’은 각각 동사 ‘有’와 ‘恃’를 부정한다. ‘夫唯…, 是以…’는 因果 관계를 나타내는 고정격식이다. 예(10)의 ‘勝而不美’에서 ‘不’는 ‘美’를 부정하는데, ‘美’는 형용사의 意動 용법으로 쓰여 ‘아름답게 여기다, 찬미하다’로 해석된다. ‘而美之者, 是樂殺人.’에서 ‘者’는 어기조사로 복문에서 앞 문장의 끝에 사용되어 가정을 표시하며, ‘…한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¹⁾ ‘是’는 앞의 ‘美之’를 지칭하는 대명사이며 주어로 쓰였다.

30) 명사 ‘朝’, ‘日’은 술어동사 ‘終’과 관련된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 표시의 동목구는 대개 동작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나 종점을 나타낸다. 楊伯峻·何樂土,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547쪽.

31)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0쪽.

예(11)의 ‘知不知, 尙矣.’에서 ‘知不知’는 주어이다. 이 문장은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대개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知道却不自以爲知道(알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여기지 않는다)’이고, 둘은 ‘知道自己有所不知道(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안다)’이다.³²⁾ 전자는 전환관계의 복문, 후자는 동목구조의 문형으로 해석한 것이다. 본고는 전자의 해석에 따라, ‘知而不知(알되 안다고 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파악하였다.³³⁾ 부사 ‘不’는 동사 ‘知’를 부정한다. ‘尙矣’에서 ‘尙(높다, 숭상하다)’은 ‘上’과 통한다. 王弼本에는 ‘尙’이 아닌 ‘上’으로 썼고, 조사 ‘矣’자는 없다. ‘不知知, 病也.’의 ‘不知知’는 ‘不知而知(모르되 안다고 한다)’의 의미로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동사 ‘病’은 술어이다. ‘聖人不病, 以其病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절은 결과를 나타내고 뒷절은 원인을 나타낸다. 부사 ‘不’는 동사 ‘病’을 부정한다. ‘以其病病’에서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하기 때문이다’로 해석되며, ‘其’는 앞의 ‘聖人’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病病’에서 앞의 ‘病(병폐로 여기다)’은 동사이고, 뒤의 ‘病(병폐)’은 명사로서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c. ‘不’+대명사+동사

고대중국어의 부정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동사 술어의 앞에 놓인다. 이런 특수한 어순은 先秦시기의 문헌자료에 주로 보이는데 漢代 이후부터 점차 변화하여, 후에는 대다수가 점차 口語에서 사라지게 되었다.³⁴⁾ 《老子》에는 ‘不+대명사+동사’ 형태가 9회 출현한다.

(12)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老子·7章》

(천지가 길고 오래갈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

(13) 不自見, 故明; 不自是, 故彰; 不自伐, 故有功; 不自矜, 故能長. 《老子·22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밝고, 자신을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드러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이 있고, 자신을 숭상하지 않으므로 오래갈 수 있다.)

(14) 以其終不自爲大, 故能成其大. 《老子·34章》

32)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5쪽.

33) 양희석은 71장은 전후 문맥을 통해 老子 특유의 순환어법의 예로 보고, ‘知而不知(알되 안다고 하지 않는다)’, ‘不知而知(모르되 안다고 한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양희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15-317쪽.

3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785쪽.

(그가 끝내 자신을 크다고 여기지 않으니,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15) 是以聖人自知不自見；自愛不自貴，故去彼取此. 《老子·72章》

(그래서 성인은 자기를 알지만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기를 아끼지만 자기를 귀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16) 言有宗，事有君。夫唯無知，是以不我知. 《老子·70章》

(말에는 宗旨이 있고, 일에는 근거가 있거늘, 대저 (이 도리를) 아는 이가 없으니,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위 예(12)-(15)는 대명사 ‘自’가 목적어로 쓰인다. ‘自’는 동작 행위가 시사자 주체가 스스로 진행함을 표시하는 대명사이다.³⁵⁾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술어 동사의 앞에 놓이므로 위 예문은 ‘不+自+동사’의 구조이다. ‘예(12)의 ‘以其不自生’에서 대명사 ‘其’는 앞절의 ‘天地’를 가리키며 주어로 쓰였다. ‘不自生’은 ‘不爲自己而生’(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의 의미이다.³⁶⁾ ‘自’는 대명사이며 여기서는 ‘爲自’로 해석한다. 부사 ‘不’는 ‘自生’을 부정한다.

예(16)은 대명사 ‘我’가 목적어로 쓰인다. ‘不我知’는 목적어 ‘我’는 대명사이므로 부정부사 ‘不’와 동사 ‘知’의 사이에 놓인다.

d. ‘不’+조동사+동사(구)

부정부사 ‘不’가 ‘조동사+동사(구)’의 앞에서 동작 행위의 부정을 표시하는 경우는 35회 출현한다. 조동사는 ‘可’(19회), ‘敢’(6회), ‘足’(5회), ‘欲’(2회), ‘得’(2회), ‘能’(1회)이 쓰였다.

(17) 使夫智者不敢爲也。爲無爲，則無不治. 《老子·3章》

(저 똑똑한 자로 하여금 감히 작위하지 못하게 하리라.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18) 天地尚不能久，而況於人乎? 《老子·23章》

(천지도 오래가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임에랴!)

(19) 夫樂殺人者，則不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무릇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면,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 視之不足見，聽之不足聞，用之不足既. 《老子·35章》

(그것을 보아도 충분히 볼 수 없고, 그것을 들어도 솔깃하게 들리지 않으며, 그것을 아무리 사용해도 다 쓸 수 없다.)

3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69쪽.

36) 饒尚寬 譯註, 《老子》, 中華書局, 2016, 18쪽.

- (21) 是以聖人爲而不恃, 功成而不處, 其不欲見賢. 《老子·77章》
 (그래서 성인은 해취도 의지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나니, 그는 총명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 (22) 果而不得已, 果而勿強. 《老子·30章》
 (이룰지라도 부득이해서 한 듯하고, 이룰지라도 위세를 부리지 마라.)
- (23) 人之所畏, 不可不畏. 《老子·20章》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17)에서 ‘夫智者’는 사역동사 ‘使’의 목적어이다. ‘不敢爲也’에서 ‘敢’은 ‘감히 ...하다’는 뜻의 조동사이며, 동사 ‘爲’는 ‘일부러 행하다, 인위적으로 행하다’는 의미이다. 예(18)에서 ‘尙’은 부사이며 ‘不能久’를 수식한다. ‘能’은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며, ‘久’는 형용사의 사동용법으로 ‘오래 가게 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사 ‘不’가 ‘能久’를 부정한다. 예(19)에서 ‘夫樂殺人者’는 주어이다. ‘不可得’의 ‘可’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며 ‘得’은 동사이다. ‘不’는 동사구 ‘可得’을 부정하였다.

예(20)에서 ‘不’는 동사구 ‘足+동사’를 부정한다. ‘足’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조동사이며, 각각 동사 ‘見’, ‘聞’, ‘既’를 수식한다. ‘視之’, ‘聽之’, ‘用之’의 ‘之’는 대명사이며 ‘道’를 가리킨다.³⁷⁾ 예(21)의 ‘其不欲見賢’에서 ‘其’는 ‘聖人’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주어이다. ‘欲’은 조동사, ‘見’은 동사 술어, 형용사 ‘賢’은 목적어이다. ‘不’가 ‘欲見賢’을 부정한다.

예(22)에서 ‘果’는 동사이다. ‘而’는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不得已’는 동사구 술어이다. ‘不’는 부정부사, ‘得’은 동사의 앞에 쓰여 가능성을 나타낸다.³⁸⁾ ‘已’는 동사로 ‘그만두다’의 의미이다. 趙榮珣은 ‘得’을 ‘由(己)’를 뜻하는 동사로, ‘已’를 어기조사 ‘矣’의 용법으로 보았다.³⁹⁾ 이는 틀린 분석이다. 《孟子·滕文公章句下·九》의 예를 보면, “予豈好辯哉? 予不得已也.”(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는가? 나는 부득이해서 할 뿐이다.) 위 용례에서 ‘不得已’의 뒤에 어기조사 ‘也’가 문장 끝에 쓰여서 단정의 어기를 나타낸다. ‘已’를 어기조사로 분석할 수가 없

37) 陳鼓應은 ‘視之’, ‘聽之’, ‘用之’를 각각 ‘視它’, ‘聽它’, ‘用它’으로 해석하였고 ‘它’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道’이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88쪽.

38) ‘得’은 조동사로 ‘能’의 의미이며, 대개 객관적 상황의 가능 여부를 나타낸다. 楊伯峻, 《孟子譯注·孟子詞典》, 中華書局, 1992, 423쪽.

39) 趙榮珣,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35쪽.

다. 《老子·31章》의 “兵者, 不祥之器, 非君子之器, 不得已而用之, 恬淡爲上, 勝而不美.”에서 ‘不得已’도 ‘그만둘 수 없다’는 용법이다.⁴⁰⁾

예(23)에서 ‘人之所畏’는 명사구이며 문장의 주어이다.⁴¹⁾ ‘不可不畏’에서 부정부사 ‘不’가 두 번 사용되어 이중 부정의 구조를 갖는다. ‘可’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며, ‘不可不…’는 ‘…하지 않을 수 없다’의 의미이다. 《老子》에서 이중부정의 용례는 위 예(23)이 유일하다.

e. ‘不’+명사

‘不+명사’에서 ‘不’가 수식하는 명사는 ‘道’와 ‘德’이 쓰인다. 이때 ‘道’와 ‘德’은 모두 명사가 동사로 활용되어 술어로 쓰인 것이다. 5회 출현한다.

(24) 物壯則老, 是謂不道, 不道早已. 《老子·30章》

(만물은 굳세면 늙게 되는 법이니, 이를 일러 도답지 못하다고 말한다. 도답지 못하면 일찌감치 끝장난다.)

(25) 上德不德, 是以有德. 《老子·38章》

(상등의 덕은 덕스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는 것이다.)

예(24)에서 ‘不道’는 ‘不合乎自然之道(자연의 도에 부합하지 않다)’의 의미이다.⁴²⁾ 추상명사 ‘道’가 동사로 활용된 것이다. ‘不’가 명사의 앞에 쓰인 경우에, 때로 그 명사는 동사처럼 쓰인다.⁴³⁾ 《左傳·宣公二年》의 “晉靈公不君.(진의 영공은 군자답지 않다.)”에서 명사 ‘君’도 동사로 활용되어 부정부사 ‘不’의 수식을 받고 있다.

예(25)에서 ‘上德’의 덕은 명사이며, ‘不德’의 ‘德’은 ‘덕이라고 여기다’는 뜻으로 명사 ‘德’이 동사로 활용된 것이다.

40) 《老子·29장》에 출현하는 ‘不得已’는 다른 용례이다.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不得已.(장차 천하를 취하려고 역지로 한다면, 내가 보건대, 그것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不得’은 ‘不可得’이고, ‘已’는 어조사이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70쪽.

41) 楊伯峻은 “之’는 결구조사이고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놓이며 이 문장이 명사성구조가 되어 전체 문장의 주어, 빈어, 상어가 된다.”고 하였다.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9쪽.

42)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250쪽.

43)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21쪽.

f. ‘不’+전치사(구)+동사

부사 ‘不’가 ‘전치사(구)+동사’ 구조를 부정하는 경우가 3회 출현한다. 《老子》에는 다양한 전치사가 출현하는데, 부사 ‘不’와 연용되는 전치사는 ‘以’가 유일하다.

- (26)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强天下. 其事好還. ……善有果而已, 不以取强. 《老子·30章》
(도로써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무기로써 천하 사람을 강압하지 않나니 그 일은 되갚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중략) 훌륭하게 이루기만 할 뿐, 이것(무기)으로 강함을 취하려하지 않는다.)
- (27) 故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 《老子·65章》
(그러므로 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요, 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의 복이다.)

예(26)에서 ‘以道佐人主者’는 주어이다. ‘不以兵强天下’에서 부사 ‘不’는 ‘전치사+동사+명사’ 구조인 ‘以兵强天下’를 부정하고 있다. ‘不以取强.’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앞의 ‘兵(무기)’가 생략된 형태이다. 고대중국어에서 전치사는 대부분 목적어를 수반하지만 ‘以’, ‘爲’, ‘與’의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예(27)에서 ‘不以智治國’는 부사 ‘不’가 ‘전치사+명사+동사+명사’ 구조인 ‘以智治國’를 부정한다.

g. ‘不’+부사+동사

《老子》에서 부사 ‘不’가 ‘부사+동사’ 구조를 부정하는 용례는 2회이다. 이때 사용된 부사는 ‘相’만 쓰인다.

- (28) 夫兩不相傷, 故德交歸焉. 《老子·60章》
(저 두 가지는 서로 해치지 않으므로, 덕이 함께 여기로 돌아온다.)
- (29)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不相往來. 《老子·80章》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사람들은 늙어 죽도록 서로 오가지 않는다.)

예(28)의 ‘夫兩不相傷’에서 ‘夫’는 지시대명사이며 ‘夫兩’은 ‘鬼神’과 ‘聖人’을 가리킨다. 부정부사 ‘不’는 ‘부사+동사’ 구조인 ‘相傷’을 수식한다. 예(29)의 ‘不相往來’

來’도 ‘不’는 ‘부사+동사’ 구조인 ‘相往來’를 부정한다.

이상 진술부정을 나타내는 ‘不’가 수식하는 술어구조를 살펴보았다. 《老子》에서 ‘不’에 후행하는 성분은 매우 다양하다. 본고는 ‘不+형용사’, ‘不+동사+(목적어)’, ‘不+대명사+동사’, ‘不+조동사+동사’, ‘不+명사’, ‘不+전치사(구)+동사’, ‘不+부사+동사’로 세분하여 각각의 수량과 사용빈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4-1>과 같다.

<표4-1> 《老子》 ‘不’에 후행하는 성분의 구조별 분류

구분	不+동사(구)						不+ 형용사	不+ 명사	합 계	
	不+동사+ (목적어)		不+대명 사+동사	不+조동사 +동사(구)	不+전치사 (구)+동사	不+부사 +동사				소 계
	유	무								
수량	44	100	9	35	3	2	193	38	5	236
비율	19	42	4	15	1	1	82	16	2	100

《老子》에서 ‘不’는 총 236회가 사용되었는데, ‘不+동사+(목적어)’가 144회(61%)로 가장 많았다. 그중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100회)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44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음은 ‘不+형용사’가 38회(16%)이고, ‘不+조동사+동사’는 35회(15%), ‘不+대명사+동사’는 9회(4%), ‘不+명사’는 5회(2%), ‘不+전치사(구)+동사’는 3회(1%), ‘不+부사+동사’는 2회(1%)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② 弗

부사 ‘弗’은 동사 술어의 앞에서 동작 행위의 부정을 표시하며, ‘...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며, ‘不’에 해당한다. 갑골문과 금문을 제외한 上古文字에서 ‘弗’의 뒤에 오는 동사는 종종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 一說에는 ‘弗’은 ‘不...之’에 해당된다고 한다. 하지만 西漢 이후에는 종종 목적어를 수반하게 되어, ‘不’에 해당한다.⁴⁴⁾ 그

4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42-43쪽.

후 東漢 이후에 ‘弗’은 口語에서 소멸되어 ‘不’로 바뀌었다.⁴⁵⁾ 《老子》에서 부사 ‘弗’은 2회 출현한다.

(30)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不去. 《老子·2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는다. 무릇 차지하지 않으니, 그래서 (공이) 떠나지 않는다.)

예(30)에서 부사 ‘弗’이 동사 ‘居’를 부정하며 ‘…하지 않다’로 해석된다. 부사 ‘弗’은 ‘不+동사+之’의 기능에 해당하며, ‘弗居’는 ‘不居之(그것을 차지하지 않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非

부사 ‘非’는 명사 술어나 기타 술어의 앞에 쓰여 술어를 부정한다. 명사 술어를 부정하는 경우에, ‘非’는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서 ‘A는 B가 아니다’라는 부정판단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 ‘非’가 부사인지 동사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何樂士는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서 일종의 부정판단을 표시하여 ‘甲不是乙’을 뜻하는 경우에도 부사로 분류하며, 繫詞性 副詞이다”라고 하였다.⁴⁶⁾ 반면 楊伯峻은 “‘非’가 ‘不是’의 용법으로 쓰일 때는 否定性 繫詞로, 實詞이지 虛詞가 아니다.”라고 하였다.⁴⁷⁾ 즉, 何樂士는 ‘非’를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부정부사로 보았고, 楊伯峻은 ‘非’를 판단동사로 보고, 그 뒤의 명사성 단어를 그 목적어로 본 것이다.

本稿는 《老子》에 명사술어의 출현이 빈번하므로 ‘非’는 명사술어를 부정하는 부사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何樂士의 의견을 따라 ‘非’를 부사로 분류한다. 또한, ‘非’는 동사나 형용사 술어의 앞에서 동작 행위나 상태를 부정하는 용법으로도 쓰이며, ‘不’에 해당한다.

《老子》에서 부사 ‘非’는 10회 출현한다. ‘非’의 용법을 명사성 술어를 부정하는 경우, 주술구를 부정하는 경우, 동사구를 부정하는 경우, 語氣詞와 결합하여

45) 조은정, <죽간에 반영된 《老子》의 언어>, PB PRESS, 2019, 260-262쪽.

46)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224쪽.

47)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7쪽.

反問을 나타내는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a. 명사성 술어를 부정하는 경우

‘非’는 판단문에서 명사 술어의 앞에 쓰여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부정하며, ‘不是(…이 아니다)’로 해석될 수 있다.⁴⁸⁾ 《老子》에는 4회 출현한다.

(31)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老子·1章》

(‘道’를 道라 할 수 있으면 영원한 道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으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32) 兵者, 不祥之器, 非君子之器. 《老子·31章》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예(31)에서 ‘道可道’는 ‘명사+조동사+동사’의 주술구조로서 뒤의 ‘道’는 명사가 동사로 활용된 것이다. 즉 ‘도라고 말하다’는 의미이다. ‘非常道’에서 ‘常’은 형용사로 명사 ‘道’를 수식하는 한정어이다. ‘非’는 명사 술어인 ‘常道’를 부정하는 부사이다. ‘名可名’도 ‘명사+조동사+동사’의 주술구조이다. ‘非常名’의 ‘非’는 명사 술어인 ‘常名’을 부정하는 부사로 사용되었다.

예(32)에서 ‘兵者, 不祥之器’의 ‘兵者’는 문장의 주어인데, ‘者’는 명사의 뒤에서 제시나 멈춤을 나타내는 조사이다.⁴⁹⁾ ‘不祥之器’는 명사 술어이다. ‘不祥’의 뒤에 조사 ‘之’를 사용하여 명사 ‘器(기물)’을 수식하는 구조이다. ‘非君子之器’의 ‘非’는 명사구 술어인 ‘君子之器(군자의 기물)’을 부정한다.

b. 주술문을 부정하는 경우

‘非’는 ‘주어+술어’문의 앞에 쓰여, 그 뒤에 오는 문장에서 언급한 사실을 부정하는데, ‘~한 것이 아니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老子》에는 2회 출현한다.

(33) 非其鬼不神, 其神不傷人, 非其神不傷人, 聖人亦不傷人. 《老子·60章》

(그 귀신이 신령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48) ‘非’가 ‘不是’로 해석되지만, ‘不是’는 ‘부정부사+판단사’이고, ‘非’는 단순 부정부사로 그 뒤의 술어를 부정하는 것이다. 上古漢語의 판단문에서는 일반적으로 ‘是’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319-320쪽.

4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23쪽.

다.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33)의 ‘非其鬼不神’에서 ‘非’가 수식하는 것은 주술구조인 ‘其鬼不神’이다. ‘其’는 지시대명사가 한정어로 쓰여, 주어인 ‘鬼’를 수식한다. 명사 ‘神’은 형용사로 활용되어 술어로 쓰였다. ‘非’는 ‘其鬼不神’을 부정한다. 또한 ‘非其神不傷人’에서도 ‘非’도 주술구조인 ‘其神不傷人’을 부정한다.

c. 동사구를 부정하는 경우

《老子》에서 부사 ‘非’가 동사구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를 부정하는 경우는 1회 출현한다. ‘不’에 해당된다.

(34)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老子·6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이(道)로써 대중을 밝게 하지 않고, 장차 이로써 그들을 우직하게 하리라.)

예(34)에서 ‘古之’는 ‘시간사+조사’의 형태로 조사 ‘之’는 실제적인 뜻이 없다.⁵⁰⁾ ‘善爲道者’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된다. ‘非以明民, 將以愚之’에서 ‘非’는 ‘전치사+동사+목적어’ 구조인 ‘以明民’을 부정한다. ‘以’는 모두 동작 행위의 수단 방법을 인개하는데, ‘以’의 목적어는 모두 앞절의 ‘道’가 생략된 것이다.

d. 語氣詞와 결합하여 反問을 나타내는 경우

부사 ‘非’는 문장 끝의 語氣詞와 결합하여 반문을 나타낼 수 있으며, ‘不是……嗎(…이 아닌가?)’로 해석된다. 이때 결합한 語氣詞는 ‘邪’와 ‘乎’이다. 《老子》에는 3회 출현한다.

(35)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老子·7章》

(그래서 성인은 자기의 몸을 뒤로 하여도 몸이 앞서게 되고, 자기 몸을 밖으로 하여도 몸이 보존된다. 그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게 된다.)

50)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822쪽.

(36) 是以候王自稱孤, 寡, 不谷. 此非以賤爲本邪? 非乎? 《老子·39章》

(그래서 군주는 자신을 ‘고’, ‘과인’, ‘불곡’이라고 하니, 이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음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35)는 ‘是以..., 以..., 故...’의 구조로 ‘결과-원인-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是以’는 문두에서 앞 단락에서 말한 내용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非以其無私邪’에서 ‘非’는 어기조사 ‘邪’와 결합하여 반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以’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其’는 앞 절의 ‘성인’을 가리킨다. ‘無’는 ‘沒有’의 의미로 부정성을 나타내는 동사이며, ‘私’를 목적어로 취한다.

예(36)의 ‘此非以賤爲本邪? 非乎?’에서 ‘此’는 앞 문장 전체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앞절의 ‘非’는 어기조사 ‘邪’와 결합하여 ‘...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의미의 反語文이며, 뒷절의 ‘非乎?’의 ‘非’는 어기조사 ‘乎’와 결합하여 ‘豈不是嗎?(어찌 그렇지 않단 말인가?)’라는 의미의 反語文이다.

④ 未

부정부사 ‘未’는 동사의 앞에서 동작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아직 ...하지 않았다’의 의미이다. 《老子》에서 부사 ‘未’는 7회 출현한다.

(37) 未知牝牡之合而媵作, 精之至也. 《老子·55章》

(암수의 교합을 아직 모르는데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의 지극함이다.)

(38) 其安易持, 其未兆易謀.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老子·64章》

(그것이 차분할 적에는 잡기 쉽고, 그것이 아직 조짐이 없으면 피하기 쉽다. (중략) 아직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행하고,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예(37)에서 ‘未’는 동사 ‘知’를 부정한다. ‘牝牡之合’은 동사 ‘知’의 목적어이다. 예(38)의 ‘其未兆易謀’에서 ‘兆’는 동사로서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석한다. 부정부사 ‘未’가 ‘兆’를 부정한다. 뒷절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에서 ‘爲之’와 ‘治之’는 동목구조이며, ‘於未有’와 ‘於未亂’은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며, 문장의 보어로 사용된다. ‘未’가 동사 ‘有’와 ‘亂’을 부정한다.

⑤ 無

고대중국어의 ‘無’는 동사로 ‘沒有(없다)’의 뜻이 있다. 또한, ‘無有’의 ‘無’는 ‘有’를 부정하는 부정부사로 쓰이며, 동작 행위를 부정하는 부사 ‘不’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금지를 나타내는 ‘莫’이나 ‘不要’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⁵¹⁾ 그 외 ‘沒有人’, ‘沒有什麼’, ‘沒有東西’의 의미를 갖는 無定代詞로도 사용될 수 있다.⁵²⁾

여기서는 동작 행위를 부정하는 부사의 용법만 고찰하고자 한다. 《老子》에서 ‘無’가 진술 부정 표시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는 10회가 있다.

(39) 載營魄抱一，能無離乎? 《老子·10章》

(혼백이 ‘하나’를 껴안고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40) 謂天無以清，將恐裂，地無以寧，將恐廢，神無以靈，將恐歇，谷無以盈，將恐竭，萬物無以生，將恐滅，侯王無以正，將恐蹶。《老子·39章》

(하늘이 이것(道)으로써 맑지 못하면 아마 갈라질 것이다.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아마 터질 것이다. 신이 이것으로써 영험하지 못하면 아마 사라질 것이다. 계곡이 이것으로써 가득 채우지 못하면 아마 말라버릴 것이다. 만물이 이것으로써 성장하지 못하면 아마 소멸할 것이다. 군주가 이것으로써 바르지 못하면 아마 넘어져버릴 것이다.)

(41) 用其光，復歸其明，無遺身殃。《老子·52章》

(그 빛남을 사용하여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재앙을 끼치지 않는다.)

예(39)에서 ‘無’는 동사 ‘離(벗어나다)’를 부정하는 부사로 사용되었으며, ‘乎’는 의문을 표시하는 어기조사이다. 현대한어의 ‘嗎’에 해당한다.

예(40)는 ‘天’, ‘地’, ‘神’, ‘谷’, ‘萬物’, ‘侯王’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며, 모두 동일한 문장구조를 이룬다. ‘天無以清，將恐裂’에서 명사 ‘天’은 주어이며, ‘無以清(이로써 맑아질 수 없다)’에서 ‘無’는 동사구 ‘以清’을 부정하는 부사이다.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앞 단락의 ‘一(하나=道)’이 생략된 것이다. ‘清’은 형용사로 술어이다. 뒷절 ‘將恐裂’은 앞절의 결과를 표시한다. 뒤의 ‘地無以寧’, ‘神無以靈’, ‘谷無以盈’, ‘萬物無以生’, ‘侯王無以正’은 모두 앞절과 같은 구조로 쓰였다.

예(41)의 ‘復歸其明’에서 ‘復歸’는 동사로서 ‘...로 돌아가다’는 의미이며, ‘其明’은

51)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98쪽.

52) 《老子》에서 ‘無’는 부사 외에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인다. 無定代詞로 쓰인 용례는 3회(59장 2회, 78장 1회)이며, 동사로 쓰인 용례는 84회, 명사로 활용된 용례는 7회이다. 김애실·양만기, <<老子>>의 否定詞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73집, 2019, 23쪽.

동작 행위의 종점을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老子》에는 동사 ‘復歸’의 뒤에 바로 종점이 오는 형태는 2회 출현하는데, 전치사 ‘於’가 동작 행위의 종점을 이끌어주는 ‘復歸於…’의 형태는 3회가 보인다.⁵³⁾ ‘無遺身殃’에서 ‘無’는 동사 ‘遺’를 부정한다. ‘遺身殃’에서 ‘身’은 ‘遺’의 간접목적어로서 동작의 대상이고, ‘殃’는 직접목적어이다. 《老子》가 나온 戰國시기에 이중목적어 구조를 갖는 동사의 출현을 살펴볼 수 있다.

(2) 禁止 否定 表示

《老子》에서 동작 행위의 금지를 표시하는 부정부사는 ‘勿’과 ‘無’가 있다. ‘別’나 ‘不要’에 해당되며 ‘…하지 마라’로 해석된다.

① 勿

‘勿’은 주로 동작행위의 금지를 표시하는 부정부사로 사용된다. 《老子》에는 아래 예의 문장에만 출현하며, 4회가 쓰인다.

(42) 果而勿矜, 果而勿伐, 果而勿驕, 果而不得已, 果而勿強. 《老子·30章》

(이룰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이룰지라도 자랑하지 말며, 이룰지라도 교만하지 말라. 이룰지라도 부득이 해서 한 듯 하고, 이룰지라도 위세를 부리지 마라.)

예(42)에서 ‘勿’은 모두 동사 ‘矜’, ‘伐’, ‘驕’, ‘強’의 앞에 쓰여 금지의 명령을 표시하는 부정부사이다. ‘果’는 동사로서 ‘열매 맺다, 이루다’는 의미이며, ‘而’는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② 無

‘無’가 동작행위의 금지를 표시하는 부사로 사용되어, ‘…하지 마라’는 뜻으로

53) 《老子》의 14장에 ‘復歸於無物’ 1개의 예가 있고, 28장에는 ‘復歸於嬰兒’, ‘復歸於朴’ 2개의 예가 있다.

해석되며, 《老子》에는 2회 출현한다. 아래 예문에만 해당한다.

(43) 民不畏威, 則大威至.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 《老子·72章》

(백성들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크게 두려워할 것이 닥치게 되니, 그들이 머무는 것을 옥죄지 말고, 그들이 사는 것을 억압하지 마라.)

예(43)의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에서 ‘無’는 각각 동사 ‘狎’와 ‘厭’의 행위를 금지하는 부정부사이며, ‘...하지 마라’로 해석된다.

2) 時間·頻度 表示

《老子》에서 시간·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將’, ‘既’, ‘終’, ‘常’, ‘復’, ‘又’, ‘亦’ 등이 있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 동작 행위의 지속성, 동작 행위의 빈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⁵⁴⁾

(1) 動作 行爲의 發生 時間 表示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이 미래, 과거, 최종까지 지속됨을 표시하며, ‘將’, ‘既’, ‘終’이 쓰인다.

① 將

부사 ‘將’은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이 미래에 있음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동사술어의 앞에 쓰이며, 동작 행위 또는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장차 발생하려 하거나 발생하기를 희망함을 표시한다.⁵⁵⁾ 20회 출현한다.

(60)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不得已. 《老子·29章》

(장차 천하를 취하여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5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30-270쪽.

5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37-238쪽.

- (61)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 夫亦將知止, 知止可以不殆. 《老子·32章》
 (군주가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 그(만물) 또한 장차 멈출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멈출 줄 알면 이로써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 (62) 將欲歛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強之; 將欲廢之, 必固興之; 將欲取之, 必固與之. 《老子·36章》
 (장차 그것을 접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펼친다. 장차 그것을 약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강하게 한다. 장차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일으킨다. 장차 그것을 뺏으려 하면 반드시 그것을 준다.)
- (63)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鎮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將不欲. 不欲以靜, 天下將自正. 《老子·37章》
 (후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변화하되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로써 그것을 안정시킬 것이다. 무명의 통나무로 그것을 안정시키면, 그것은 또한 장차 욕심내지 않을 것이다. 욕심내지 않아서 차분하면, 천하가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 (64) 其致之也, 謂天無以清,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神無以靈, 將恐歇; 谷無以盈, 將恐竭; 萬物無以生, 將恐滅; 侯王無以正, 將恐蹶. 《老子·39章》
 (그것을 미루어서 말하자면, 하늘이 이것(道)으로써 맑지 못하면 아마 갈라질 것이다.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아마 터질 것이다. 신이 이것으로써 영험할 것이 없다면 장차 아마 그쳐 버릴 것이다. 골짜기가 이것으로써 가득 찰 것이 없다면 장차 아마 바닥나 버릴 것이다. 만물이 이것으로써 생겨날 것이 없다면 장차 아마 없어져 버릴 것이다. 군주가 이것으로써 점칠 것(貞)이 없다면 장차 아마 넘어질 것이다.)
- (65)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老子·6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하던 자는 이로써 백성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로써 그를 우직하게 하리라.)
- (66) 天將救之, 以慈衛之. 《老子·67章》
 (하늘이 장차 그를 구하고자 하면 자애로써 그를 지켜 준다.)
- (67) 若使民常畏死, 而爲奇者, 吾將得而殺之. 《老子·74章》
 (만약 백성들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기이한 짓을 한다면, 우리가 장차 그를 잡아죽일 것이다.)

위 예(60)-(67)에서 ‘將’은 동작행위의 발생 시간이 미래에 있음을 표시하는 부사이다. 예(60)과 (62)에서 ‘將’은 ‘打算’, ‘想要’의 뜻으로 모종의 동작을 하려고 함을 표시하며, 예(61)에서 ‘將’은 ‘必然’의 뜻으로 상황이나 추세의 필연성을 나타낸다.⁵⁶⁾

② 既

5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94쪽.

부사 ‘既’는 동작행위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표시하며, ‘已經’의 뜻이다. 부사 ‘既’의 유래는 이미 오래되어, 《詩經》, 《尚書》에도 많이 출현하고, 《左傳》이나 《論語》에도 적지 않다.⁵⁷⁾ 부사 ‘既’는 5회 출현한다.⁵⁸⁾

- (68) 始制有名, 名亦既有, 夫亦將知止. 《老子·32章》
(처음에 제정할 때에 이름을 둔다. 이름이 이미 있게 되면, 그 또한 장차 멈출 줄 알아한다.)
- (69) 天下有始, 以爲天下母. 既得其母, 以知其子; 既知其子, 復守其母, 沒身不殆. 《老子·52章》
(천하 만물은 시작(根源)이 있으니 이것으로 천하 만물의 어미라 여긴다. 이미 그 어미(道)를 얻었으니 이로써 그 자식(萬物)을 안다. 이미 그 자식을 알게 되니, 다시 그 어미를 지키면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다.)
- (70) 聖人不積, 既以爲人已愈有, 既以與人已愈多. 《老子·81章》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이미 이로써 남을 위하니 자신은 더욱 있게 되며, 이미 이로써 남에게 주니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위 예(68)-(70)에서 부사 ‘既’는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이 과거에 있으며 행위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終

부사 ‘終’은 동작행위가 최후의 결과까지 지속됨을 표시하는데, 이 용법은 《易經》, 《詩經》에 이미 쓰이며 현대중국어에도 여전히 사용된다.⁵⁹⁾ ‘결국’, ‘마침내’, ‘끝내’라고 해석된다. 《老子》에서 부사 ‘終’은 3회 출현한다.⁶⁰⁾

- (71) 以其終不自爲大, 故能成其大. 《老子·34章》
(그는 끝내 자신을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72) 是以聖人終不爲大, 故能成其大. … 是以聖人猶難之, 故終無難矣. 《老子·63章》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일을 하지 않으니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 그래서 성인은 오직 그 것을 어려워하므로 결국 어려움이 없게 된다.)

5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35쪽.

58) 《老子》에 사용된 ‘既’는 부사 용법 외에 ‘盡(다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예가 35장에 1회 보인다.

59)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62쪽.

60) 《老子》에서 ‘終’은 부사 용법 외에도 동사로 4회(23장 2회, 52장 2회), 명사로 3회(26장, 55장, 64장) 사용된다.

위 예(71), (72)는 부사 ‘終’의 뒤에 부정부사가 놓인 용례이다. 예(71)은 접속사 ‘以…, 故…’ 구문으로 ‘先因後果’ 관계의 인과복문이다. ‘終不自爲大’에서 부사 ‘終’은 부정부사 ‘不’를 수식한다. ‘自’는 대명사로서 동작행위가 자신이 진행한 것임을 표시한다.⁶¹⁾ 예(72)에서 ‘終’은 각각 부사 ‘不’와 ‘無’를 수식한다.

(2) 動作 行爲의 持續性 表示

동작 행위가 종종 끊임없이 발생함을 표시하는 부사를 말하며, 《老子》에는 ‘常’만 출현한다.

① 常

부사 ‘常’은 동사술어의 앞에서 동작 행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시간상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나타낸다.⁶²⁾ 총 15회 출현한다.

(73) 當使民無知無欲. 《老子·3章》

(늘 백성들로 하여금 앎이 없고 욕심이 없게 한다.)

(74) 是以聖人當善救人, 故無棄人; 當善救物, 故無棄物. 《老子·27章》

(그래서 성인은 항상 사람 구하기를 잘하므로, 남을 버리는 일이 없고, 항상 만물을 잘 구제하므로 만물을 버리는 일이 없다.)

(75) 道當無名, 樸. 雖小, 天下莫能臣. 《老子·32章》

(도는 늘 이름이 없는 통나무이다. 비록 작지만 천하에 신하 삼을 만한 이는 아무도 없다.)

(76) 當無欲, 可名於小. 《老子·34章》

(언제나 욕심이 없으니, ‘작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77) 道當無爲而無不爲. 《老子·37章》

(도는 늘 억지로 하고자 함이 없다.)

(78) 當知稽式, 是謂“玄德”. 《老子·65章》

(항상 이 법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79) 若使民當畏死, 而爲奇者, 吾將得而殺之, 孰敢? 當有司殺者殺. 《老子·74章》

(만약 백성들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거늘, 기이한 짓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누가 감히 하는가? 늘 죽임을 맡는 자가 있어 죽일 것이다.)

6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69쪽.

6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56쪽.

- (80) 天道無親, 常與善人. 《老子·79章》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나니 늘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
- (81) 聖人常無心, 以百姓心爲心. 《老子·49章》
(성인은 늘 사심이 없어서, 백성의 마음을 제 마음으로 삼는다.)
- (82) 夫莫之命而常自然. 《老子·51章》
(대저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렇게 된다.)
- (83) 取天下常以無事. 《老子·48章》
(천하를 취하려면, 늘 '일 없음'으로 해야 한다.)
- (84)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늘 차분함으로 수컷을 이기며 차분함으로써 아래가 된다.)
- (85)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들이 일을 할 때에는 늘 거의 이루어질 때 실패한다.)

위 예(73)-(81)에서 ‘常’은 술어동사의 앞에 쓰여 동작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표시한다. 예(82)에서 ‘常’은 부사 ‘自’(스스로, 저절로)의 앞에 쓰였으며, ‘然’은 대명사로서 ‘그러하다’는 뜻이다. 예(83)의 ‘常’은 전치사구 ‘以無事’의 앞에 쓰였다. 이 문장은 술어가 생략된 형태이며, 고대중국어에서 전치사 ‘以’가 사용된 문장은 종종 술어가 생략된 형태가 출현한다. 예(84)에서 ‘常’은 전치사 ‘以’의 앞에 쓰였다. ‘靜’은 ‘以’의 목적어이며, ‘勝牡’은 술목 구조이다. 예(85)에서 ‘常’은 전치사 ‘於’의 앞에 쓰였다. 전치사구 ‘於幾成’은 동작 행위의 시간을 표시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而’는 부사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연결관계 표시 접속사이며, ‘敗之’는 술목 구조이다.

(3) 動作 行爲의 頻度 表示

《老子》에서 동작 행위의 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復’, ‘又’, ‘亦’이 있다.⁶³⁾

① 復

부사 ‘復’는 동작 행위가 재차 혹은 여러 차례 중복출현함을 표시한다.⁶⁴⁾ 《老

63) 동작 행위의 횟수가 빈번함을 나타내는 ‘多’와, 횟수가 매우 적음을 나타내는 ‘稀(希)’와 ‘少’ 등이 술어의 앞에 놓인 경우는, 형용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사 수량에 포함하지 않았다.

6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63쪽.

子》에 3회 사용된다.

(86) 正復爲奇, 善復爲妖. 《老子·58章》

(바른 것이 다시 샷된 것이 되고, 선함이 다시 악한 것이 된다.)

(87) 使民復結繩而用之. 《老子·80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매듭을 맺어 그것을 쓰게 한다.)

위 예(86)에서 ‘復’는 ‘爲奇’와 ‘爲妖’를 수식한다. ‘奇’는 ‘邪’(삿되다)를 뜻하고, ‘妖’는 ‘不善’ 즉 ‘惡’을 뜻한다.⁶⁵⁾ 예(87)에서 ‘復’는 ‘結繩’을 수식하여 동작 행위가 다시 중복 출현함을 나타낸다. ‘結繩’은 ‘새끼를 엮어서 일을 기록하다(結繩記事)’는 뜻으로, 백성들을 결승 문자를 쓰던 원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함을 말한다.⁶⁶⁾

② 又

부사 ‘又’도 상황이 중복출현함을 표시하며, 2회 출현한다.

(88) 玄之又玄, 衆妙之門. 《老子·1章》

(가마득하고 또 가마득하니, 갖가지 오묘함의 문이라네.)

(89)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老子·48章》

(줄이고 또 줄이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예(88)과 예(89)의 첫 문장은 서로 구조가 비슷하다. 예(88)의 ‘玄之又玄’과 예(89)의 ‘損之又損’에 쓰인 부사 ‘又’는 앞의 상황이 반복 출현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之’는 대명사가 아니라, 음절을 추가하여 어음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라고 하겠다.

③ 亦

65) 嚴靈峰說: “奇, 邪也. ‘妖’, 不善, 惡也. 言正復轉爲邪, 善復轉爲惡.”(‘奇’는 사악함이다. ‘妖’는 불선이고 악한 것이다. 바름이 다시 샷됨으로 변하고, 선함이 다시 악함으로 변한다는 말이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69쪽.

66)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 1993, 548쪽.

부사 ‘亦’은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同類 관계임을 표시하며, ‘也’의 의미로 해석한다.⁶⁷⁾ 《老子》에 11회 출현한다.

- (90) 同於德者, 道亦德之; 同於失者, 道亦失之. 《老子·23章》
 (德과 하나 된 자는 道도 또한 그를 얻게 되고, 잃음과 하나 된 자는 道도 또한 그를 잃게 된다.)
- (91) 故“道”大, 天大, 地大, 人亦大. 《老子·25章》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 또한 크다.)
- (92) 始制有名, 名亦既有, 夫亦將知止, 知止可以不殆. 《老子·32章》
 (처음에 따름질하면 이름이 생긴다. 이름 또한 이미 있게 되었다면, 이 또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그칠 줄 알면 이로써 위태롭지 않게 된다.)
- (93) 夫亦將不欲, 不欲以靜, 天下將自正. 《老子·37章》
 (그 또한 장차 욕심내지 않아야 한다.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안정시키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 (94) 善者, 吾善之; 不善者, 吾亦善之; 德善. 信者, 吾信之; 不信者, 吾亦信之; 德信. 《老子·49章》
 (선한 자는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자는 내가 또한 그를 선하게 대한다. (그들이) 선함을 얻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는 내가 그를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내가 또한 그를 진실하게 대한다. (그들이) 진실함을 얻기 때문이다.)
- (95) 人之生生, 動之死地, 亦十有三. 《老子·50章》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함부로 행동하여 죽을 곳으로 가는 경우가 또한 열에 셋이 있다.)
- (96) 聖人亦不傷人. 《老子·60章》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 (97) 知此兩者亦稽式. 《老子·65章》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또한 ‘법칙’이다.)

위 예(90)–(97)에 사용된 부사 ‘亦’은 앞항과 동류 관계임을 표시하며 ‘~도 또한’의 의미이다.

예(90)의 각 문장은 판본마다 달라 의견이 분분한데, 帛書乙本을 근거로 수정한 것이다.⁶⁸⁾ 예(91)에서 ‘人亦大’의 ‘亦’은 주어 ‘人’이 앞항의 ‘道’, ‘天’, ‘地’와 동류임을 나타낸다. 예(94)에서 ‘善者’와 ‘不善者’의 ‘善’은 형용사로서 ‘선하다’는 뜻이다.⁶⁹⁾ ‘德善’과 ‘德信’의 ‘德’은 동사 ‘得’이 假借된 것이다.⁷⁰⁾ ‘吾亦善之’의 ‘善’은

6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22쪽.

68)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47쪽.

69)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84쪽.

70)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37쪽.

형용사의 의동 용법으로 쓰여 목적어 ‘之’를 취한다. 예(97)에서 ‘稽式’은 ‘法則’을 뜻한다.⁷¹⁾

3) 程度 表示

정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 술어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나 상태가 도달한 정도를 표시한다.⁷²⁾ 정도가 점차 심화됨을 의미하는 ‘彌’, ‘愈’, ‘滋’ 등이 사용된다.⁷³⁾

(1) 彌

부사 ‘彌’는 형용사의 앞에 쓰여 정태나 수량의 증가를 표시하며, ‘越’이나 ‘更加’로 해석된다.⁷⁴⁾ 3회 출현한다.

(98) 其出彌遠, 其知彌少. 《老子·47章》

(그 나감이 멀어질수록, 그 앎은 더욱 적어진다.)

(99)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老子·57章》

(천하에 꺼리고 피하는 것이 많아지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

위 예(98)에는 부사 ‘彌’이 2회 사용되는데 오늘날 ‘越A越B’ 용법에 해당하며 ‘A할수록 더욱 B하다’는 뜻이다. 예(99)에서 ‘彌’는 형용사 ‘貧’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而’는 뒷항이 앞항의 결과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2) 愈

부사 ‘愈’는 술어의 앞에 쓰여 원래보다 점차 더 높은 정도로 발전해 나감을 표

71)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9쪽.

7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70쪽.

73) 本稿는 甚(심하다), 至(지극하다) 등은 형용사로 이며, 이들이 술어의 앞에 쓰일 때 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부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7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361쪽.

시하며, ‘越’이나 ‘更加’ 등의 의미이다.⁷⁵⁾ 3회 출현한다.

(100) 虛而不屈, 動而愈出. 《老子·5章》

(비어있지만 다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101) 聖人不積, 既以爲人已愈有, 既以與人已愈多. 《老子·81章》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이미 이로써 남을 위하니 자신은 더욱 있게 되며, 이미 이로써 남에게 주니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예(100)에서 ‘愈’는 동사 ‘出’의 수량이 점차 증가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虛而不屈’의 ‘而’는 앞뒤 항이 전환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不屈’은 ‘不竭’(다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屈’의 음은 ‘掘[jué]’이며 ‘竭[jié]’(다하다)을 뜻한다.⁷⁶⁾ ‘動而愈出’의 ‘而’는 뒷항이 앞항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순승관계 표시 접속사이다.

예(101)에서 ‘聖人不積’의 ‘積’은 ‘藏’의 의미이며 ‘不積’은 곧 ‘虛’이다.⁷⁷⁾ ‘既以爲人已愈有’에서 ‘既以爲人’과 ‘已愈有’는 전환관계이다. ‘既’는 시간 표시 부사이며, ‘以’는 전치사, ‘爲’는 동사술어, ‘人’은 목적어로 ‘남’을 뜻한다. ‘已’는 1인칭 대명사로서 주어이며, ‘愈’는 ‘更加’의 의미로 동사 ‘有’의 수량이 점차 증가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뒤 문장 ‘既以與人已愈多’도 앞의 문장과 같은 구조이다. ‘與人’은 동목구조이며, ‘愈’는 형용사 ‘多’의 정도가 점점 심화됨을 나타낸다.

(3) 滋

형용사나 동사의 앞에 쓰여 정도의 심화나 추세의 발전을 표시하며, ‘更加’, ‘越’, ‘漸’ 등으로 해석된다.⁷⁸⁾ 3회 출현한다.

(102) 人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老子·57章》

(사람들이 이로운 기물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더욱 어지러워진다. 사람들에게 잔재주가 많아질수록 기이한 것들이 더욱 일어난다. 법령이 더욱 밝아질수록 도적이 많이 있게 된다.)

7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88쪽.

76)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73쪽.

77) 吳怡은 “聖人不積은 곧 ‘虛’이다. 즉 그 마음을 비우고, 그 욕심을 비워야 비로소 ‘信’을 말하고 ‘善’을 행하고 참을 ‘알게’된다.”고 해설하였다.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553-554쪽.

7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68쪽.

위 예(102)에는 부사 ‘滋’가 3회 쓰이는데 형용사 ‘昏’, 동사 ‘起’, 형용사 ‘彰’의 앞에 쓰여 정도가 점점 심화되거나 동작 행위의 추세가 점차 발전됨을 나타낸다. ‘人多利器’의 ‘多’와 ‘人多伎巧’의 ‘多’는 동사로 활용되어 ‘많이 있다’의 의미이며 각각 ‘利器’과 ‘伎巧’를 목적어로 취한다. ‘盜賊多有’의 ‘多’는 형용사로서 술어동사 ‘有’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4) 狀態 表示

상태 부사는 주로 동작 행위의 상태나 방식을 표시한다. 주로 동사의 앞에 출현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들이 나타내는 함의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이유는 상태부사가 대부분 검류 부사에 속하여 형용사나 동사로 쓰일 때와 의미가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으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주 나타나며, 그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러하며, 단기간에 쓰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쓰이기 때문이다.⁷⁹⁾

하지만 동사·형용사·대명사 등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부사가 아니라 본래의 품사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고대한어에서 부사로 규정할 수 있는 의미 항목은 오직 부사어로만 쓰여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다른 품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것과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⁸⁰⁾ 本稿는 동사·형용사·대명사 등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부사에 포함하지 않고, 일부 검류 부사만 부사 수량에 포함하였다.

《老子》에 사용된 상태부사는 ‘固’, ‘誠’, ‘豈’, ‘自’, ‘故’ 등이 있다.

(1) 固

부사 ‘固’는 상황의 진실성을 표시하여 ‘確實’, ‘實在’의 의미로 쓰이거나, 상황이 본래 이러함을 표시하여 ‘本來’, ‘原來’의 의미로 쓰이거나, 동작이나 상황의 필연

79)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288쪽.

80) 안기섭·정성임·박상령, <古代漢語 문장성분과 품사에 관한 논의(1)>, 中國人文科學 32輯, 2006, 2쪽.

성을 나타내어 ‘一定’, ‘必然’ 등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⁸¹⁾ 《老子》에서 부사 ‘固’는 총 5회 출현한다.⁸²⁾

(103) 將欲歛之，必固張之；將欲弱之，必固強之；將欲廢之，必固興之；將欲取之，必固與之。《老子·36章》

(장차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베풀어야 하고, 약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주어야 하며, 망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북돋워 주어야 하고,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104) 人之迷，其日固久。《老子·36章》

(사람이 미혹된 지는 그런 날이 참으로 오래되었다.)

위 예(103)에는 부사 ‘固’가 3회 출현하는데 모두 상황의 필연성을 나타내며 ‘반드시’로 해석한다. 부사 ‘必’과 같은 용법이다. 예(104)에 사용된 ‘固’는 상황의 진실성을 표시하며 ‘확실히’, ‘정말로’의 의미이다.

(2) 誠

부사 ‘誠’은 술어의 앞에서 어기 강조를 표시하며 술어가 가리키는 진실성을 강조한다. ‘確實是’, ‘眞是’ 등으로 해석한다. ‘誠’이 부사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戰國시기로 보고 있다.⁸³⁾

(105) 古之所謂“曲則全”者，豈虛言哉！誠全而歸之。《老子·22章》

(옛날에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참으로 온전해져서 그것으로 돌아간다.)

위 예(105)의 ‘誠’은 부사로서 형용사 술어 ‘全’을 수식한다. 이 ‘誠’은 형용사 ‘성실하다’가 부사어로 쓰인 것이 아닌, ‘진실로’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로 보았다.

(3) 豈

8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80쪽.

82) 《老子》에서 ‘固’는 부사 외에 형용사로 2회(55장, 67장), 동사로 1회(59장) 출현한다.

8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4쪽.

부사 ‘豈’는 반문의 어기를 강조하는데 쓰이며, ‘難道’에 해당한다.⁸⁴⁾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 (106) 古之所謂“曲則全”者，豈虛言哉！《老子·22章》
(옛날에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위 예(106)의 ‘豈虛言哉’에서 ‘豈’는 반문의 어기를 나타내며 어기조사 ‘哉’와 호응된다. ‘豈…哉’는 ‘설마 ~란 말인가’의 의미이다.

(4) 自

부사 ‘自’는 몇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동사 술어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하여 ‘親自’, ‘親身’ 등으로 해석되거나, 술어가 가리키는 사태가 원래 고유한 것임을 나타내어 ‘本來’, ‘原來’, ‘確實’ 등으로 해석되거나, 술어가 서술한 것이 순리 자연하고 사리에 부합한 것임을 나타내어 ‘自然’, ‘肯定’ 등으로 해석된다.⁸⁵⁾ 14회 출현한다.

- (107) 功成事遂，百姓皆謂：“我自然。”《老子·17章》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뜻대로 되면, 백성들은 모두 말한다. “나는 본래 그러하다.”라고.))
(108) 希言自然。故飄風不終朝，驟雨不終日。《老子·23章》
(드물게 말을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본래 광풍은 아침 내내 이어지지 않고, 폭우는 종일토록 계속되지 않는다.)
(109) 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老子·25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본래 그러함’을 본받는다)
(110) 道之尊，德之貴，夫莫之命而常自然。《老子·51章》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저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항상 저절로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111)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老子·64章》
(만물이 저절로 그렇게 됨을 도우려는 것이지, 감히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

8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14쪽.

8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69-870쪽.

- (112)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天地相合, 以降甘露, 民莫之令而自均. 《老子·32章》
 (군주가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복종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니, 백성들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될 것이다)
- (113)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 不欲以靜, 天下將自正. 《老子·37章》
 (후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 욕심내지 않아서 차분하면, 천하가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 (114) 故聖人云: “我無爲, 而民自化; 我好靜, 而民自正; 我無事, 而民自富; 我無欲, 而民自樸.”
 《老子·57章》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길, “내가 하고자 함이 없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가 되고, 내가 차분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내가 일이 없으면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 (115) 天之道, 不爭而善勝, 不言而善應, 不召而自來. 《老子·73章》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위 예(107)-(111)에서 부사 ‘自’는 모두 ‘然’과 함께 쓰였다. ‘然’은 ‘如此’의 뜻으로 대명사이다. 《老子》에서 ‘自然’ 두 글자가 쓰인 용례는 위 예(107)-(111)에서 보여주듯이 총 5회이다. 吳怡는 예문의 ‘自然’을 字義로 분석하여 ‘自’는 ‘自己’이고, ‘然’은 ‘如此’이므로 ‘自己如此’라고 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위 예(107)-(111)에 쓰인 ‘自然’의 의미는 모두 천지 만물의 본성이 이와 같아서 인위적이지 않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⁸⁶⁾ 예(112)-(115)에서 부사 ‘自’는 술어를 수식하는데, 술어가 서술한 바가 순리 자연 한 것임을 나타낸다.

(5) 故

‘故’는 술어의 앞에 쓰여 사태가 원래 또는 확실히 이러함을 표시하는 부사로 쓰일 수 있다. ‘固’와 의미가 같으며, ‘本來’, ‘確實’의 의미로 해석된다.⁸⁷⁾ 1회 출현한다.

- (116) 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老子·23章》
 (드물게 말을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본래 광풍은 아침 내내 이어지지 않고, 폭우는 종일토록 계속되지 않는다.)

86)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146-148쪽.

8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82쪽.

예(116)에서 ‘故’는 부사로서 ‘原來’의 의미이다.⁸⁸⁾ 예문의 ‘故’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접속사로 볼 수 없으며, 발언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로 쓰였다고 할 수도 없다. ‘原來’의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5) 範圍 表示

범위 부사는 모두 술어를 수식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주로 주어나 목적어가 술어의 동작 행위에 참여할 때의 범위를 표시한다.⁸⁹⁾ 《老子》에서 범위를 표시하는 부사는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등이 있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동작 행위의 범위가 전체나 공통을 표시하는 경우, 동작 행위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動作 行爲 範圍가 單獨 또는 制限的임을 表示

술어의 앞에서 모종의 상황을 제한함을 표시하며, 술어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의 범위가 작거나 개별적임을 표시한다.⁹⁰⁾ ‘獨’, ‘唯’, ‘惟’, ‘猶’, ‘各’이 있다.

① 獨

부사 ‘獨’은 동작 행위의 범위가 한사람 단독임을 나타내고, ‘僅僅’이나 ‘惟獨’의 의미로도 쓰인다.⁹¹⁾ 7회 출현한다.

(117) 衆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 我獨泊兮, … 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 … 俗人昭昭, 我獨昏昏. 俗人察察, 我獨悶悶. … 衆人皆有以, 而我獨頑且鄙. 我獨異於人, 而貴食母. 《老子·20章》

(못 사람들은 희희낙락하여 마치 큰 잔치를 벌여 놓은 것 같고, 마치 봄날 누각에 올라간

88) 趙榮珣,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01쪽.

89)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04쪽.

9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14쪽.

91)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26-27쪽.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답답하구나. ... 못 사람들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나만 홀로 잃어버린 듯하다. ... 속인들은 초롱초롱한데 나만 홀로 어수룩하고, 속인들은 또렷한데 나만 홀로 감 잡하구나. ... 못 사람들은 모두 쓰임이 있는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촌스럽다. 나만 홀로 남들과 달라서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

(118) 寂兮寥兮, 獨立不改. 《老子·25章》

(고요하고 아득하도다. 홀로 서서 변하지 않는다네.)

위 예(117)에 '獨'이 6회 쓰이는데, 모두 '오직'의 의미로 술어의 범위가 단독임을 표시한다. 예문의 '我'는 비록 노자가 저자의 말투로서 한 말이지만, 道를 구하는 선비로 이해할 수 있다.⁹²⁾ 예(118)의 '獨'도 동사 '立'의 범위가 단독임을 표시하는 부사이다.

② 唯

'唯', '維', '惟'는 본래 각각 다른 뜻이 있지만, 후에 이 세 글자의 발음이나 형태가 매우 비슷하여 서로 혼용하여 사용된다. 《老子》에는 '唯'와 '惟'가 있다. 부사 '唯'는 범위를 표시하는 '獨', '僅', '惟獨'의 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원인을 표시하는 부사로 사용되는데 '正因爲'(바로 ~ 때문에), '只因爲'(오직 ~ 때문에)로 해석된다.⁹³⁾ 총 13회 출현한다.

(119) 夫唯道, 善貸且成. 《老子·41章》

(대저 오직 도만이 잘 빌려주고 또한 이루어낸다.)

(120)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일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121) 夫唯齋, 是謂早服. 《老子·59章》

(대저 오직 줄인다는 것, 이것은 일찍 준비함을 말한다.)

(122)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다.)

(123)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老子·77章》

(누가 능히 남음이 있는 것으로써 천하를 받들 수 있나? 오직 도를 가진 자이다.)

(124) 夫唯弗居, 是以不去. 《老子·2章》

92)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168쪽.

93)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82-183쪽.

- (대저 오직 차지하지 않으니,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
- (125) 夫唯不爭, 故無尤. 《老子·8章》
(대저 오직 다투지 않으니, 그러므로 원망할 일이 없다.)
- (126) 夫唯不可識, 故強爲之容. … 夫唯不盈, 故能蔽不新成. 《老子·15章》
(대저 오직 알 수 없으니, 억지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대저 오직 넘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능히 낡아서 새롭게 이를 수 있다.)
- (127)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대저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천하에 그와 다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 (128) 夫唯大, 故似不肖. 《老子·67章》
(오직 크기 때문에 마치 닮지 않은 듯하다.)
- (129) 夫唯無知, 是以不我知. 《老子·70章》
(대저 오직 아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
- (130) 夫唯病病, 是以不病. 《老子·71章》
(대저 오직 병폐를 병폐로 여기므로, 그래서 병들지 않는다.)
- (131) 夫唯不厭, 是以不厭. 《老子·72章》
(대저 오직 (백성들)을 옥죄지 않으니, 그래서 (백성들이 임금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위 예(119)-(123)에 사용된 ‘唯’는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이거나 제한적임을 표시하며, 부사 ‘獨’에 해당한다. 예(120)의 ‘唯施是畏’에서 ‘唯’는 부사로서 ‘獨’의 의미이다. ‘施’는 이 절의 목적어이다. ‘是’는 동사 ‘畏’와 목적어 ‘施’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전치 시키는데 사용된 구조조사이다. 예(121)의 ‘夫唯嗇’에서 ‘夫’는 발어사, ‘唯’는 부사이다. ‘嗇’은 본래 ‘인색하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로 쓰여 ‘절약하다’는 뜻이다.⁹⁴⁾ ‘是謂早服’의 ‘服’은 ‘備’와 통하여 ‘준비하다’는 뜻이다.⁹⁵⁾ 예(122)의 ‘夫唯無以生爲者’에서 ‘唯’는 범위를 표시하는 부사이며, ‘無’는 ‘以生爲’를 부정하는 부사이고, ‘以生’은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며, ‘爲’는 ‘함부로 행동하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者’는 명사성 구조를 만드는 조사이다. 예(123)의 ‘唯有道者’에서 ‘唯’는 범위 부사이며, ‘有道者’은 명사 술어로서 ‘有道’의 뒤에 조사 ‘者’를 사용하여 명사성 구조가 되었다.

예(124)-(131)은 모두 ‘夫唯…, 是以/故…’ 구조의 인과복문이 사용된다. 앞 문장은 원인을, 뒷 문장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때 ‘唯’는 ‘正因爲’, ‘只因爲’의 의미로 해석되며 ‘유일한 원인’임을 나타낸다.

94)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449쪽.

9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73쪽.

③ 惟

부사 ‘惟’는 ‘唯’와 통하며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이거나 제한적임을 표시한다. 3회 출현한다.

(132) 孔德之容, 惟道是從. 道之爲物, 惟恍惟惚. 《老子·21章》

(큰 덕의 모습이여,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도가 사물이라고 한다면, 단지 있는 듯 없는 듯 어렵듯할 뿐이다.)

예(132)에서 ‘惟道是從’은 ‘惟…是…’ 구조의 관용구가 쓰인다. 이때 ‘惟’는 제한적 범위를 표시하는 부사이며, ‘是’는 목적어를 전치시키는 구조조사이다.⁹⁶⁾ ‘道’는 ‘從’의 목적어인데 조사 ‘是’를 써서 앞으로 전치되었다.

‘惟…是…’ 구조는 先秦시기 다른 문헌에도 종종 출현한다. 아래의 예문은 《左傳》에 쓰인 ‘唯…是…’의 용례이다.

(133) 余雖與晉出入, 余唯利是視. 《左傳·魯成公下十三年》

(내가 비록 진나라와 왕래하지만, 나는 오직 이익만을 볼 뿐이다.)

예(133)의 ‘唯利是視’는 ‘唯…是…’의 관용구가 쓰인 형태이다. ‘唯’는 ‘惟’와 통한다. 동사 ‘視’의 목적어는 ‘利’이며, 구조조사 ‘是’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전치하였다. ‘唯利是視’는 ‘오직 이익만을 볼 뿐이다’라고 해석한다.

예(132)에서, 뒷항의 ‘惟恍惟惚’에서 ‘恍’과 ‘惚’은 같은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恍惚’은 마치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같아서 가리킬 수 없다는 뜻이다.⁹⁷⁾ ‘恍’과 ‘惚’은 각각 부사 ‘惟’와 결합한 형태로 쓰였다. ‘惟’는 ‘오직’의 의미로, 범위가 제한적임을 표시하는 부사이다.

④ 猶

9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97쪽.

97) 釋德清說: “恍惚, 謂似有若無, 不可指之意.”(釋德清이 말하길, “恍惚이란 있는 듯 없는 듯하여 가리킬 수 없다는 뜻을 말한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39쪽.

《馬氏文通》은 ‘猶’가 ‘~와 같다’라고 해석될 때 부사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視天下悅而歸己, 猶草芥也. 《孟子》”에서 ‘猶’는 狀字(즉 부사)이며 ‘草芥’는 명사로 보았다. 하지만 楊樹達은 이 ‘猶’는 마땅히 동사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며, 馬氏가 狀字라고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⁹⁸⁾ 本稿는 《老子》 중 ‘~와 같다’는 의미로 쓰인 ‘猶’는 동사로 보고, 아래의 예문에 쓰인 ‘猶’만 부사로 분류하였다.

부사 ‘猶’는 사람이나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모종의 범위로 제한하여, ‘僅’, ‘只’, ‘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⁹⁾ 1회 출현한다.

(134) 是以聖人猶難之, 故終無難矣. 《老子·63章》

(그래서 성인은 오직 그것을 어렵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결국 어려움이 없게 된다.)

예(134)에서 ‘聖人猶難之’의 ‘猶’는 동작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사로 ‘只’의 의미이며, ‘難’은 형용사의 의동 용법으로 쓰여 대명사 ‘之’를 목적어로 취하였다.

⑤ 各

‘各’의 본의는 피차간 서로 다른 객체를 나타낸다. ‘各’은 지시 작용을 겸유한 부사이며 先秦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인다.¹⁰⁰⁾ 《老子》에는 2회 출현한다.

(135)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老子·16章》

(무릇 만물이 무성하여 각자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136) 夫兩者各得所欲, 大者宜爲下. 《老子·61章》

(이 두 나라가 각기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위 예(135)와 예(136)에 쓰인 ‘各’은 ‘各自’의 의미로 지시 작용을 겸유한다. 邊澧雨는 부사 ‘各’을 指代性 부사로 분류하였다.¹⁰¹⁾

98) 楊樹達, 《馬氏文通刊誤》, 上海古籍出版社, 1991, 106쪽.

9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44쪽.

10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70쪽.

101) 邊澧雨, <《論語》에 나타난 몇 가지 副詞에 대한 考察>, 《中國語文論譯叢刊》, 2004, 397쪽.

(2) 動作 行爲 範圍가 全體나 共同임을 表示

이들 부사는 술어의 앞에서 술어와 관련된 주어나 목적어의 전체 혹은 공통을 표시한다. 《老子》에는 ‘皆’, ‘同’이 있다.

① 皆

부사 ‘皆’는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쓰여 사람이나 사물의 전체를 가리키며 주어의 전체를 표시한다. 때로 목적어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¹⁰²⁾ 8회 출현한다.

(137)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老子·2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예쁨이 예쁨인 줄을 알자, 추하다는 관념이 생겨나고, 사람들 모두 잘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을 알자, 못한다는 관념이 생겼다.)

(138) 功成事遂, 百姓皆謂: “我自然.” 《老子·17章》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뜻대로 되면, 백성들은 모두 말한다. “나는 원래 그러하다.”라고.)

(139) 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 … 衆人皆有以, 而我獨頑且鄙. 《老子·20章》

(못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만 홀로 잃어버린 듯하다. … 못사람들은 모두 쓰임이 있는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비속하다.)

(140) 天下皆謂我: “道大, 似不肖.” 《老子·67章》¹⁰³⁾

(천하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말한다. “道가 크긴 하지만, 어떤 것도 닮지 않은 듯하다.”)

(141) 聖人在天下, 歛歛焉, 爲天下渾其心, 百姓皆注其耳目, 聖人皆孩之.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혼연하게 한다. 백성들 모두 그 귀와 눈을 집중하지만, 성인은 그들을 모두 어린아이로 여긴다.)

위 예(137)-(140)에 쓰인 ‘皆’가 가리키는 범위는 모두 주어의 전체이다. 예(141)에서 ‘百姓皆注其耳目’의 ‘皆’는 주어 전체를 가리키지만, ‘聖人皆孩之’의 ‘皆’는 목적어인 대명사 ‘之’가 가리키는 전부를 표시한다. ‘孩’는 본래 명사이나 여기서 ‘아이로 여기다’는 뜻의 동사로 활용되어 ‘之’를 목적어로 취하였다. ‘之’는 앞 절의 ‘百姓’을 가리킨다.

10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07쪽.

103) 이 문장의 讀法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吳怡, 趙榮珮, 김경수, 김학주 등의 “天下皆謂: 我道大, 似不肖.”(천하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나의 도가 크지만 마치 닮지 않은 듯하다.”)이고, 둘은 陳鼓應, 饒尚寬 등의 “天下皆謂我: 道大, 似不肖.”(천하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말한다. “도가 크지만 마치 닮지 않은 듯하다.”)이다. 本稿는 陳鼓應의 독법을 따랐다.

② 同

‘同’의 본의는 ‘한자리에 모이다’는 뜻으로, ‘皆’(모두), ‘齊’(모두), ‘俱’(함께), ‘一樣’(같다) 등의 뜻으로 引伸되었다. 부사나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이 용법은 先秦 시기에 이미 사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¹⁰⁴⁾ 《老子》에서 부사 ‘同’은 2회 출현한다.

(142)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老子·1章》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왔지만 달리 부르니, 모두 그것을 ‘아득함’이라고 말한다.)

예(142)에서 ‘同出而異名’과 ‘同謂之玄’의 ‘同’은 동작행위가 공동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며 ‘共同’이나 ‘都’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同出而異名’에서 ‘同’과 ‘異’는 모두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지만, ‘同’은 부사이고 ‘異’는 형용사로 보았다.¹⁰⁶⁾

(3) 相互 關係 表示

《老子》에서 동작 행위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부사는 ‘相’이 있다.

① 相

부사 ‘相’이 수식을 받는 동사는 그 동작 행위가 늘 두 개의 주체에 미쳐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거나, 또는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는 관계이다.¹⁰⁷⁾ ‘互相’의 의미이다. 14회 출현한다.

(143) 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盈, 音聲相和, 前後相隨. 《老子·2章》

10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78쪽.

10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12쪽.

106) 趙榮珮,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3쪽.

10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46쪽.

(유와 무는 서로 생기게 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준다.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나타내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드러낸다. 음과 성은 서로 어울리고, 전과 후는 서로 따른다.)

(144) 天地相合, 以降甘露, 民莫之令而自均. 《老子·32章》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니, 백성들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될 것이다.)

(145) 夫兩不相傷, 故德交歸焉. 《老子·60章》

(저 양자가 서로 해치지 않으므로, 고로 덕이 함께 여기로 돌아온다.)

(146) 故抗兵相若, 哀者勝矣. 《老子·69章》

(그러므로 대항하는 군대가 서로 같다면 애통하는 쪽이 이기게 된다.)

(147)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 《老子·80章》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오고 가지 않으리.)

예(143)에 쓰인 ‘相’이 수식하는 동작 행위의 주체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다. ‘有無相生’에서 주어는 ‘有’와 ‘無’이며, 부사 ‘相’은 동사 ‘生’의 범위가 주어 양측에 모두 미침을 표시한다. 또한 뒷항에서 ‘難易相成’의 ‘難’과 ‘易’, ‘長短相形’의 ‘長’과 ‘短’, ‘高下相盈’의 ‘高’와 ‘下’, ‘音聲相和’의 ‘音’과 ‘聲’, ‘前後相隨’의 ‘前’과 ‘後’는 각각 문장의 주어이며, 주어의 뒤에 놓인 부사 ‘相’은 동작 행위의 범위가 주어 양측에 모두 미침을 표시한다.

예(144)-(147)에서도 ‘相’은 동작 행위의 범위가 주어 양측에 미치고 있음을 표시한다.

6) 推測 表示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는 술어의 앞에 쓰여 사태나 상황 등의 예측이나 추측을 표시하며, 대략적인 추측과 긍정 추측으로 나눌 수 있다.¹⁰⁸⁾ 《老子》에서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는 ‘其’, ‘恐’, ‘或’, ‘必’ 등이 있다.

(1) 大略的인 推測 表示

108)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사태나 정황에 대한 대략적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를 말한다. 그중에는 모호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大約’, ‘大概’, ‘或許’, ‘可能’ 등의 의미를 지닌다.¹⁰⁹⁾ ‘其’, ‘恐’, ‘或’이 이에 해당한다.

① 其

부사 ‘其’는 종종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모두 문말에 있는 어기조사와 호응하여 쓰이고 있다. 6회 출현한다.

- (148)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不屈, 動而愈出. 《老子·5章》
 (하늘과 땅 사이가 아마도 풀무와 같지 않은가? 비어있지만 다하지 아니하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 (149) 荒兮, 其未央哉! 《老子·20章》
 (아득하여라! 마치 다함이 없는 듯하구나!)
- (150) 天之道, 其猶張弓與? 《老子·77章》
 (하늘의 도는 아마 활을 당기는 것 같지 않은가?)
- (151) 敦兮其若樸; 曠兮其若谷; 混兮其若濁. 《老子·15章》
 (도타우니, 아마도 통나무 같구나. 텅 비어서 마치 골짜기 같구나. 뒤섞이니, 마치 흐린 물 같구나.)

위 예(148)-(150)에 쓰인 ‘其’는 모두 문말어기조사와 호응하며 쓰인다. 예(148)의 ‘其猶橐籥乎’는 ‘其…乎’의 형태가 보이는데 추측 표시 부사 ‘其’가 의문의 어기조사 ‘乎’와 호응하여 쓰였다. 예(149)에서 ‘其猶張弓與’는 ‘其…哉’의 형태가 쓰였는데, ‘其’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이며, ‘哉’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어기조사이다. 예(150)에서 ‘其猶張弓與’는 ‘其…與’의 형태가 쓰였는데, 추측 표시 부사 ‘其’와 의문 어기조사 ‘與’와 호응하여 쓰였다. 예(151)에서 ‘其’는 모두 동사 ‘若’과 연용되며 추측의 어기를 나타낸다.

② 恐

109)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恐’의 본의는 ‘두려워하다’는 뜻이지만, 先秦시기에 이미 부사 용법으로 쓰인 용례가 보이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부사 ‘恐’은 동사나 술어의 앞에 쓰여 동작 행위가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의 짐작이나 추측을 표시한다.¹¹⁰⁾ 6회 출현한다.

(152) 其致之也, 謂天無以清,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神無以靈, 將恐歇; 谷無以盈, 將恐竭; 萬物無以生, 將恐滅; 侯王無以正, 將恐蹶. 《老子·39章》
 (만약 그것을 미루어서 말하자면, 하늘이 이것(‘一’)으로써 맑지 못하면 아마 갈라질 것이다.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아마 터질 것이다. 신이 이것으로써 영험할 수 없다면 아마 그쳐 버릴 것이다. 골짜기가 이것으로써 가득 찰 수 없다면 아마 바닥나 버릴 것이다. 만물이 이것으로써 생겨날 수 없다면 아마 없어져 버릴 것이다. 군주가 이것으로써 점칠(貞) 수 없다면 아마 넘어질 것이다.)

예(152)에서 ‘恐’은 모두 6회 출현하며, ‘將+恐+동사’의 구조이다. ‘恐’은 시간부사 ‘將’의 뒤에 놓여 동작 행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다. ‘侯王無以正’의 ‘正’은 ‘貞’과 古通字이다.¹¹¹⁾

③ 或

‘或’은 불확실함을 표시하는 부사로 쓰이며 ‘恐怕’, ‘大概’, ‘可能’의 의미이다.¹¹²⁾ 4회 출현한다.¹¹³⁾

(153) 道沖, 而用之或不盈. 淵兮, 似萬物之宗; 湛兮, 似或存. 《老子·4章》
 (도는 텅 비어있다. 하지만 그것을 쓰면 아마 넘치지 않을 것이다. 깊구나! 마치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심오하구나! 마치 (없는데도) 혹 존재하는 듯하다.)
 (154) 其在道也, 曰: 餘食贅形. 物或惡之, 故有道者不處. 《老子·24章》
 (그것들은 도에 있어서, 음식 찌꺼기요 군더더기 짓이다. 만물이 아마 싫어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처하지 않는다.)
 (155) 夫兵者, 不祥之器. 物或惡之, 故有道者不處. 《老子·31章》
 (대저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다. 만물이 아마 싫어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가 있는 사

11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331쪽.

111)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5쪽.

112)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76쪽.

113) 《老子》에 쓰인 ‘或’은 부사 이외에 대명사로도 쓰이는데 29장(8회), 61장(2회), 73장(2회)에 출현한다.

람은 (여기에) 처하지 않는다.)

예(153)의 ‘而用之或不盈’에서 ‘或’은 상황의 추측을 나타내며 ‘不盈’을 수식한다. ‘不盈’은 ‘不窮’(다하지 않는다)의 의미이다.¹¹⁴⁾ ‘似或存’에서 ‘似’는 술어동사이며, ‘或存’은 ‘부사+동사’ 구조로 ‘似’의 목적어이다. 예(154)에서 ‘物或惡之’의 ‘或’은 동작 행위의 추측을 표시한다. ‘惡’[wū]는 ‘싫어하다’는 뜻의 술어 동사이며, 대명사 ‘之’는 앞항의 ‘餘食贅形’을 가리키며 ‘惡’의 목적어이다. 예(155)에서 ‘物或惡之’는 예(153)의 문장과 같다. 대명사 ‘之’는 앞항의 ‘兵’을 가리킨다.

(2) 肯定 推測 表示

사태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추측이나 판단을 표시하는 부사를 말한다.¹¹⁵⁾ 《老子》에는 ‘必’만 쓰인다.

① 必

부사 ‘必’은 술어의 앞에 쓰여 실제 추세에 대한 추정을 표시하며 ‘必定(會)’, ‘一定(是)’등으로 해석된다.¹¹⁶⁾ 13회 출현한다.

(156) 將欲歛之, 必固張之; 將欲弱之, 必固強之; 將欲廢之, 必固興之; 將欲取之, 必固與之. 是謂微明. 《老子·36章》

(장차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베풀어야 하고, 약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주어야 하며, 망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북돋워 주어야 하고,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밝음(微明)’이다.)

(157) 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老子·44章》

(너무 아끼면 반드시 크게 허비되고, 많이 저장하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158)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 夫輕諾必寡信, 多易必多難. 《老子·63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도모하고, 미세한 것에서 큰 것을 행한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세상에서 큰일은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대답을 가볍게 하면

114)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68쪽.

11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7쪽.

11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2쪽.

반드시 믿음이 적어지고, 쉽다고 여기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159) 是以聖人欲上民, 必以言下之; 欲先民, 必以身後之. 《老子·66章》

(그래서 성인은, 백성들보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써 그들에게 낮추며,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보다 뒤에 둔다.)

(160) 和大怨, 必有餘怨. 《老子·79章》

(큰 원한을 화해시키면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게 된다.)

예(156)에서 ‘必’은 4회 쓰이며 모두 같은 구조이다. ‘必固張之’에서 ‘必’은 ‘一定’의 의미이며, ‘固’는 상황의 필연성을 나타내어 ‘必’과 의미가 비슷하다. 예(157)에서 ‘甚愛必大費’와 ‘多藏必厚亡’은 같은 구조이다. ‘甚愛’와 ‘多藏’은 ‘甚’과 ‘多’는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여 술어동사 ‘愛’와 ‘藏’을 수식한다. ‘必’은 필연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이며, 각각 ‘大費’와 ‘厚亡’을 수식한다.

예(158)에서 ‘必作於易’와 ‘必作於細’는 같은 구조이다. ‘必’는 부사, ‘作’은 술어동사, ‘於易’은 동작 행위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며 보어로 쓰인다. ‘輕諾必寡信’과 ‘多易必多難’은 같은 구조이다. ‘輕諾’과 ‘多易’에서 ‘輕’과 ‘多’는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여 술어 ‘諾’과 ‘易’를 수식한다. ‘必寡信’과 ‘必多難’에서 ‘必’은 부사로서 긍정적인 판단이나 예측을 표시하며, ‘寡’와 ‘多’는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여 각각 술어 ‘信’과 ‘難’을 수식한다.

예(159)에서 ‘必以言下之’와 ‘必以身後之’는 같은 구조이다. ‘必’은 부사이며, ‘以言’은 술어 동사 ‘下’의 방식을 나타내며, ‘以身’은 술어 동사 ‘後’가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예(160)의 ‘必有餘怨’에서 ‘必’은 추정을 표시하는 부사이다.

7) 關係 表示

관계를 표시하는 부사는 앞뒤 항을 연결할 때 연결이나 전환의 의미를 표시하는 부사를 말하며, 앞뒤 두 항의 연결을 표시하지만 주로 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¹¹⁷⁾ 《老子》에는 ‘乃’가 쓰인다.

(1) 乃

11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52-353쪽.

‘乃’는 부사로서 앞뒤 두 항 사이에 곡절이 있을 때 쓰이고, 두 가지 일이 서로 이어지거나 서로 원인임을 나타내며 대부분 아래 절의 첫머리에 쓰여 강조의 어기를 나타낸다. 또한 사건의 발생이 늦게 종결된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¹¹⁸⁾ 12회 출현한다.

(161) 知常容, 容乃公, 公乃全, 全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不殆. 《老子·16章》

(영원함을 알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이에 공평해진다. 공평해지면 이에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면 이에 하늘처럼 된다. 하늘처럼 되면 이에 도를 체득하게 되고, 도를 체득하면 이에 장구하나니, 몸이 없어지도록 위태롭지 않다.)

(162) 爲天下谷, 常德乃足, 復歸於樸. 《老子·28章》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영원한 덕이 이에 넉넉해져서 ‘통나무’로 돌아간다.)

(163) 修之於身, 其德乃眞; 修之於家, 其德乃餘; 修之於鄉, 其德乃長; 修之於邦, 其德乃豊; 修之於天下, 其德乃普. 《老子·54章》

(그것을 자신에게 닦으면, 그 덕이 곧 진실해지고, 그것을 집안에서 닦으면 그 덕이 곧 넉넉해지며, 그것을 마을에서 닦으면 그 덕은 장대해지고, 그것을 나라에서 닦으면 그 덕은 풍부해지며, 그것을 천하에서 닦으면 그 덕은 넓어진다.)

(164)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아득한 덕은 심오하고도 멀도다.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큰 순조로움’에 이른다.)

위 예(161)-(163)에 사용된 ‘乃’는 앞뒤 두 항이 논리상 또는 시간상 서로 순접 관계임을 표시하는 부사로 쓰이며 ‘이에’, ‘곧’ 등으로 해석된다. 예(164)에 쓰인 ‘乃’는 동작 행위의 발생이 늦게 종결됨을 나타내며 ‘비로소’라고 해석한다.

2. 副詞 用法 特徵

《老子》에 사용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既’, ‘終’, ‘常’, ‘復’, ‘又’, ‘亦’, ‘將’, ‘既’, ‘終’,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등 총 37개이다. 이들을 否定·時間·

118)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152-153쪽.

程度・狀態・範圍・推測・關係를 표시하는 용법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老子》에 사용된 부정 표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이 있으며, 총 271회 출현한다. 이들을 陳述 否定 표시와 禁止 否定 표시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陳述 否定을 표시하는 부사는 총 265회 출현한다. 이 중 ‘不’는 236회 출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금지를 표시하는 용법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이어서 ‘無’와 ‘非’가 각 10회, ‘未’가 7회, ‘弗’는 2회 출현하였다. 禁止 否定을 표시하는 부사는 ‘勿’과 ‘無’만 사용되며, 각각 4회, 2회이다.

《老子》에 쓰인 否定 副詞를 용법별로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4-2>와 같다.

〈표4-2〉 《老子》의 否定 副詞

구분	不	弗	非	未	無	勿	계	비율(%)
진술부정 표시	236	2	10	7	10		265	98
금지부정 표시					2	4	6	2
계	236	2	10	7	12	4	271	100
비율(%)	87	1	4	3	4	1	100	

《老子》에 사용된 부정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이 있으며, 총 271회 출현한다. 단어별 사용빈도수를 보면, 不(236회, 87%)>無(12회, 4%)>非(10회, 4%)>未(7회, 2%)>勿(4회, 1%)>弗(2회, 1%)의 순서이다.

부정부사는 진술 부정 표시와 금지 부정 표시 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것에는 ‘不’, ‘弗’, ‘非’, ‘未’, ‘無’가 쓰였고, 금지 부정을 표시하는 것에는 ‘無’, ‘勿’이 쓰였다. 진술 부정 표시는 265회(98%), 금지 부정 표시는 6회(2%) 사용되어, 대부분 진술 부정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老子》에 사용된 시간·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將’, ‘既’, ‘終’, ‘常’, ‘復’, ‘又’, ‘亦’이 있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 동작 행위의 지속성, 동작 행위의 횟수 등을 표시한다. 이들을 용법별로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4-3>과 같다.

〈표4-3〉 《老子》의 時間·頻度 副詞

구분	將	既	終	常	復	又	亦	계	비율(%)
동작행위 발생시간	20	5	3					28	48
동작행위 지속성				15				15	25
동작행위 빈도					3	2	11	16	27
계	20	5	3	15	3	2	11	59	100
비율(%)	34	9	5	25	5	3	19	100	

시간·빈도 표시 부사는 총 59회 사용된다. 이중 동작 행위의 발생시간을 표시하는 부사는 ‘將’, ‘既’, ‘終’이 있으며 28회 출현하며 48%의 빈도를 보인다. ‘將’이 20회(34%), ‘既’가 5회(9%), ‘終’이 3회(5%) 출현하였다. 동작 행위의 지속성을 표시하는 부사는 ‘常’만 출현하며 15회, 25%의 빈도를 보인다. 동작 행위의 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復’, ‘又’, ‘亦’이 쓰이며 총 16회 출현하며 27%의 빈도를 보인다. 이중 ‘亦’은 11회(19%), ‘復’은 3회(5%), ‘又’은 2회(3%) 출현하였다.

정도 표시 부사는 ‘彌’, ‘愈’, ‘滋’가 있으며, 총 9회 출현한다. ‘彌’, ‘愈’, ‘滋’가 모두 3회씩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정도가 점차 심화됨을 표시한다.

상태 표시 부사는 동작 행위의 상태나 방식을 표시하며 ‘固’, ‘誠’, ‘豈’, ‘自’, ‘故’가 쓰인다. 총 22회 출현하며, ‘自’가 14회, ‘固’는 5회, ‘誠’과 ‘豈’, ‘故’는 각 1회씩 사용된다.

범위 표시 부사는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이 있으며, 총 50회 출현한다. 이들 부사는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전체나 공동을 표시하는 경우,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4-4〉 《老子》의 範圍 副詞

구분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계	비율(%)
단독 또는 제한적	7	13	3	1	2				26	50
전체 또는 공동						8	2		10	21
상호 관계								14	14	29
계	7	13	3	1	2	8	2	14	50	100
비율(%)	14	26	6	2	4	16	4	28	100	

동작 행위의 범위가 단독 또는 제한적임을 표시하는 부사는 ‘獨’, ‘唯’, ‘惟’, ‘猶’, ‘各’이 있으며, 唯(13회, 26%)>獨(7회, 45%)>惟(3회, 6%)>各(2회, 4%)>猶(1회, 2%)의 순이다. 동작 행위의 범위가 전체 또는 공동임을 표시하는 부사는 ‘皆’와 ‘同’이 있다. 皆는 8회(16%), 同은 2회(4%) 쓰였다. 동작 행위의 범위가 상호 관계에 미침을 표시하는 부사는 ‘相’이 있으며, 14회(28%) 출현하여 범위 부사 중 가장 높은 출현 횟수를 보였다.

추측 표시 부사는 ‘其’, ‘恐’, ‘或’, ‘必’이 있으며, 총 29회 출현한다. 이 중 대략적인 추측을 표시하는 경우는 ‘其’, ‘恐’, ‘或’이 쓰이고, 긍정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는 ‘必’이 쓰인다. 출현 횟수는 必(13회)>恐·其(6회)>或(4회) 순이다.

관계 표시 부사는 ‘乃’만 쓰였다. ‘乃’는 앞뒤 항을 연결할 때 연결의 의미를 표시하며, 12회 출현하였다.

《老子》에 사용된 부사의 용법별 사용률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4-5>와 같다.

<표4-5> 《老子》 副詞의 用法 및 使用率

구분	부정표시	시간표시	정도표시	상태표시	범위표시	추측표시	관계표시	계
횟수	271	59	9	22	50	26	12	449
비율(%)	60	13	2	5	11	6	3	100

위 표를 살펴보면, 《老子》에서 부사는 총 449회 출현한다. 이들은 부정표시(271회, 60%)>시간표시(59회, 13%)>범위표시(50회, 11%)>추측표시(26회, 6%)>상태표시(22회, 5%)>관계표시(12회, 3%)>程度표시(9회, 2%)의 순으로 사용된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老子》의 부사 중 부정 부사가 271회 쓰여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Ⅲ. 《老子》 前置詞 用法

前置詞은 전치사의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어, 술어의 앞이나 뒤에서 술어가 서술한 장소, 시간, 방식, 원인 등을 술어에 소개한다.¹¹⁹⁾ 중국어의 전치사는 모두 동사에서 발전한 것이며 대부분 동사적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다.¹²⁰⁾ 전치사는 上古漢語에서 中古·近代漢語로 이어지면서 어순 방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近代漢語 시기에 대체로 완성되어 현대로 이어진다. 중국어 전치사의 발전 과정은 수많은 虛詞의 탄생과 소멸을 겪었고, 어순의 변화 측면에서도 중국어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¹²¹⁾ 따라서 先秦시기 문헌인 《老子》에서도 전치사의 어법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 등 6개가 있다. 전치사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거나,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사용된다. 이들은 어법적 의미에 따라 동작 행위(또는 상태)의 時間·對象·場所·道具·方式·根據·原因·被動 등을 표시하는 8가지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치사가 어떠한 어법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고찰하고, 아울러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겠다.

1. 前置詞句의 用法 分析

《老子》의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가 있다. 이들은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며, 술어의 앞이나 뒤에서 동작 행위의 時間·대상·장소·도구·방식·근거·원인·피동 등을 표시한다.

119) 廖序東, 《文言語法分析》, 上海教育出版社, 1981, 19-20쪽.

120) 朱德熙, 《語法講義》, 常務印書館, 1982, 174쪽.

121) 박원기, 《중국어와 문법화: 현대중국어의 탄생》, 學古房, 2012, 295-296쪽.

1) 時間 表示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와 관련된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는 ‘於’와 ‘自’가 쓰인다.

(1) 於

전치사 ‘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의 앞이나 뒤에서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한다. ‘在’에 해당한다. 3회 출현한다.

(1) 爲之於未有, 治之於未亂. 《老子·64章》

(아직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행하고, 아직 혼란스럽지 않을 때 그들을 다스린다.)

(2)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흔히 거의 이루어질 때 실패한다.)

예(1)-(2)에서 전치사 ‘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하며, 예(1)은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 용례이며, 예(2)는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용례이다.

예(1)에서 ‘於未有’와 ‘於未亂’에 대해 王弼은 각각 ‘謂其安未兆也.(그것이 아직 조짐이 일어나지 않은 때를 말한다)’와 ‘謂微脆也(미미하고 여릴 때를 말한다)’라고 注하였다.¹²²⁾ 동사 ‘爲’의 뒤와 ‘治’의 뒤에 출현한 ‘之’는 대명사로서 각각 ‘그것’, ‘그들(천하 사람들)’을 가리킨다.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부정부사+동사’의 형태인 ‘未有(아직 있지 않다)’와 ‘未亂(아직 혼란스럽지 않다)’이며 모두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나타낸다. 魏培泉은 <古漢語介詞‘於’的演變略史>에서, 전치사 ‘於’구는 시간을 표시할 때 거의 동사의 앞에 놓인다고 하였다.¹²³⁾ 하지만 예(1)에서 전치사 ‘於’자구는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예(2)의 ‘於幾成’에서 ‘幾成’(거의 이루다)은 ‘부사+동사’의 구조로 전치사 ‘於’의

122)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65쪽.

123) “就‘於’的詞序而言, 除了某些特定的類型外, ‘於’詞組幾乎都是在主要動詞之後的. 會放在動詞前的, 除了表時間點的‘於’詞組幾乎總在動詞前, 就只有表示和主語有某種對待關係的‘於’詞組幾乎總在動詞前.”, 魏培泉, <古漢語介詞‘於’的演變略史>,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六十二本 第四分, 1993, 719쪽.

목적어이며, ‘於幾成’은 동사 ‘敗’(실패하다)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한다. ‘而’는 부사어 ‘於幾成’과 술어 ‘敗’의 사이에 쓰여 수식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시간의 부사어의 뒤에 ‘而’를 써서 낭독할 때 시간사에 여기가 강조된다고 하겠다.¹²⁴⁾

(2) 自

전치사 ‘自’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의 기점을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1회 출현한다.

(3) 自今及古, 其名不去, 以闕衆甫.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지 않으니, 이것으로써 ‘모든 시작’을 살핀다)

예(3)에서 ‘自今及古’에서 전치사 ‘自’는 시간명사 ‘今’을 목적어로 취하며,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의 기점을 표시한다. ‘及’(이르다)은 술어 동사이며, ‘古’는 목적어이다.

2) 對象 表示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와 관련된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는 ‘於’, ‘以’, ‘與’, ‘爲’가 쓰인다.

(1) 於

전치사 ‘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대상을 표시한다. ‘於’자구는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만 쓰인다. 비교의 대상과 동작 행위의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 16회 출현한다.

① 比較의 對象

124) 何樂士, 《《左傳》虛詞研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464쪽.

‘於+목적어’구는 술어의 뒤에서 비교의 대상을 표시하는데, 이때 술어는 보통 형용사나 형용사성 단어가 쓰인다. 《老子》에서 ‘於+목적어’구가 보어로 사용되어 비교의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는 13회이다.

- (4)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老子·8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능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와 가깝다.)
- (5) 我獨異於人, 而貴食母. 《老子·20章》
 (나만 홀로 남들과 달라서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
- (6) 含德之厚, 比於赤子. 《老子·55章》
 (덕을 간직함이 두터운 자는 갓난아기와 비등하다.)
- (7) 咎莫大於欲得, 禍莫大於不知足. 《老子·46章》
 (허물에는 어떠한 것도 얻고자 욕심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재앙에는 어떠한 것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 (8)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다.)

예(4)에서 전치사 ‘於’는 비교의 대상을 소개하며, ‘幾於道’는 ‘도와 비슷하다’로 해석된다. ‘幾’는 ‘將近(근접하다)’, ‘差不多’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성 단어이며 술어로 쓰인다. 王弼은 “도는 형체가 없고 물은 형체가 있다. 그러므로 ‘가깝다’고 말한 것이다.(道無水有, 故曰幾也.)”라고 注하였다.¹²⁵⁾

예(5)에서 전치사 ‘於’는 ‘人’과 결합하여 비교의 대상을 술어에 인개한다. 형용사 ‘異’가 술어이다.

예(6)에서 ‘於+목적어’구는 비교의 대상을 표시하며, 술어로 사용된 ‘比’는 ‘近’, ‘齊同(같다)’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성 단어이다.¹²⁶⁾ ‘含德之厚’는 문장의 주어이다. ‘之’는 ‘含德之厚’의 독립성을 파괴하여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사용되도록 ‘含德’와 ‘厚’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다.¹²⁷⁾ ‘比於赤子’에서 ‘比於~’는 ‘~와 같다’는 의미이며, ‘於+赤子’가 술어 ‘比’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125) 王弼, 《老子注》, 《諸子集成》三, 中華書局, 4쪽.

126)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259쪽.

127) 이 문장의 해석에 다른 의견도 있다. 趙榮珮는 ‘含德之厚’ 중 ‘之’를 ‘到’로 보아 ‘之厚’를 정도보어로 분류하여 “덕을 두터운 정도에 이르기까지 수양하다.”라고 해석하였다. 趙榮珮,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54쪽.

예(7)의 ‘於’는 본래 楚簡本에는 ‘乎’로 쓰였으나, 漢帛甲本, 敦皇本, 많은 통행본에는 모두 ‘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戰國시기에 전치사 ‘乎’는 비교를 표시하는데 사용되었지만, 漢代 사람들이 더이상 ‘乎’를 개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대의 각종 서적은 漢代本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於’를 사용하였다.¹²⁸⁾ ‘咎莫大於欲得’와 ‘禍莫大於不知足’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欲得’과 ‘不知足’이다. 목적어와 결합한 ‘於’자구는 형용사 술어 ‘大’의 뒤에서 비교의 대상을 표시한다. ‘莫’은 無定 대명사이다.¹²⁹⁾ 무정대명사(無定代詞 또는 無指代詞를 말함)는 가리키는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일체의 대상을 배제한다. ‘沒有誰(아무도 없다)’, ‘沒有什麼(아무것도 없다)’ 등에 해당하며, 실제 의미는 ‘任何人(어떠한 사람)’이나 ‘任何事物(어떠한 물건)’을 뜻한다.¹³⁰⁾ ‘莫’은 오직 주어로만 사용되며, ‘莫’의 앞에는 항상 선행사를 수반하거나 내포하는데, 이 선행사는 대개 사람이나 사물의 群體를 가리킨다.¹³¹⁾ 예(7)에서 ‘莫’의 先行詞는 각각 ‘咎’와 ‘禍’이며, 문장의 대주어이다. 그 뒤에 쓰인 ‘莫’은 소주어이며, ‘莫+술어구’는 주술구조로서 문장의 술어가 된다. 주술술어문의 앞에 놓인 대주어는 주술술어의 평론·서술·묘사의 대상이 된다.¹³²⁾

예(8)의 ‘是賢於貴生’에서 ‘是’는 대명사로서 주어이며, ‘賢’은 형용사 술어이다. 전치사 ‘於’는 동목구인 ‘貴生’을 목적어로 취하며, 술어의 뒤에서 비교 대상을 표시한다.

위의 예(4)-(8)을 종합해 보면, ‘於+목적어’구는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이며, 비교의 대상을 표시한다. 술어는 모두 형용사 또는 형용사성 단어가 사용되었다.

② 動作 行爲의 對象

《老子》에서 ‘전치사+목적어’ 구조가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일 때, 동작 행

128) 張玉金, <談《老子》中被替換的虛詞>, 《中國語文》總第 354期, 232쪽.

129) 《老子》에 사용된 ‘莫’은 모두 무정 대명사로 쓰인다. 진술문에 12회, 비교문에 4회 출현한다. 김에실·양만기, <《老子》의 否定詞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73집, 2019, 17쪽.

130) 許威漢, 《先秦文學及語言例論》, 河南, 中州古籍出版社, 1984, 454쪽 참조.

131) 薛儒章, <‘莫’字用法辨析>(《天津師大學報》, 1987. 4), 《語言文字學》, 1987. 10,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77-78쪽 참조.

13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北京, 語文出版社, 2012, 751-752쪽.

위의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는 전치사 ‘於’자구만 사용되며, 3회 출현한다. ‘於’는 ‘對’나 ‘向’에 해당한다.

- (9) 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老子·73章》
(‘감히 함’에 용감하면 죽게 되고, ‘감히 안 함’에 용감하면 살게 된다.)
- (10) 是以聖人執左契,¹³³⁾ 而不責於人. 《老子·79章》
(이 때문에 성인은 좌계를 잡더라도, 사람들에게 재촉하지 않는다.)

예(9)에서 전치사 ‘於’는 동사 ‘勇’의 행위와 관련된 대상을 소개하며, 현대중국어의 ‘對’에 해당한다. 예(10)의 ‘不責於人’에서 전치사 ‘於’는 동사 ‘責’(재촉하다)가 언급하는 대상을 소개한다. 이때 ‘於’는 현대중국어의 ‘向’에 해당한다.

(2) 以

전치사 ‘以’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하며, ‘把’나 ‘同’에 해당한다.¹³⁴⁾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이며, 5회 출현한다.

- (11) 孰能濁以靜之徐清. 孰能安以久動之徐生. 《老子·15章》
(누가 능히 혼탁한 것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안정된 것을 오래 움직여서 서서히 생겨나게 할 수 있는가.)
- (12) 柰何萬乘之主, 而以身輕天下. 《老子·26章》
(어찌하여 만승의 주인인데도 자신을 천하 사람들보다 가벼이 여길 수 있는가.)
- (13) 欲先民, 必以身後之. 《老子·66章》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보다 뒤에 놓아야 한다.)
- (14)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다.)

예(11)의 ‘濁以’와 ‘安以’는 원래 ‘以濁’, ‘以安’의 어순으로 전치사 목적어인 ‘濁’, ‘安’이 전치사 ‘以’의 앞으로 전치되어 그 뜻을 강조하고 있다. ‘濁以’는 술어 동사

133) ‘左契’는 周代에 사용된 일종의 차용증 명칭을 말한다. 죽간이나 목간에 차용증의 내용을 새기고 양쪽으로 쪼개어, 채권자는 좌계를, 채무자는 우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일에 채권자가 좌계를 가지고 채무를 요구한다. 趙榮珮 著, 《老子道德經 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371쪽.

13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13쪽.

‘靜’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하며, ‘安以’는 술어 동사 ‘動’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한다.

예(12)의 ‘以身輕天下’에서 ‘以身’은 술어 동사 ‘輕’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한다. ‘輕’은 형용사가 의동 용법으로 쓰여 ‘가볍게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天下’는 목적어이며 ‘천하 사람들’을 뜻한다. ‘輕天下’는 원래 ‘輕(於)天下’인데 비교를 소개하는 전치사 ‘於’가 생략된 것이라 하겠다.

예(13)의 ‘必以身後之’에서 ‘以身’은 술어 동사 ‘後’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한다. ‘後’는 명사가 의동 용법으로 쓰여 ‘뒤에 놓다’라고 해석한다. 대명사 ‘之’는 목적어이다.

예(14)의 ‘夫唯無以生爲者’에서 ‘無以生爲’는 ‘不把厚生奢侈作爲追求的目標’(사치한 삶을 추구 목표로 삼지 않는다)를 의미하며,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활이 담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¹³⁵⁾ ‘以生’의 ‘生’은 ‘생을 두텁게 여겨서 사치하는 삶’을 말하며, ‘以生’은 술어동사 ‘爲’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한다고 하겠다.

(3) 與

전치사 ‘與’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대상을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인다. ‘同…’, ‘和…’에 해당한다. 3회 출현한다.

전치사는 본래 동사에서 虛化된 것으로, ‘與’는 ‘주다’, ‘더불어하다’는 뜻의 동사이지만, 아래의 예문의 ‘與’는 본의가 약해져 뒤 동사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의 기능으로 어법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는 보통 구정보는 앞에, 신정보는 뒤에 쓰여 신정보가 강조된다. 연동문에서는 보통 제1동사는 구정보이며 중심성분이 아니고, 제2동사가 문장의 핵심 성분이 된다. 따라서 제1동사는 점차 의미가 虛化되고 詞性이 소실되어 단지引進 작용만 일으키는 전치사로 발전하게 된다.¹³⁶⁾

아래의 예(15)-(17)의 ‘與’는 ‘더불어하다’의 본의가 약해져서 뒤 동사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로 이미 허화되어, 뒤 동사가 문장의 중심성분이 된 것이다.

13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17쪽.

136) 李雨柔, <狀中短語中“而”的狀語標記化>, 《貴州工程應用技術學院學報》, 2018年 第1期, 109-110쪽.

- (15)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 (16)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66章》
 (그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 (17)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현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구나.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가는구나. 그런 뒤에야 '큰 순조로움'에 이르게 된다.)

예(15)와 예(16)에서 전치사 '與'의 목적어는 모두 대명사 '之'이며, 앞 단락의 '성인'을 가리킨다. 이 두 예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예(15)의 '夫唯..., 故...'와 예(16)의 '以..., 故...' 형식은 모두 앞 절은 원인을, 뒤 절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17)의 전치사 '與'는 명사 '物'을 소개하여 동사 '反'의 대상을 표시한다. '與物反矣'의 '反'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河上公은 "玄德之人, 與萬物反異, 萬物欲益己, 玄德施與人也.(오묘한 덕을 지닌 사람은 만물과 다르다. 만물은 자신에게 보태려고 하지만, 오묘한 덕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고 해설하여 '反'을 '상반되다'는 의미로 풀이하였다.¹³⁷⁾ 둘째, 王弼은 "反其眞也.(그 참됨으로 되돌아가다)"라고 注하여 '되돌아가다'의 의미로 보았다.¹³⁸⁾ 본고는 王弼의 해석을 따랐다. '反'을 '返'(되돌아가다)으로 해석해야, 뒤 절 '然後乃至大順'과 연결하였을 때,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대순'에 이른다는 의미에 적절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접속사 '然後'는 '그러한 뒤'라는 뜻이고, 부사 '乃'는 사건의 발생이 늦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비로소'라고 해석한다.¹³⁹⁾

(4) 爲

전치사 '爲'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수혜 대상을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인다. '~에게', '~을 위하여'로 해석된다. 2회 출현한다.

137)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上海印書館, 2016, 289-290쪽.

138)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68쪽.

139)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153쪽.

- (18) 吾不知其名, 強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 故道大. 《老子·25章》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그것을 별칭 하여 ‘道’라고 하고, 억지로 그것(道)에게 이름을 지어 ‘큰’이라고 한다. … 그러므로 ‘道’란 ‘큰’이다.)
- (19) 聖人在天下, 歛歛焉, 爲天下渾其心.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음을 혼연하게 한다.)

예(18)에서 형용사 ‘強(억지로)’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고, ‘字(별칭하다)’와 ‘名(이름 짓다)’은 술어 동사이다. ‘強字之曰道’의 ‘之’는 별칭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強爲之名曰大’의 ‘之’는 앞 문장에서 별칭 한 ‘道’를 의미하며 전치사 ‘爲’의 목적어로 쓰인다.

예(19)에서 ‘歛歛焉’은 단음절 형용사 ‘歛’이 중첩되고 그 뒤에 조사 ‘焉’이 첨가된 형태이다. ‘歛歛’은 ‘두려워하는 모양’을 뜻한다.¹⁴⁰⁾ ‘爲天下渾其心’에서 ‘爲天下’는 동사 ‘渾’의 수혜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다. ‘渾’은 형용사가 사동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혼연하게 하다’라고 해석한다.

3) 場所 表示

《老子》에서 동작 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이끄는 전치사는 ‘於’와 ‘當’이 있다.

(1) 於

전치사 ‘於’가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 모두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총 23회 사용되며, 전치사 ‘於’의 용법 중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於+목적어’구가 동작 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표시하는 용법은 동작 행위의 기점·근원 표시,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 표시, 동작 행위의 도달 장소 표시 등의 3가지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動作 行爲의 起點·根源 表示

140) 河上公本에 ‘歛歛’은 ‘怵怵’(두려워하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다. 河上公注說: ‘聖人在天下, 怵怵常恐怖, 富貴不敢驕奢.’(성인이 천하에 있으면 조심조심 늘 두려워하여, 부귀하지만 감히 교만하거나 사치하지 않는다),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86쪽.

‘於+목적어’ 구는 동작 행위의 기점이나 근원을 표시한다. 이때 ‘於’는 ‘自’, ‘從’, ‘由’에 해당한다. 10회 출현한다.

(20)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老子·40章》

(천하 만물은 ‘있음’에서 생기지만, ‘있음’은 ‘없음’에서 생긴다.)

(21)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老子·64章》

(한 아름의 나무도 털끝 같은 새싹에서 생겨나고, 구층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되며, 천리의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예(20)의 ‘生於有’, ‘生於無’는 각각 ‘有로부터 생기다’, ‘無로부터 생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치사 ‘於+목적어’구가 기점이나 근원을 표시하는 용법이다. 전치사 ‘於’구가 동사 ‘生’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예(21)의 ‘生於毫末’, ‘起於累土’, ‘始於足下’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각각 ‘毫末(아주 작은 새싹)’, ‘累土(한 삼태기의 흙)’, ‘足下(발아래, 즉 한걸음)’이다. ‘累土’에 대해 高亨은 “‘累’는 마땅히 ‘藁(삼태기 류[léi])로 읽어야 하며, 흙을 담는 대바구니이다. ‘起於累土’는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注하였다.¹⁴¹⁾ 전치사구는 술어 동사 ‘生’, ‘起’, ‘始’의 뒤에서 보어로 쓰여 동작 행위의 기점이나 근원을 표시하고 있다.

② 動作 行爲의 發生 場所 表示

‘於+목적어’ 구는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를 표시한다. 전치사 ‘於’는 ‘在’에 해당한다. 先秦 시기에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 ‘於’구는 술어 앞에 놓인 경우가 거의 없다.¹⁴²⁾ 《老子》에도 전치사 ‘於’자구가 장소를 표시할 때는 모두 동사의 뒤에서 보어로만 쓰인다. 총 8회 출현한다.

(22) 夫樂殺人者, 則不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141) 高亨注: “累’當讀藁, 土籠也. 起於累土, 猶言起於糞土也.”, 陳鼓應, 《老子注譯及評介》, 中華書局, 2016, 286쪽.

142) 楊伯峻·何樂土는 先秦시기에 ‘於’자구가 동작행위의 장소를 표시할 경우, 부사어로 쓰인 것은 漢 이후에야 점차 많아졌다고 하였다. 楊伯峻·何樂土,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18쪽.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천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23) 天下無道, 戎馬生於郊. 《老子·46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가 성 밖에서 새끼를 낳는다.)

(24)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일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예(22)의 ‘得志於天下’에서 ‘得’은 술어 동사이며, ‘志’는 목적어이다. ‘於天下’는 전목구조로서 동사 ‘得’이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23)의 ‘生於郊’에서 ‘生’은 ‘새끼를 낳다’는 뜻의 동사이며, ‘於郊’는 술어 동사 ‘生’이 발생하는 장소를 표시한다. 王弼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도 알아서 밖에서 구하지 않고 제각기 내면을 닦을 뿐이다. 그러므로 달리는 말을 돌려서 밭 갈고 거름 주는데 부린다.”라고 注하였다.¹⁴³⁾

예(24)에서, ‘使’는 접속사로서 ‘假若(가령)’의 의미이며,¹⁴⁴⁾ ‘介然’은 ‘微小(미미하고 작다)’의 뜻이다.¹⁴⁵⁾ ‘行於大道’의 ‘大道’는 ‘大路’이며, ‘於大道’는 동사 ‘行’이 발생한 장소를 나타낸다. ‘唯施是畏’에서 ‘唯’는 부사로서 ‘獨’의 의미이며, ‘施’는 동사 ‘畏’의 목적어이다. ‘是’는 동사 ‘畏’와 목적어 ‘施’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전치시키는데 사용된 구조조사이다.

③ 動作 行爲의 到達 場所 表示

‘於+목적어’ 구는 동작의 행위가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표시한다. 동사의 뒤에서 보어로 사용되고 있다. ‘到’에 해당한다. 5회 출현한다.

(25)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 《老子·48章》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위의 경지’에 이르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지 못함이 없다.)

(26) 人之生生, 動之於死地, 亦十有三. 《老子·50章》

(사람들이 생을 살다가 함부로 행동하여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또한 열에 셋이 있다.)

143) 王弼注: “天下有道, 知足知止, 無求於外, 各修其內而已. 故却走馬以治田糞也.”, 王弼, 《老子注》, 《諸子集成》三, 中華書局, 28쪽.

144)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1325쪽의 ‘使’용법 참조.

14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예(25)에서 ‘以至於無爲’에서 ‘以’는 접속사이며 ‘至’는 동사이다. 전치사 ‘於’는 동사 ‘至’가 도달하는 장소인 ‘無爲(무위의 경지)’를 표시한다. 예(26)의 ‘人之生生’¹⁴⁶⁾에서 ‘之’는 접속사이며 ‘生生’은 ‘삶을 과하게 살다’는 의미의 동복구이다. ‘動之於死地’에서 ‘動’은 ‘妄爲(함부로 행동하다)’의 의미이다.¹⁴⁷⁾ ‘之’는 동사로서 ‘去’, ‘到’의 의미이다.¹⁴⁸⁾ 전치사 ‘於’는 동사 ‘之’가 도달하는 장소인 ‘死地’를 이끌어 준다.

(2) 當

전치사 ‘當’은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와 관련한 장소를 표시하며 ‘臨’, ‘迎着’, ‘對着’ 등의 의미이다.¹⁴⁹⁾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3회 출현한다.

(27) 三十輻共一轂, 當其無有車之用. 埴埴以爲器, 當其無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老子·11章》

(서른 개의 수레바퀴 살이 한 개의 수레바퀴 통에 모여 있는데, 그것의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진흙을 이겨 그걸로 그릇을 빚는데, 그것의 빈 곳에 그릇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드는데, 그것의 빈 곳에 집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있게 하여서 이기(利器)로 삼지만, 그것을 비게 하여서 쓸모로 삼는다.)

예(27)에서 ‘當其無’가 3회 쓰이는데, ‘當’은 동작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趙榮珣은 ‘當其無’를 각각 ‘在車轂中有孔的地方’(수레바퀴 가운데 구멍이 있는 곳에서), ‘在陶器中空的地方’(그릇 가운데 빈 곳에서), ‘在門窓空當的地方’(문과 창이 빈 곳에서)이라고 해석하여, ‘當’을 ‘在’로 보았다.¹⁵⁰⁾ 전치사 ‘當’은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복구조를 이루며 술어 동사 ‘有’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146) ‘人之生生’은 王弼本에 ‘人之生’으로 되어 있으나, 傳奕本과 帛書本에 근거하여 수정된 것이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介》, 中華書局, 2016, 240쪽.

147) 高延第說: “動而之死’者, 謂得天本厚, 可以久生, 而不自保持, 自蹈死地.”(高延第가 말하길, “動而之死’는 하늘의 본성의 두터움을 얻으면 오래 살 수 있는데도,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여 스스로 죽을 자리를 밟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介》, 中華書局, 2016, 241쪽.

148) 趙榮珣,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29쪽.

14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8쪽.

150) 趙榮珣,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45-46쪽.

4) 道具 表示

《老子》에서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도구를 표시할 때는 전치사 ‘以’만 해당한다. 동작 행위의 도구를 소개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구체적인 사물 명사가 쓰인다.¹⁵¹⁾

(1) 以

전치사 ‘以’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도구를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거나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라도 그 생략된 목적어가 문맥상 사물 명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수량에 포함하였다. 4회 출현한다.

(28) 吾將鎮之以無名之樸. 《老子·37章》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道)로써 그것을 진압할 것이다.)

(29) 天下莫柔弱於水, 而功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딱딱하고 경직된 것을 공격하는데 그것(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30) 聖人不積, 既以爲人, 己愈有, 既以與人, 己愈多. 《老子·81章》

(성인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데, 이미 이것(재물)으로써 남을 위했다면 자신은 더욱 있게 되며, 이미 이것(재물)으로써 남에게 주었다면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예(28)에서 ‘以無名之樸’는 동목구인 ‘鎮之’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之’는 앞 문장의 ‘欲’(욕심)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老子》에서 전치사 ‘以’구는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28)처럼 보어로 쓰인 경우가 있다. 이런 형태는 특정 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것이다. 胡曉萍은 《論語》, 《孟子》에 나타나는 전치사 ‘以+목적어’구가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낭독할 때의 리듬, 가지런한 문장형식, 술어동사 강조, 술어동사와 앞 성분의 긴밀한 관계 등의 원인으로 後置된다고 하였다.¹⁵²⁾ 위 예(28)에서 ‘以’자구가 술어의 뒤에 쓰인 것은 마지막

151)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30-431쪽.

152) 胡曉萍, <《論語》, 《孟子》中介詞“以”用法之分析>, 綏化師專學報 第4期, 2000, 94-95쪽.

글자인 ‘樸’의 押韻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¹⁵³⁾

예(29)와 예(30)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생략된 형태이다. 예(29)의 ‘以其無以易之’에서 앞의 ‘以’는 원인 표시 접속사이며, 뒤에 쓰인 ‘無以’의 ‘以’는 전치사이다. ‘無以’는 부정사 ‘無’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형태이다. ‘無’는 부정을 표시하고, ‘以’는 생략된 목적어와 함께 어떤 사물을 소개함을 표시한다.¹⁵⁴⁾ 따라서 ‘無以易之’는 ‘無以()易之’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以’의 뒤에는 모종의 사물이 생략된 형태라 하겠다. 예(30)의 ‘既以爲人’와 ‘既以與人’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모두 첫 문장에서 언급한 ‘積(재물)’이 생략된 형태이다.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의 전치사 ‘以’가 각각 술어동사 ‘爲(위하다)’와 ‘與(주다)’의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5) 方式 表示

《老子》에서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하는 용법은 전치사 ‘以’만 사용된다. ‘以+목적어’ 구조가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하는 경우에 ‘以’의 목적어는 사물명사 외에, 추상명사, 형용사(구), 동사(구)가 쓰일 수 있다.¹⁵⁵⁾

(1) 以

전치사 ‘以’자구가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하는 용례는 총 42회 사용된다.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41회이며,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 경우는 1회 출현한다.

(31)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强天下… 善有果而已, 不敢以取强. 《老子·30章》

(도로써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무력으로 천하에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중략) 잘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으면 그만둘 뿐, 감히 이것으로 강함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32) 人之所惡, 唯孤, 寡, 不穀, 而王公以爲稱. 《老子·42章》

153) 양희석은 《老子·37章》의 둘째 단락은 入聲인 ‘作’, ‘樸’, ‘欲’으로 운을 달았다고 하였다. 양희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78쪽.

15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21쪽.

15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31쪽.

-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가 비록 ‘孤’, ‘寡’, ‘不穀’이지만, 왕은 이로써 칭함을 삼는다.)
- (33)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군대를 사용하며,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 (34)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 (35) 民不畏死, 奈何以死懼之. 《老子·74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 (36) 大小多少; 報怨以德. 《老子·63章》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이 여기며, 원망을 덕으로써 갚아라.)

예(31)–(35)에 사용된 전치사 ‘以’자구는 술어의 앞에 위치하여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한다.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道’, ‘兵’, ‘正’, ‘奇’, ‘無事’, ‘靜’, ‘死’ 등 추상명사, 형용사, 동사(구)가 사용되었고, 때로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예(31)의 ‘不敢以取強’에서 ‘以’의 목적어는 앞의 ‘兵’이 생략되었고, 예(32)의 ‘而王公以爲稱’에서 ‘以’의 목적어는 앞의 ‘孤’, ‘寡’, ‘不穀’이 생략된 것이다.

예(36)에서 ‘報怨以德’의 ‘以德’은 동목구인 ‘報怨’(원망을 갚다)의 뒤에서 보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의 방식을 표시한다. 추상명사 ‘德’이 ‘以’의 목적어로 쓰였다. ‘大小多少’의 ‘大小’(작은 것을 크다고 여기다)와 ‘多少’(적은 것을 많다고 여기다)는 모두 ‘동사+목적어’의 구조이다. ‘大’와 ‘多’는 각각 ‘크다고 여기다’와 ‘많다고 여기다’라는 뜻으로 형용사가 의동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6) 根據 表示

《老子》에서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근거를 표시할 때는 전치사 ‘以’와 ‘於’가 사용된다.

(1) 以

전치사 ‘以’자구가 동작 행위의 근거를 표시하는 용례는 12회 출현한다.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거나, 전치사구의 뒤에 놓이는 술어가 생략됨으로 인해 단독으로 술어성분으로 충당되기도 한다.

전치사는 보통 목적어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만, 고대 중국어의 상용 전치사 중
에서 ‘以’, ‘爲’, ‘與’ 등 일부 전치사는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다. 楊伯峻·何樂士에
따르면, 대부분 전치사는 목적어 생략이 불가하지만, 전치사 ‘以’, ‘爲’, ‘與’의 목적
어는 생략할 수 있다.¹⁵⁶⁾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으나 앞 문장을 통해 생략
된 목적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근거를 표시하는 전치사 ‘以’자구는 목적어가 생
략되거나, 목적어가 전치된 형태가 쓰인다.

(37) 故常無, 欲以觀其妙, 常有, 欲以觀其皦. 《老子·1章》

(그러므로 ‘영원한 무’, 이것으로써 그것(道)의 오묘함을 보게 되고, ‘영원한 유’, 이것으로써
그것(道)의 운행함을 보게 된다.)

(38) 萬物竝作, 吾以觀復. 《老子·16章》

(만물이 아울러 성장 작용을 하니, 나는 이것으로써 순환 반복됨을 관찰할 수 있다.)

(39) 自今及古, 其名不去, 以閱衆甫.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가지 않았으니 이로써 만물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다.)

(40) 既得其母, 以知其子. 《老子·52章》

(이미 그 어미를 얻었으니 이로써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41)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老子·21章》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는가? 이것으로써이다.)

예(37)-(40)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모두 생략된 형태이며 ‘以+(之)’의 구조
라 하겠다. 생략된 목적어의 의미는 앞 문장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으며, ‘以+
(之)’는 모두 동작 행위의 근거를 이끈다.

예(37)의 ‘欲以觀其妙’와 ‘欲以觀其皦’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앞항의 ‘常無’
와 ‘常有’가 생략된 것이다. 예(38)에서 ‘萬物竝作’의 ‘竝作’은 ‘一起生長’(함께 나고
자라다)의 뜻이며, ‘吾以觀復’의 ‘觀復’은 ‘순환 왕복의 규칙을 관찰하다’라는 뜻이
다.¹⁵⁷⁾ ‘吾以觀復’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앞항의 ‘萬物竝作’이 생략된 것이라
하겠다.

예(39)와 예(40)에 사용된 ‘以’는 구조상 절과 절의 사이에 놓이게 되어, ‘以’를
전치사로 볼 것인지, 접속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老子

156) “哪些介詞可以省略賓語, 哪些不可以. 在常用介詞中, ‘以’, ‘爲’, ‘與’的賓語常可省略, 而‘於’, ‘于’, ‘乎’的賓語不
可省略. 其他絕大多數介詞在運用中都帶着賓語. 總的來說, 介詞與其賓語是不可分離的.”, 楊伯峻·何樂士, 《古
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26쪽.

157) 饒尚寬 譯註, 《老子》, 中華書局, 2016, 42쪽.

»에 사용된 ‘以’의 접속사 용례를 분석한 결과, 대명사 ‘是’와 결합한 고정격식인 ‘是以’를 제외하면, ‘以’ 단독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 용례는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예(39)의 ‘以闕衆甫’와 예(40)의 ‘以知其子’에서 ‘以’는 목적어가 생략된 ‘以(之)’로 보아 동작 행위의 근거를 표시하는 전치사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예(41)에서 ‘何以’는 의문대명사 ‘何’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형태로서, ‘以’는 동사 ‘知’의 근거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의문대명사 ‘何’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여 ‘以’의 앞으로 전치되었다. 뒷항의 ‘以此’은 앞의 ‘何以’에 관한 질문에 답한 것으로, 역시 근거를 표시한다. ‘以此’의 뒤에는 술어 동사 ‘知’가 생략되었으나, 앞 문장을 통해 생략된 술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2) 於

전치사 ‘於’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근거를 표시하며, ‘依照’, ‘根據’, ‘按照’ 등으로 해석된다.¹⁵⁸⁾ 고대 중국어에서 근거를 표시하는 ‘於+목적어’구는 동사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老子》에는 보어로 사용된 용례만 보인다. 1회 출현한다.

(42) 故從事於道者, 同於道; 德者, 同於德; 失者, 同於失. 《老子·23章》

(그러므로 도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도와 하나가 되며, 덕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덕과 하나가 되며, ‘잃음’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잃음’과 하나가 된다.)

예(42)에서 ‘故從事於道者’의 전치사 ‘於’는 동사 ‘從事’의 근거를 소개한다. 뒷항 ‘同於道’의 ‘於’는 비교의 대상을 소개한다. 兪月은 둘째 문장의 ‘德者’와 ‘失者’는 각각 ‘[從事於]德者’와 ‘[從事於]失者’로서 첫째 항의 ‘從事於’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¹⁵⁹⁾ 따라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각각 ‘道’, ‘德’, ‘失’이므로, 전목구 ‘於道’, ‘於德’, ‘於失’은 동사 ‘從事’의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從事於道者’의 ‘者’는 동사구 ‘從事於道’와 결합하여 명사성 구조로 만드는 구조조사임을

15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76쪽.

159) 兪月은 ‘德者’와 ‘失者’의 앞에 ‘從事’의 글자가 생략된 것이므로, ‘從事於道者同於道, 從事於德者同於德, 從事於失者同於失’(도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도와 같고, 덕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덕과 같으며, 잃음에 근거하여 일하는 자는 잃음과 같다)과 같다고 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47쪽.

알 수 있다. 王弼과 양희석도 ‘於道’를 각각 ‘도에 근거하여’, ‘도를 따라서’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⁶⁰⁾

반면, 趙榮珦은 ‘故從事於道者’의 전치사 ‘於’를 동작의 대상을 소개하는 ‘與’의 의미로 해석하여 다른 견해를 나타낸다.¹⁶¹⁾ 趙榮珦은 전치사 ‘於’의 목적어를 ‘道者’(덕을 구하는 자)로 보아, ‘於道者’를 ‘從事’의 대상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老子》에 쓰인 ‘道者’는 예(42)를 제외하면 7회 출현하는데, 구조조사 ‘者’는 모두 동사구의 수식을 받는 ‘동사+목적어+者’ 형태이다. ‘道’는 동사의 목적어이지 ‘者’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 것이 아니다.¹⁶²⁾ 따라서 예(42)에서도 ‘從事於道者’는 ‘從事於道’가 ‘者’를 수식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於道’는 동사 ‘從事’의 근거를 표시한다고 하겠다.

7) 原因 表示

《老子》에서 동작 행위의 원인을 표시하는 경우는 전치사 ‘以’만 해당한다.

(1) 以

전치사 ‘以’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원인을 표시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因此’에 해당한다. 1회 출현한다.

160) “‘從事’는 모든 행동이 도에 근거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무형’과 ‘무위’로써 만물을 만들고 구제한다. 그러므로 도에 근거하여 일을 하는 자는 무위로써 으뜸을 삼고, 불언(말하지 않음)으로써 교화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듯하여, 만물이 그 참됨을 얻어 도와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도’와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從事, 謂舉動從事於道者也. 道以無形無爲成濟萬物, 故從事於道者, 以無爲爲君, 不言爲教, 綿綿若存, 而物得其眞, 與道同體. 故曰同於道.)”라고 註하였다. 王弼, 《老子注》, 《諸子集成》三, 中華書局, 13쪽. 양희석도 ‘於’를 근거를 소개하는 용법으로 해석한다. 양희석,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22-124쪽.

161) 趙榮珦은 ‘從事於道者, 同於道’에 대해 ‘도를 구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도를 구하는 사람은 도와 같기 때문이다’(與求道的人一起做事, 是因求道的人跟道相同.)라고 해석하였다. 趙榮珦, 《老子道德經 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01쪽.

162) 《老子》에서 ‘道者’는 예(112)를 제외하면 7회 쓰인다. ‘者’는 여기서 2회, 구조조사로 5회 쓰인다. 구조조사로 쓰인 용례는 ‘保此道者’(이 도를 간직한 자), ‘有道者’(도가 있는 자)(2회), 善爲道者(도를 잘 행하는 자), ‘唯有道者’(오직 도가 있는 자)이다. 이때 ‘者’는 모두 동사구의 수식을 받는 것이지, ‘道’의 수식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3) 吾是以知無爲之有益. 《老子·43章》

(나는 이 때문에 '무위'가 유익하는 것을 안다.)

위 예(43)에서 '是以'는 술어 동사 '知'의 원인을 표시하고 있다. '是以'의 '是'는 대명사로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며 전치사의 앞으로 전치된 것이다. '대명사+전치사'의 구조인 '是以'가 술어의 앞에서 원인을 표시한다. 《老子》에서 '是以'는 대개 접속사로 쓰이지만, 예(43)의 '是以'는 주어 '吾'와 술어 동사 '知'의 사이에 놓여 부사어로서 술어를 수식하므로 전치사로 분류하였다.¹⁶³⁾

8) 被動 表示

《老子》에서 전치사구가 피동을 표시하는 경우는 '爲'만 쓰인다.

(1) 爲

전치사 '爲'는 동작 행위의 주동자를 이끌어 피동을 표시할 수 있다. '爲+목적어+술어동사' 형식의 피동 용법은 春秋 戰國시기 즈음에 출현하여 戰國 말기의 문헌에는 '爲'자 형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¹⁶⁴⁾

《老子》에도 '爲'를 사용한 피동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아래의 예(44)에 쓰인 전치사 '爲'는 행위 주동자를 목적어로 취하여 '爲+목적어' 구조를 이루며, 동작 행위의 피동을 표시한다.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爲'는 '被'에 해당한다. 1회 출현한다.

(44) 不可得而貴, 不可得而賤. 故爲天下貴. 《老子·56章》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에 의해 귀하게 여겨진다.)

(45) 戰而不克, 爲諸侯笑. 《左傳·襄公十年》

(전쟁하여서 이기지 못한다면, 제후들에 의해 비웃음을 당한다.)

163) 《老子》에 출현하는 '是以'는 총 37회이다. 그중 36회는 인과 복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였다.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놓인 43장의 경우만 전치사로 분류하였다.

16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676쪽.

(46) 夫堯畜畜然仁, 吾恐其爲天下笑. 《莊子·徐無鬼 12》

(저 요임금은 돌보고 사랑하면서 仁을 행하고 있으니, 나는 그가 천하 사람들에 의해 비웃음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

예(44)의 ‘故爲天下貴’에서 전치사 ‘爲’는 목적어 ‘天下’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고, 동사 ‘貴(귀하게 여기다)’의 행위자를 소개한다. ‘故爲天下貴’에 대해, 陳鼓應은 ‘所以爲天下所尊貴’(그래서 천하사람들에 의해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해석하였고, 饒尚寬도 ‘被天下人尊重’(천하사람들에 의해 존중받는다)이라고 해석하여, 전치사 ‘爲’를 피동 표시 용법으로 풀이하었다.¹⁶⁵⁾

예(45)-(46)은 先秦 시기 다른 문헌 중에서 ‘爲’가 피동을 표시하는 전치사로 쓰인 용례들이다. 예(45)의 ‘爲諸侯笑’와 예(46)의 ‘爲天下笑’에서 ‘爲’의 목적어인 ‘諸侯’와 ‘天下’는 술어 동사 ‘笑’의 행위 주동자이므로, ‘爲+목적어’는 동작 행위의 피동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다.

2. 前置詞句의 統辭 構造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목구조를 이루어, 술어의 앞이나 뒤에서 각종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구의 통사적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 전치사와 그 목적어와의 결합 형태,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 분석, 전치사구와 술어의 결합 형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前置詞와 目的語의 結合 形態

전치사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뒤에 위치한다. 하지만 고대 중국어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前置되거나 생략된 형태가 출현한다.¹⁶⁶⁾ 楊伯峻·何樂

165)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上海印書館, 2016, 263쪽, 饒尚寬 譯註, 《老子》, 中華書局, 2016, 140쪽.

166) 呂叔湘은 關係詞 ‘以’字는 補詞의 뒤에 놓일 수 있으며, 또한 ‘以’자 뒤의 補詞(혹은 止詞)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다. 呂叔湘은 關係詞는 之, 的, 所, 者; 與, 于, 以, 爲, 把, 被, 給, 和; 而, 則, 因, 故, 雖 등이 있다고 하였으니, 구조조사·전치사·접속사를 포함하여 關係詞라고 분류한 것이다. “전치사 以”는 “關係詞 以”

士에 따르면, 전치사는 모두 목적어를 가지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는 때로 생략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¹⁶⁷⁾

우선, 다음의 예(47)-(50)을 통해 先秦 시기에 쓰인 다른 문헌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전치되거나 생략되는 용례를 살펴보겠다.

- (47)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遜以出之, 信以成之. 《論語·衛靈公》
(군자는 의로써 바탕을 삼고, 예로써 그것을 행하며, 겸손함으로써 그것을 나타내며,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룬다.)
- (48) 楚國方城以爲城, 漢水以爲池. 《左傳·魯僖公》
(초나라는 방성산으로써 성으로 삼고, 한수으로써 垓字¹⁶⁸⁾로 삼는다.)
- (49) 古之爲關也, 將以御暴; 今之爲關也, 將以爲暴. 《孟子·盡心下》
(옛날에 관문을 만든 것은 장차 이로써 포악한 자를 막으려고 한 것인데, 지금 관문을 만드는 것은 장차 이로써 포악한 짓을 하려는 것이다.)
- (50) 湯使遺之牛羊, 葛伯食之, 又不以祀. 《孟子·滕文公下》
(탕왕이 사람을 시켜 그에게 소와 양을 보냈는데 갈백이 이것을 먹고 또 이로써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위 예(47)과 예(48)은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전치된 용례이다.

예(47)의 ‘義以爲質’, ‘禮以行之’, ‘遜以出之’, ‘信以成之’에서 ‘義’, ‘禮’, ‘遜’, ‘信’은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며 전치사의 앞에 놓여 ‘목적어+以’의 구조가 된 것이다. 예(48)의 ‘方城以爲城’과 ‘漢水以爲池’에서 ‘方城’과 ‘漢水’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전치된 것이다.

예(49)와 예(50)은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용례이다.

예(49)의 ‘將以御暴’와 ‘將以爲暴’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將以(之)御暴’와 ‘將以(之)爲暴’라 하겠다. 생략된 목적어 ‘之’는 모두 앞 문장에 쓰인 ‘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예(50)의 ‘又不以祀’에도 ‘以’의 목적어는 생략된 형태로 ‘又不以(之)祀’ 구조이다. 생략된 목적어 ‘之’는 앞 문장의 ‘牛羊’을 가리킨다.

위 예(47)-(50)의 용례처럼 전치사 ‘以’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전치사의 앞으로 전치될 수 있으며,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 문장에 이미 출현한 경

에 해당하고, “以의 목적어”는 “以의 補詞”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2014, 24-25쪽, 69-72쪽.

16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76쪽.

168) 垓字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위를 둘러서 판 못을 말한다.

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¹⁶⁹⁾

《老子》에도 전치사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뒤에 놓이지만, 때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前置되거나 생략된 형태가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를 ‘전치사+목적어’, ‘목적어+전치사’, ‘전치사+(목적어 생략)’의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前置詞+目的語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목적어’ 구조를 이루어 보어로 사용되거나 부사어로 사용된다. 이때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구), 대명사, 형용사, 동사(구)가 쓰인다.¹⁷⁰⁾

① 前置詞+名詞(句)

‘전치사+목적어’ 구조에서 목적어가 명사(구)인 경우를 말한다. 이 구조는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이거나,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a. 보어로 사용된 경우

‘전치사+명사(구)’가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 경우는 전치사 ‘於’와 ‘以’가 해당하며, ‘以’는 2회, ‘於’는 28회 출현한다.

(51) 吾將鎮之以無名之樸. 《老子·37章》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로써 그것을 진압할 것이다.)

(52)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老子·63章》

(그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도모하고, 그 미세한 것에서 큰 것을 행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일어난다.)

(53)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老子·64章》

169) 安炳國, 《孟子 漢文 文法の 構造 分析》, 에피스테메, 2018, 90-93쪽.

170)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 또는 기타성분(즉 형용사, 동사, 주술구 등)으로 충당한다. 楊伯峻·何樂土,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76쪽.

(한 이름의 나무도 털끝 같은 새싹에서 생겨나고, 구층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되며,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된다.)

예(51)의 ‘以無名之樸’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명사구 ‘無名之樸’(이름이 없는 통나무)이다. ‘無名’과 ‘樸’ 사이에 구조조사 ‘之’가 놓여 명사구가 되었다.

예(52)의 ‘於其易’, ‘於其細’, ‘於易’, ‘於細’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로 쓰인 형용사 ‘易’와 ‘細’는 대명사 ‘其’의 수식을 받으므로, 피수식어인 ‘易’와 ‘細’는 형용사가 명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¹⁷¹⁾ 예(53)의 ‘生於毫末’에서 형용사 ‘毫’(아주 가늘다)와 명사 ‘末’(맹아)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어, 전치사 ‘於’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b.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

‘전치사+명사(구)’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전치사 ‘以’, ‘爲’, ‘與’, ‘當’, ‘自’가 해당한다. ‘當’은 3회, ‘自’는 1회, ‘爲’는 2회, ‘以’는 17회, ‘與’는 1회 출현한다.

(54) 三十輻, 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埴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老子·11章》

(서른 개의 수레바퀴 살이 한 개의 수레바퀴 통으로 모아져 있는데, 그것의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진흙을 이겨 그걸로 그릇을 빚는데, 그것의 빈 곳에 그릇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드는데, 그것의 빈 곳에 집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55) 自今及古, 其名不去, 以閱衆甫.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지 않으니, 그것으로 ‘모든 시작’을 살핀다.)

(56) 聖人在天下, 歛歛焉, 爲天下渾其心.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음을 혼연하게 한다.)

(57) 以道莅天下, 其鬼不神. 《老子·60章》

(도로써 천하에 임하게 되면 그 귀신은 신령스럽지 못하게 된다.)

(58)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현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여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큰 순조로움’에 이른다.)

예(54)에는 ‘當其無’가 3회 출현한다. 전치사 ‘當’의 목적어인 ‘其無’는 ‘대명사+

171) 趙榮珮,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94쪽.

명사'의 구조이다. 대명사 '其'가 관형어로 쓰여 '無'를 수식하므로, '無'는 명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當其無'는 각각 동사 '有'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예(55)의 '自今及古'에서 전치사 '自'의 목적어는 명사 '今'이며, '自今'은 동사 '及'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예(56)의 '爲天下渾其心'에서 전치사 '爲'의 목적어는 명사 '天下'이며, 동사 '渾'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예(57)의 '以道莅天下'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명사 '道'이며, '以道'는 동사 '莅'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예(58)의 '與物反矣'에서 명사 '物'이 전치사 '與'의 목적어이며, 동사 '反'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反'은 '返'(되돌아가다)의 假借字이며, '與物反矣'은 德이 사물과 함께 순박함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¹⁷²⁾

② 前置詞+代名詞

'전치사+목적어' 구조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를 말한다. '전치사+대명사' 구조는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인다. 전치사 '與'와 '爲'가 해당하며, '與'는 2회, '爲'는 1회 쓰인다.

(59)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오직 다투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퉴 수 있는 자가 없다.)

(60) 吾不知其名, 強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老子·25章》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그것을 별칭 하여 '道'라고 하고, 억지로 그것(道)에게 이름을 지어 '큰'이라고 한다.)

예(59)의 '與之'는 술어동사 '爭'을 수식한다. '之'는 '성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써 전치사 '與'의 목적어이다. '莫'은 '沒有什麼人'(누구도 없다)을 뜻하는 부정 대명사이다. 예(60)의 '爲之'에서 전치사 '爲'의 목적어는 대명사 '之'이다. '爲之'는 술어 '名'을 수식하여 술어의 대상을 표시한다. '名'은 '이름짓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③ 前置詞+形容詞

172)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90쪽.

‘전치사+목적어’의 구조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형용사가 쓰인 경우이다.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以+형용사’ 구조는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3회 출현한다.

(61)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군대를 사용하며,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62)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예(61)에서 ‘以正’과 ‘以奇’는 각각 술어 동사 ‘治’와 ‘用’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인 ‘正’(바르다)과 ‘奇’(기묘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예(62)의 ‘牝常以靜勝牡’에서 ‘以靜’는 술어 동사 ‘勝’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인 ‘靜’(고요하다)은 형용사이다. 뒷절 ‘以靜爲下’의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서 ‘~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④ 前置詞+動詞(句)

전치사의 목적어는 때로 동사(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¹⁷³⁾ 전치사 ‘於’와 ‘以’가 해당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거나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인다.

a. 보어로 사용된 경우

‘전치사+동사(구)’가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사용된 경우는 전치사 ‘於’만 해당하며, 14회 출현한다.

(63) 德者, 同於德; 失者, 同於失. 《老子·23章》

(덕을 베푸는 자는 ‘덕’과 하나가 되며, 잃어버린 자는 ‘잃음’과 하나가 된다.)

173)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보통 體詞性 단어가 쓰이지만 때로 술어성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論語》에도 그러한 예가 있다.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論語·泰伯 5》(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묻고,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적은 사람에게 묻는다),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第6期, 1998.

(64) 咎莫大於欲得, 禍莫大於不知足. 《老子·46章》

(허물에는 어떠한 것도 얻고자 욕심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재앙에는 어떠한 것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65) 禍莫大於輕敵. 《老子·69章》

(재앙에는 어떠한 것도 적을 깔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예(63)의 ‘同於失’에서 동사 ‘失’이 전치사 ‘於’의 목적어로 쓰였다. 예(64)의 ‘於欲得’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欲得’이며, ‘동사+목적어’ 구조이다. 또한 ‘於不知足’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不知足’이며, ‘부사+동사+목적어’ 구조이다. 예(65)의 ‘於輕敵’에서는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輕敵’이며, ‘동사+목적어’ 구조이다. 예(64)와 예(65)의 문장은 ‘A莫大於B’의 구조이다. A에 해당하는 ‘咎’와 ‘禍’는 비교의 범위이다. ‘莫’은 주술술어문의 주어로 쓰인 無定 대명사이다. 비교문인 ‘莫大於B’는 ‘아무것도 B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뜻이며 최상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최고 단계의 비교이다.¹⁷⁴⁾

b.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

‘전치사+동사(구)’가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경우는 전치사 ‘於’와 ‘以’가 해당한다. ‘於’는 1회, ‘以’는 3회 출현한다.

(66)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흔히 거의 이루어질 때 그것을 실패한다.)

(67)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군대를 사용한다.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68) 民不畏死, 奈何以死懼之. 《老子·74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죽음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예(66)의 ‘於幾成’에서 ‘幾成’은 ‘부사+동사’의 구조이며, ‘於’의 목적어이다. 예(67)의 ‘以無事’에서 ‘無事’는 ‘동사+명사’의 구조이며 ‘以’의 목적어로 쓰였다. 예(68)의 ‘以死’에서 동사 ‘死’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다.

174) 何樂士, 《《左傳》虛詞研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260-261쪽.

(2) 目的語+前置詞

‘목적어+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의 앞에 놓인 구조를 말한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前置되면 목적어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¹⁷⁵⁾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에 놓인 경우는 ‘以’자구만 해당한다.

‘목적어+以’ 구조는 모두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만 쓰이며, ‘以’의 목적어는 대명사와 형용사가 사용된다.

① 代名詞+以

대명사가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이고 전치사의 앞으로 전치된 경우는 ‘是以’와 ‘何以’가 해당한다. ‘是以’는 1회, ‘何以’는 3회 출현한다.

(69) 吾是以知無爲之有益. 《老子·43章》

(나는 이 때문에 ‘무위’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70) 吾何以知衆甫之狀哉? 《老子·21章》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는가?)

(71) 吾何以知天下然哉? 《老子·54章》

(나는 무엇으로써 천하가 그러한지를 알 수 있었는가?)

(72) 吾何以知其然哉? 《老子·57章》

(나는 무엇으로써 그것이 그러함을 알 수 있었는가?)

예(69)의 ‘是以’에서 ‘是’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서 前置된 것이다. 西周 春秋 시기에는 대명사 ‘是’가 목적어로 쓰이면 반드시 동사나 전치사의 앞에 놓였다. 《詩經》에도 前置된 용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論語》나 《孟子》에 이르러 목적어 ‘是’가 後置된 문장형식이 많이 출현함과 동시에, 前置의 용례도 적지 않았다.¹⁷⁶⁾ 《老子》에서 ‘是以’는 대부분 접속사로 사용되지만, 예(69)의 ‘是以’는 주어의 뒤에 쓰여 술어 동사 ‘知’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是以’는 연결기능을 하는 접속사가 아닌 동작 행위의 원인을 표시하는 전치

175) 胡曉萍, <《論語》, 《孟子》中介詞“以”用法之分析>, 綏化師專學報 第4期, 2000, 91-92쪽.

176) 梁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76-978쪽.

사구라고 하겠다. ‘無爲之有益’는 술어 동사 ‘知’의 목적어이며, ‘주어+之+술어’의 구조이다.

예(70)-(72)는 ‘何以’가 쓰인 용례이다. ‘何以’는 의문대명사 ‘何’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형태로서, 의문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여 ‘以’의 앞으로 전치된 것이다. ‘用什麼, 拿什麼’(무엇으로)라는 뜻이며, 점차 고정격식을 이루어 ‘爲什麼’를 나타낸다.¹⁷⁷⁾

② 形容詞+以

‘목적어+以’ 구조에서 형용사가 ‘以’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를 말한다. ‘형용사+以’ 구조는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2회 출현한다.

(73) 孰能濁以靜之徐清. 孰能安以久動之徐生. 《老子·15章》

(누가 능히 혼탁한 것을 고요하게 해서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차분한 것을 오래 움직이게 해서 서서히 생겨나게 할 수 있는가.)

예(73)의 ‘濁以’와 ‘安以’에서 ‘濁’(혼탁하다)과 ‘安’(차분하다)은 모두 형용사가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여, 전치사의 앞으로 전치된 것이다. 전치사 ‘以’는 동작을 시행할 때 관련된 대상을 소개하며 ‘把’나 ‘同’으로 해석된다.¹⁷⁸⁾ ‘濁以’와 ‘安以’는 각각 술어 ‘靜’(안정시키다)과 ‘久動’(오래 움직이다)의 대상을 표시한다. 전치사의 목적어인 ‘濁’과 ‘安’의 위치가 전치사의 앞에 놓여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

(3) 前置詞의 目的語 省略

고대 중국어의 상용 전치사 중에 ‘以’, ‘爲’, ‘與’는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고, ‘於’, ‘于’, ‘乎’는 불가하다.¹⁷⁹⁾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 중,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

177) 梁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794쪽.

17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13쪽.

179) 梁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26-827쪽.

된 경우는 오직 ‘以’만 해당한다.

전치사는 대부분 목적어를 수반하지만,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는 자주 나타난다. 《左傳》의 경우, 목적어와 결합한 ‘以+목적어+동사 술어’ 형태와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以+(목적어)+동사 술어’ 형태는 약 4:1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5회 중 1회는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는 의미이다. 전치사 ‘以’의 경우, 그 목적어가 前置될 수 있고, 또한 생략될 수 있으며, 게다가 ‘以’자구가 술어로 충당될 수도 있으므로, 전치사 ‘以’가 접속사로 한층 더 虛化 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겠다.¹⁸⁰⁾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는 총 28회이다.

(74)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老子·6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한 사람은 이로써 백성을 총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로써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자 하였다.)

(75) 聖人不積, 既以爲人, 己愈有, 既以與人, 己愈多. 《老子·81章》

(성인은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데, 이미 이것으로써 남을 위했다면 자신은 더욱 있게 되며, 이미 이것으로써 남에게 주었다면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예(74)에서 ‘非以明民’과 ‘將以愚之’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非以(之)明民’과 ‘將以(之)愚之’의 구조라 하겠다. 생략된 목적어 ‘之’는 앞항에 쓰인 ‘道’를 가리킨다. 예(75)에서 ‘既以爲人’와 ‘既以與人’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既以(之)爲人’와 ‘既以(之)與人’의 구조라 하겠다. 생략된 목적어 ‘之’는 모두 앞 문장에서 언급한 ‘쌓아놓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74)와 예(75)의 용례와 같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앞 문장에 출현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2) 前置詞 目的語의 意味 分類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의미적 성격에 따라 有情物, 無情物, 동작 행위, 추상적 개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有情物은 사람을 표시하며, 無情物은 식물·사물·장소를 표시하며, 추상적 개념은 추상·상태·시간·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180)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第6期, 1998.

(1) 有情物 目的語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有情物을 의미하는 경우는 12회이며, 모두 사람을 나타낸다. 유정물 단어와 결합한 전치사는 ‘於’, ‘以’, ‘與’, ‘爲’가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경우도 유정물에 포함하였다.

- (76) 含德之厚, 比於赤子. 《老子·55章》
(덕을 두텁게 품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 (77) 是以聖人執左契, 而不責於人. 《老子·79章》
(이 때문에 성인은 좌계를 잡더라도 사람들에게 따지지 않는다.)
- (78) 欲先民, 必以身後之. 《老子·66章》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보다 뒤에 놓아야 한다.)
- (79)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퉴 수 있는 자가 없다.)
- (80) 故不可得而親, 不可得而疏; 不可得而利, 不可得而害; 不可得而貴, 不可得而賤. 故爲天下貴. 《老子·56章》
(그러므로 친하게 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에 의해 귀하게 여겨진다.)

위 예(76)-(80)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모두 사람을 뜻하는 유정물 단어이다.

예(76)의 ‘比於赤子’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赤子’이며 ‘어린아이’를 뜻한다. ‘於赤子’는 술어의 비교 대상을 표시한다. 예(77)의 ‘不責於人’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人’이며 ‘다른 사람’을 뜻한다. ‘於人’은 술어의 동작 행위 대상을 표시한다. 예(78)의 ‘必以身後之’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身’이며 ‘자기 자신’을 뜻한다. ‘以身’는 술어의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한다. 예(79)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之’이며, ‘성인’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예(80)의 ‘爲天下貴’에서 전치사 ‘爲’의 목적어는 ‘天下’이며, 이 문장에서 ‘天下’는 ‘천하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79)의 ‘不可得而親’에서 ‘可得’은 ‘可能’에 해당하며, ‘可得’은 ‘而’와 함께 쓰일 수 있다.¹⁸¹⁾ ‘而’는 부사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연결 표시 접속사이다. 예문에는 “不可得而”와 동사의 결합 형태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181) 張玉金, 《古今漢語虛詞大辭典》, 遼寧人民出版社, 1995, 398쪽.

(2) 無情物 目的語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無情物을 의미하는 단어는 식물·사물·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총 23회 사용된다.

① 植物 名詞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식물을 의미하는 단어는 2회 출현하며, 전치사 ‘於’와 결합한다.

(81) 吾將鎮之以無名之樸. 《老子·37章》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로써 그것을 진압할 것이다.)

(82) 合抱之木, 生於毫末. 《老子·64章》

(한 아름의 나무도 털끝 같은 새싹에서 생겨난다.)

예(81)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無名之樸’으로 ‘樸’(통나무)은 식물이다. 예(82)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毫末’이며, 형용사 ‘毫(아주 가늘다)’와 명사 ‘末(땀아)’가 결합하여 식물을 의미하는 명사구이다.

② 事物 名詞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물을 의미하는 단어는 5회 출현하며, 전치사 ‘以’, ‘於’, ‘與’와 결합하였다.

(83) 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强天下. 《老子·30章》

(도로써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병기로써 천하에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84) 九層之臺, 起於累土. 《老子·64章》

(구층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된다.)

(85)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老子·65章》

(현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여,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86) 天下莫柔弱於水.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예(83)-(86)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兵’, ‘累土’, ‘物’, ‘水’는 모두 사물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③ 場所 名詞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장소를 의미하는 경우는 13회 출현하며, 전치사 ‘於’나 ‘以’와 결합한다.

(87) 夫樂殺人者, 則不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살인을 즐기는 자라면 천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88) 魚不可脫於淵, 國之利器不可以示人. 《老子·36章》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나라의 이로운 기물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89) 故以身觀身, 以家觀家, 以鄉觀鄉, 以邦觀邦, 以天下觀天下. 《老子·54章》

(그러므로 몸으로써 몸을 보고, 집안으로써 집안을 보고, 마을로써 마을을 보고, 나라로써 나라를 보고, 천하로써 천하를 본다.)

예(87)-(89)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天下’, ‘淵’, ‘家’, ‘鄉’, ‘邦’가 쓰이는데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3) 動作 行爲 目的語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작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구)인 경우가 13회 출현하며, 전치사 ‘於’, ‘以’와 결합한다.

(90) 同於失者, 道亦失之. 《老子·23章》

(‘잃음’과 하나된 자는 도가 또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91) 民不畏死, 奈何以死懼之. 《老子·74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죽음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92)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

다.)

예(90)-(92)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失(잃다)’, ‘死(죽다)’, ‘貴生(생을 귀하게 여
기다)’가 사용되었으며, ‘失’, ‘死’, ‘貴生’은 동작 행위를 의미한다.

(4) 抽象的 概念의 目的語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추상적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는 추상·상태
· 시간· 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① 抽象 表示

《老子》에서 추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18회 출현한다. ‘道’,
‘德’, ‘喪禮’, ‘智’가 있으며, 대명사 ‘此’, ‘之’가 ‘道’를 가리키는 경우도 이 분류에
포함하였다. 전치사 ‘於’, ‘以’, ‘爲’와 결합한다.

(93)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老子·8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능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道와 가깝다.)

(94) 偏將軍居左, 上將軍居右, 言以喪禮處之. 《老子·31章》

(편장군은 왼쪽에 거처하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거처한다. 이것은 상례로써 그곳에 거처했
음을 말한다.)

(95) 吾不知其名, 強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老子·25章》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그것을 별칭 하여 ‘道’라고 하고, 억지로 그것
(道)에게 이름을 지어 ‘큰’이라고 한다.)

(96) 自今及古, 其名不去, 以閱衆甫.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가지 않았으니 이(道)에 근거하여 만물의 시작
을 살펴볼 수 있다.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道)으
로써이다.)

예(93)과 예(94)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道’, ‘喪禮’이며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
는 단어이다. 예(95)와 예(96)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각각 대명사 ‘之’와 ‘此’가
쓰이는데, 이들은 모두 ‘道’를 가리키므로 추상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분류하였

다.

② 狀態 表示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총 11회이다. 전치사 ‘於’나 ‘以’와 결합한다.

(97) 以正治國, 以奇用兵.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함’으로써 군대를 사용한다.)

(98)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99)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老子·63章》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일어난다.)

예(97)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형용사 ‘正’(바르다), ‘奇’(기묘하다)이며, 예(98)에서 전치사 ‘以’의 목적어는 ‘靜’(고요하다)이다. 예(99)에서 전치사 ‘於’의 목적어는 형용사 ‘易’(쉽다)와 ‘細’(미세하다)이다. 위 예(97)-(99)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正’, ‘奇’, ‘靜’, ‘易’, ‘細’는 모두 형용사로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③ 時間 表示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치사 ‘自’만 해당한다. 1회 출현한다.

(100) 自今及古, 其名不去, 以閱衆甫. 《老子·21章》

(지금부터 태고에 이르도록 그 이름이 떠나지 않으니, 그것으로써 ‘모든 시작’을 살핀다.)

예(100)의 ‘自今及古’에서 전치사 ‘自’의 목적어는 ‘今’이다. ‘今’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④ 存在 表示

《老子》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13회이다. ‘有’나 ‘無’가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며, 전치사 ‘當’, ‘於’, ‘以’와 결합한다.

(101) 三十輻, 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埴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老子·11章》

(서른 개의 수레바퀴 살이 한 개의 수레바퀴 통으로 모여져 있는데, 그것의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진흙을 이겨 그걸로 그릇을 빚는데, 그것의 빈 곳에 그릇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드는데, 그것의 빈 곳에 집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102) 其上不皦, 其下不昧. 繩繩不可名, 復歸於無物. 《老子·14章》

(그것은 위로 밝지 않고 아래로 어둡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어져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으니, ‘사물 없음’으로 되돌아간다.)

(103)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일이 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예(101)-(103)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其無’, ‘無物’, ‘無事’가 쓰였으며 모두 존재의 유무를 의미하는 말이다.

3) 前置詞句와 述語의 結合 形態

전치사구는 술어의 앞이나 뒤에 쓰이는데, 《老子》에서 전치사구와 결합한 술어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술어의 생략 등 4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1) 自動詞가 述語로 쓰인 境遇

《老子》에서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 술어가 자동사인 경우는 총 16회이다.

(104)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오직 다투지 않기애, 그러므로 천하에 그와 다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 (105)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老子·40章》
 (천하 만물은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 (106) 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老子·73章》
 ('감히 함'에 용감하면 죽을 것이요, '감히 하지 않음'에 용감하면 살 것이다.)

예(104)의 '與之爭'에서 전치사구 '與之'는 술어 동사 '爭'(다투다)과 결합하는데, '爭'는 자동사이다. 예(105)의 '生於有'와 '生於無'에서 전치사구 '於有'와 '於無'의 앞에는 술어 동사 '生'이 쓰였다. '生'(생기다)은 자동사이다.

예(106)의 '勇於敢'와 '勇於不敢'에서 전치사구 '於敢'과 '於不敢'의 앞에는 술어 동사 '勇'이 쓰였다. '勇'은 형용사가 동사로 활용된 것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다'는 뜻의 자동사이다.

(2) 他動詞가 述語로 쓰인 境遇

《老子》에서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 술어가 타동사인 경우는 총 78회 출현한다. 전치사 '於', '以', '與', '爲', '當'과 함께 쓰인다.

- (107) 故常無, 欲以觀其妙, 常有, 欲以觀其徼. 《老子·1章》
 (그러므로 영원한 무는 이로써 그것(道)의 오묘함을 보게 되고, 영원한 유는 이로써 그것(道)의 운행함을 보게 된다.)
- (108) 夫樂殺人者, 則不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천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 (109) 聖人在天下, 歛歛焉, 爲天下渾其心.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며,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음을 혼연하게 한다.)

예(107)-(109)에서 전치사구와 결합한 술어는 모두 타동사가 쓰였으며, 각각 '觀', '得', '渾'이다. 예(107)에서 '欲以觀其妙'의 '欲'는 조동사이고, '以'는 근거 표시 전치사이며, '以'의 목적어는 생략되었다. '觀'은 술어동사이며, '其妙'는 목적어이다. 뒷항의 '欲以觀其徼'도 같은 구조이다. 예(108)의 '不可得志於天下矣'에서 '不可'는 부사어이며, '得'은 술어동사, '志'는 목적어이며, '於天下'는 전치사구가 보어로 쓰인 것이다. '矣'는 문말어기사이다. 예(109)의 '爲天下渾其心'에서 '爲天

下’는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인 것이며, ‘渾’은 술어동사, ‘其心’은 목적어이다.

(3) 形容詞가 述語로 쓰인 境遇

《老子》에서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는 18회 출현한다. 이때 형용사 술어는 전치사 ‘以’나 ‘於’와 함께 쓰인다.

(110) 我獨異於人, 而貴食母. 《老子·20章》

(나만 홀로 남들과 달라서 식모를 귀하게 여긴다.)

(111) 侯王無以貴高, 將恐蹶. 《老子·39章》

(왕이 이로써 고귀할 수 없다면 장차 전복될 것이다.)

(112) 禍莫大於輕敵, 輕敵幾喪吾寶. 《老子·69章》

(재앙에는 어떠한 것도 적을 깔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적을 깔보면 자기의 재물을 거의 잃게 된다.)

예(110)-(112)에서 전치사와 결합한 술어는 모두 형용사가 쓰였다.

예(110)에서 ‘異於人’은 형용사 술어인 ‘異’와 전치사구 ‘於人’이 쓰인 경우이다. 예(111)에서 ‘無以貴高’는 ‘부사+전치사+형용사’의 구조이다. ‘無’는 부정 부사이며 ‘不能’의 의미이다.¹⁸²⁾ ‘以’는 ‘以(之)’로써 전치사 ‘以’의 뒤에 목적어 ‘之’가 생략된 형태로, 앞 문장의 ‘一’을 가리킨다. ‘貴高’는 형용사 술어이다. 예(112)의 ‘大於輕敵’에서 ‘大’는 형용사 술어이며, ‘輕敵’(적을 가볍게 여기다)는 동목 구조이며 전치사 ‘於’의 목적어이다.

(4) 前置詞句 文章의 述語 省略

전치사구는 술어의 앞이나 뒤에서 술어를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성분이다. 하지만 전치사구가 있는 문장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술어 동사가 생략되어 전치사구만 남게 된 경우가 있다.¹⁸³⁾ 생략은 언어를 세련되게 하기 위하여 중국어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생략되어도 반드시 의미가 명확하여 相異한 해석이나 오해

182)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7쪽.

183)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31-832쪽.

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184)

何樂士는 생략을 초래하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185)

- 1) 語句를 더욱 精練되고 경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한 언어 환경에서 생략하여도 문장의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 2) 때로는 語句의 대칭이나, 읽을 때의 리듬감, 음악적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3) 어떤 생략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는 문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또한 何樂士는 생략이 되는 성분은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 술어, 부사나 조동사, 명사구의 중심어와 기타성분 등을 예로 들었다.186) 즉,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에서 문장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 술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치사구의 뒤에 술어가 생략된 형태는 先秦 시기 다른 문헌에도 종종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左傳》에서 술어 동사가 생략되어 ‘以’자구만 남은 용례이다.

(113) 臣聞以德和民, 不聞以亂(). 《左傳·隱公四年》

(신은 덕으로써 백성을 화합시킨다는 말은 들었어도, 난리으로써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114) 書曰崔氏, 非其罪也. 且告以族, 不()以明. 《左傳·宣公十年》

(서경에 ‘崔氏’라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의 罪가 아니다. 또한 (齊나라가) 族으로 通告하고 그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113)에서 전목구 ‘以亂’의 술어는 앞 문장의 동사구 ‘和民’이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以德’과 ‘以亂’의 대비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187) 예(114)에서 ‘告以族’의 ‘告’는 술어이며 ‘以族’은 전치사구가 보어로 쓰인 것이다. 뒷항 ‘不()以明’에서 전치사구 ‘以明’의 앞에는 술어 동사 ‘告’가 생략된 것이며, 부정 부사 ‘不’를 사용하여 앞 문장의 긍정식과 서로 대조되어, ‘以族’과 ‘以明’이 서로 대조를

184) 鄧福南 著·宋龍準 譯, 《現代中國語 文法の 諸問題》, 중문출판사, 1992, 195쪽.

185) “一) 爲了使語句更加精練, 經濟. 在一定的言語環境中可以做到省略而不影響對句子的理解. 二) 有時爲了語句的對稱, 讀起來鏗鏘, 富於音樂美. 三) 某些省略不當, 則是語法不完美的表現.”,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52쪽.

186)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52-554쪽.

18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32쪽.

이루게 한다.¹⁸⁸⁾

《老子》에도 전치사구가 문장의 술어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술어 성분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다. 전치사 ‘以’의 경우만 해당하며, 4회 출현한다.

(115) 取天下, 常以無事, 及其有事, 不足以取天下. 《老子·48章》

(천하를 취하려면 항상 ‘일없음’으로써 해야 한다. 일이 있게 되면 이로써 천하를 취할 수 없다.)

(116)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老子·21章》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117) 吾何以知天下然哉? 以此. 《老子·54章》

(나는 무엇으로써 천하가 그러한지를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118) 吾何以知其然哉? 以此. 《老子·57章》

(나는 무엇으로써 그것이 그러한지를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예(115)-(118)은 ‘以+목적어’ 구조가 술어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여 문장의 술어 성분으로 충당된 용례들이다. 위 예문들은 모두 전치사구의 뒤에 술어가 생략되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생략된 술어 동사는 앞 문장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표면구조는 전치사구가 단독으로 쓰여 술어 성분이 되지만, 심층구조로 보면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술어 동사가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115)에서 둘째 항 ‘常以無事’에서 전치사구 ‘以無事’의 뒤에는 술어 동사 ‘取’가 생략된 것이다. 예문의 ‘取天下, 常以無事’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老子·57章》에 쓰인 ‘以無事取天下’와 비교해 보자.

(119)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 《老子·57章》

(‘바름’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써 병기를 사용하고, ‘일없음’으로써 천하를 취한다.)

위 예(119)에서 ‘以正治國’, ‘以奇用兵’, ‘以無事取天下’는 모두 ‘以+목적어+술어 동사+목적어’의 구조로서, 같은 형태가 병렬된 문장이다. 모두 ‘以’자구가 술어 동

188)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32쪽.

사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以無事取天下’에서 ‘以無事’는 동사구 ‘取天下’를 수식한다. 이를 통해, 예(115)의 ‘取天下, 常以無事’에서 ‘取天下’는 문장의 주체어로 쓰인 것이며, ‘常以無事’의 뒤에는 동사 ‘取’가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⁸⁹⁾ 일부 판본에는 ‘取天下, 常以無事’를 ‘將欲取天下者, 恒以無事’(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한다면, 항상 일없음으로써 해라)라고 썼다. 이는 ‘取天下’가 술어의 도치 형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以無事’는 뒷 문장의 ‘及其有事’와 대조를 이루게 되어, ‘以無事’ 구조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예(116)-(118)에서 전치사구 ‘以此’의 뒤에는 동사 ‘知’가 생략된 것으로, 앞 문장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다. 모두 앞항은 질문을, 뒷항은 대답하는 내용이다. 앞항의 ‘何以’(무엇으로써)와 뒷항 ‘以此’(이것으로써)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

3. 前置詞 用法 特徵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가 있으며,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거나,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사용된다. 이들은 동작 행위의 시간·대상·장소·도구·방식·근거·원인·피동 등을 표시하는 8가지 용법으로 쓰였다.

먼저,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의 용법을 분석하였다. 전치사 ‘於’, ‘以’, ‘爲’, ‘與’, ‘當’, ‘自’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며, 술어의 앞이나 뒤에 놓여 동작 행위의 시간·대상·장소·도구·방식·근거·원인·피동 등을 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전치사구의 용법과 문장에서의 기능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3-1> 前置詞句의 用法

189) 《老子全譯》, 沙少海·徐子宏 譯註, 貴州人民出版社, 1995, 95쪽.

구분 용법		於		以			爲	興	當	自	합계	비율 (%)
		보어	부사어	보어	부사어	술어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		
대상	비교 대상	13									26	23
	동작행위의 대상	3			5		2	3				
장소	기점·근원	10									26	23
	발생	8							3			
	도달	5										
시간		2	1							1	4	3
도구				1	2						3	3
방식				1	41						42	36
근거		1			8	4					13	10
원인					1						1	1
피동							1				1	1
합계		42	1	2	57	4	3	3	3	1	116	100
비율(%)		36	1	1	49	3	3	3	3	1	100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는 ‘於’와 ‘自’가 쓰였다. 총 4회로 전체의 3%에 해당한다. ‘自’자구는 부사어로 쓰였고, ‘於’자구는 보어로 2회, 부사어로 1회 쓰였다.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전치사구와 술어 동사의 사이에 접속사 ‘而’가 쓰여 시간 표시 전치사구가 강조되었다.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또는 상태)의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는 ‘於’, ‘以’, ‘爲’, ‘興’가 쓰였다. 총 26회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대상 표시 전치사구는 비교의 대상과 동작 행위의 대상으로 세분하였다. ‘於’자구는 비교의 대상으로 13회, 동작 행위의 대상으로 3회 쓰였다. ‘以’, ‘爲’, ‘興’는 동작 행위의 대상을 소개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전치사구가 동작 행위의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는 ‘於’와 ‘當’이 쓰였다. 총 26회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이들이 표시하는 장소는 동작 행위의 기점이나 근원, 발생 장소, 도달 장소로 세분하였다. ‘於’자구가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는 모두 보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의 기점이나 근원 표시는 10회,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 표시는 8회, 동작 행위의 도달 장소 표시는 5회이다. ‘當’자구는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3회 쓰였다.

전치사구가 도구를 표시하는 경우는 전치사 ‘以’만 쓰였으며, 3회 출현하여 전체의 3%에 해당한다. 보어로 1회, 부사어로 2회 쓰였다.

전치사구가 방식을 표시하는 경우는 전치사 ‘以’만 쓰였다. 총 42회 사용되어 전체의 36%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보어로 1회, 부사어로 41회 쓰였다.

전치사구가 근거를 표시하는 경우는 ‘於’와 ‘以’가 쓰였다. 총 13회 사용되어 전체의 10%에 해당하였다. ‘於’자구는 보어로 1회 쓰였다. ‘以’자구는 부사어로 8회 쓰였다. 문장의 술어가 생략됨으로 인해 ‘以’자구가 단독으로 술어 성분이 된 경우가 4회 출현하였다.

전치사구가 원인을 표시하는 경우는 ‘以’만 쓰였다. 1회 사용되었다. 대명사 ‘是’와 전치사 ‘以’와 결합한 형태이며, 주어와 술어 동사의 사이에 놓여 부사어로 쓰였다.

전치사구가 행위 주동자를 인개하여 피동을 표시하는 용법은 ‘爲’만 쓰였다. 1회 사용되며, 문장의 부사어로 쓰였다.

둘째,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였다. 전치사와 목적어의 결합 형태,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 분석, 전치사구와 술어의 결합 형태 등으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는 ‘전치사+목적어’, ‘목적어+전치사’, ‘전치사 목적어의 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뒤에 쓰이지만, 전치사 ‘以’의 경우, 그 목적어가 전치되거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형태가 보였다.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를 통사적으로 분류한 자료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3-2>와 같다.

<표3-2> 前置詞句의 統辭的 分類

통사별		전치사별						합계	비율 (%)
		於	以	爲	與	當	自		
보어	전치사+명사	28	2					30	26
	전치사+동사(구)	14						14	12
	소계	42	2					44	38
부사어	전치사+동사(구)	1	3					4	3
	전치사+명사(구)		17	2	1	3	1	24	21
	전치사+대명사			1	2			3	3
	전치사+형용사		3					3	3
	형용사+전치사		2					2	1
	대명사+전치사		4					4	3
	전치사의 목적어 생략		28					28	24
소계	1	57	3	3	3	1	68	58	
술어	전치사+동사(구)		1					1	1
	전치사+대명사		3					3	3
	소계		4					4	4
총계(회)		43	63	3	3	3	1	116	100
비율(%)		36	54	3	3	3	1	100	

위의 표를 보면, 전치사구가 보어로 사용될 때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와 동사(구)가 쓰였으며, 44회로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그중 전치사 ‘於’가 42회로 가장 많이 쓰이며, ‘以’는 2회이다. 전치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 대부분 ‘於’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68회로, 전체의 58%에 해당한다. 전치사와 목적어의 결합 형태는 ‘전치사+목적어’, ‘목적어+전치사’, ‘전치사+(목적어 생략)’ 등 3가지 구조를 보였다. 우선, ‘전치사+목적어’ 구조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사(구), 명사(구), 대명사, 형용사가 쓰였다. 전치사 ‘於’, ‘以’, ‘爲’, ‘與’, ‘當’, ‘自’가 모두 해당된다. 또한 전치사의 목적어가 前置되어 ‘목적어+전치사’의 구조를 이루는 경우는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전치사의 목적어는 대명사, 형용사가 쓰였다. 또한,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일 때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총 28회 사용되어 전체의 24%에 달한다. 이는 부사

어로 쓰인 전치사구 중에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전치사의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구)(54회, 46%)>동사(구)(19회, 16%)>대명사(10회, 8%)>형용사(5회, 4%)의 순으로 사용되며,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도 28회 출현하여 전체의 24%에 해당하였다.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를 유정물, 무정물, 동작 행위, 추상적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추상적 개념 목적어는 40회 사용되어 34%에 해당하였다. 이어서 무정물 목적어는 20회(18%), 동작 행위 목적어는 16회(14%), 유정물 목적어는 12회(10%) 사용되었다. 아래의 <표3-3>은 전치사구의 목적어를 의미별로 분류한 도표이다.

<표3-3> 前置詞 目的語의 意味 分類

구분		於	以	爲	與	當	自…及…	합계	비율 (%)
유정물	사람	5	3	2	2			12	10
무정물	식물	2						2	
	사물	2	2		1			5	
	장소	9	4					13	
소계		13	6		1			20	18
동작·행위	동작		1					1	
	행위	10	5					15	
소계		10	6					16	14
추상적 개념	추상	5	12	1				18	
	상태	5	6					11	
	시간						1	1	
	존재	5	2			3		10	
소계		15	20	1		3	1	40	34
목적어 생략			28					28	24
합계		43	63	3	3	3	1	116	100
비율 (%)		36	54	3	3	3	1	100	

이어서, 《老子》에 사용된 전치사구 문장의 술어와의 결합 형태를 살펴보았

다. 술어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으며, 술어가 생략된 용례도 보였다. 타동사가 77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형용사(18회)와 자동사(17회)는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전치사구 문장의 술어가 생략된 용례는 전치사 ‘以’가 사용된 문장에만 출현하였다.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의 술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3-4>와 같다.

<표3-4> 前置詞句 文章의 述語

품사	술어 단어의 종류와 출현 횟수	단어수	횟수	비율 (%)
타동사	爲(8), 觀(8), 修(5), 治(4), 有(3), 復歸(3), 動(2), 作(2), 知(5), 處(2), 取(2), 加, 强, 輕, 懼, 求, 貴, 圖, 得, 免, 明, 報, 守, 勝, 始, 市, 與, 閱, 用, 愚, 衛, 易, 靜, 從, 佐, 至, 鎮, 責, 脫, 敗, 下, 行, 渾, 後, 及	45	78	67
자동사	生(5), 爭(2), 勇(2), 起, 莅, 名, 反, 泣, 戰, 祭祀	10	16	14
형용사	同(5), 大(3), 幾, 寧, 靈, 比, 盈, 異, 清, 賢, 貴高, 柔弱	12	18	16
술어 생략	-	-	4	3
합 계		67	116	100

※ 술어 단어의 1회 출현은 숫자 표기 생략함.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의 술어는 동사가 가장 많다. 총 116회 중, 동사는 94회 쓰여, 81%를 차지한다. 이중 타동사는 78회(67%)이며 자동사는 16회(14%)이다. 형용사 술어가 사용된 경우는 18회(16%)이며, 술어가 생략된 경우도 4회(3%) 출현하였다.

IV. 《老子》 接續詞 用法

接續詞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각종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이다. 또한 접속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어떠한 문장성분도 될 수 없다.¹⁹⁰⁾

일부 상용 접속사는 전치사를 겸하므로,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老子》에서 접속사와 전치사를 겸하는 단어는 ‘與’, ‘以’, ‘爲’가 있다.

楊伯峻·何樂士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 1) 접속사의 앞에는 어떠한 부가 성분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전치사의 앞에는 부사, 접속사, 조동사, 전목구 등 여러 성분이 올 수 있다.
- 2) 접속사가 연결한 앞뒤 두 항이 만약 병렬관계라면, 詞序는 일반적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치사의 앞뒤 성분은 임의로 맞교환할 수 없다.
- 3) 병렬접속사 및 그가 연결한 앞뒤 두 항은 공동으로 하나의 문장성분이 될 수 있으나, 전치사의 앞에는 주어가 오며, 전치사는 오직 전치사의 목적어와 함께 문장의 부사어나 보어로 쓰일 뿐이다.¹⁹¹⁾

또한, 접속사는 앞뒤로 연결된 두 항의 어법적 관계나 논리적 관계에 따라 몇 가지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⁹²⁾ 본 연구는 《老子》에 쓰인 접속사를 그 기능에 따라 竝列, 連接, 轉換, 漸層, 讓步, 因果, 假定 표시 등 7가지 용법으로 분류하고, 또한 ‘주어+之+술어’ 구조에 쓰인 접속사 ‘之’는 ‘之’의 特殊用法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190)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79쪽.

191) “一、連詞前面不能有任何附加成分. 二、連詞所連接的前後兩項若爲竝列關係, 詞序一般可以對換; 但介詞的前後成分則不能任意對換. 三、竝列連詞及其所連接的前後兩項共同作句中的一個成分, 而介詞前面是主語, 介詞只能是和它的賓語共同作句中的狀語或補語.”,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53-454쪽.

192) 고대중국어에서 접속사의 종류에 대한 분류는 학자들 사이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楊伯峻·何樂士는 접속사를 그 기능에 따라 竝列, 連接, 轉換, 選擇, 漸層, 因果, 假定, 讓步 표시 등 8가지로 구분하였으나, 唐子恒은 접속사의 전후에 이어진 두 항의 의미관계에 따라서 竝列, 修飾, 因果, 選擇, 讓步, 轉換, 假定, 連接, 漸層, 條件, 話題提示 등 11가지로 구분하였다.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55쪽.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44쪽.

1. 接續詞의 用法 分析

《老子》에 쓰인 접속사는 且, 與, 而, 以, 斯, 則, 安, 然後, 而後, 而況於, 雖, 爲, 故, 是以, 是故, 其, 使, 若, 若使, ‘之’ 등 20개가 있다. 이들은 그 기능에 따라 竝列, 連接, 轉換, 漸層, 讓步, 因果, 假定 關係 表示 및 ‘之’의 特殊 用法 등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竝列關係 表示

병렬관계 표시 접속사는 동등한 성분을 함께 병렬하여 그들의 병렬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¹⁹³⁾ 이러한 접속사는 앞뒤 두 항이 병렬관계인 단어·구·절을 이어준다. 《老子》에는 ‘與’, ‘且’, ‘而’가 쓰인다.

(1) 與

접속사 ‘與’는 병렬관계를 표시한다. ‘與’는 주로 앞뒤의 명사(구)를 이어주는데 사용되며, 때로는 동사, 형용사, 대명사, 수사를 연결하기도 한다.¹⁹⁴⁾ ‘與’와 이어진 앞뒤 두 항은 지위가 평등하며 서로 대조를 이룬다.¹⁹⁵⁾ 《老子》에서 접속사 ‘與’는 6회 출현한다.

(1) 唯之與阿, 相去幾何? 美之與惡, 相去若何? 《老子·20章》

(‘예’와 ‘응’은 서로 차이가 얼마나 될까? 예쁨과 추함은 서로 차이가 얼마나 될까?)

(2) 樂與餌, 過客止. 《老子·35章》

(멋진 음악과 맛난 음식은 지나는 손님을 멈추게 한다.)

(3)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老子·44章》

193)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0쪽.

19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56쪽.

195)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0쪽.

(명성과 몸 중에는 어느 것이 친근한가? 몸과 재물 중에는 어느 것이 귀중한가? 얻음과 잃음 중에 어느 것이 해로운가?)

예(1)의 ‘唯之與阿’의 ‘與’는 앞항 ‘唯’와 뒷항 ‘阿’가 서로 병렬관계임을 나타내며, ‘唯之與阿’은 주어로 쓰인다. ‘美之與惡’의 ‘與’도 앞항 ‘美’와 뒷항 ‘惡’가 서로 병렬관계임을 나타내며, ‘美之與惡’은 주어로 쓰인다. 앞항 ‘唯’와 ‘美’의 뒤에 놓인 ‘之’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다만 음절을 늘이는 데에 쓰인 어기조사이다.¹⁹⁶⁾ ‘之’가 마치 대명사 목적어인 듯하지만, 사실은 목적어가 아니라 어기조사이며, 이러한 ‘之’자는 자동사의 뒤에 놓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¹⁹⁷⁾ 하지만 ‘之’가 앞항 ‘唯’와 ‘美’의 뒤에만 놓이게 되어 접속사 ‘與’의 앞뒤 두 항의 평등성을 깨뜨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예(1)이 속한 문단의 語句가 모두 4음절로 이루어져 리듬감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¹⁹⁸⁾ ‘唯’는 ‘應諾之聲’(승낙의 소리)으로 ‘공경’의 의미를 나타내고, ‘阿’는 ‘應諾之聲’이지만 ‘태만’의 의미를 나타내어, 이 둘은 소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태도가 다르다.¹⁹⁹⁾ ‘唯’는 ““唯”라고 대답하다”이고, ‘阿’는 ““阿”라고 대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라고 할 수 있다. ‘美之與惡’의 ‘美’(아름답다)와 ‘惡’(추하다)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다. ‘與’가 이 두 항을 병렬관계로 연결한다. 예(1)의 ‘幾何’와 ‘若何’는 모두 의문문을 나타낸다. ‘幾何’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표현으로 ‘多少’에 해당한다. 숫자를 물음을 표시하는 ‘幾’(몇, 얼마)와 의문대명사 ‘何’(무엇)로 구성된 복합 허사이다. 또한 ‘若何’는 동사 ‘若’(같다)과 의문대명사 ‘何’로 구성된 관용구이며, ‘如何’나 ‘怎麼樣’에 해당한다.²⁰⁰⁾

예(2)의 ‘樂與餌’에서 접속사 ‘與’는 앞뒤로 연결한 명사 ‘樂’과 ‘餌’이 병렬관계임을 나타낸다. ‘樂與餌’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다.

예(3)의 ‘名與身’에서 접속사 ‘與’는 앞뒤로 연결한 명사 ‘名’와 ‘身’이 병렬관계임을 나타내며, ‘名與身’은 주어로 쓰인다. 또한 ‘身與貨’에서 접속사 ‘與’는 앞뒤로

19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52쪽.

197)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教育出版社, 1990, 224쪽.

198) 예(1)이 속한 문단은 “唯之與阿, 相去幾何? 美之與惡, 相去若何? 人之所畏, 不可不畏.”으로, 모두 4글자로 이루어진 구조가 사용되어 리듬감이 돋보이는 문체라 하겠다.

199)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 1993, 164쪽.

20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71, 477-478쪽.

연결한 명사 ‘身’과 ‘貨’가 병렬관계임을 나타내며, ‘身與貨’은 주어로 쓰인다. ‘身與貨孰多?’의 ‘多’는 ‘重’(귀중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²⁰¹⁾ ‘得與亡’에서 접속사 ‘與’는 앞뒤로 연결한 동사 ‘得’과 ‘亡’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나타내며, ‘得與亡’은 주어로 쓰인다.

(2) 且

접속사 ‘且’는 연결된 앞뒤 항이 병렬관계임을 나타낸다. ‘且’의 앞뒤 항이 모두 형용사이면, ‘又…又…’의 의미이며, 병렬관계인 동시에 점층의 의미를 겸한다. 앞뒤 항이 모두 동사이면, ‘又…又…’나 ‘邊…邊…’의 의미이며 종종 동작이 동시에 진행됨을 나타낸다.²⁰²⁾ 《老子》에는 ‘형용사+且+형용사’, ‘동사+且+동사’의 구조가 있다. ‘且’는 총 3회 출현한다.

(4)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²⁰³⁾ 《老子·7章》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

(5) 衆人皆有以, 而我獨頑且鄙. 《老子·20章》

(사람들은 모두 쓰임이 있는데, 나만 홀로 우둔하고 촌스럽다.)

(6) 夫唯道, 善貸且成. 《老子·41章》

(오직 道만이 베풀고 이루어주기를 잘한다.)

예(4)와 예(5)에서 ‘且’는 형용사인 ‘長’과 ‘久’, ‘頑’과 ‘鄙’와 연결하여, ‘又…又…’(~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다)의 뜻이며, 앞뒤 항이 병렬관계임을 나타낸다. 예(4)은 ‘所以…者, 以…, 故…’의 구조로 인과복문이다. 예(5)에서 ‘有以’의 ‘以’는 ‘用’(쓰다)의 뜻으로 동사이며, ‘有’의 목적어로 쓰인다. 《老子》에서 ‘以’가 동사로 쓰인 예는 위 예(5)의 용례가 유일하다.

예(6)의 ‘善貸且成’에서 접속사 ‘且’는 동사 ‘貸’와 ‘成’을 연결하여 서로 병렬관

201) 奚侗이 말하길, “《說文》에 ‘多, 重也’라고 한 것은 ‘重疊(중첩하다)’의 ‘重’의 뜻이지만, ‘輕重(가벼움과 무거움)’의 ‘重’으로引申한 것이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24쪽.

20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2쪽.

203) ‘不自生’에 대하여 몇 가지 해석이 있다. 예를 들면, 王弼은 ‘자기만 살려고 한다면 만물과 다투게 된다(自生則與物爭)’라고 하였고, 成玄英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지 않는다(不自營己之生)’라고 하였고, 憨山은 ‘삶을 스스로 사사로이 하지 않는다(不自私其生)’라고 하였다.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 1993, 51쪽.

계임을 나타낸다. ‘貸’은 ‘施與’(베풀다)의 의미로 만물을 도와준다는 뜻이다.²⁰⁴⁾ ‘善’(잘하다)은 술어 동사이며,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貸且成’는 ‘善’의 목적어이다.

(3) 而

접속사 ‘而’는 연결한 앞뒤 항이 병렬관계임을 표시하는데, 이때 ‘而’의 앞뒤에 놓인 단어의 성질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며, 병렬성분의 구조와 글자 수도 다를 수 있다.²⁰⁵⁾ 《老子》에서 ‘而’가 병렬관계 표시 접속사로 쓰인 용례는 7회이다.

- (7) 太上, 下知有之, 其次, 親而譽之. 《老子·17章》
(최상은 백성들이 그가 있음을 안다. 그다음은 그를 가까이하고 찬양한다.)
- (8)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老子·38章》
(대저 예란 진심과 믿음의 부족함이며, 어지러움의 시작이다. 먼저 아는 척하는 것은 도의 헛된 화려함이며,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 (9)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老子·42章》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품으니 기를 움직여서 조화를 이룬다.)
- (10) 是以萬物莫不尊道而貴德. 《老子·51章》
(그래서 만물 중에는 어떠한 것도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 (11) 是以天下樂推而不厭. 《老子·66章》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즐겁게 추대하고 싫증 내지 않는다.)
- (12) 我有三寶, 持而保之. 《老子·67章》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보존한다.)

예(7)의 ‘親而譽之’에서 접속사 ‘而’는 ‘親’과 ‘譽’를 병렬관계로 이어준다. ‘親’은 형용사가 동사로 활용되어 ‘가까이하다’는 의미이고, ‘譽’는 ‘기리다’는 뜻의 동사이다. ‘동사+而+동사’의 형태인 ‘親而譽’가 술어가 되어 대명사 ‘之’를 목적어로 취하였다.

예(8)은 두 개의 문장이다. 앞 문장에서 주어는 ‘禮’, 술어는 ‘忠信之薄, 而亂之首’이며, 뒤 문장에서 주어는 ‘前識’, 술어는 ‘道之華, 而愚之始’이다. ‘夫禮者’와 ‘前識者’의 ‘者’는 주어를 제시하는 용법의 語氣詞이다.²⁰⁶⁾ 접속사 ‘而’는 앞뒤에 연결

204)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14쪽.

20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2쪽.

한 ‘忠信之薄’와 ‘亂之首’, ‘道之華’와 ‘愚之始’의 관계가 병렬관계임을 표시한다.

예(9)의 ‘負陰而抱陽’은 문장의 술어이며 동사구 ‘負陰’(음을 등지다)과 ‘抱陽’(양을 품다)의 사이에 접속사 ‘而’가 쓰여 앞뒤 항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표시한다.

예(10)의 ‘莫不尊道而貴德’에서 ‘莫’은 ‘아무도 없다’는 뜻의 無指 代名詞로서 문장의 주어로 쓰였고, ‘不’는 뒤의 ‘尊道而貴德’을 부정한다. 이때 ‘而’는 연결한 앞항 ‘尊道’(도를 존중하다)와 뒷항 ‘貴德’(덕을 귀하게 여기다)이 병렬관계임을 표시한다.

예(11)의 ‘樂推而不厭’에서 ‘樂推’(즐겁게 추대하다)와 ‘不厭’(싫어하지 않는다)는 ‘부사어+술어 동사’ 구조이며, 접속사 ‘而’는 앞뒤에 연결한 이 두 항이 서로 병렬 관계임을 나타낸다.

예(12)의 ‘持而保之’에서도 접속사 ‘而’는 동사 ‘持’(지키다)와 ‘保’(보호하다)를 병렬관계로 이어주며,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持而保’ 구조는 술어로 쓰인다. ‘之’는 대명사로서 ‘持而保’의 목적어이다.

2) 連接關係 表示

연접이란 연결된 앞뒤의 두 항이 의미적으로 유사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연접 관계 표시 접속사가 연결하는 앞뒤 두 항의 의미에 따라 동작과 목적·결과와의 관계, 부사어와 술어와의 관계, 시간상 선후의 관계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²⁰⁷⁾

《老子》에 사용된 연접 관계 표시 접속사는 ‘而’, ‘以’, ‘斯’, ‘則’, ‘然後’, ‘而後’가 있다.

(1) 動作과 目的·結果와의 關係

연접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중에서 앞뒤 항이 동작과 목적·결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而’, ‘以’, ‘斯’, ‘則’이 있다. 우리말로 “~해서”, “~하면”으로

20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000, 337-338쪽.

20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3쪽.

해석된다.

① 而

접속사 ‘而’와 연결한 뒷항이 앞항의 목적 또는 결과임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7회 출현한다.

- (13) 虛而不屈, 動而愈出. 《老子·5章》
(비어있지만 다하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 (14) 誠全而歸之. 《老子·22章》
(정말로 온전히 한다면 그것(‘道’)으로 돌아간다.)
- (15)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不得已. 《老子·29章》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하여서 그것을 억지로 한다면, 내가 보기에 그것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16) 善有果而已, 不敢以取強. 《老子·30章》
(잘하는 자는 성과가 있으면 그만두지, 감히 이것(군대)으로 강함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 (17) 無爲而無不爲. 《老子·48章》
(‘무위’한다면 하지 못함이 없다.)
- (18)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 故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老子·57章》
(천하에 꺼리고 피할 것이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 …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길, “내가 하고자 함이 없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가 되고, 내가 차분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내가 일이 없으면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 (19) 故或下以取, 或下而取. 《老子·61章》
(그러므로 어떤 나라는 낮추어서 취하고, 어떤 나라는 낮추어서 받아들여진다.)
- (20) 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老子·77章》
(하늘의 도는 남은 것을 덜어서 부족한 데에 보태준다.)
- (21) 使民重死而不遠徙. (중략) 使民復結繩而用之. 《老子·80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시하여 멀리 가지 않도록 하고, (중략)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묶어서 그것을 쓰도록 하라.)

위 예(13)-(21)에서 ‘而’의 뒷항은 앞항 동작 행위의 목적 또는 결과이다.

예(13)에서 ‘虛而不屈’의 ‘屈’은 ‘竭’(다하다)의 의미이다.²⁰⁸⁾ ‘動而愈出’에서 ‘愈

208) 嚴復은 ‘屈’은 음이 ‘掘’이고 뜻은 ‘竭’(다하다)이며, ‘虛而不屈’은 ‘虛而不可竭也’(비어있어도 다할 수 없다)라고 풀이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73쪽.

出'은 앞항 '動'의 결과이다.

예(16)의 '善有果而已'에서 '善'은 '善用兵者'(용병을 잘하는 자)라는 뜻이다.²⁰⁹⁾ '果'의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은 '濟'(구제하다), '完成'(완성하다), '勝'(이기다) 등으로 풀이하였다.²¹⁰⁾ 접속사 '而'와 연결한 뒷항은 앞항의 조건에 따른 결과이다. '已'는 동사이며 '止'(멈추다)의 의미이다.

예(20)의 '損有餘而補不足'에서 '有餘'는 동사 '損'의 목적어이며, '不足'는 동사 '補'의 목적어이다. '而'와 연결한 앞뒤 항의 의미관계를 보면, '而'의 뒷항인 '補不足'는 앞항 '損有餘'의 목적 또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21)의 '使民重死而不遠徙'의 '使'는 사역동사이며, 접속사 '而'는 연결한 앞항 '重死'의 목적 또는 결과가 뒷항 '不遠徙'임을 나타낸다. '重'은 형용사의 의동용법으로 '중요하게 여기다'는 뜻이다. '使民復結繩而用之'도 앞 문장과 같은 구조이다. '使'는 사역동사이며, 접속사 '而'는 앞항 '復結繩'의 목적 또는 결과가 뒷항 '用之'임을 나타낸다. 일부 학자들은 '結繩'에 대해 '새끼를 엮어서 일을 기록하다(結繩記事)'는 의미의 '문자'라고 본다. 이는 문자를 창조하기 이전의 사회를 나타낸다. 그러나 吳怡는 老子가 결코 文字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박한 생활방식의 원시적인 사회로 되돌아갈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²¹¹⁾

② 以

先秦 시기 文獻에서 '以'는 매우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된다. '以'는 甲骨文에서 동사로 쓰이다가 西周 이후에는 虛詞로 활발하게 쓰였다. 즉, 동사 '以'가 전치사로 虛化되고, 다시 전치사에서 접속사나 관용구로 虛化되고, 이어서 단어의 형태소로 변화하는 어법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²¹²⁾

'以'가 접속사로서 앞뒤 두 항의 연접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대부분 앞뒤 항의 동작 행위와 목적과의 관계를 표시하며, 때로는 앞항이 뒷항의 방식이나 상태를 표시하거나, 앞뒤 항이 시간상의 선후 순서 관계임을 표시하거나, 뒷항이 앞

209)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251쪽.

210)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75쪽.

211)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 1993, 548쪽.

212)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第6期, 1998, 5쪽.

항의 결과임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인다.²¹³⁾

이 중에, 《老子》에서 접속사 ‘以’가 앞뒤 항의 동작 행위와 목적 또는 결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용례는 13회 출현한다. ‘~해서’, ‘~하면’, ‘~하기 위하여’로 해석할 수 있다.

- (22) 天地相合, 以降甘露, 民莫之令而自均. 《老子·32章》
(천지가 서로 합하여서 단 이슬을 내리니, 백성들은 아무런 명령이 없어도 저절로 고르게 된다.)
- (23) 不欲以靜, 天下將自定. 《老子·37章》
(욕심을 내지 않아서 고요해지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 (24)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爲天下貞. 《老子·39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었고, 신령스러움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해졌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채워졌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났고, 왕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의 바름으로 삼았다.)
- (25)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老子·42章》
(만물은 음을 등지고서 양을 품으니 기를 움직여서 조화를 이룬다.)
- (26)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老子·48章》
(줄이고 또 줄이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27) 故或下以取, 或下而取. 《老子·61章》
(그러므로 어떤 나라는 낮추어서 취하고, 어떤 나라는 낮추어서 받아들여진다.)
- (28)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 《老子·64章》
(그래서 성인은 (남들이) 욕심내지 않는 것을 욕심내고, 얻기 힘든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남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이 잘못된 바를 구제하여서, 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됨을 돕지만 감히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
- (29) 人之道, 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老子·77章》
(사람의 도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것을 빼앗아 여유 있는 사람에게 바친다.)

위 예(22)-(29)에서 접속사 ‘以’와 연결한 앞뒤 항의 의미관계를 보면, ‘以’의 뒷항은 앞항의 목적 또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예(24)에서 ‘以’의 앞항은 모두 술어가 ‘得一’이지만 주어는 각각 다르다. ‘以’의 뒷항은 앞항의 결과가 온다.

예(26)의 ‘損之又損’에서 ‘之’는 대명사가 아니라 文中에서 음절을 추가하여 어

213)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4쪽.

음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라 할 수 있다.²¹⁴⁾ ‘以至於無爲’의 ‘於’는 동사 ‘至’의 종결지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전치사구 ‘於無爲’는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예(27)에 쓰인 ‘以’와 ‘而’는 같은 용법으로 쓰인 접속사이다.²¹⁵⁾ ‘或下以取’에서 ‘或’은 대명사이며, ‘以’의 뒷항 ‘取’는 앞항 ‘下(낮추다)’의 결과이다. 뒤 문장 ‘或下而取’의 ‘而’의 용법도 앞 문장 ‘以’의 용법과 같다. 다만, 뒤 문장의 ‘取’는 타동사로 ‘취해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²¹⁶⁾

예(28)의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에서 ‘以’는 연결한 뒤 절이 앞 절의 목적임을 표시하는 순접 표시 접속사이다. ‘以’가 연결한 앞 절은 ‘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 復衆人之所過’의 전체 문장이며, ‘以’의 뒷 절은 ‘輔萬物之自然’(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됨을 돕는다)이다. ‘復衆人之所過’에서 ‘復’은 ‘補救’(구제하다)의 의미이며, ‘過’는 ‘過錯’(잘못)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²¹⁷⁾

예(29)의 ‘損不足以奉有餘’에서 접속사 ‘以’는 ‘損不足’와 ‘奉有餘’을 순접 관계로 이어주며, 뒷항 ‘奉有餘’이 앞항 ‘損不足’의 목적임을 표시한다. ‘損’은 ‘剝奪’(박탈하다), ‘奉’은 ‘供奉’(바치다)의 의미이다.²¹⁸⁾

③ 斯

접속사 ‘斯’는 앞 문장을 이어받는 것을 나타내고, 대부분 조건을 나타내는 복문의 주절 첫머리에 쓰이며, ‘則’의 일부 용법과 같다.²¹⁹⁾ ‘곧’, ‘그렇다면’의 의미이다. 《老子》에서 접속사 ‘斯’는 아래의 예문에 2회 출현한다.

(30)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老子·2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예쁨이 예쁨인 줄을 알면, 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모두 잘함이 잘

214)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71-173쪽.

215) 접속사 ‘以’와 ‘而’는 용법이 비슷하지만 사용빈도에는 차이가 있다. 《左傳》에 쓰인 용례를 보면, ‘以’는 ‘목적>연접>병렬’순으로, ‘而’는 ‘연접>병렬(전환)>목적’순으로 사용빈도가 높다.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22-325쪽.

216) 趙榮珮은 앞의 ‘取’를 能動詞로, 뒤의 ‘取’를 被動詞로 분석하였다.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84쪽.

217)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7쪽.

218)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23쪽.

219)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334쪽.

함인 줄을 알면,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위 예(30)의 ‘斯惡已’에서 ‘斯’는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惡’는 ‘추하다’는 뜻이다. 王力은 예(30)의 문장에 대해 ‘斯’는 ‘則’이며, ‘惡’는 ‘醜’이며, ‘已’는 ‘矣’와 통한다고 하였다.²²⁰⁾ ‘美之爲美’는 ‘주어+之+술어+목적어’의 구조이며 ‘知’의 목적어이다. 예문에 쓰인 ‘善’은 ‘善惡’의 ‘善’의 개념이 아닌 ‘잘하다’, ‘능하다’는 뜻의 동사이다.²²¹⁾ 여기조사 ‘已’는 ‘矣’와 어기가 같은데, 일반적으로 결정의 어기를 나타낸다.²²²⁾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구조도 앞과 같다.

④ 則

접속사 ‘則’은 주로 앞뒤 두 항의 상호 원인을 표시하는데, 가정복문과 인과복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접속사이며, 주절의 첫머리에 쓰인다.²²³⁾

접속사 ‘則’이 앞뒤 두 항이 동작 행위와 결과와의 연결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는 27회 출현한다. ‘~하면’, ‘그렇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 爲無爲, 則無不治. 《老子·3章》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32)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弊則新, 少則得, 多則惑. …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 誠全而歸之. 《老子·22章》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반듯해진다. 우묵하면 넘치게 되고, 낮으면 새로워진다. 부족하면 얻게 되고, 많게 하면 미혹된다. … 옛날에 이른바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해져서 그곳으로 돌아간다.) -

(33) 輕則失根, 躁則失君. 《老子·26章》

(경솔하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임금을 잃는다.)

(34) 樸散則爲器, 聖人用之, 則爲官長. 《老子·28章》

220) 王力은 이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如果天下的人都知道美好的東西是美的, 就顯露出醜來了. 斯, 則. 惡, 醜. 已, 通矣.”(만약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물건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면 추함이 드러난다. ‘斯’는 ‘則’이다. ‘惡’는 ‘醜’이다. ‘已’는 ‘矣’와 통한다),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372쪽.

221) 오만중은 《老子》에 쓰인 ‘善’자의 의미에 대해, ‘善’자와 ‘惡’자가 대비되어 쓰인 20장과 ‘妖’자와 대비되어 쓰인 28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하다’, ‘익숙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때 비로소 노자의 ‘道’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오만중, <善의 意味로 본 《老子》의 道>, 《中國人文科學》제51집, 2012.

222)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4쪽.

223)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0쪽.

- (통나무가 흩어져서 만물이 된다. 성인이 그것을 쓰면 백관의 수장이 된다.)
- (35) 物壯則老, 是謂不道. 《老子·30章》
(만물이 굳세면 늙게 되나니, 이를 일러 도답지 못하다고 말한다.)
- (36)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老子·38章》
(상등의 예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끌어당긴다.)
- (37) 物壯則老, 謂之不道, 不道早已. 《老子·55章》
(만물이 굳세면 늙게 되나니, 이를 일러 도답지 못하다고 말한다. 도답지 못하면 일찌감치 끝난다.)
- (38) 重積德則無不克, 無不克則莫知其極. 《老子·59章》
(거듭 덕을 쌓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 (39) 故大邦以下小邦, 則取小邦; 小邦以下大邦, 則取大邦. 《老子·61章》
(그러므로 큰 나라가 만약 작은 나라에 낮추면 작은 나라를 취하게 되고, 작은 나라가 만약 큰 나라에 낮추면 큰 나라에게 취해진다.)
- (40) 慎終如始, 則無敗事. 《老子·64章》
(마지막을 처음처럼 신중히 한다면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 (41) 夫慈, 以戰則勝, 以守則固. 《老子·67章》
(대저 자애는, 이로써 싸우면 이기고, 이로써 지키면 굳건하다.)
- (42) 民不畏威, 則大威至. 《老子·72章》
(백성이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엄이 이르게 된다.)
- (43) 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老子·73章》
(‘감히 함’에 용감하면 죽을 것이고, ‘감히 안 함’에 용감하면 살 것이다.)
- (44) 是以兵強則滅, 木強則折. 《老子·76章》
(그래서 병기가 강하면 멸망할 것이요, 나무가 강하면 부러질 것이다.)

위 예(31)-(44)에 쓰인 접속사 ‘則’은 앞항의 동작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뒷항의 결과가 생겨났음을 표시하며, 뒷항은 모두 앞항의 동작 행위에 따른 결과이다.

예(34)의 ‘樸散則爲器’에서 ‘樸’은 ‘眞’(참됨)이라는 뜻이다.²²⁴⁾ ‘器’는 ‘物’이며 ‘만물’을 가리킨다. ‘聖人用之, 則爲官長.’에서 ‘之’는 ‘樸’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官長’은 ‘백관의 수장’, 즉 군주를 가리킨다.²²⁵⁾ ‘則’의 뒷항은 앞항의 결과이다.

예(40)의 ‘慎終如始’에서 ‘慎’는 형용사가 동사로 활용되어 ‘신중히 하다’는 뜻이며 ‘終(마치다)’이 목적어로 쓰인다. 접속사 ‘則’은 앞항 ‘慎終如始’의 결과가 뒷항

224)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74쪽.

22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68쪽.

‘無敗事’임을 나타낸다. ‘無’는 동사이며, ‘敗事’를 목적어로 취한다.

예(41)에서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로 쓰인 문두어기조사이다. ‘以戰則勝’에서 ‘以’는 동작행위의 수단방식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以’의 목적어는 앞에 쓰인 ‘慈’가 생략된 것이라 하겠다.²²⁶⁾ 접속사 ‘則’은 앞항 ‘以(慈)戰’의 행위 결과가 뒷항 ‘勝’임을 표시한다. 뒤 문장 ‘以守則固’의 구조도 앞과 같다.

예(43)에서 ‘於’는 동작 행위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對’에 해당한다. ‘敢’과 ‘不敢’은 전치사 ‘於’의 목적어이다. ‘勇’은 ‘용감하게 행동하다’는 뜻의 동사이다. 접속사 ‘則’의 뒷항 ‘殺’과 ‘活’은 앞항의 결과이다.

(2) 副詞語와 述語와의 連接 關係

접속사가 두 개의 항 사이에 쓰여서, 앞항이 뒷항의 상태나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앞항은 문장의 부사어이고 뒷항은 술어가 되어, 접속사는 수식 관계의 연결을 표시한다.²²⁷⁾ 이때 앞항은 동작 진행 시의 상태, 방식, 시간 등을 나타낸다.²²⁸⁾

《老子》에서 부사어와 술어와의 연결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 ‘以’가 있다.

① 而

접속사 ‘而’와 연결한 앞항이 뒷항의 상태나 방식을 표시하며, 앞뒤 두 항은 부사어와 술어의 연결 관계이다.²²⁹⁾ 이러한 용법으로 쓰인 접속사 ‘而’는 《老子》에 11회 출현한다.

226) 대부분의 전치사는 목적어를 수반하지만,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는 자주 보인다. 《老子》에서 ‘以’의 목적어가 생략된 횟수는 27회에 달하는데, 이는 전치사 ‘以’의 출현횟수 중 약 41%에 해당한다.

22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3-464쪽.

228) 何樂士, 《《左傳》虛詞研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450쪽.

229) 黃六平은 이를 ‘而’의 특수한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용법의 ‘而’는 連接하는 기능은 거의 없고, 대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사어+而+동사’, ‘전치사구+而+동사’, ‘주어+而+술어’ 등의 형식이 있다.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7쪽.

- (45)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老子·14章》
(이 세 가지는 꼬치꼬치 따질 수 없다. 그러므로 뒤섞어서 ‘하나’로 여긴다.)
- (46) 兵者不祥之器, 非君子之器, 不得已而用之, 恬淡爲上. 《老子·31章》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그것을 쓰게 되면, 담담한 것이 최상이다.)
- (47)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老子·38章》
(상등의 예는 그것을 억지로 하고자 하고, 게다가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것을 잡아당긴다.)
- (48) 上士聞道, 勤而行之. 《老子·41章》
(상등의 사내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한다.)
- (49)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들은 일을 할 적에 흔히 거의 이루어질 때에 실패한다.)
- (50) 故不可得而親, 不可得而疏; 不可得而利, 不可得而害; 不可得而貴, 不可得而賤. 故爲天下貴. 《老子·56章》
(그러므로 가까이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 없고 해를 입힐 수도 없으며,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

위 예(45)-(50)에 쓰인 ‘而’의 앞항은 뒷항 동작 행위의 상태나 방식이며, 접속사 ‘而’는 부사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독법에 완화 작용을 일으킨다.²³⁰⁾

예(45)의 ‘致詰’는 ‘(원인이나 이치를) 규명하다’, ‘따지다’는 뜻이다.²³¹⁾ ‘混而爲一’에서 ‘混’은 동사로 ‘혼합하다’는 뜻이며, 술어동사 ‘爲’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라 하겠다.²³²⁾ ‘而’는 부사어와 술어의 사이를 이어준다.

예(46)의 ‘不得已而用之’에서 ‘不得已’는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술어동사 ‘用’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라 하겠다. ‘而’는 부사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다.

예(47)에서 ‘攘臂而扔之’의 ‘攘臂’은 술어동사 ‘扔’의 방식이며, 예(48)에서 ‘勤而行之’의 ‘勤’은 술어동사 ‘行’의 방식이며, 문장의 부사어이다.

예(49)에서 접속사 ‘而’의 앞항인 ‘於幾成’은 뒷항 ‘敗之’가 발생한 시간이며, 문장의 부사어이다. 접속사 ‘而’가 부사어와 술어 사이에 쓰여 이 항을 연접관계로 이어준다. ‘常於幾成而敗之’에서 ‘而’는 문법 구조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常

230)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28쪽.

231)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09쪽.

232) 趙榮珮,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59쪽.

於幾成敗之’보다 어감상 시간과 동작행위에 분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며 시간사와 동작행위가 긴밀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시간사의 뒤에 음절을 가하므로 써 낭독 시 시간사에 어기가 강조된다.²³³⁾

예(50)에서 ‘可得’은 ‘可能’에 해당하며,²³⁴⁾ ‘可得’은 ‘而’와 함께 쓰일 수 있다.²³⁵⁾ 접속사 ‘而’는 각각 조동사 ‘可得’과 술어동사 ‘親’, ‘疏’, ‘利’, ‘害’, ‘貴’, ‘賤’의 사이에 쓰였다. 예(50)의 문장은 ‘玄同’을 묘사한 글로서,²³⁶⁾ 심층구조의 목적어는 ‘玄同’으로 볼 수 있으나, 표면구조에서는 목적어가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得’의 ‘얻다’라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得’을 조동사로 분석한다.

② 以

접속사 ‘以’는 앞항이 뒷항의 상태나 방식을 나타내어 앞뒤 두 항이 연접 관계임을 표시할 수 있다.²³⁷⁾ ‘以’의 앞뒤 항은 모두 동사구이다. 9회 출현한다.

- (51) 埴埴以爲器 … 鑿戶牖以爲室. …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老子·11章》
(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든다. 창문을 내어서 방을 삼는다. 그러므로 그것을 있게 하여서 이기(利器)로 삼지만, 그것을 비게 하여서 쓸모로 삼는다.)
- (52) 執古之道, 以御今之有. 《老子·14章》
(옛날의 도를 잡아서 지금의 있음을 다스린다.)
- (53) 萬物恃之以生而不辭, 功成而不有. 《老子·34章》
(만물이 이(도)에 힘입어서 살지만 말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소유하지 않는다.)
- (54) 天下有道, 却走馬以糞. 《老子·46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던 말을 돌려서 거름한다.)
- (55) 雖有拱壁以先駟馬, 不如坐進此道. 《老子·62章》
(비록 큰 옥을 가지고서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앞지른다 해도, 앉아서 이 도를 정진하는 것만 못하다.)
- (56) 孰能有餘以奉天下. 《老子·77章》

233) 何樂士, 《《左傳》虛詞研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464쪽.

234) 趙榮琬은 ‘得’을 ‘能’에 해당하는 조동사로 보았다. 趙榮琬,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59-260쪽.

235) 張玉金은 ‘可得’이 조동사이며, ‘而’나 ‘以’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可得’과 ‘而’가 같이 쓰인 용례이다.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선생님의 文章은 들을 수 있으나, 선생님께서 性과 天道를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 없습니다) 《論語·公冶章》”, 張玉金, 《古今漢語虛詞大辭典》, 遼寧人民出版社, 1995, 398쪽.

236)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433쪽.

23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4쪽.

(누가 능히 남음이 있어서 천하를 봉양할 수 있겠는가?)

예(51)-(56)에서 접속사 ‘以’의 앞항은 뒷항의 방식이다. 예(51)에 쓰인 ‘以’는 앞뒤 두 항이 편정 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埴埴以爲器’에서 ‘埴埴’는 ‘以’의 뒷항인 ‘爲器’의 방식이다. ‘鑿戶牖以爲室’에서 앞항 ‘鑿戶牖’은 뒷항 ‘爲室’의 방식이며 접속사 ‘以’가 이 두 항을 연결한다. ‘有之以爲利’에서 ‘以’의 앞항 ‘有之’는 뒷항 ‘爲利’의 방식이며, ‘無之以爲用’에서 ‘以’의 앞항 ‘無之’는 뒷항 ‘爲用’의 방식이다.

예(52)에서 접속사 ‘以’의 앞항인 ‘執古之道’는 뒷항의 술어동사 ‘御’의 방식이다. 예(53)에서 ‘以’의 앞항인 ‘恃之(그것을 의지하다)’는 뒷항 동사 ‘生’의 방식이며, 접속사 ‘以’가 앞뒤의 두 항이 편정 관계임을 표시하여 부사어와 술어를 연결관계로 이어준다. 예(54)의 ‘却走馬以糞’에서 ‘却走馬’은 ‘糞’의 방식이 된다. ‘却走馬’는 ‘동사+목적어’ 구조로서, ‘却’는 ‘돌려보내다’라는 뜻이다. ‘糞’은 동사로 쓰여 ‘거름 하다’는 의미이며, ‘馬糞으로 거름 하다’는 뜻이다.²³⁸⁾ 접속사 ‘以’가 이 두 항이 편정 관계임을 표시한다.

예(55)의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拱壁’은 앞에 있고 ‘駟馬’는 뒤에 있게 되는데, 이는 고대 예물을 헌납하는 예법으로, 가벼운 예물은 앞에 두고 귀중한 예물은 뒤에 둔다.²³⁹⁾ 접속사 ‘以’의 앞항인 ‘有拱壁’은 뒷항의 동사 ‘先(앞서다)’의 방식이 된다. 예(56)에서 ‘以’의 앞항인 ‘有餘’은 뒷항 ‘奉天下’의 방식이며 접속사 ‘以’가 이 두 항을 연결한다.

(3) 時間上 先後的 連接 關係

연결한 앞뒤 두 항이 시간 순서에 따라 선후 연결으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를 말한다.²⁴⁰⁾

《老子》에는 ‘而’, ‘然後’, ‘而後’가 있으며, ‘~해서’, ‘그러한 뒤에’로 해석할 수

238) 吳怡은 ‘糞’이 동사로 쓰여 馬糞으로 施肥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67쪽.

239)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0쪽.

24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63쪽.

있다.

① 而

접속사 ‘而’가 앞뒤에 연결한 두 항이 서로 시간적 선후 관계임을 표시하는 경우는 《老子》에서 2회 출현한다.

(57) 夫唯不盈, 故能蔽而新成. 《老子·15章》

(오직 넘치게 채우지 않으니 그러므로 능히 낡아서 새로 이를 수 있다.)

(58) 若使民常畏死, 而爲奇者, 吾將得而殺之.²⁴¹⁾ 《老子·74章》

(만약 백성들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기이한 짓을 한다면, 우리가 장차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위 예(57)에서 접속사 ‘而’가 앞뒤에 연결한 ‘蔽’(낡다)과 ‘新成’(새로 이루다)은 시간상 선후 관계이다. 예(58)의 ‘吾將得而殺之’에서 ‘而’의 앞항 ‘得’(얻다)과 뒷항 ‘殺’(죽이다)의 동작 행위도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然後

접속사 ‘然後’는 대명사 ‘然(그러하다)’과 명사 ‘後(뒤)’가 합쳐진 것으로 ‘如此而後(그러한 이후에)’의 의미에 해당하며, 점차 하나의 단어로 고정된 것이다.²⁴²⁾ ‘然後’와 연결한 앞뒤의 두 항은 서로 시간상 선후 관계이다.

《老子》에서 ‘然後’는 1회 출현한다.

(59)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오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구나.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가는구나. 그런 뒤에야 비로소 ‘큰 순조로움’에 이른다.)

241) 陳鼓應은 ‘吾將得而殺之’는 통행본에 ‘吾得執而殺之’인데 이는 ‘執’이 삽입된 것이므로 帛書甲本에 근거하여 수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하 문맥상 ‘將’을 넣는 것이 비교적 우세하다고 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14쪽.

24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45쪽.

예(59)에서 ‘然後’는 절과 절의 사이에 놓여, 앞 절과 뒤 절의 동작 행위가 시간상 선후 관계임을 표시한다. 예문의 ‘矣’는 모두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이다.²⁴³⁾ ‘與物反矣’의 ‘反’은 ‘되돌리다’의 의미로 ‘덕’과 ‘사물’이 순박함으로 되돌아감을 나타낸다.²⁴⁴⁾ ‘乃’는 사건의 발생이 늦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부사로서, ‘비로소’라고 해석한다.²⁴⁵⁾

③ 而後

‘而後’는 접속사 ‘而’와 명사 ‘後’가 합쳐진 2음절 접속사로서, 연결한 앞뒤 두 사건이 시간상이나 이치상으로 서로 선후의 관계임을 나타낸다.²⁴⁶⁾ ‘然後’와 의미가 같으며, ‘이후에’ 또는 ‘비로소’라고 해석한다.²⁴⁷⁾ 《老子》에서 ‘而後’는 아래의 예문에 4회 출현한다.

(60)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老子·38章》

(그러므로 ‘도’를 잃고 난 이후에 ‘덕’이 있고, ‘덕’을 잃고 난 이후에 ‘인’이 있으며, ‘인’을 잃고 난 이후에 ‘의’가 있으며, ‘의’를 잃고 난 이후에 ‘예’가 있다.)

예(60)에서 ‘而後’의 앞항은 동사 ‘失+명사(혹은 명사구)’의 형태이고, 뒷항은 ‘德’, ‘仁’, ‘義’, ‘禮’가 동사로 활용되어 ‘有德’, ‘有仁’, ‘有義’, ‘有禮’의 의미에 해당한다.²⁴⁸⁾ 접속사 ‘而後’의 앞뒤에 놓인 두 항은 시간상 선후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 轉換關係 表示

앞뒤 두 항이 의미 관계상 서로 전환 관계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말한다. 《老子》에 쓰인 전환표시 접속사는 ‘而’와 ‘則’이 있다.

243) 趙榮珦,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311쪽.

244)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9-290쪽.

245)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153쪽.

246) 何樂土,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47쪽.

247)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690쪽.

248) 趙榮珦,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76쪽.

(1) 而

접속사 ‘而’는 앞뒤 항이 서로 전환 관계임을 표시한다. 이때 앞뒤 두 항 중에 부정사를 사용하거나, 또는 의미상 서로 대응 또는 반대의 단어를 사용하여, 두 항이 서로 전환 관계임을 나타낸다.²⁴⁹⁾ ‘而’는 ‘但’, ‘反’, ‘却’에 해당한다.

《老子》에서 접속사 ‘而’가 전환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는 총 65회이다. 이를 부정사를 사용하여 전환하는 경우와, 대응 또는 반대의 단어를 사용하여 전환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① 否定詞를 使用하여 轉換

《老子》에서 ‘而’가 앞뒤 항에 부정사를 사용하여 전환 관계를 표시하는 용례는 총 52회 출현한다. ‘而’의 뒷항에 부정사가 오는 경우, ‘而’의 앞항에 부정사가 오는 경우,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가 오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a. ‘而’의 뒷항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

《老子》에서 접속사 ‘而’와 연결된 앞뒤 항이 전환관계일 때, 뒷항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는 총 38회이며, 사용된 부정사는 ‘勿’(4회), ‘弗’(1회), ‘不’(33회)이다.

(61) 萬物作而不爲始,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 《老子·2章》

(만물이 일어나도 사단을 만들지 않고, 낳아 주되 소유하지 않으며, 해주어도 빼가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차지하지 않는다.)

(62) 果而勿矜, 果而勿伐, 果而勿驕, 果而不得已, 果而勿強. 《老子·30章》

(이루어도 빼가지 말고, 이루어도 자랑하지 말고, 이루어도 교만하지 말라. 이루어도 어쩔 수 없음이니 이루어도 강자 노릇 하지 말라.)

(63) 是以聖人方而不割, 廉而不剌, 直而不肆, 光而不耀. 《老子·58章》

(그래서 성인은 모가 나지만 다치지 않게 하고, 곧으면서도 상처 주지 않고, 정직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위 예(61)-(63)에서 접속사 ‘而’와 연결한 앞뒤 항은 서로 전환 관계이며, 뒷항

249) 何樂士, 《《左傳》虛詞研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452쪽.

에 부정사가 사용되었다. 《老子》에서 ‘而’의 뒷항에 ‘弗’이 사용된 용례는 예(61)의 ‘功成而弗居’에 1회만 보이며, 부정사 ‘勿’이 사용된 용례는 예(62)에서 4회 사용된다. 그 외 ‘而’의 뒷항에 사용된 부정사는 ‘不’만 쓰였다.

b. ‘而’의 앞항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

《老子》에서 접속사 ‘而’와 연결한 앞뒤 항이 전환관계일 때, 앞항에 부정사가 쓰인 경우는 총 10회이며, ‘莫’(2회), ‘不’(7회), ‘未’(1회)가 사용된다.

(64) 民莫之令而自均. 《老子·32章》

(백성들은 아무 명령이 없어도 저절로 고르게 된다.)

(65) 未知牝牡之合而媵作, 精之至也. 《老子·55章》

(암수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의 지극함이다.)

(66) 是以聖人不行而知, 不見而明, 不爲而成. 《老子·47章》

(그래서 성인은 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밝으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위 예(64)-(66)은 접속사 ‘而’의 앞항에 부정사를 사용하여 뒷항과 서로 전환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예(64)에는 ‘莫’, 예(65)에는 ‘未’, 예(66)에는 ‘不’를 사용하였다.

c.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가 쓰인 경우

《老子》에서 전환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4회 출현한다. 부정사가 ‘而’의 앞뒤 항에 모두 쓰이므로, 앞뒤 항에 서로 대응 또는 반대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전환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에 사용된 부정사는 각각 ‘無와 不’, ‘無와 無’, ‘莫과 莫’이 앞뒤 항에 사용된다.

(67) 善閉無關鍵而不可開, 善結無繩約而不可解. 《老子·27章》

(잘 닫으면 빗장이 없는데도 열 수 없고, 잘 묶으면 밧줄이 없는데도 풀 수 없다.)

(68) 道常無爲而無不爲. 《老子·37章》

(도는 늘 억지로 함이 없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69)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강한 것을 치는데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 예(67)-(69)에서 접속사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가 사용되었는데, 앞뒤 항에 서로 대응 또는 반대 의미의 단어가 함께 사용된다. 예(67)에서 ‘關鍵’와 ‘開’, ‘繩約’와 ‘解’는 서로 각각 대응되는 단어이다. 예(68)에서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동사 ‘無’가 술어로 쓰였는데, 앞뒤 항에 부정 동사 ‘無’의 목적어로 쓰인 ‘爲’와 ‘不爲’가 서로 대응된다. 예(69)에서 ‘而’의 앞뒤 항에 모두 부정사 ‘莫’이 쓰이고, 앞 절의 ‘柔弱’와 뒷절의 ‘堅強’이 서로 대응되는 의미이다.

② 對應 또는 反對 意味로 轉換

《老子》에서 접속사 ‘而’가 전환 관계를 표시할 때, 연결한 앞뒤 항이 서로 대응 혹은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13회이다.

(70)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老子·1章》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왔지만 달리 부르니, 함께 그것을 ‘아득함’이라고 말한다.)

(71)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老子·7章》

(그래서 성인은 자신의 몸을 뒤에 놓아도 자신이 (남보다) 앞서게 되고, 그 자신을 도외시 하는데도 몸이 보존된다.)

(72) 骨弱筋柔而握固. 《老子·55章》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럽지만 움켜쥐는 것은 굳건하다.)

(73) 繻然而善謀. 《老子·73章》

(느슨하지만 잘 도모한다.)

위 예(70)-(73)에서 전환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而’와 연결한 앞뒤 항은 서로 대응 혹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이고 있다.

예(70)의 ‘同’과 ‘異’, 예(71)의 ‘後’와 ‘先’, ‘外’와 ‘存’, 예(72)의 ‘弱柔’과 ‘固’, 예(73)의 ‘繻然’와 ‘善謀’는 각각 서로 대응되거나 혹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다.

4) 漸層關係 表示

점층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대부분 앞에 하나의 상황을 만들고, 그 뒷항에 ‘況’, ‘何況’, ‘況於’ 등 접속사를 사용하여 점층관계를 나타낸다. 보통 앞 문장에 ‘猶’, ‘尙’, ‘且’ 등의 부사를 써서 뒷문장의 점층의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때로 문장의 말미에 ‘乎’와 연용하여 반문의 어기를 만든다.²⁵⁰⁾

《老子》에서 점층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 ‘而況於’가 있다.

(1) 而

접속사 ‘而’는 구나 절을 연결하여 점층관계를 표시한다.²⁵¹⁾ ‘而’와 연결된 앞뒤 문장에서 문맥상 뒤 문장이 더욱 심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更加’, ‘還’, ‘而且’ 등의 의미에 해당한다. 《老子》에 총 6회 출현한다.

- (74) 持而盈之, 不如其已; 揣而銳之, 不可長保. (중략) 富貴而驕, 自遺其咎. 《老子·9章》
(움켜잡고서 그것을 넘치게 한다면 그때 그만둬만 못하다. 두들겨서 그것을 예리하게 한다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부귀한데 교만하면 자신에게 그 허물을 끼치게 된다.)
- (75)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老子·38章》
(상등의 예는 그것을 억지로 하고자 하고, 게다가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잡아당긴다.)
- (76) 用兵有言: 吾不敢爲主, 而爲客; 不敢進寸, 而退尺. 《老子·69章》
(용병을 할 때에 이러한 말이 있다. “우리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이 되고, 감히 한 치도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한 자 물러난다.”)

위 예(74)에서 ‘而’는 ‘還’의 의미에 해당하며, ‘而’의 뒷항은 그 앞항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상황이 전개된다.

예(75)의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에서 밑줄 친 ‘而’는 점층관계 표시 접속사이며, ‘而且’에 해당한다. ‘則’은 결과 표시 접속사이고, ‘攘臂而扔之’의 ‘而’는 앞항 ‘攘臂’이 뒷항 ‘扔之’의 방식임을 나타내는 연접 표시 접속사이다.

예(76)의 ‘不敢爲主, 而爲客’에서 ‘爲主’는 공세를 취하여 먼저 공격하는 것을 말하고, ‘爲客’은 수세를 취하여 어쩔 수 없이 적에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²⁵²⁾ ‘而’

25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82-983쪽.

25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21쪽.

252)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0쪽.

의 뒷항은 앞항보다 진일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不敢進寸，而退尺’에서 ‘尺’(1척)은 ‘寸’(1치)의 10배 길이이므로, ‘而’의 뒷항은 앞항보다 진일보한 상황이다.

(2) 而況於

‘而況於’는 접속사 ‘而況’의 뒤에 ‘於’가 연용된 형태로서, 복문 중 뒷절의 첫머리에 쓰여 뒤 문장이 한층 더 나아감을 나타낸다. ‘而況’의 뒤에 ‘於’가 연용되어 강조의 어기가 더욱 두드러진다.²⁵³⁾ ‘하물며’라고 해석되며 ‘況’, ‘而況’, ‘況於’, ‘況乎’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 《老子》에서 ‘而況於’는 앞 절에 부사 ‘尙’을 쓰고, 문말에 어기조사 ‘乎’와 호응된다. ‘尙…，而況於…乎’의 구조이다. 1회 사용된다.

(77) 天地尙不能久，而況於人乎？《老子·23章》
(천지도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라?)

위 예(77)에서 ‘而況’은 앞항에 부사 ‘尙’과 호응하여 뒤 문장의 상황이 한층 더 심화됨을 표시하며, 문장의 끝에 어기조사 ‘乎’를 써서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뒷항에서 ‘人’은 주어로서 앞항의 ‘天地’와 대응한다. 뒤 문장은 앞 문장에서 계승한 술어가 생략된 형태이며,²⁵⁴⁾ ‘人更不能久’(사람은 더욱 오래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5) 因果關係 表示

인과 관계 표시 접속사는 인과 복문의 앞 절이나 뒷 절에 쓰여서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표시한다. 《老子》에 쓰인 인과관계 표시 접속사는 ‘爲’, ‘以’, ‘故’, ‘是以’, ‘是故’가 있다. ‘爲’와 ‘以’는 원인을 표시하며, ‘故’, ‘是以’, ‘是故’는 결과를

253)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689쪽.

254) 楊伯峻·何樂土는 ‘而況於+주어+乎’의 형태는 모두 술어를 앞 문장에서 계승하여 생략되며, 앞 문장의 주어와 병렬하여 말하는 주어만 남겨진 것이라고 하였다. 楊伯峻·何樂土,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84-985쪽.

표시한다.

(1) 爲

‘爲’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인다. ‘因爲’에 해당하며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아래의 예문에 1회 쓰인다.

(78)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老子·13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나에게 이 몸이 있기 때문이다.)

예(78)은 ‘所以…者, 爲…’ 형태로서, 先果後因 구조의 인과복문이다. 앞항에 쓰인 ‘所以’는 구조조사 ‘所’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사조로서 ‘…的緣故’(~한 까닭)로 해석되며, 접속사 ‘所以’와 구별된다. 접속사 ‘所以’는 복문 중 뒷절에 쓰이며, ‘所以’의 뒤에 연결되는 것은 문장이다. 그러나 예(78)의 ‘所以’는 ‘所+以+동사’로 구성된 ‘所’자구이다.²⁵⁵⁾ ‘所以’는 대략 漢 이후에 이르러야 결과 표시 접속사로 사용되었다.²⁵⁶⁾ ‘爲吾有身’의 ‘爲’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여, ‘~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2) 以

‘以’가 원인 표시 접속사로 쓰인 용례는 15회 출현한다. ‘以’와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에 따라 분류하면, ‘…, 以…’, ‘以…, 故…’, ‘…, 以…, 是以…’, ‘所以…者, 以…, (故…)’ 등 4가지 구조가 있다.

① ‘…, 以…’

인과 복문 중에 先果後因을 나타내는 ‘…, 以…’ 구조이다. 앞 문장에 특정 표지가 없지만 결과의 내용이 쓰이고, 뒤 문장에 접속사 ‘以’를 써서 원인을 나타내는

25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64쪽.

256)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6쪽.

경우이다. 5회 쓰인다.

(79)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老子·61章》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고요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80) 天下莫柔弱於水, 而功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딱딱하고 경직된 것을 공격하는데 그것(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예(79)에서 ‘牝常以靜勝牡’의 ‘以靜’은 전치사구이며 술어 동사 ‘勝’의 방식을 인개한다. 뒷절 ‘以靜爲下’의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예(80)에서 ‘以其無以易之’의 ‘以’는 원인을 표시 접속사이며, ‘其’는 대명사이다. ‘無以’는 부정 동사 ‘無’와 전치사 ‘以’가 결합된 관용구로서, ‘以’의 목적어는 생략이 되었다.²⁵⁷⁾

② ‘以…, 故…’

인과 복문에서 先因後果를 나타내는 ‘以…, 故…’ 구조이다. 접속사 ‘以’가 원인을 나타내고, 그 뒷항에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 ‘故’와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라고 해석한다. 4회 쓰인다.

(81) 此三者, 以爲文不足. 故令有所屬. 《老子·19章》

(이 세 가지는 꾸며대어 부족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귀속될 바를 갖도록 한다.)

(82) 以其終不自爲大, 故能成其大. 《老子·34章》

(그는 끝내 자신을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큼을 이룰 수 있다.)

예(81)에서 ‘以爲文不足’의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고, ‘文’은 ‘文飾’을 가리키는데, 겉으로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²⁵⁸⁾ 뒷 문장 ‘故令有所屬’은 ‘故’를 써서 결과를 표시한다. ‘令’은 사역동사이며, ‘所’는 구조조사이다.

예(82)의 ‘以其終不自爲大’은 접속사 ‘以’를 써서 원인을 표시하며, ‘終’은 부사이며, ‘自’는 대명사이다. 뒷 문장 ‘故能成其大’에서는 ‘故’를 써서 결과를 표시한다.

25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21쪽.

258)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158-159쪽.

③ ‘…, 以…, 是以…’

‘…, 以…, 是以…’의 구조는 先果後因의 구조와 先因後果의 구조가 이중으로 사용된 형태이다. ‘결과-원인(원인-결과)’의 구조이다. ‘…한 것은 …,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접속사 ‘以’가 원인을 나타내고, 접속사 ‘是以’는 결과를 표시한다. 4회 출현한다.

(83) 聖人不病, 以其病病. 是以不病. 《老子·71章》

(성인은 병들지 않는다. 그것은 병폐를 병폐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들지 않는다.)

(84)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民之輕死, 以其上求生之厚, 是以經死. 《老子·75章》

(백성들이 굶주린 것은 그 윗사람이 세금을 거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리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윗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이 여기는 것은 그 윗사람이 생의 두터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예(83)과 (84)는 ‘…, 以…, 是以…’ 구조이다. ‘결과-원인(원인-결과)’의 이중적인 구조이다. 예(83)과 예(84)의 심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원인	결과
2단계	결과	원인	
예(83)	聖人不病,	以其病病.	是以不病.
예(84)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民之輕死,	以其上求生之厚,	是以經死.

예(83)에서 ‘聖人不病’은 결과의 문장이다. ‘以其病病’의 ‘以’는 원인 표시 접속사이며, ‘是以不病’의 ‘是以’는 결과 표시 접속사이다. 표의 1단계를 보면, ‘以其病病, 是以不病’에서 앞 절 ‘以其病病’은 원인을, 뒷 절 ‘是以不病’은 결과를 나타낸다. 2단계를 보면, 先因後果의 구조인 ‘以其病病, 是以不病’이 다시 첫째 절 ‘聖人不病’의 원인이 된다. ‘以其病病’의 ‘病病’은 ‘동사+목적어’ 구조로서, 앞의 ‘病’은 명사의 의동용법으로 쓰인 것이며 ‘병폐로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예(84)는 예(83)과 같은 구조가 3회 반복된다.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은 ‘결과-원인(원인-결과)’의 이중적인 구조이다. 1단계에서 보면,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은 ‘원인-결과’의 구조이다. 2단계에서 보면,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의 先因後果의 구조가 첫째 절 ‘民之饑’의 원인을 나타내어, ‘결과-원인’의 구조가 된다. 다음에 이어지는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의 구조와 ‘民之輕死, 以其上求生之厚, 是以經死’의 구조도 위와 같은 이중적인 구조이다.

④ ‘所以…者, 以…, 故…’

인과 복문에서 ‘所以…者, 以…, 故…’의 구조는 2회 사용된다.

(85)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老子·7章》

(천지가 영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살 수 있다.)

(86)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예(85)와 예(86)은 ‘所以…者, 以…, 故…’ 구조이다. 이 구조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와 셋째 항은 ‘원인+결과’의 인과 복문이며, 이 복문이 다시 ‘원인’이 되어 첫째 항과 ‘결과+원인’의 복문을 이룬다.²⁵⁹⁾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제1단계		원인	결과
제2단계	결과	원인	
예(85)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예(86)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

예(85)와 예(86)에서 첫째 항의 ‘所以’는 조사 ‘所’와 전치사 ‘以’가 결합된 형태로서 ‘…한 까닭’의 의미이다.²⁶⁰⁾ ‘者’는 원인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이다. 둘째 절의 접속사 ‘以’는 원인을 표시하며, 셋째 절의 접속사 ‘故’는 결과를 표시한다. 둘째 절과 셋째 절은 ‘원인-결과’의 구조이다. 이 구조가 다시 첫째 절의 원

259)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9쪽.

26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6쪽.

인이 된다. 예(85)의 ‘天地所以能長且久者，以其不自生，故能長生’에서 ‘天地所以能長且久者’는 결과를 나타낸다. ‘以其不自生，故能長生’은 ‘원인-결과’의 구조이며, 이 구조가 첫째 절의 원인이 된다. 예(86)의 구조도 예(85)와 같다.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爲百谷王’에서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以其善下之，故能爲百谷王’은 ‘원인-결과’의 구조이며, 이 구조가 첫째 절의 원인이 된다.

(3) 故

‘故’는 인과 복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총 57회 출현한다. ‘故’와 연용한 인과 복문의 형태에 따라 ‘…，故…’(35회), ‘夫唯…，故…’(5회), ‘…，是以…，故…’(9회), ‘(之)所以…者，以…，故…’(2회), ‘…，故…，是以…’(2회), ‘…，以…，故…’(4회) 등 6가지로 분류된다.

- (87) 不自見，故明；不自是，故彰；不自伐，故有功；不自矜，故能長。《老子·22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 고로 환하다. 자신을 옳다고 하지 않으니, 고로 빛난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니, 고로 공이 있다. 스스로 빼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오랠 수 있다.)
- (88) 夫唯不爭，故無尤。《老子·8章》
(오직 다투지 않기에,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 (89) …，是以聖人爲腹不爲目，故去彼取此。《老子·12章》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 (90)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爲百谷王。《老子·66章》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백성보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써 그들에게 낮추고, 그들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으로써 그들에게 뒤선다.)
- (91) 故堅强者死之徒，柔弱生之徒。是以兵强則滅，木强則折。《老子·76章》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병기가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 (92) 民之難治，以其智多。故以智治國，國之賊；不以智治國，國之福。《老子·65章》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워진 것은 그들이 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로써 나라를 다스림은 나라의 도적이요, 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음은 나라의 복이다.)

예(87)은 ‘원인-결과’ 구조의 인과복문이다. 앞항은 원인의 내용이 오고, 뒷항은 접속사 ‘故’를 써서 결과를 표시한다.

예(88)은 ‘夫唯…, 故…’의 구조로서 ‘원인-결과’ 구조의 인과복문이다. ‘夫’는 발어사이고, 부사 ‘唯’는 원인을 표시하는 뜻이 있으며 ‘正因爲’(바로 ~때문에)라고 해석된다.²⁶¹⁾

예(89)는 ‘…, 是以…, 故…’의 인과 복문 구조이다. ‘是以’는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是以…’는 다시 뒤 문장 ‘故…’의 원인이 되어 ‘원인-결과’의 구조를 이룬다.

예(90)은 ‘(之)所以…者, 以…, 故…’ 구조이며, 앞의 접속사 ‘以’ 단원에서 논한 바와 같이, ‘결과+원인+결과’의 이중적 구조이다. 설명은 생략한다.

예(91)에서 ‘故’와 ‘是以’는 모두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 故…, 是以…’의 형태를 ‘A, 故 B, 是以 C’로 표기하면, A는 원인을, B는 그 결과를 나타내며, 이 B가 다시 C의 원인이 되어, C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예(92)는 ‘결과-원인(원인-결과)’ 구조의 인과 복문이다. ‘…한 것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라고 해석한다. ‘以’는 원인을 표시하고, ‘故’는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인다. ‘以其智多’의 ‘智多’는 ‘多智巧詐’(얕이 많아져서 교활하다)라는 뜻이다.²⁶²⁾ ‘故以智治國’와 ‘不以智治國’의 ‘以智’는 술어 동사 ‘治’의 방식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다.

(4) 是以

‘是以’는 대명사 ‘是’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관용구로서 ‘목적어+전치사’ 구가 접속사로 쓰인 것이다.²⁶³⁾ 인과 복문에서 뒤 절의 앞머리에 쓰여 결과를 표시하며, ‘所以’, ‘因此’에 해당한다. 총 35회 출현한다.

‘是以’와 연용한 인과 복문의 형태는 ‘…, 是以…’(19회), ‘夫唯…, 是以…’(4회), ‘…, 是以…, 故…’(7회), ‘…, 故…, 是以…’(2회), ‘…, 以…, 是以…’(3회) 등 5가지로 세분된다.

(93)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老子·38章》

261)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8쪽.

262)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68쪽.

263)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46쪽.

(상등의 덕은 덕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게 된다. 하등의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덕이 없게 된다.)

- (94) 夫唯無知, 是以不我知. 知我者希, 則我者貴. 《老子·70章》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가 드물수록 나를 본받는 자가 귀하다.)
- (95)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 夫唯不厭, 是以不厭. 《老子·72章》
(그들이 거처하는 바를 옥죄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바를 억누르지 말라. 오직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통치자를) 싫어하지 않는다.)
- (96) 是以聖人爲腹不爲目, 故去彼取此. 《老子·12章》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 (97) 是以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常善救物, 故無棄物, 是謂襲明. 《老子·27章》
(그래서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며, 늘 만물을 잘 구하나니 그러므로 만물을 버리지 않는다. 이를 일러 ‘습명’이라고 한다.)
- (98) 故貴以賤爲本, 高以下爲基. 是以侯王自稱孤, 寡, 不谷. 《老子·39章》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고’, ‘과’, ‘불곡’이라고 칭한다.)
- (99) 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 是以饑. 民之難治, 以其上之有爲, 是以難治. 民之輕死, 以其上求生之厚, 是以輕死. 《老子·75章》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통치자가 세금을 거둬들이 많이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린다. 백성이 다스려지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억지로 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통치자가 생을 추구함이 두텁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예(93)은 ‘…, 是以…’ 구조로서 ‘원인-결과’의 인과 복문이다. 앞항은 원인을, 뒷항은 접속사 ‘是以’를 써서 결과를 나타낸다. ‘上德不德’에서 ‘上德’의 ‘德’은 명사로, ‘不德’의 ‘德’은 의동용법으로 ‘덕이라고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예(94)–(95)는 ‘夫唯…, 是以…’ 구조로서, 앞항은 원인 표시 부사 ‘唯’를 사용하고, 뒷항은 결과 표시 접속사 ‘是以’를 사용한 인과 복문이다. ‘夫’는 여기조사이며, ‘唯’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이다.²⁶⁴⁾ 예(94)에서 ‘無知’에 관한 해석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둘은 자신의 無知를 가리킨다.²⁶⁵⁾ 본고는 陳鼓應의 今譯에 따랐다. ‘知我者希, 則我者貴’에 대해, 王弼은 ‘나를 알아보는 자가 드물수록, 내가 귀중하다.’라고 해설하여 ‘則’을 ‘於是’에 해당하는 접속사로 보았다.²⁶⁶⁾ 반면, 근대 학자 任繼愈 등은 ‘則’을 동사 ‘效法’(본받다)

26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8쪽.

26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3쪽.

266) 王弼: “唯深, 故知之者希也. 知我益希, 我亦無匹, 故曰‘知我者希, 則我者貴也.’(심오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로 보아 ‘則我者’는 나를 본받는다는 뜻이라고 해설하였다.²⁶⁷⁾ 본고는 ‘則’을 동사로 보았다. 예(95)에서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의 ‘無’는 ‘不要’의 뜻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부사이며, 각각 동사 ‘狎’와 ‘厭’을 부정한다. ‘其’는 대명사로 ‘백성’을 가리키며, ‘所’는 구조조사이다. ‘夫唯不厭, 是以不厭.’에서 앞항의 ‘厭’과 뒷항의 ‘厭’은 다른 뜻이다. 전자는 앞 문장의 ‘無厭其所生’의 ‘厭’으로 ‘억누르다’는 뜻이고, 후자는 66장 내용 중 ‘天下樂推而不壓’의 ‘壓’으로 ‘싫어하다’는 뜻이다.²⁶⁸⁾

예(96)과 예(97)는 ‘..., 是以..., 故...’ 구조이다. ‘是以’와 ‘故...’는 모두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두 예문의 구조를 ‘A, 是以 B, 故 C’로 나타낸다면, A는 원인이고, ‘B 故 C’는 ‘是以’가 이끄는 결과이다.

예(98)은 ‘..., 故..., 是以...’의 형태이다. 이를 ‘A, 故 B, 是以 C’로 나타내면, A는 원인을 나타내고, B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다시 B가 C의 원인이 되고, C는 B의 결과가 된다. ‘故貴以賤爲本, 高以下爲基.’는 접속사 ‘故’를 써서 결과를 나타내며, 뒷항 ‘是以侯王自稱孤, 寡, 不谷’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99)는 ‘..., 以..., 是以...’ 구조의 인과복문이다. ‘以’는 원인을 표시하고 ‘是以’는 결과를 표시한다. ‘결과-원인(원인-결과)’의 이중적 구조이다. 앞의 “(2) 以” 부분의 예문(84)에서 논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5) 是故

‘是故’는 대명사 ‘是’와 접속사 ‘故’가 결합한 수식 구조로 이루어진 2음절 접속사이며, 결과를 표시하는 주절을 이어준다.²⁶⁹⁾ 주어의 앞이나 절의 앞에만 쓰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事理의 결과를 표시하는데 쓰인다.²⁷⁰⁾ 1회 출현한다.

자가 드물다. 나를 알아보는 자가 드물수록, 나에게는 또한 필적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보는 자가 드물면 내가 귀중하다’라고 하였다.),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76-177쪽.

267)任繼愈: “則我者, 取法我的.”(‘則我者’는 나를 본받는다는 것이다), 釋德清注: “則, 謂法則. 言取法也.”(‘則’은 ‘法則’을 말한다. 본받는다라는 말이다),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507쪽,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3쪽.

268) 高亨說, “上‘壓’字即上文‘無厭其所生’之壓. 下‘壓’字乃六十六章‘天下樂推而不壓’之壓. 言夫唯君不壓迫其民, 是以民不壓惡其君也.”(高亨이 말하길, 앞의 ‘壓’자는 앞 문장 ‘無厭其所生’의 ‘厭’이다. 뒤의 ‘壓’자는 66장 ‘天下樂推而不壓’의 ‘壓’이다. 오직 왕이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9쪽.

269)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46쪽.

27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4쪽.

(100) 故至譽無譽. 是故不欲瑤瑤如玉, 珞珞如石. 《老子·39章》

(그러므로 지극한 영예는 영예가 없다. 그래서 옥처럼 화려한 것을 욕심내지 않고, 돌처럼 단단하다.)

예(100)은 ‘…; 故…, 是故…’ 구조이다. ‘故至譽無譽’는 앞 문장의 결과를 표시하는데, 이것이 다시 ‘是故’가 이끄는 뒷 절의 원인이 된다. ‘是故不欲瑤瑤如玉, 珞珞如石’에서 ‘是故’는 帛書本에 근거하여 첨가한 것이며, ‘瑤瑤’은 옥의 화려함을 형용하고, ‘珞珞’은 돌의 단단함을 형용한다.²⁷¹⁾ 동사 ‘欲’의 목적어에 대해, 王弼은, “玉石瑤瑤珞珞, 體盡於形. 故不欲也.”(옥과 돌은 아름답게 빛나고 단단하여 형체를 드러내기에 극진하다. 그러므로 욕심내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不欲’의 목적어를 ‘瑤瑤如玉, 珞珞如石’까지 본 것이다. 高亨은, “瑤瑤, 玉美貌. 珞珞, 石惡貌.”(瑤瑤은 옥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珞珞은 돌의 추한 모습이다.)라고 하였으므로 ‘不欲’의 목적어를 “瑤瑤如玉”로 본 것이다.²⁷²⁾ 본고는 高亨의 설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6) 安

‘安’은 고대한어에서 ‘焉’과 語音이 같아 쓰임이 비슷하다. 진술문에 쓰인 ‘安’과 ‘焉’은 접속사로서 ‘於是’, ‘就’에 해당한다. ‘安’의 이러한 용법은 대략 戰國시기에 생겨나 秦漢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²⁷³⁾ ‘安’과 연결된 뒷항은 앞항의 결과이다. ‘安’의 접속사 용례는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101) 往而不害, 安平泰. 《老子·35章》

(찾아가도 서로 해치지 않으니, 이에 평화롭고 태평하다.)

(102) 秦與韓爲上交, 秦禍安移於梁矣. 《戰國策·趙策》

(진나라와 한나라가 상등의 외교를 한다면, 진나라의 재앙이 이에 양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271)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6쪽.

272)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106쪽.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6쪽.

273)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5쪽.

예(101)에서 ‘往而不害’의 ‘而’는 앞항 ‘往’과 뒷항 ‘不害’를 전환관계로 이어준다. ‘安平泰’의 ‘安’은 ‘於是’, ‘乃’, ‘則’에 해당한다.²⁷⁴⁾ ‘安’의 뒷항은 앞항의 결과이다.

예(102)는 前漢 시기 문헌인 《戰國策》에서 ‘安’이 접속사로 사용된 용례이다. ‘安’은 앞 문장의 결과를 표시하는 접속사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6) 假定關係 表示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대부분 복문에서 쓰이며, 앞 문장은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고, 뒤 문장은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낸다. 가정 표시 복문에는 대부분 가정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표지로 사용된다.

《老子》에서 가정 관계 접속사는 ‘以’, ‘其’, ‘若’, ‘使’, ‘若使’가 있다.

(1) 以

‘以’의 용법 중에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 용법이 있으며, ‘如果’에 해당한다.²⁷⁵⁾ 《老子》에는 아래의 예문에 2회 출현한다.

(103) 故大邦以下小邦, 則取小邦; 小邦以下大邦, 則取大邦. 《老子·61章》

(그러므로 큰 나라가 만약 작은 나라에 낮추면 작은 나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작은 나라가 만약 큰 나라에 낮추면 큰 나라에게 받아들여진다.)

예(103)에서 ‘以’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였다.²⁷⁶⁾ 뒷항의 ‘則’과 함께 쓰여 ‘以…, 則…’의 가정복문 구조이다. 앞항은 가정을 표시하고, 뒷항은 결과를 표시한다. ‘만약 …한다면, …하다’라고 해석한다. 예문의 문장은 ‘大邦’(큰나라)과 ‘小邦’(작은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며, ‘取’는 ‘取得’(얻다)의 뜻이다.²⁷⁷⁾

274)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87쪽.

275)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1082쪽.

276) 양만기, <《老子》‘以’字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66집, 2017, 56쪽.

277)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461쪽.

(2) 其

‘其’는 가정복문의 앞 문장에 쓰여 가정 표시 접속사로 사용되며, ‘如果’에 해당한다.²⁷⁸⁾ 《老子》에서 ‘其’가 가정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 용례는 아래의 예(104)에 1회 출현한다.

(104) 其致之也, 謂天無以清,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후략) 《老子·39章》

(만약 이것을 더욱 미루어 말하자면, “하늘이 이것(‘一’)으로써 맑지 못하면 장차 아마 갈라질 것이고,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장차 아마 터질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105) 王其欲霸, 必親中國以爲天下樞, 以威楚趙. 《史記·范雎蔡澤列傳》

(왕께서 만약 천하를 제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원에 있는 나라와 친하게 해서 이로써 천하의 중추로 삼고 이로써 楚나라와 趙나라를 위협하여야 합니다.)

(106) 蘭槐之根是爲芷, 其漸之滌, 君子不近, 庶人不服. 《荀子·勸學》

(난괴의 뿌리는 향료로 쓰지만, 만약 더러운 물에 적시면, 군자도 가까이 가지 않고 백성들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104)에서 ‘其’는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饒尚寬은 ‘其致之也’를 ‘如果推廣言之(만약 이것을 넓혀서 말하면)’라고 해설하고, ‘其’를 ‘若’, ‘如果’의 의미로 보았다.²⁷⁹⁾ 陳鼓應은 ‘其致之也’를 ‘推而言之(이를 미루어서 말하다)’라고 해설하고, 통행본에는 ‘也’자가 없지만 帛書本에 근거하여 보충한다고 하였다.²⁸⁰⁾ 이 ‘也’는 종속절의 끝에서 가정의 어기를 표시한다.²⁸¹⁾

예(105)와 예(106)의 문장은 각각 《史記》와 《荀子》에서 ‘其’가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로 쓰인 용례이다. 예(105)의 ‘王其欲霸’에서 ‘王’은 주어이며, ‘其欲霸’은 가정을 표시하는 종속절이다. ‘必親中國以爲天下樞, 以威楚趙’는 결과를 표시하는 주절이다. 예(106)의 ‘其漸之滌’에서 ‘其’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漸之滌’은 가정의 내용이다. ‘漸’은 ‘浸’(담그다)의 의미이며 동사이다. ‘之’은 대명사이며, ‘滌’은 ‘臭泔水’(더러운 물)을 뜻한다. ‘其漸之滌’은 가정을 표시하는 종속절이며, 뒷 절인 ‘君子不近, 庶人不服’은 결과를 표시하는 주절이다.

27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07쪽.

279) 饒尚寬 譯註, 《老子》, 中華書局, 2016, 100쪽.

280)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4쪽.

281)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59쪽.

(3) 若

접속사 ‘若’은 가정의 조건이나 상황을 표시하며 ‘如果’, ‘假如’에 해당한다. 《老子》에 2회 출현한다.

(107)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老子·32章》

(왕이 만약 이것(道)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108)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老子·37章》

(왕이 만약 이것(道)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변화할 것이다.)

위 예(107)과 예(108)은 동일한 형태의 문장이다. ‘왕이 만약 ‘道’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접속사 ‘若’은 모두 주어의 뒤에 위치하여 가정 관계를 나타낸다.

(4) 使

‘使’는 접속사로서 가정을 표시하며, ‘假使’에 해당한다.²⁸²⁾ 《老子》에는 2회 출현한다.

(109)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일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110) 使有什伯人之器而不用. 《老子·80章》

(만약 효과가 열배 백배인 도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위 예(109)의 ‘使我介然有知’에서 ‘使’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介然’은 ‘微小(미미하고 작다)’의 뜻이다.²⁸³⁾ ‘行於大道’에서 ‘於’는 동작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在’에 해당한다. ‘唯施是畏’에서 ‘施’는 ‘迤(yì)’로 읽으며 ‘邪’(삐딱하다, 기울다), ‘斜行’(비탈길)의 뜻이다.²⁸⁴⁾ ‘是’는 구조조사로서 목적어와 술어 동사의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동사의 앞으로 전치시켜서 목적어를 강

282)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1325쪽.

283)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284)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조하는 효과를 갖는다.²⁸⁵⁾

예(110)은 ‘使…, 而…’ 구조이다. ‘使’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뒷항은 전 환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而’가 쓰였다. ‘什伯人之器’에 대해 王弼本과 여러 판 본에서는 ‘什伯之器’로 되어 있으나, 帛書甲乙本과 河上公本 등은 ‘什伯人之器’으로 되어 있다.²⁸⁶⁾ 王力은 ‘什’은 ‘十倍’이고 ‘伯’은 ‘佰’과 通하므로 ‘百倍’를 말하며, ‘什伯之器’는 ‘효과가 열배 백배인 도구’라고 풀이하였다.²⁸⁷⁾

(5) 若使

접속사 ‘若使’는 ‘若’과 ‘使’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2음절 접속사이며, ‘若’과 ‘使’가 모두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데, 이 두 개가 함께 쓰여 2음절로 쓰일 때도 의미는 단음절과 같다.²⁸⁸⁾ ‘假使’에 해당한다. 《老子》에는 예(111)에서 1회 출현한다.

(111) 若使民常畏死, 而爲奇者, 吾將得而殺之. 《老子·74章》

(만약 백성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기이한 짓을 한다면, 나는 장차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112) 若使湯武不遇桀紂, 未必王也. 《呂氏春秋·長攻》

(만약 탕왕과 무왕이 걸왕과 주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왕업을 이루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예(111)에 사용된 접속사 ‘若使’는 주어의 앞에 사용되어 가정 관계를 표시한다. ‘若使…, 而…者’ 부분이 가정을 표시하는 종속절이며, 뒤의 ‘吾將得而殺之’ 문장이 결과에 해당하는 주절이다. 이때 ‘者’는 복문 중 앞 단문의 끝에 쓰여 가정을 표시하는 어기조사이며, 가정 표시 접속사와 함께 쓰였다. ‘…的話’, ‘如果…의話’에 해당한다.²⁸⁹⁾

예(112)는 《呂氏春秋》에 사용된 ‘若使’의 용례이다. ‘若使’는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앞 절 ‘若使湯武不遇桀紂’은 접속사 ‘若使’를 사용하여 가정 관

28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17쪽.

286)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32-333쪽.

287) “什, 十倍; 伯, 通佰, 百倍. 什伯之器, 效用十倍百倍的工具.”,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375쪽.

28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81쪽.

28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24쪽.

계를 표시하는 종속절이며, 뒷 절 ‘未必王也’은 결과의 내용을 나타내는 주절이다.

7) 讓步關係 表示

양보 복문은 보통 앞 문장에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쓰고, 뒤 문장에 긍정의 의미로 전환한다. 일반적으로 앞의 종속절이나 뒤쪽의 주절에 접속사나 부사 등의 어법 표지가 있다.²⁹⁰⁾ 《老子》에서 양보 관계 표시 접속사는 ‘雖’가 쓰인다.

(1) 雖

접속사 ‘雖’는 복문의 앞절에서 양보 관계를 나타낸다. ‘비록 …일지라도’라고 해석한다. ‘雖’가 양보를 표시할 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의 양보’이며 ‘雖然’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가정의 양보’이며 ‘即使’에 해당한다.²⁹¹⁾ 《老子》에 ‘雖’는 6회 출현한다.

(113) 雖有榮觀, 燕處超然. 《老子·26章》

(비록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도 편안히 머물며 초연한다.)

(114) 不貴其師, 不愛其資, 雖智大迷, 是謂要妙. 《老子·27章》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을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똑똑하다 해도 크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를 일러 ‘깊은 오묘함’이라고 한다.)

(115)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老子·80章》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곳이 없고, 비록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그것을 펼칠 곳이 없다.)

예(113)-(115)에서 접속사 ‘雖’는 양보 관계를 표시하며, 뒷항인 주절에 구체적인 전환의 표지는 없지만, 앞의 종속절과 반대 혹은 대응되는 단어들을 써서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9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75쪽.

291)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教育出版社, 1990, 200-201쪽.

예(113)에서 ‘雖有榮觀’은 접속사 ‘雖’를 사용하여 양보 관계를 나타낸다. 뒷 절 ‘燕處超然’은 완만한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주절이다. ‘燕處’는 ‘安居’의 뜻이다.²⁹²⁾ ‘超然’은 동사 ‘超’의 뒤에 접미사 ‘然’이 결합한 형용사이며 술어로 쓰인다.²⁹³⁾ 예(114)에서 ‘雖智大迷’는 ‘雖智’는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절이며, ‘大迷’는 주절이다. ‘是謂要妙’의 ‘要’는 ‘幽’(그윽하다)와 通字이며 ‘要妙’는 ‘深妙’(깊은 오묘함)의 의미이다.²⁹⁴⁾ 예(115)에서 ‘雖有舟輿’와 ‘雖有甲兵’는 양보 관계를 표시하는 종속절이며, 뒷 절의 ‘無所乘之’와 ‘無所陳之’는 주절이다. ‘無所乘之’와 ‘無所陳之’는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乘之’(그것을 타다)와 ‘陳之’(그것을 펼치다)는 동목 구조인데, 각각 구조조사 ‘所’와 결합하여 명사구로 성질이 바뀐다. ‘所乘之’와 ‘所陳之’는 동사 ‘無’의 목적어이다.

8) ‘之’의 特殊 用法

‘之’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앞뒤 항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하며, ‘주어+之+술어’의 형식이다.²⁹⁵⁾ 이때 사용된 접속사 ‘之’는 ‘之’의 특수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겠다.

‘주어+之+술어’의 ‘之’는 이 문장의 독립성을 없애서 그 주술문을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변화시켜, 문장 구조 중의 하나의 성분으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주어+之+술어’ 형식은 고대 중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어법 구조이다. ‘주어+之+술어’ 형식은 갑골문과 西周 金文에는 보이지 않지만 春秋 시기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春秋 시기 이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⁹⁶⁾

‘주어+之+술어’ 구조의 ‘之’를 어떠한 품사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자들은

292)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59쪽.

293) 접미사 ‘然’은 동사, 형용사, 부사와 결합하여 부사나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동사(또는 형용사)+然’은 형용사성 단어로서 때로 모종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의 술어로 쓰인다.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500쪽.

294) 高亨은 “‘要’疑讀爲‘幽’, ‘幽妙’猶言深妙也. ‘要’幽’古通用.”(‘要’는 ‘幽’로 읽어야 할 것으로 의심된다. ‘幽妙’는 깊은 오묘함을 말하는 것과 같다. ‘要’와 ‘幽’는 옛날에 통용되었다.)이라고 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63쪽.

295) ‘之’는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앞뒤 항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5-526쪽.

296) 郭錫良 主編, 《古漢語語法論集》, 語文出版社, 1998, 455쪽.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何樂士는 ‘주어+之+술어’의 ‘之’의 품사에 대하여 접속사로 보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연결과 수식 기능을 하는 ‘부사성 접속사’로 보았다. ‘주어+之+술어’와 ‘주어+술어’는 차이가 있는데, ‘之’를 넣으면 문장에 형식상의 표지와 내재적 유착성을 증가시켜, 그 문장을 항상 자신보다 큰 언어단위와 긴밀하게 연결하기 때문이다.²⁹⁷⁾

郭錫良은 ‘주어+之+술어’의 ‘之’를 접속사라고 하였다. ‘之’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연결 작용을 일으키지만, 주술 구조가 명사성 성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로서 다른 절의 앞에 쓰여, 복문 중의 하나로 쓰이게 된다고 하였다.²⁹⁸⁾

黃六平은 ‘주어+之+술어’의 ‘之’는 연결기능이 비록 미약하기는 하나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하였다.²⁹⁹⁾

唐子恒은 ‘주어+之+술어’의 ‘之’를 접속사로 보았다.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접속사 ‘之’를 삽입하면 ‘之’자 구조로 변하는데, 대부분의 ‘之’자 구조는 독립적인 성분으로 쓰일 수 없고 자신보다 큰 구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³⁰⁰⁾

반면, 王力은 ‘주어+之+술어’의 ‘之’를 전치사로 보았다. ‘之’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문장의 독립성을 취소함으로써 형식상 절이나 구로 변화하고 의미가 아직 끝나지 않아, 청취자나 독자에게 다음 문장을 기다리게 만든다고 하였다.³⁰¹⁾

그밖에 楊伯峻은 ‘주어+之+술어’의 ‘之’를 구조조사로 보고, 하나의 문장을 명사구로 변화시켜 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이거나, 또는 하나의 문장을 절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³⁰²⁾

그러나 何樂士는 ‘주어+之+술어’ 구조가 명사구라는 일부의 설에 대해 개괄성과 대표성을 갖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左傳》에 사용된 ‘주어+之+술어’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총 531회 중 단독성분으로 16회, 병렬성분으

297)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4-526쪽.

298) 郭錫良·李玲璞主編, 《古代漢語》(下), 語文出版社, 1993, 745-747쪽.

29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5-186쪽.

300)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217-219쪽.

301)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458-459쪽.

302)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9쪽.

로 36회, 종속절로 190회, 술어로 13회, 주어로 65회, 목적어로 211회가 사용되었는데, 그중 단독성분, 병렬성분, 종속절로 사용된 용례가 45%에 달하므로 ‘주어+
之+술어’ 구조가 명사구라는 설은 충분하지 않다.³⁰³⁾

《老子》에 쓰이는 ‘주어+之+술어’ 형식도 주어, 술어, 목적어, 복문의 한 절로 쓰이며, 그중에 복문 중의 절로 쓰인 용례가 44%에 달한다. 따라서 본고는 何樂士의 의견을 토대로 ‘주어+之+술어’의 ‘之’를 접속사로 분류하고, ‘之’의 특수용법으로 별도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老子》에서 ‘주어+之+술어’ 구조는 총 32회 출현하며,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 성분으로 사용되거나, 복문 중 하나의 절로 쓰인다.

(1) 主語로 使用

‘주어+之+술어’ 형식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때는 보통 주제 주어이며, ‘之’는 ‘주어+之+술어’가 술어 평술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지이다.³⁰⁴⁾ ‘주어+之+술어’ 형식을 주어로 판단할 때는 술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老子》에서 ‘주어+之+술어’ 형식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 용례는 7회이다.

(152) 譬道之在天下, 猶川谷之於江海. 《老子·32章》

(비유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음은 마치 내와 계곡이 강과 바다에 있는 것과 같다.)

(153) 含德之厚, 比於赤子. 《老子·55章》

(덕을 간직함이 두터운 자는 갓난아이와 비슷하다.)

(154) 人之迷, 其日固久. 《老子·58章》

(사람들이 미혹된 지는 그런 날이 정말로 오래되었다.)

(155)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老子·64章》

(백성이 일을 할 적에는 항상 거의 이루어질 때에 실패한다.)

(156)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強. 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 《老子·76章》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뻣뻣하고 강하다. 초목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지만, 그것이 죽을 때는 마르고 딱딱하다.)

303)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0-521쪽.

304)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5쪽.

위 예(152)-(156)은 ‘주어+之+술어’ 형식이 문장의 주어로 쓰인 용례이다.

예(152)의 ‘道之在天下’와 ‘川谷之於江海’는 모두 ‘주어+之+술어+목적어’의 구조이다. 陳鼓應은 이 문장은 도치문이며 “以江海譬道, 以川谷譬天下萬物.(강과 바다로써 도를 비유하고, 내와 계곡으로써 천하 만물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⁰⁵⁾ 양희석은 ‘之在’와 ‘之於’ 구조는 보통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할 때 쓰는 문형으로, ‘A1과 B1의 관계는 A2와 B2의 관계와 같다’로 해석하지만, 노자는 ‘A1(道)과 B1(天下)의 관계는 B2(川谷)와 A2(江海)의 관계와 같다’는 식으로 써서, 노자가 즐겨 쓰는 ‘순환어법’이라고 하였다.³⁰⁶⁾ 또한 趙榮珮은 ‘在’와 ‘於’는 ‘존재하다’는 의미의 동사인데, ‘在’는 능동사로, ‘於’는 ‘被…容納’에 해당하는 피동사로 보았다.³⁰⁷⁾

예(153)의 ‘含德之厚’에서 ‘含德’은 ‘동사+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문장의 주어로 쓰였으며, 형용사 ‘厚’는 술어이다. ‘之’가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여 ‘含德之厚’ 구조가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³⁰⁸⁾ ‘比於赤子’에서 ‘比’는 동사로서 ‘견주다’는 뜻이며, ‘於’는 ‘比’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예(154)의 ‘人之迷’(사람들이 미혹되다)는 ‘人’은 주어, ‘迷’는 형용사 술어이며, ‘之’는 주어와 술어를 이어준다. ‘人之迷’는 문장의 주어이다. ‘其日固久’의 ‘固’는 부사로서 ‘確實’, ‘實在’에 해당한다.³⁰⁹⁾

예(155)에서 ‘民之從事’는 ‘주어+之+술어 동사+목적어’의 구조이며, ‘之’자로 인해 독립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고, 대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常於幾成’은 시간의 부사어이며, ‘而’는 연결관계 표시 접속사이다. ‘敗’는 술어 동사, ‘之’는 목적어이다.

예(156)의 ‘人之生’과 ‘草木之生’은 ‘주어+之+술어’의 구조이며 모두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예문에 ‘也’가 4회 사용되는데 모두 어음을 고르는 여기조사로 쓰였다. ‘其死’는 예문에 2회 사용되는데, ‘其’는 ‘명사+之’에 해당하는 대명사이며 각각 앞 문장의 ‘人之’와 ‘草木之’를 가리킨다고 하겠다.³¹⁰⁾

30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82쪽.

306) 양희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61-162쪽.

307) 趙榮珮,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47쪽.

308) ‘含德之厚’은 ‘含德深厚的人’(덕을 품음이 두터운 자)로 해석된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60쪽.

30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180쪽.

(2) 述語로 使用

‘주어+之+술어’ 형식이 술어로 사용된 경우는 1회이다.

(157) 道者, 萬物之奧. 《老子·62章》

(도는 만물이 숨는 곳이다.)

예(157)에서 ‘萬物之奧’는 ‘주어+之+동사 술어’의 구조이며, 문장의 술어로 쓰였다. ‘奧’는 ‘藏’(감추다)에 해당하며 ‘庇蔭’(보살피다)는 뜻을 함유한다.³¹¹⁾

(3) 目的語로 使用

‘주어+之+술어’ 형식이 술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는 5회이다.

(158) 其未兆, 如嬰兒之未孩. 《老子·20章》

(아직 조짐을 보이지 않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웃을 줄 모르는 것과 같다.)

(159)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老子·2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예쁨이 예쁜인 줄을 알면, 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모두 잘함이 잘 함인 줄을 알면, 못하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160) 吾是以知無爲之有益. 《老子·43章》

(나는 이로써 무위가 유익함을 안다.)

(161) 以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 《老子·64章》

(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됨을 돕지만 감히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

위 예(158)-(161)에 쓰인 ‘주어+之+술어’ 구문은 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예(158)의 ‘如嬰兒之未孩’의 ‘如’는 동사이며, ‘嬰兒之未孩’를 목적어로 취한다. ‘嬰兒’와 ‘未孩’는 주술 관계이며, 접속사 ‘之’가 이 둘을 연결하여 ‘嬰兒未孩’의 독립성을 파괴한다.

예(159)의 ‘皆知美之爲美’에서 ‘美之爲美’는 ‘知’의 목적어로 쓰인다. ‘皆知善之爲

310)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教育出版社, 1990, 333쪽.

311)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79쪽.

善’의 ‘善之爲善’은 ‘知’의 목적어이다. ‘美之爲美’와 ‘善之爲善’은 ‘주어+之+술어+목적어’의 구조이며, ‘之’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접속사로서 이 문장의 독립성을 없애 문장의 한 성분으로 바꾸어준다.

예(160)에서 ‘是以’는 접속사가 아니라 ‘대명사+전치사’의 구조로 동작 행위의 원인을 소개하는 전치사구이며, ‘以’의 목적어인 ‘是’가 전치된 형태이다. ‘知無爲之有益’의 ‘無爲之有益’은 ‘주어+之+술어’의 구조로, 동사 ‘知’의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예(161)의 ‘以輔萬物之自然’에서 ‘以’는 순접 표시 접속사이며, ‘輔’는 술어 동사로서 ‘萬物之自然’를 목적어로 취한다. ‘萬物之自然’의 ‘之’는 주어인 ‘萬物’과 술어 ‘自然’(저절로 그러하다)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며, 이 문장의 독립성을 파괴한다.

(4) 複文中 하나의 節로 使用

‘주어+之+술어’ 형식이 복문 중 하나의 절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며, 19회 출현한다.

(162)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 《老子·3章》

(그래서 성인이 (정사를) 처리하면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그들의 배를 채우며, 그들의 뜻을 약하게 하고, 그들의 뼈를 강하게 한다.)

(163) 道之爲物, 惟恍惟惚. 《老子·21章》

(도가 사물이라고 한다면, 단지 있는 듯 없는 듯 어렵뜻할 뿐이다.)

(164) 殺人之衆, 以悲哀泣之, 戰勝以喪禮處之. 《老子·31章》

(사람을 죽임이 많으면 비통한 심정으로써 임하고, 싸워서 이겨도 상례로써 처리한다.)

(165)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老子·35章》

(도가 입에서 나오면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다.)

(166) 未知牝牡之合而媵作, 精之至也. 終日號而不嘎, 和之至也. 《老子·55章》

(암수의 교합을 아직 모르는데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로우니 지극하기 때문이다.)

(167) 民之難治, 以其智多. 《老子·65章》

(백성은 다스리기 어렵나니, 그들이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168)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169) 人之生生, 動之於死地, 亦十有三. 夫何故? 以其生生之厚. 《老子·50章》

(사람들이 생을 살다가 함부로 행동하여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또한 열에 셋이 있

다. 대저 무슨 연고인가? 그가 생을 살려는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170) 民之饑，以其上食稅之多，是以饑。民之難治，以其上之有爲，是以難治。民之輕死，以其上求生之厚，是以輕死。《老子·75章》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윗사람이 세금을 거둬들이 많이 때문이다. 그래서 굶주린다.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움은 그 윗사람이 억지로 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윗사람이 삶을 추구함이 두텁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171) 弱之勝強，柔之勝剛，天下莫不知，莫能行。《老子·78章》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센함을 이기나니, 천하에는 아무도 (이것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172) 人之不善，何棄之有? 《老子·62章》

(사람이 잘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위 예(162)-(172)는 ‘주어+之+술어’ 형식이 복문에 쓰여 그중 하나의 종속절로 사용되는 용례이다.

예(162)-(165)는 가정복문이다. 예(162)의 ‘聖人之治’, 예(163)의 ‘道之爲物’, 예(164)의 ‘殺人之衆’, 예(165)의 ‘道之出口’은 모두 ‘주어+之+술어’ 구조이며, 가정복문 중 종속절에 해당한다. 예(163)에서 ‘道之爲物’은 ‘道作爲事物’(도를 사물이라고 여기다)이라고 해석된다.³¹²⁾ 예(165)에서 ‘道之出口’는 도를 입으로 표현함을 뜻한다.

예(166)-(170)은 인과복문이며, 원인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에 ‘주어+之+술어’ 구조가 쓰인다.

예(166)에서 ‘精之至也’와 ‘和之至也’는 모두 ‘주어+之+술어+也’의 구조로서 인과복문 중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였다. ‘也’는 진술문의 끝에 쓰여 원인을 강조하는데 쓰인 어기조사이다.³¹³⁾ 예(167)의 ‘民之難治’와 예(168)의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는 인과복문 중 결과에 해당하며, 예(169)의 ‘以其生生之厚’는 원인에 해당한다. 예(169)의 ‘人之生生’은 연관복문에서 하나의 단문에 해당한다. ‘人之生生’과 ‘動之於死地’는 서로 선후 연결 관계이며 시간상 또는 논리상 선후 순서가 있으므로, 연관복문에 해당한다.³¹⁴⁾ 예(170)에서 ‘民之饑’, ‘民之難治’, ‘民之輕死’는 인과복문 중 결과에 해당하며, ‘以其上食稅之多’, ‘以其上之有爲’, ‘以其上求生之厚’

312) 饒尚寬 譯註, 《老子》, 中華書局, 2016, 55쪽.

31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90쪽.

31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38쪽.

는 원인에 해당한다.

예(171)에서 ‘弱之勝強’과 ‘柔之勝剛’은 모두 ‘주어+之+술어+목적어’의 구조이며, 이 두 항은 병렬복문이다. 이 둘 사이는 평등의 관계이고, 의미상 서로 전환이 아니라 동향적이므로 대등한 병렬복문이라 하겠다.³¹⁵⁾ ‘弱’와 ‘柔’는 형용사로서 이 형식의 주어이며, ‘勝’은 동사, ‘強’과 ‘剛’은 목적어이다.

예(172)는 ‘人之不善’에서 주어 ‘人’과 술어 ‘不善’의 사이에 ‘之’를 삽입함으로 인해 단독성분으로 쓰이지 못하며, 앞뒤 두 절의 연결된 의미를 파악하여 양보 복문의 종속절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종속절은 양보의 의미가 있지만 양보 표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³¹⁶⁾ 뒷절 ‘何棄之有’에서 ‘何棄’는 ‘有’의 목적어이며 조사 ‘之’의 도움을 받아 전치되었다.

2. 接續詞 用法 特徵

《老子》에 사용된 접속사는 ‘且’, ‘與’, ‘而’, ‘以’, ‘斯’, ‘則’, ‘然後’, ‘而後’, ‘而況於’, ‘爲’, ‘故’, ‘是以’, ‘是故’, ‘安’, ‘若’, ‘其’, ‘使’, ‘若使’, ‘雖’, ‘之’ 등 20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접속사를 의미에 따라 並列, 連接, 轉換, 漸層, 因果, 假定, 讓步, 之의 特殊用法 등 8가지로 분류하여 그 사용 빈도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들 접속사의 종류와 용법별 출현 횟수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4-1>과 같다.

<표4-1> 接續詞 種類 및 用法

31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22쪽.

316)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82쪽.

구분	연접			전환		인과		병렬	점층	가정	양보	주어+之+술어				계	비율 (%)
	동작과 목적어 결과	부사어와 술어	시간상선후	부정사 사용	대응·반의어 사용	원인	결과					주어	술어	목적어	복문의 절		
且								3								3	1
與								6								6	1
而	17	11	2	52	13			7	6							108	32
以	13	9				15				2						39	11
斯	2															2	1
則	27															27	7
然後			1													1	1
而後			4													4	1
而況於									1							1	1
爲						1										1	1
故							57									57	17
是以							35									35	10
是故							1									1	1
安							1									1	1
若										2						2	1
其										1						1	1
使										2						2	1
若使										1						1	1
雖											6					6	1
之												7	1	5	19	32	9
소계	59	20	7	52	13	16	94	16	7	8	6	7	1	5	19	330	100
합계	86			65		110		16	7	8	6	32				330	
비율(%)	25			20		34		5	2	2	2	10				100	

접속사는 총 330회 사용된다. 접속사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而’가 108회로 32%를 차지하여 가장 출현 빈도가 높으며, 연접, 전환, 병렬, 점층 관계를 표시하는 용법 등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이어 ‘故’는 57회로 17%를 차지하였으며, 인과 복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용법으로만 쓰였다. 다음으로 ‘以’가 39회 쓰여 11%에 해당하며, 연접, 인과,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뒤이어, 是以(35회, 10%)>之(32회, 9%)>則(27회, 7%)>與·雖(6회, 1%)>而後(4회, 1%)>且(3회, 1%)>若·使(각2회, 1%)>而後·而況於·爲·是故·安·其·若使(각1회, 1%)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접속사의 용법별 출현 횟수를 보면, 인과관계를 표시하는 용법이 110회(3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연접(86회, 25%)>전환(65회, 20%)>‘之’자구(32회, 10%)>병렬(16회, 5%)>가정(8회, 2%)>접층(7회, 2%)>양보(6회, 2%) 표시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인과 표시 접속사는 ‘以’, ‘爲’, ‘故’, ‘是以’, ‘是故’, ‘安’이 있으며, 이들은 원인 표시와 결과 표시로 나눌 수 있다. 원인 표시 접속사는 ‘以’(15회), ‘爲’(1회)가 있고, 결과 표시 접속사는 ‘故’, ‘是以’, ‘是故’, ‘安’이 쓰였다.

연접 표시 접속사는 ‘而’, ‘以’, ‘斯’, ‘則’, ‘然後’, ‘而後’가 있다. 이들을 동작과 목적·결과와의 연접, 부사어와 술어와의 연접, 시간상 선후의 연접 등 3가지로 세분하여 고찰하였다. 동작과 목적·결과와의 연접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則’(27회), ‘而’(17회), ‘以’(13회), ‘斯’(2회)가 있으며, 이들 중 ‘則’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부사어와 술어와의 연접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11회), ‘以’(9회)가 있으며, ‘而’의 앞항에는 동작 행위의 방식, 시간, 조동사가 쓰여 뒷항을 수식한다. ‘以’의 앞항은 상태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쓰였다. 이들 접속사와 연결한 앞뒤 두 항은 수식 관계가 된다. 시간상 선후의 연접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後’(4회), ‘而’(2회), ‘然後’(1회)가 있다. 이들과 앞뒤에 연결한 두 항은 의미상 시간의 선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환 관계 표시 접속사는 ‘而’(65회)만 출현한다. 이때 ‘而’는 연결된 앞, 뒤 항에 부정사를 사용하여 전환의 의미를 표시하는 경우가 52회이며, 대응 혹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써서 전환하는 경우는 13회이다.

‘주어+之+술어’ 형식은 총 32회 사용된다. ‘주어+之+술어’의 ‘之’는 주어와 술어를 연접하여 문장의 독립성을 없애는 접속사이며, 문장에서 주어로 7회, 술어로 1회, 목적어로 5회, 복문 중의 단문으로 19회 사용되었다. ‘주어+之+술어’ 구조가 복문 중의 하나의 단문으로 사용된 용례가 ‘주어+之+술어’ 수량의 59%에 해당하므로, ‘주어+之+술어’ 구조는 명사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어+之+술어’의 ‘之’는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가 아니라 연결기능을 하는 접속사라는 주장에 더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병렬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7회), ‘與’(6회), ‘且’(3회)가 있으며, 가정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以’(2회), ‘若’(2회), ‘其’(1회), ‘使’(2회), ‘若使’(1회)

가 있다. 점층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而’(6회), ‘而況於’(1회)가 있다. 양보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는 ‘雖’(6회)만 사용되며, 뒷항에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V. 《老子》 助詞 用法

助詞의 정의와 분류에 관하여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楊伯峻·何樂士는 助詞는 단어나 구 또는 문장에 각종 표지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정의하였고, 助詞는 독립성은 가장 약하고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며, 문장의 첫머리, 또는 단어의 앞뒤, 또는 구의 중간에 사용된다고 하였다.³¹⁷⁾ 또한, 助詞를 그 역할에 따라 語助詞, 重言助詞, 構造助詞, 接詞로 구분하고, 助詞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³¹⁸⁾

1. 문장(句)의 범위 내에서, 1) 각종 語氣를 표시한다. 2) 음절을 조정한다. 3) 詞序를 바꾼다. 4) 시대나 피동을 표시한다. 2. 구(短語)의 범위 내에서, 1) 原 구조의 동사나 형용사의 성질을 바꿔서 명사구로 만든다. 2)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사이에 위치하여 명사구를 만든다. 3) 부사어가 되는 단어의 뒤에 위치하여 부사구를 형성한다. 4) 중첩 기능 등을 한다. 3. 단어(詞)의 범위 내에서, 1) 단어의 앞에 붙어 명사어를 대부분 형성한다. 2) 단어의 중간에 붙어 대부분 명사구의 중간에 놓인다. 3) 단어의 뒤에 붙어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어를 형성한다.

馬建忠은 實字와 句讀을 종결하는데 쓰이는 虛字는 助字라고 하였다. 傳信助字는 ‘也’, ‘矣’, ‘耳’, ‘已’ 등이 있으며 결정의 어기를 나타내고, 傳疑助字는 ‘乎’, ‘哉’, ‘耶’, ‘歟’ 등이 있으며 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³¹⁹⁾

黃六平은, 助詞는 언어의 情態를 표시하는 단어이며 語首, 語中, 語末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語首助詞는 문장의 앞에 쓰이는 發語詞나 發聲詞를 말하며, 語中助詞는 문장 안에서 보조역할만 하는데 어음을 고르는 기능을 하는 ‘厥’, ‘其’ 등이

31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70쪽.

318) “1. 在句的範圍內: 1) 表志某種語氣 2) 協調音節 3) 變換詞序 4) 表志時態或被動. 2. 在短語的範圍內: 1) 改變原結構的動、形性質, 組成名詞性短語 2) 位于修飾語與被修飾之間, 組成名詞性短語 3) 位于做狀語的詞語後, 形成狀語短語 4) 重言作用. 3. 在詞的範圍內: 1) 做詞的前綴, 大多形成名詞語 2) 做詞的中綴, 大多在名詞短語之中 3) 做詞的後綴, 形成名詞、形容詞或副詞語.”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70쪽.

319) 呂叔湘·王海棻編, 《馬氏文通讀本》, 上海教育出版社, 2000, 536쪽.

있고, 語末助詞는 陳述助詞, 疑問助詞, 提頓助詞, 祈使와 感歎의 助詞 등이라고 하였다.³²⁰⁾

일부 고한어 어법서에는 각종 어기를 나타내는 단어를 助詞가 아닌 語氣詞라고 칭하기도 한다.

郭錫良·李玲璞은 語氣詞는 문장의 어기를 표현하는 허사의 종류이며, 문장성분으로 충당되지 않고, 문장성분이나 절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지도 않으며, 각종 어기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고대 중국어 상용어기사에는 ‘也’, ‘矣’, ‘已’, ‘焉’, ‘耳’, ‘乎’, ‘與’, ‘耶’, ‘夫’, ‘哉’, ‘兮’ 등이 있으며, 문장에서의 위치나 역할에 따라 문두어기사, 문중어기사, 문말어기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²¹⁾

劉景農은 語氣詞는 말의 각종 어기를 표시하는데 쓰이는 것이라 정의하고, 진술어기사, 의문어기사, 제시와 멈춤의 어기사로 구분하였다.³²²⁾

唐子恒은 語氣詞는 어기·잠시멈춤·음절조정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단어라고 하였다.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문두, 문중, 문말어기사로 분류하였다.³²³⁾

王寧은 語氣詞는 문장의 다른 단어와 협력하여 긍정, 진술, 감탄, 의문 등의 각종 어기를 표시하는 단어이며, 문두, 문중, 문말에 쓰인다고 하였다.³²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를 어기조사로 분류하거나 어기사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助詞의 연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각종 구조를 나타내는 構造助詞, 단어의 앞뒤에 붙은 接辭, 발언의 시작을 알리는 語助詞, 음절 조정이나 휴지를 표시하거나 각종 어기를 표시하는 助詞(또는 語氣詞) 등을 모두 조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助詞를 構造助詞, 語氣助詞, 接辭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구의 성질이나 詞序를 바꾸는 조사는 構造助詞로, 각종 어기를 표시하는 조사는 語氣助詞로, 단어의 앞뒤에 붙은 단어는 接辭로 분류하겠다.

320)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8-189쪽.

321) 郭錫良·李玲璞 主編, 《古代漢語》(上·下), 語文出版社, 1993, 751쪽.

322)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90-91쪽.

323)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62-163쪽.

324) 王寧 等 編著, 《古代漢語通論》,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6, 239-240쪽.

1. 助詞 用法 分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助詞는 단어나 구, 또는 문장에서 각종 표지 역할을 하며,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매우 虛化된 단어이다. 《老子》에 사용된 助詞의 종류는 크게 構造助詞, 語氣助詞, 接尾辭로 분류할 수 있다.

1) 構造助詞

구조조사는 문장이나 구에서 사용되어, 문장의 단어 순서에 변화를 주거나, 명사구를 구성하는 조사이다.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는 두 가지 형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사이에 놓여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편정구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구), 형용사(구), 또는 문장을 명사(성)구로 만들어서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³²⁵⁾

《老子》에서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는 ‘之’, ‘者’, ‘所’가 있으며, 문장에서 詞序에 변화를 주는 구조조사는 ‘之’와 ‘是’가 있다.

(1) 之

‘之’는 고대중국어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허사 중 하나이다. ‘之’는 보통 대명사로서 목적어로 쓰이거나, 지시대명사로서 관형어로 쓰이며, 또한 助詞로서 여러 가지 용법을 나타내기도 하며, 접속사나 전치사로도 사용되어, 출현빈도가 매우 높고 용법도 복잡하다.³²⁶⁾

《老子》에 쓰인 구조조사 ‘之’는 수식어와 중심어 사이에 쓰여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용법과, 술어 동사와 목적어의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之’의 앞으로 전치시켜 술목 구조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本稿는 구조조사 ‘之’를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용법

32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83쪽.

32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1쪽.

과 목적어 전치 표시 용법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① 名詞性 偏正句를 만드는 構造助詞 ‘之’

구조조사 ‘之’는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놓여 영속·수식·제한·등위 관계를 나타내며, 현대중국어에서 ‘的’의 용법에 해당한다.³²⁷⁾ ‘之’의 뒤에 위치한 중심어는 명사 혹은 명사성 단어가 오며, ‘之’의 앞에 위치한 수식어는 다양한 성분이 올 수 있다. 이들을 ‘之’와 결합한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명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형용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동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수량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시간명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의문대명사+之+명사(또는 명사성 단어)’, ‘(대)명사+之+所+동사’이다.

A. 명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老子》에서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구조조사 ‘之’의 앞에 명사(구)가 오는 용례는 총 41회이다. 이 편정구는 문장의 주어, 술어, 목적어로 사용된다.

a. 주어로 사용

《老子》에서 ‘명사(구)+之+명사’ 형식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14회이다.

- (1)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老子·5章》
(하늘과 땅의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지 않은가?)
- (2)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老子·6章》
(현묘한 암컷의 문, 이것은 천지의 근원을 말한다.)
- (3) 孔德之容, 惟道是從. 《老子·21章》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 (4) 國之利器不可以示人. 《老子·36章》
(나라의 이로운 기물은 남에게 쉽게 내보이면 안 된다.)
- (5)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老子·43章》

32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40-841쪽.

-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견고한 것을 부린다.)
- (6) 合抱之木, 生於毫末. 《老子·64章》
(한 아름의 나무는 털끝만 한 싹에서 생긴다.)
- (7) 天之道, 不爭而善勝, 不言而善應, 不召而自來. 《老子·73章》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대답하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온다.)
- (8) 天之道, 其猶張弓與? … 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 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老子·77章》
(하늘의 도는 아마 활을 당기는 것 같지 않은가? …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다가 부족한 곳에 보태준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데를 덜어다가 여유가 있는 사람을 봉양한다.)
- (9) 是以聖人云: “受國之垢, 是謂社稷主; 受國不祥, 是謂天下王.” 《老子·78章》
(그래서 성인이 말하였다. “나라의 굴욕을 받아들이는 이라야 사직의 주인이라 할 수 있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이라야 천하의 왕이라 할 수 있다.”)
- (10) 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 《老子·80章》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서로 오가지 않는다.)
- (11) 天之道, 利而不害; 人之道, 爲而不爭. 《老子·81章》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고, 사람의 도는 하여주되 다투지 않는다.)

위 예(1)-(11)에서 ‘명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형식은 모두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예(1)의 ‘天地之間’은 문장의 주어이다. ‘其猶橐籥乎’에서 ‘乎’는 추측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이며,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其’와 호응되어 쓰였다. ‘吧’에 해당한다.³²⁸⁾

예(2)의 ‘玄牝之門, 是謂天地根’에서 ‘玄牝之門’은 문장의 주어이며, ‘是’는 대명사로서 앞의 ‘玄牝之門’을 가리킨다. ‘謂’는 술어, ‘天地根’은 목적어이다.

예(3)의 ‘孔德之容’은 문장의 주어이다. ‘惟道是從’에서 ‘惟’는 부사이고, ‘是’는 목적어 ‘道’를 동사의 앞으로 전치시키는 구조조사이다.

예(4)의 ‘國之利器’는 문장의 주어이다. ‘利器’의 표면적인 뜻은 날카로운 무기를 뜻한다. ‘利器’에 대하여, ‘刑法’이나 ‘權術’로 보아 ‘利器’를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微明’이나 ‘柔弱’으로 보아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³²⁹⁾

32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33쪽.

329)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286쪽.

예(5)의 ‘天下之至柔’은 문장의 주어이며, ‘馳騁天下之至堅’의 ‘馳騁’은 ‘말을 타고 질주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駕御’(부리다)를 뜻하는 동사이다.³³⁰⁾ ‘天下之至堅’을 목적어로 취한다.

예(6), (7)의 ‘合抱之木’와 ‘天之道’도 모두 주어로 쓰인다. 예(8)의 ‘天之道’는 주어이며, ‘其猶張弓與’의 ‘與’는 추측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서, 추측 표시 부사 ‘其’와 호응한다. ‘天之道’와 ‘人之道’는 모두 문장의 주어이다.

예(9)의 ‘受國之垢, 是謂社稷主’에서 ‘是’는 대명사로 ‘受國之垢’을 가리키며, 문장의 주어가 된다. 뒷항의 ‘受國不祥, 是謂天下王’도 같은 구조이다.

예(10)의 ‘鷄犬之聲相聞’에서 ‘鷄犬之聲’은 주어, ‘相’은 부사, ‘聞’은 동사이다. 예(11)의 ‘天之道’와 ‘人之道’는 모두 주어로 쓰인다.

b. 술어로 사용

《老子》에서 ‘명사(구)+之+명사’ 구조가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16회이다. 때로 문장의 끝에 진술의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가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 (12)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老子·4章》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 줄 모르지만, 상제의 선조인 것 같다.)
- (13) 功遂身退, 天之道也. 《老子·9章》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 (14) 我愚人之心也哉! 《老子·20章》
(나는 바보의 마음이구나.)
- (15) 柰何萬乘之主, 而以身輕天下? 《老子·26章》
(어찌하여 만승의 주인인데도, 자신을 천하 백성들보다 가벼이 여길 수 있겠는가.)
- (16) 故善人者, 不善人之師; 不善人者, 善人之資. 《老子·27章》
(그러므로 잘하는 자는 잘하지 못하는 자의 스승이고, 잘하지 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의 바탕이다.)
- (17) 兵者不祥之器, 非君子之器. 《老子·31章》
(병기란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 (18)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老子·38章》
(앞서 아는 척하는 것은 도의 허상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 (19)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老子·40章》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함은 도의 쓰임이다.)
- (20) 大邦者下流, 天下之交, 天下之牝. 《老子·61章》

330)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22쪽.

(큰 나라는 하류이다. 천하의 합류점이요, 천하의 암컷이다.)

(21) 道者, 萬物之奧. 善人之寶, 不善人之所保. 《老子·62章》

(도라는 것은 만물이 숨는 곳이다. 잘하는 사람의 보배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곳이다.)

(22) 故以智治國, 國之賊; 不以智治國, 國之福. 《老子·65章》

(그래서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림은 나라의 도적이요,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음은 나라의 복이다.)

위 예(12)-(22)에 쓰인 ‘명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술어로 쓰인다.

예(12)의 ‘象帝之先’, 예(15)의 ‘萬乘之主’, 예(16)의 ‘不善人之師’와 ‘善人之資’, 예(17)의 ‘非君子之器’는 모두 문장의 술어로 쓰였는데, 문말에 종결형 어기조사는 쓰이지 않았다. 반면, 예(13)의 ‘天之道也’와 예(14)의 ‘愚人之心也哉’에는 각각 종결의 어기조사 ‘也’와 감탄의 어기조사 ‘也哉’가 쓰였다.

예(18)의 ‘道之華, 而愚之始’에서 ‘道之華’와 ‘愚之始’는 술어이며, 접속사 ‘而’는 이 두 항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표시한다. 예(19)에서 ‘反者’와 ‘弱者’는 주어이며, ‘道之動’과 ‘道之用’은 술어이다. 예(20)에서 ‘大邦者下流’의 ‘者’는 주어의 뒤에 쓰여 어음을 잠시 멈추는 어기조사이다. ‘天下之交’와 ‘天下之牝’는 서로 병렬관계이며 모두 술어이다.

예(21)의 ‘道者, 萬物之奧’의 ‘者’는 어기조사이며, ‘奧’는 ‘藏’으로 ‘보우하다’는 뜻이며,³³¹⁾ ‘萬物之奧’은 술어이다. ‘善人之寶’도 술어로 쓰인다. 예(22)의 ‘以智治國, 國之賊’에서 ‘以智治國’은 주어이며, ‘國之福’은 술어이다. ‘不以智治國, 國之福’에서 ‘不以智治國’은 주어이며, ‘國之福’은 술어이다.

c. 목적어로 사용

《老子》에서 ‘명사(구)+之+명사’ 구조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11회이다.

(23)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 《老子·1章》

(‘없음’은 천지의 시작을 말하고, ‘있음’은 만물의 근원을 말한다.)

(24) 淵兮, 似萬物之宗. 《老子·4章》

(깊도다. 마치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331) 陳鼓應은 ‘奧’는 ‘藏’으로 ‘보우하다’는 뜻을 함유한다고 풀이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79쪽.

- (25) 當其無, 有車之用. … 當其無, 有器之用. … 當其無, 有室之用. 《老子·11章》
 (그것의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고, … 그것의 빈 곳에 그릇이 쓰임이 있고, … 그것의 빈 곳에 집의 쓰임이 있다.)
- (26) 吾何以知衆甫之狀哉? 《老子·21章》
 (내가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
- (27)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老子·43章》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견고한 것을 부린다.)
- (28) 未知牝牡之合而媵作, 精之至也. 《老子·55章》
 (암수의 교합을 아직 모르는데 고추가 일어서니,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 (29) 有國之母, 可以長久. 《老子·59章》
 (나라의 어미를 보유하면 장구할 수 있다.)
- (30) 小國寡民. 使有什伯人之器而不用. 《老子·80章》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설령 열배 백배의 기물이 있어도 쓰이지 않도록 하라.)

위 예(23)-(30)에 쓰인 ‘명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다.

예(23)의 ‘無, 名天地之始’에서 ‘無’는 주어이며, ‘名’은 ‘이름붙이다’는 뜻의 동사술어이며, ‘天地之始’는 ‘名’의 목적어이다. 뒷항 ‘有, 名萬物之母’도 같은 구조이다. 이 예문의 독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無’와 ‘有’에서 끊어 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無名, 天地之始’와 ‘有名, 萬物之母’로 읽는 것이다.³³²⁾ 본고는 전자를 따랐다. 예(24)의 ‘似萬物之宗’에서 ‘似’는 동사이며, ‘萬物之宗’은 목적어이다.

예(25)의 ‘當其無, 有車之用’에서 ‘當其無’는 전치사구로서 ‘當’은 동작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在’에 해당한다. ‘有’는 술어 동사이며, ‘車之用’은 목적어이다.

예(26)에서 ‘吾何以知衆甫之狀哉’의 ‘何以’는 ‘의문대사+전치사’의 구조로서 ‘何’는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며, ‘以’의 앞으로 전치된 것이다. ‘知’는 동사이며, ‘衆甫之狀’는 목적어이다. ‘哉’는 원인을 묻는 의문문의 끝에서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어기조사로 쓰였다.³³³⁾

예(27)의 ‘馳騁天下之至堅’에서 ‘馳騁’는 ‘부리다’는 뜻의 동사이며, ‘天下之至堅’는 ‘馳騁’의 목적어이다. 예(28)의 ‘未知牝牡之合而媵作’에서 ‘未’는 부정을 표시하

332)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53쪽.

33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00-801쪽.

는 부사이며, ‘知’는 술어 동사, ‘牝牡之合’이 목적어이다. ‘而’는 전환 표시 접속사이다. 예(29)의 ‘有國之母’에서 ‘國之母’는 동사 ‘有’의 목적어이다. 예(30)의 ‘使有什伯人之器而不用’에서 ‘使’는 가정을 표시하는 접속사이고, ‘有’는 동사, ‘什伯人之器’는 목적어이다. ‘而’는 전환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B. 형용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老子》에서 구조조사 ‘之’가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놓여 편정구를 만드는 경우, ‘之’의 앞에 형용사(구)가 오는 용례는 6회이며, 문장에서 술어로만 사용된다.

(31) 玄之又玄, 衆妙之門. 《老子·1章》

(가마득하고 가마득하니, 갖가지 오묘함의 문이다.)

(32) 夫兵者, 不祥之器. 物或惡之. … 兵者不祥之器, 非君子之器. 《老子·31章》

(병이란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만물이 아마 그것을 싫어할 것이다. … 병이란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33)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老子·38章》

(대저 예라는 것은 진실함과 믿음의 부족함이고 혼란스러움의 발단이다. 앞서 아는 척하는 것은 도의 허상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위 예(31)-(33)에서 ‘형용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술어로 사용된다.

예(31)의 ‘玄之又玄’에서 ‘之’는 음절을 추가하여 어음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이다. 형용사 ‘玄’은 의동용법이나 사동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之’는 단지 음절을 늘리는 작용만 하므로 어기조사라 하겠다.³³⁴⁾ ‘衆妙之門’의 ‘衆妙’는 형용사구이며 ‘衆妙之門’은 문장의 술어이다.

예(32)의 ‘夫兵者, 不祥之器’에서 ‘夫’는 어기조사, 명사 ‘兵’은 주어이며, ‘者’는 주어나 구의 뒤에서 제시나 멈춤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로서, 주어 ‘兵’이 이전에 언급한 적이 없거나 갑자기 출현한 것임을 표시한다.³³⁵⁾ 예(33)의 ‘夫禮者’의 ‘者’도 같은 용법의 어기조사이다.

33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52쪽.

335)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8쪽.

예(33)의 ‘忠信之薄, 而亂之首’에서 ‘而’는 앞항과 뒷항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道之華, 而愚之始’의 ‘而’도 병렬관계 표시 접속사이다. ‘之’는 모두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구조조사로 쓰이는데, ‘之’의 앞 성분은 각각 명사 ‘道’와 형용사 ‘愚’이고, 뒤의 성분은 명사 ‘華’와 ‘始’이다.

C. 동사(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老子》에서 구조조사 ‘之’가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놓여 편정구를 만드는 경우, 구조조사 ‘之’의 앞에 동사(구)가 오는 용례는 총 18회이다. 문장에서 주어, 술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a. 주어로 사용

《老子》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이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5회이다.

- (34) 難得之貨, 令人行妨. 《老子·12章》
(얻기 힘든 재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이 방정맞게 만든다.)
- (35) 無名之樸, 夫亦將不欲. 《老子·37章》
(이름 없는 통나무, 이것은 또한 장차 욕심내지 않을 것이다.)
- (36) 故知足之足, 常足矣. 《老子·46章》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 된다.)
- (37) 生之徒, 十有三; 死之徒, 十有三. 《老子·50章》
(삶의 무리가 열에 셋이 있고, 죽음의 무리가 열에 셋이 있다.)

위 예(34)–(37)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주어로 사용된다. 예(34)에서 ‘難得之貨’의 ‘難得’은 동사구이며, 명사 ‘貨’를 수식한다. 예(35)의 ‘無名之樸’는 문장의 주어이다. ‘夫亦將不欲’의 ‘夫’는 대명사로서 앞의 ‘無名之樸’을 가리킨다.³³⁶⁾

예(36)에서 ‘知足之足’의 ‘知足’은 동목구조이며 ‘足’을 수식한다. ‘知足之足’이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常足矣’의 ‘常’은 ‘영원하다’는 뜻의 형용사이며 명사 ‘足’을

336) 趙榮珮,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70쪽.

수식한다. ‘矣’는 어기조사로서 진술문에서 변동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표시한다.³³⁷⁾ ‘了’에 해당한다.

예(37)에서 ‘生之徒’와 ‘死之徒’는 문장의 주어이다. ‘之’의 앞항에 쓰인 ‘生’과 ‘死’는 모두 동사이다.

b. 술어로 사용

《老子》에서 ‘동사(구)+之+명사’ 구조가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4회이다.

(38) 不言之教, 無爲之益, 天下希及之. 《老子·43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여, 억지로 행함이 없는 이로움이여, 천하에 이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드물다.)

(39) 故堅强者死之徒, 柔弱生之徒. 《老子·76章》

(그러므로 굳센 것은 죽음의 무리요, 유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위 예(38), (39)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술어로 사용된다.

예(38)은 선행사가 있는 문장이다. ‘不言之教, 無爲之益’은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명사구로서 명사술어문이라 하겠다. 뒷항 ‘天下希及之’에서 ‘天下’는 주어이며, ‘希’는 부사로서 ‘很小’에 해당한다. ‘及’은 술어 동사, ‘之’는 목적어로서 선행사인 ‘不言之教, 無爲之益’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예(39)에서 ‘堅强者死之徒’의 ‘堅强者’는 주어이며, ‘死之徒’는 술어이다. ‘柔弱生之徒’의 ‘柔弱者’는 주어, ‘生之徒’는 술어이다.

c. 목적어로 사용

《老子》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8회이다.

(40)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老子·2章》

(그래서 성인은 무위의 일을 처리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41) 不貴難得之貨. 《老子·3章》

337)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2쪽.

-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 (42)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惚恍. 《老子·14章》
 (이것을 일러 ‘모습 없는 모습’, ‘물체 없는 형상’이라 하고, 이를 일러 ‘황홀’이라 말한다.)
- (43) 是謂深根固柢, 長生久視之道. 《老子·59章》
 (이를 일러 깊은 뿌리, 단단한 밑동, 오래 살고 오래 보는 도라고 말한다.)
- (44)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老子·64章》
 (그래서 성인은 욕심내지 않음을 욕심내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 (45) 是謂不爭之德. 《老子·68章》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말한다.)

위 예(40)-(45)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은 모두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다. 예(40)의 ‘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에서 ‘無爲之事’는 동사 ‘處’의 목적어이고, ‘不言之教’는 동사 ‘行’의 목적어이다. 예(41)와 (44)의 ‘不貴難得之貨’에서 ‘貴’는 형용사의 의동용법으로 쓰여, ‘難得之貨’를 목적어로 취한다.

예(42)에서 ‘無狀之狀, 無物之象’는 병렬복문으로서 동사 ‘謂’의 목적어이다. 예(43)의 ‘長生久視之道’에서 ‘長生’과 ‘久視’는 병렬구조이며 ‘道’를 수식하는 한정어이다. ‘深根固柢, 長生久視之道’는 술어 동사 ‘謂’의 목적어이다. 예(45)의 ‘不爭之德’은 ‘謂’의 목적어이다.

d.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

《老子》에서 ‘동사(구)+之+명사’ 형식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는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 (46) 吾將鎮之以無名之樸. 《老子·37章》
 (나는 장차 ‘이름 없는 통나무’로써 그것을 안정시킬 것이다.)

예(46)에서 ‘鎮’은 술어 동사이며, 대명사 ‘之’는 목적어이다. ‘以無名之樸’는 수단 방법을 인개하는 전치사구로서 술어의 뒤에서 문장의 보어로 쓰였다. ‘無名之樸’은 전치사 ‘以’의 목적어이다.

D. 수량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구조조사 ‘之’가 놓여 편정구를 만들 때, 수식어가 수량사인 용례는 2회이며, ‘수량사+之+명사’ 형식은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된다.

(47) 九層之臺, 起於累土; 千里之行, 始於足下. 《老子·64章》

(구층의 누대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하고, 천리의 여정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위 예(47)의 ‘九層之臺’와 ‘千里之行’에서 구조조사 ‘之’의 앞 성분인 ‘九層’과 ‘千里’는 모두 수량사이다. ‘臺’와 ‘行’을 수식한다. ‘起於累土’와 ‘始於足下’의 ‘於’는 동작 행위의 기점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다.

E. 시간명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구조조사 ‘之’가 놓여 편정구를 만들 때, 시간명사가 수식어로 쓰인 용례는 3회 출현한다. ‘시간명사+之+명사’ 형식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술어로 사용된다.

(48) 執古之道, 以御今之有. 《老子·14章》

(옛날의 도를 잡고서 오늘의 ‘있음’을 부린다.)

(49) 是謂用人, 是謂配天, 古之極也. 《老子·68章》

(이를 일러 사람을 쓴다고 하고, 이를 일러 하늘에 합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옛날의 지극함(진리)이다.)

예(48)에서 ‘古之道’와 ‘今之有’는 ‘시간명사+之+명사’ 구조이며, 각각 동사 ‘執’과 ‘御’의 목적어로 쓰인다. ‘以’는 연결한 앞항과 뒷항이 연접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예(49)에서 ‘古之極’는 ‘시간명사+之+명사’ 형식으로 명사술어문이다. ‘也’는 종결형 어기조사이다.

F. 의문대명사+‘之’+명사(또는 명사성단어)

《老子》에서 수식어와 중심어의 사이에 구조조사 ‘之’가 쓰여 편정구를 만들

때, ‘之’의 앞에 의문대명사가 오는 경우는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하며, 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50)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老子·4章》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 줄 모르지만, 상제의 선조인 것 같다.)

예(50)의 ‘誰之子’는 ‘의문사+之+명사’의 구조이며, 술어 동사 ‘知’의 목적어로 쓰인다.

G. (대)명사+‘之’+‘所’+동사

‘주어+之+所+동사’ 형식은 《老子》에서 8회 출현하며,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로 쓰인다.

a. 주어로 사용

‘(대)명사+之+所+동사’ 형식이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용례는 2회이다.

(51) 人之所畏, 不可不畏. 《老子·20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52) 師之所處, 荊棘生焉. 《老子·30章》

(군대가 머물렀던 곳은 가시덤불이 생긴다.)

예(51)의 ‘人之所畏’와 예(52)의 ‘師之所處’는 ‘(대)명사+之+所+동사’ 형태로서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所’는 동사(구)를 명사구로 변화시키는 구조조사이다. 즉 예(51)의 ‘所畏’와 예(52)의 ‘所處’는 명사구로 성질이 바뀐 것이다. ‘之’는 명사성 구조로 바뀐 ‘所+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조사이다. 예(52)의 ‘焉’은 전치사 겸 대명사로서 ‘於是’에 해당하며, 문장의 보어로 쓰였다.³³⁸⁾

b. 술어로 사용

338)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491쪽.

‘(대)명사+之+所+동사’ 형식이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4회이다.

(53)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老子·58章》

(재앙은 복이 기대어 있는 바이며, 복은 화가 숨어 있는 바이다.)

(54) 道者, 萬物之奧, 善人之寶, 不善人之所保. 《老子·62章》

(도라는 것은 만물이 숨는 곳이다. 잘하는 사람의 보배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곳이다.)

(55) 天之所惡, 孰知其故? 《老子·73章》

(하늘이 싫어하는 바이니,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는가?)

위 예(53)의 ‘福之所倚’와 ‘禍之所伏’, 예(54)의 ‘不善人之所保’, 예(55)의 ‘天之所惡’는 모두 ‘명사(구)+之+所+동사’의 형태이며 명사성 구조이다. 문장의 술어로 쓰인다.

c. 목적어로 사용

‘(대)명사+之+所+동사’ 형식이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2회이다.

(56) 處衆人之所惡. 《老子·8章》

(못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57)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老子·64章》

((남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이 잘못된 바를 구제한다.)

위 예(56)에서 ‘衆人之所惡’는 동사 ‘處’의 목적어이다. 예(57)에서 ‘衆人之所過’는 동사 ‘復’의 목적어이다. ‘之’는 각각 ‘所惡’와 ‘所過’를 수식하는 구조조사로 쓰였다.

②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구조조사 ‘之’

조사 ‘之’는 동사 술어와 목적어의 사이에 놓여, 목적어를 술어의 앞으로 전치시키는 용법이 있다. 중국어의 기본구조인 ‘동사+목적어’가 ‘목적어+之+동사’의 구조로 바뀌어, 문장의 詞序에 변화를 일으킨다.³³⁹⁾ 조사 ‘是’의 용법과 같다.

33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8쪽.

‘목적어+조사+동사’ 형식은 西周 金文에 처음 보였고, 西周 말년 東周 초년에 비교적 큰 발전을 이뤘다. 春秋시기 후기에서 戰國시기 초기에 이르러, 이러한 격식은 크게 발전한다. ‘목적어+是+동사’ 형식은 늦어도 春秋시기 초에 상용하던 격식이었지만, ‘목적어+之+동사’ 형식은 당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戰國시기 중기 이후에 ‘목적어+是+동사’ 형식은 크게 감소한 반면, ‘목적어+之+동사’ 형식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다.³⁴⁰⁾

《老子》에서 조사 ‘之’가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용례는 3회 출현한다.

(58)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而常自然. 《老子·51章》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저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59) 人之不善, 何棄之有? 《老子·62章》

(사람이 선하지 못하다 한들, 어떻게 (도를) 버리는 일이 있겠는가?)

위 예(58), (59)에서 ‘道之尊’, ‘德之貴’, ‘何棄之有’에 쓰인 ‘之’는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예(58)의 ‘道之尊, 德之貴’에서 ‘道’는 동사 ‘尊’(존중하다)의 목적어이며, ‘德’은 동사 ‘貴’(귀하게 여기다)의 목적어이다. 조사 ‘之’를 사용하여 목적어를 전치시킨 예이다. 예(59)의 ‘何棄之有’에서 술어동사는 ‘有’이며, 목적어는 ‘棄’이다.³⁴¹⁾ ‘何棄之有’는 ‘何·X·之·有’ 형식의 고정격식 형태이다. ‘何·X’는 ‘有’의 목적어이며 조사 ‘之’를 써서 전치되었다.³⁴²⁾

(2) 所

구조조사 ‘所’는 동사(구)·형용사(구)·문장을 명사성 어구로 변화시켜 본래의 구조적 성질을 바꾼다. 즉, ‘所+동사(구)’의 성질이 명사구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때 ‘所’는 동사(구)의 앞에 위치하며, 이 동사(구)는 더이상 동사적 성질이 아니다.³⁴³⁾

34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07-809쪽.

341) 趙榮珮,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291쪽.

342)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188쪽.

본고는 《老子》에 쓰인 구조조사 ‘所’는 총 22회 출현하며, 결합 형태에 따라 ‘所+동사’, ‘有所/無所+동사’, ‘所以+동사구+者’로 세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① ‘所’+動詞(句)

‘所+동사’구는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표시하는 경우와 동작 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 ‘~하는 곳’ 등으로 해석된다. 총 12회 쓰인다.

- (60) 夫兩者各得其所欲, 大者宜爲下. 《老子·61章》
(대저 두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 (61) 無狎其所居, 無厭其所生. 《老子·72章》
(그들이 지내는 바를 옥죄지 말고, 그들이 사는 바를 억누르지 마라.)
- (62)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 《老子·22章》
(옛날에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 (63)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老子·8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에 처하기를 잘한다.)
- (64) 人之所畏, 不可不畏. 《老子·20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 (65) 師之所處, 荊棘生焉. 《老子·30章》
(군대가 머물렀던 곳은 가시덤불이 자란다.)
- (66)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老子·58章》
(재앙은 복이 기댄 바이며, 복은 재앙이 숨어있는 바로다.)
- (67) 道者, 萬物之奧. 善人之寶, 不善人之所保. 《老子·62章》
(도라는 것은 만물이 숨는 곳이다. 잘하는 사람의 보배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곳이다.)
- (68) 復衆人之所過. 《老子·64章》
(사람들이 잘못된 바를 구제한다.)
- (69) 天之所惡, 孰知其故? 《老子·73章》
(하늘이 싫어하는 바이니, 누가 그 이유를 알겠는가?)

위 예(60)에서 ‘各得其所欲’의 ‘各’은 부사, ‘得’은 술어동사, ‘其所欲’은 목적어이다. 예(61)에서 ‘無狎其所居’의 ‘無’는 금지 표시 부사, ‘狎’은 술어동사, ‘其所居’는 목적어이다.

343)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86쪽.

예(62)의 ‘古之所謂“曲則全”者’에서 ‘之’는 시간사의 뒤에 쓰인 어기조사이며, ‘曲則全’은 ‘謂’의 목적어이다. ‘所’와 ‘者’는 구조조사이다.

예(63)-(69)에 쓰인 구조조사 ‘所’의 앞에는 모두 조사 ‘之’가 쓰여 ‘명사+之所+동사’ 형태이며 문장의 주어, 목적어, 술어로 쓰였다.

② ‘有所/無所’+動詞

‘有所/無所+동사’ 구조의 문장에서 ‘所’자구는 동사 ‘有’나 ‘無’의 목적어가 된다. ‘有所+동사’ 구조는 1회, ‘無所+동사’ 구조는 6회 출현한다.

(70) 故令有所屬. 《老子·19章》

(그러므로 귀속될 바를 갖게 하라.)

(71) 儻儻兮, 若無所歸. 《老子·20章》

(고달프도다!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듯하다.)

(72) 兕無所投其角, 虎無所用其爪, 兵無所容其刃. 《老子·50章》

(외뿔소도 그 뿔을 들이댈 곳이 없고, 호랑이도 그 발톱을 할퀴 곳이 없고, 무기도 그 칼을 찌를 곳이 없다.)

(73)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老子·80章》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곳이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그것을 펼칠 곳이 없다.)

위 예(70)의 ‘令有所屬’에서 ‘令’은 사역동사이며, ‘所屬’은 ‘有’의 목적어이다. 예(71)에서 ‘儻儻兮’의 ‘兮’는 어기조사이다. 어기조사 ‘兮’는 감탄, 찬미, 격분 등 강렬한 감정을 나타낸다.³⁴⁴⁾ ‘若無所歸’에서 ‘若’은 동사, ‘無所歸’는 ‘若’의 목적어이다. ‘無所歸’의 내부구조를 보면, ‘無’는 동사이며 ‘所歸’를 목적어로 취한다.

예(72)의 ‘兕無所投其角’에서 ‘兕’은 주어이며, ‘無’는 술어동사이고, ‘所投其角’는 목적어이다. ‘所投其角’의 내부구조를 보면, 조사 ‘所’가 동명구 ‘投其角’를 수식하여 명사구로 성질을 변화시킨다. 뒤 절의 ‘虎無所用其爪’와 ‘兵無所容其刃’도 동일 구조이다.

예(73)에서 ‘雖有舟輿, 無所乘之’는 양보 복문이다. 앞 절에 쓰인 ‘雖’는 양보 관

344)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69쪽.

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뒤 절에 전환표시 접속사나 부사가 쓰이지 않더라도 두 절의 의미관계를 통해 전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無所乘之’에서 ‘無’는 동사이며, ‘所乘之’는 목적어이다. ‘所乘之’의 ‘所’는 구조조사로, 동목구 ‘乘之’를 수식하여 명사구로 성질을 바꾼다. 뒤 문장의 ‘雖有甲兵, 無所陳之’의 구조도 앞과 동일한 양보 복문이다.

③ ‘所以+動詞(句)+者’

‘所以’는 西漢 이전에 ‘以’가 ‘因’, ‘由’의 의미로 쓰이면 ‘…的緣故(~한 까닭)’의 뜻을 나타내었다. 東漢 이후에 이르러 ‘所以’는 ‘是故’, ‘是以’에 해당하는 접속사로도 쓰이지만,³⁴⁵⁾ 《老子》에 쓰인 ‘所以’는 ‘…的緣故’의 의미로만 쓰이고, 접속사의 용례는 출현하지 않는다.

《老子》에 사용된 ‘所以’는 모두 ‘者’와 결합하여 ‘所以+동사구+者’ 형태를 이룬다. 이때 조사 ‘者’는 복문의 앞 절이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주어 표지이다.³⁴⁶⁾ ‘所以…者’는 ‘~한 까닭은’으로 해석하면 된다.

(74)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老子·7章》

(천지가 길고 오래 살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

(75)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老子·7章》

(내가 큰 근심을 갖게 된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76) 古之所以貴此道者何? 《老子·62章》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이었던가?)

(77)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위 예(74)-(77)은 모두 인과복문의 구조이다. ‘所以’는 조사 ‘所’와 전치사 ‘以’가 결합한 형태로, 뒤에 온 동사와 함께 ‘所’자구를 이룬다.

예(74)는 ‘所以…者, 以…, 故…’ 형태이다. ‘以’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예(74)의 구조는 2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째와 셋째 항은 ‘원인+결과’의

345)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67-168쪽.

34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238쪽.

인과 복문이며, 이 복문이 다시 ‘원인’이 되어 첫째 항과 ‘결과+원인’의 복문을 이룬다.³⁴⁷⁾

예(75)의 뒤 절에 쓰인 ‘爲’는 원인 표시 접속사이며, ‘~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예(76)의 ‘何’는 의문대명사이며 문장의 술어로 사용된다. 예(77)에서 뒤 절에 쓰인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3) 者

‘者’는 고대 중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허사 중의 하나이다. 구조조사 ‘者’는 동사(구)나 형용사(구)의 뒤에 쓰여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성질을 명사성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 ‘的’나 ‘之’에 해당한다.³⁴⁸⁾ ‘者’자구는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로 사용된다.

구조조사 ‘者’와 어기조사 ‘者’는 구별이 가능하다. 어기조사 ‘者’는 명사(구)의 뒤에 쓰이거나 복문 중 종속절의 뒤에 쓰이며, 원래 구조의 성질을 바꾸지 않고 어기만을 표시한다. 반면 구조조사 ‘者’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뒤에는 쓰이지 않고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쓰이며, ‘者’자구를 명사 성질의 구조로 바꾼다. 또한 어기조사 ‘者’는 만약 없더라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구조조사 ‘者’는 없으면 안 된다.³⁴⁹⁾

《老子》에 쓰인 구조조사 ‘者’는 총 61회이며, 앞항과의 결합 형태에 따라 ‘수사+者’, ‘동사(구)+者’, ‘형용사(구)+者’로 세분할 수 있다.

① 數詞+‘者’

《老子》에서 ‘수사+者’ 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며, 6회 출현한다.

(78)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老子·1章》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왔지만 달리 부르니, 함께 그것을 ‘아득함’이라고 말한다)

34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9쪽.

348)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5쪽.

349)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376쪽.

- (79)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老子·14章》
 (이 세 가지는 꼬치꼬치 따질 수 없다. 그래서 섞어서 ‘하나’라고 여긴다.)
- (80) 此三者以爲文, 不足. 故令有所屬. 《老子·19章》
 (이 세 가지는 꾸며대어 부족한 것이므로, 귀속될 바를 갖도록 한다.)
- (81) 夫兩者各得其所欲, 大者宜爲下. 《老子·61章》
 (대저 두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 (82) 此兩者, 或利或害. 《老子·73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
- (83) 知此兩者亦稽式. 《老子·65章》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또한 법식이다.)

위 예(78)의 ‘此兩者’, 예(79)의 ‘此三者’, 예(80)의 ‘此三者’, 예(82)의 ‘此兩者’는 모두 ‘대명사+수사+者’의 구조이다. 예(81)에서 ‘夫兩者’는 ‘어기조사+수사+者’의 구조이며, 뒷절의 ‘大者’는 ‘형용사+者’의 구조이다. 예(78)-(82)의 ‘者자구’는 모두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예(83)에서 ‘此兩者’는 동사 ‘知’의 목적어로 쓰인다. ‘亦稽式’에서 ‘亦’은 부사로 ‘乃’의 뜻이고, ‘稽式’은 ‘法則’을 뜻한다.³⁵⁰⁾

② 動詞(句)+‘者’

동사(구)와 구조조사 ‘者’가 결합한 형태는 총 44회 출현한다. 그중 ‘善+동사(구)+者’(~을 잘하는 자)의 구조가 9회 사용되어, 노자가 즐겨 쓰는 표현이라 하겠다.

- (84)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 … 保此道者, 不欲盈. 《老子·1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자는 미묘하고 현통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 이 도를 가진 자는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 (85)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 《老子·22章》
 (옛날에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었겠는가!)
- (86) 故從事於道者, 同於道; 德者, 同於德; 失者, 同於失. 同於德者, 道亦得之; 同於失者, 道亦失之. 《老子·23章》
 (그러므로 도에 종사하는 자는 도와 하나가 되고, 덕스러운 자는 덕과 하나가 되며, 잃어버린 자는 ‘잃음’과 하나가 된다. 덕과 하나가 된 자는 도가 또한 그를 얻게 되고, ‘잃음’과 하

350)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89쪽.

- 나가 된 자는 도가 또한 그를 잃게 될 것이다.)
- (87) 企者不立；跨者不行；自見者不明；自是者不彰；自伐者無功；自矜者不長。… 故有道者不處。《老子·24章》
 (발돋움하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크게 벌리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내지 못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게 되고, 자신을 뽐내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 그러므로 도를 가진 자는 처하지 않는다.)
- (88) 以道佐人主者，不以兵強天下。《老子·30章》
 (도로써 왕을 돕는 사람은 병기로써 천하를 강압하지 않는다.)
- (89) 故有道者不處。… 夫樂殺人者，則不可得志於天下矣。《老子·31章》
 (그러므로 도가 있는 자는 처하지 않는다. … 대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라면 천하에서 뜻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90) 知人者智，自知者明。勝人者有力，自勝者強。知足者富。強行者有志。不失其所者久。死而不亡者壽。《老子·33章》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굳세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고, 굳세게 행동하는 자는 뜻이 있다. 그 (올바른) 곳을 잃지 않는 자는 장구하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자는 장수한다.)
- (91) 前識者，道之華，而愚之始。《老子·38章》
 (앞서 아는 척하는 것은 도의 허상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 (92) 昔之得一者：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후략) 《老子·39章》
 (옛날에 하나(道)를 얻은 것들이여!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었고, …)
- (93) 反者道之動；弱者道之用。《老子·40章》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요, 유약한 것(유약함)은 도의 쓰임이다.)
- (94) 蓋聞善攝生者，陸行不遇兕虎，入軍不被甲兵。《老子·49章》
 (대저 듣건대, 섭생을 잘하는 자는 물에서 다녀도 맹수의 공격을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군대의 공격을 입지 않는다.)
- (95) 善建者不拔，善抱者不脫。《老子·54章》
 (잘 세운 자는 뽑히지 않고, 잘 안은 자는 벗어나지 않는다.)
- (96) 知者不言，言者不知。《老子·56章》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 (97) 古之善爲道者，非以明民，將以愚之。《老子·65章》
 (옛날에 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로써 백성을 밝게 하지 않고, 장차 이로써 그들을 우직하게 한다.)
- (98) 善爲士者，不武；善戰者，不怒；善勝敵者，不與；善用人者，爲之下。《老子·68章》
 (장수의 일을 잘하는 자는 용맹을 떨치지 않고, 잘 싸우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더불어하지 않고, 사람을 잘 쓰는 자는 그에게 낮춘다.)
- (99) 知我者希，則我者貴。《老子·70章》
 (나를 아는 이가 드무니, 나를 분받는 자가 귀하다.)
- (100) 夫唯無以生爲者，是賢於貴生。《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다.)

(101)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老子·77章》

(누가 남음이 있는 것으로써 천하를 봉양할 수 있는가? 오직 도 있는 자이다.)

(102)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老子·78章》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지만,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이것(물)을 이길만한 것은 없다.)

(103) 善者不辯, 辯者不善. 知者不博, 博者不知. 《老子·81章》

(선량한 자는 말 잘하지 않고, 말 잘하는 자는 선량하지 않다. 아는 자는 해박하지 않고 해박한 자는 알지 못한다.)

위 예(84)-(103)에서 구조조사 ‘者’는 동사(구)와 결합하여 명사성 구조로 변화시킨다. 그중, ‘善+동사(구)+者’의 형태가 9회 출현한다. 예(84)의 ‘善爲士者’, 예(94)의 ‘善攝生者’, 예(95)의 ‘善建者’와 ‘善抱者’, 예(97)의 ‘善爲道者’, 예(98)의 ‘善爲士者’, ‘善戰者’, ‘善勝敵者’, ‘善用人者’이 그 예이다. 여기서 ‘善’은 ‘잘하다’는 뜻의 동사이며, ‘善…者’는 ‘~을 잘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된다.

예(86)의 ‘德者, 同於德’에서 ‘德者’는 ‘從事於德者’의 뜻으로,³⁵¹⁾ ‘德’은 명사가 동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同於德’의 ‘同’은 동사이며, ‘於德’은 비교 대상을 이끄는 전치사구이다.

예(88)의 ‘以道佐人主者’는 ‘전치사구+동명구+者’의 형태이다. ‘以道’는 동사 ‘佐’의 방식을 이끄는 전치사구이다. 예(99)의 ‘則’는 ‘法則’의 ‘則’으로 ‘取法’(본받다)라는 뜻의 동사이다.³⁵²⁾ ‘我’는 ‘則’의 목적어이다. 예(100)의 ‘夫唯無以生爲者’에서 ‘夫’는 어기조사, ‘唯’는 부사, ‘無’는 부사, ‘以生’은 술어 동사 ‘爲’의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구라 하겠다.

③ 形容詞(句)+‘者’

구조조사 ‘者’가 형용사(구)와 결합한 형태는 총 11회이다.

351)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48쪽.

352) 釋德清注: “則, 謂法則. 言取法也.”(‘則’은 ‘법칙’을 이룸이다. 본받는다를 것을 말한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3쪽.

- (103) 使夫智者不敢爲也. 《老子·3章》
 (저 똑똑한 자들로 하여금 감히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 (104) 善者, 吾善之; 不善者, 吾亦善之; 德善. 信者, 吾信之; 不信者, 吾亦信之; 德信. 《老子·49章》
 (선한 자는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자는 내가 또한 그를 선하게 대한다. (그들이) 선함을 얻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는 내가 그를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는 내가 또한 그를 진실하게 대한다. (그들이) 진실함을 얻기 때문이다.)
- (105) 夫兩者各得其所, 大者宜爲下. 《老子·61章》
 (대저 두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가 되어야 한다.)
- (106) 故抗兵相若, 哀者勝矣. 《老子·69章》
 (그러므로 대항하는 군대가 서로 같다면, 슬퍼하는 자가 이기게 된다.)
- (107) 故堅强者死之徒, 柔弱生之徒. 《老子·76章》
 (그러므로 굳센 것은 죽음의 무리요, 유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 (108) 善者不辯, 辯者不善. 知者不博, 博者不知. 《老子·81章》
 (선량한 자는 말 잘하지 않고, 말 잘하는 자는 선량하지 않다. 아는 자는 해박하지 않고 해박한 자는 알지 못한다.)

예(103)에서 ‘使夫智者’의 ‘使’는 사역동사이며 ‘夫智者’는 ‘使’의 목적어이다. ‘夫’는 지시대명사, ‘智’는 형용사, ‘者’는 구조조사이다. 예(104)에서 ‘善者’와 ‘不善者’는 ‘선량한 사람’과 ‘선량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므로,³⁵³⁾ ‘善’은 형용사이다. ‘德善’과 ‘德信’의 ‘德’은 ‘得’이 假借된 것으로 ‘얻다’는 뜻의 동사이다.³⁵⁴⁾ ‘吾亦善之’의 ‘善’은 형용사의 의동 용법으로 ‘선하게 여기다’로 해석한다.

예(105)의 ‘大者’, 예(106)의 ‘哀者’, 예(107)의 ‘堅强者’와 ‘柔弱者’, 예(108)의 ‘善者’와 ‘博者’는 모두 ‘형용사+者’의 구조로, 문장의 주어로 쓰인다.

(4) 是

‘是’는 고대중국어에서 지시대명사와 구조조사로 쓰인다. 구조조사 ‘是’는 목적어와 동사의 사이에 쓰여, 목적어를 앞으로 前置시키는 역할을 한다.³⁵⁵⁾ ‘동사술어+목적어’의 형태가 ‘목적어+是+동사술어’ 형태로 바뀌는데, 이때 목적어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老子》에서 구조조사 ‘是’는 1회 출현한다.

353)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84쪽.

354)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37쪽.

35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517쪽.

(109)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약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위 예(109)의 ‘唯施是畏’에서 ‘唯(오직)’는 부사이며, ‘施’는 목적어, ‘是’는 구조조사, ‘畏’는 술어동사이다. 陳鼓應은 ‘施’는 ‘邪(기울다)’이며 ‘斜行(비탈길)’의 뜻으로 풀이하었다. 또한 王念孫은 ‘施’를 ‘迤[yí]’로 읽으며 ‘迤(비스듬하다)’는 ‘邪’라고 하였다.³⁵⁶⁾ 예문에서 ‘施’는 동사 ‘畏’의 목적어인데, 구조조사 ‘是’가 이 둘의 위치에 변화를 주어, ‘畏施(비탈길을 두려워하다)’가 ‘施是畏’의 구조로 바뀌었다. 또한 ‘唯施是畏’에는 ‘唯+목적어+조사+동사’의 고정격식 형태가 보이는데, 이러한 격식의 특징은 목적어를 전치하는 것과 더불어, 또다시 강조의 어기부사 ‘唯’를 써서, 동작 대상의 단일성과 배타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⁷⁾

2) 語氣助詞

語氣助詞는 문장의 첫머리에서 발언의 시작을 표시하거나, 음절 조정이나 休止를 표시하거나 각종 語氣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중국어에서 語氣를 표시하는 방법은 서양 언어와 달리 조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王力에 따르면, 원시 중국어에는 語氣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었으며, 西周시기까지도 여전히 사용이 적었으나, 春秋 시기 이후 점차 탄생하고 발전하였다.³⁵⁸⁾

本稿는 용법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語氣助詞가 문장의 앞에 위치하여 發語詞의 역할을 하는 것은 文頭 語氣助詞로, 주어나 구의 끝에서 음절 조정이나 休止를 표시하는 것은 文中 語氣助詞로, 문장의 끝에서 진술·의문·감탄 등의 어기를 나타내는 것은 文末 語氣助詞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老子》에 사용된 語氣助詞는 ‘夫’, ‘蓋’,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 18개가 있다.

356)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357)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02-803쪽.

358)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教育出版社, 1990, 414-415쪽.

(1) 文頭語氣詞

文頭語氣詞은 문장의 첫머리에 쓰여 發言의 첫 신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러한 語氣助詞는 《詩經》이나 《尚書》에 자주 출현한다.³⁵⁹⁾ 《老子》에는 ‘蓋’, ‘夫’, ‘載’, ‘故’가 있다.

(1) 夫

어기조사 ‘夫’는 문장의 첫머리에 쓰여 議論을 시작하려 함을 나타낸다. 어기조사 ‘夫’는 지시사에서 발어사 용법으로 문법화된 것이다. 백은희에 따르면, ‘夫’의 지시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보다 먼 대상을 지시하다가 점차 관념 속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게 된 것이 발어사로 문법화 하게 된 기제가 된 것이라 하겠다.³⁶⁰⁾

‘夫’가 문장의 앞에 쓰일 때 ‘夫’가 표시하는 범위는 단문(單句), 복문(復句), 또는 문단(語段) 중 논술의 대상이다.³⁶¹⁾

《老子》에서 文頭 語氣助詞로 사용된 ‘夫’는 총 20회 출현한다. 이들은 ‘夫’와 호응하는 형태에 따라 ‘夫唯…, 是以/故…’, ‘夫+명사+者, 술어’, ‘夫+동사(구)+者, 술어’, ‘夫+명사, 술어’, ‘夫+의문대명사’, ‘夫+부사+동사’, ‘夫+편정복문’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① ‘夫唯…, 是以/故…’

어기조사 ‘夫’가 인과복문과 연용하여 쓰인 경우는 9회이다. ‘唯’는 인과복문에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며 ‘正因爲’(바로 ~ 때문에)로 해석된다.³⁶²⁾ 뒷절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是以’나 ‘故’가 쓰인다.

35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88쪽.

360) 백은희, <고대중국어 지시사 ‘夫’의 문법화와 소실 과정에 대한 연구>, 《中國言語研究》 제74집, 2018, 267-268쪽.

361) 何樂士, 《《左傳》虛詞研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385쪽.

36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8쪽.

- (110) 夫唯弗居, 是以不去. 《老子·2章》
(대저 오직 차지하지 않으니,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
- (111) 夫唯無知, 是以不我知. 知我者希, 則我者貴. 《老子·70章》
(대저 오직 아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아는 자가 드물수록, 나를 본받는 자가 귀하다.)
- (112) 夫唯不爭, 故無尤. 《老子·8章》
(대저 오직 다투지 않으니, 그러므로 원망할 일이 없다.)
- (113) 夫唯不可識, 故強爲之容. (중략) 夫唯不盈, 故能蔽而新成. 《老子·15章》
(대저 오직 알 수 없으니, 억지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대저 오직 넘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능히 낡아서 새롭게 이를 수 있다.)
- (114)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老子·22章》
(대저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천하에 그와 다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 (115) 夫唯大, 故似不肖. 《老子·67章》
(오직 크기 때문에 마치 닮지 않은 듯하다.)
- (116) 夫唯無知, 是以不我知. 《老子·70章》
(대저 오직 아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
- (117) 夫唯病病, 是以不病. 《老子·71章》
(대저 오직 병폐를 병폐로 여기므로, 그래서 병들지 않는다.)
- (118) 夫唯不厭, 是以不厭. 《老子·72章》
(대저 오직 (백성들)을 욕되지 않으니, 그래서 (백성들이 임금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위 예(110)-(118)은 여기조사 ‘夫’가 인과복문과 연용하여 쓰인 경우로, ‘夫唯…, 是以/故…’구조이다. ‘夫’는 先因後果의 인과복문의 첫머리에 쓰였다. ‘唯’는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며 ‘正因爲’의 의미이다.³⁶³⁾ 뒷절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是以’나 ‘故’가 쓰인다.

예(110)에서 ‘弗’은 부정부사로서, 뒷항의 ‘不’와 같다. 예(111)의 ‘知我者希, 則我者貴’에서 ‘者’는 동사구 ‘知我’와 ‘則我’를 명사성 어구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며, ‘知我者’와 ‘則我者’가 문장의 주어이다. ‘則’은 ‘取法’(본받다)를 뜻한다.³⁶⁴⁾

예(112)의 ‘尤’는 ‘怨咎’로서,³⁶⁵⁾ ‘책망하다, 탓하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예(113)의 ‘強爲之容’에서 ‘強’은 형용사가 부사로 활용된 것으로 ‘억지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爲’는 동작행위의 대상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之’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대명사이다. ‘容’은 ‘형용하다’는 의미의 술어동사이다. ‘能蔽而新成’의 ‘能’은

363)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8쪽.

364)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3쪽.

36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85쪽.

조동사이며, ‘蔽而新成’을 수식한다. ‘而’는 시간의 선후관계를 표시하는 순접표시 접속사이다.

예(114)의 ‘天下莫能與之爭’에서 ‘莫’은 無指代詞로서 ‘沒有什麼人’의 의미이다. ‘與之’는 동사 ‘爭’의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구이다. 예(115)의 ‘似不肖’에서 ‘似’는 ‘~인 듯하다’는 뜻의 술어동사이며, ‘不肖’는 목적어이다. 예(116)의 ‘不我知’에서 ‘我’는 동사 ‘知’의 목적어이다. 否定文에서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므로, ‘我’는 부정부사 ‘不’와 동사 ‘知’의 사이에 위치한다.

예(117)의 ‘病病’은 동목구조로서, 앞의 ‘病’은 명사의 의동용법으로 ‘병폐로 여기다’라고 해석되며, 뒤의 ‘病’은 목적어로 쓰인 명사이다. ‘病病’은 ‘병폐를 병폐로 여기다’라고 해석한다. 예(118)의 ‘唯不厭, 是以不厭’에서, 앞항의 ‘厭’은 윗 문장에서 말한 ‘無厭其所生’(그들이 사는 바를 옥죄지 말라)의 ‘厭’이고, 뒷항의 ‘厭’은 66장에 나오는 ‘天下樂推而弗厭’(천하사람들이 즐겨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다)의 ‘厭’이다. 따라서 ‘오직 임금의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임금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³⁶⁶⁾

② ‘夫+名詞+者, 述語’

어기조사 ‘夫’가 ‘者’와 연용하여 쓰인 경우로서, ‘夫+명사+者’는 문장의 주어이다. ‘者’는 주어나 구의 뒤에서 제시나 멈춤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인데, 주어로 사용된 명사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없거나 갑자기 출현한 것임을 알려준다.³⁶⁷⁾ ‘夫+명사+者’ 형태는 《老子》에 2회 출현한다.

(119) 夫兵者, 不祥之器. 物或惡之. 《老子·31章》

(대저 병기는, 상서롭지 않은 기물이니, 만물이 아마 싫어할 것이다.)

(120)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老子·38章》

(대저 예란 진실함과 믿음의 부족함이고 혼란스러움의 발단이다.)

366) 高亨이 말하길, “앞 문장의 ‘厭’자는 윗 문장의 ‘그들이 사는 바를 옥죄지 말라’의 ‘厭’이고, 뒷항의 ‘厭’자는 66장 ‘천하사람들이 즐겨 추대하여 싫어하지 않는다’의 ‘厭’이다. 오직 임금이 그 백성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그 임금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高亨說: 上‘厭’字即上文‘無厭其所生’之厭. 下‘厭’字乃六十六章‘天下樂推而弗厭’之厭. 言夫唯君不厭迫其民, 是以民不厭惡其君也.)”라고 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9쪽.

367)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8쪽.

위 예(119)와 예(120)에서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이며, 어기조사 ‘者’는 주어의 뒤에서 휴지 기능을 하며, 뒷문장은 주어에 대하여 판단이나 평론을 하는 술어이다.

예(119)는 先因後果의 인과복문이다. ‘夫兵者, 不祥之器’는 원인을 나타내고, ‘物或惡之’는 앞항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인과복문은 접속사나 부사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만, 예(119)의 경우처럼 어떠한 특수 표지가 없는 것도 적지 않다.³⁶⁸⁾ 앞항은 ‘夫兵者’의 ‘兵’이 주어이고, ‘不祥之器’는 명사술어이다. 뒷항 ‘物或惡之’에서 ‘物’은 주어이고, ‘或’은 부사, ‘惡’은 술어동사, ‘之’는 대명사 목적어이다.

예(120)에서 ‘夫禮者’의 ‘禮’가 주어이며, 뒷항 ‘忠信之薄, 而亂之首’은 두 개의 명사술어문으로, 접속사 ‘而’를 사용하여 병렬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③ ‘夫+動詞(句)+者, 述語’

‘夫+동사(구)+者’의 형태는 문장의 주어로 쓰이며, 뒷항에는 평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온다. 《老子》에 2회 출현한다.

(121) 夫樂殺人者, 則不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대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다.)

(122) 夫唯無以生爲者, 是賢於貴生. 《老子·75章》

(대저 오직 (사치스러운) 삶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현명하다.)

예(121)과 예(122)에서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이고, ‘者’는 원래 동사구인 이 절을 명사성 어구로 변화시키는 구조조사이다.

예(121)의 ‘則不可得志於天下矣’에서 ‘則’은 앞항의 동작과 그 결과와의 연결관계를 표시하는 연결표시 접속사이며, ‘於是’의 뜻이다. ‘於天下’는 술어동사 ‘得’의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인개하는 전치사구이며 문장의 보어로 사용되었다. ‘矣’

368)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3쪽.

는 문말어기조사이며, 이론적 추측이나 일의 발전상황에서 볼 때 반드시 발생할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³⁶⁹⁾

예(122)의 ‘是’는 앞항의 ‘唯無以生爲者’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於貴生’는 형용사술어인 ‘賢’의 비교 대상을 인개하는 전치사구이다. ‘賢’의 뒤에 위치하여 문장의 보어로 쓰였다.

④ ‘夫+名詞, 述語’

어기조사 ‘夫’는 지시대명사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때로 명사와 연용한 경우 어기조사와 지시사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아래 예는 ‘夫’를 문장에서 삭제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這’나 ‘那’의 지시사가 아닌 진술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로 보았다.³⁷⁰⁾ ‘夫+명사, 술어’ 형태는 2회 출현한다.

(123)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老子·16章》

(대저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지만, 각자 그 뿌리로 되돌아간다.)

(124) 夫慈, 以戰則勝, 以守則固. 《老子·67章》

(대저 자애는, 이로써 싸우면 이기고 이로써 지키면 굳건하다.)

예(123)과 예(124)는 어기조사 ‘夫’의 뒤에 명사가 연용된 형태이며, 이 명사는 모두 주제주어이며, 뒷항은 주어에 대한 평론이다.

예(123)에서 어기조사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이고, ‘物’은 주어이다. ‘芸芸’은 초목의 무성함을 형용하는 말이다.³⁷¹⁾

예(124)에서도 ‘夫’는 명사 ‘慈’와 연용하였다. ‘慈’는 주어이며, ‘以戰則勝’와 ‘以守則固’은 술어이다. 두 개의 뒷항은 같은 구조로서, 모두 ‘전치사+(慈)+동사+접속사+동사’의 형태이다. ‘以’는 동작행위의 수단방식을 인개하는 전치사이며, 전치사의 목적어는 문맥상 ‘慈’가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則’은 연결표시 접속사이며, ‘就’, ‘於是’의 의미로 해석된다. ‘以戰則勝’은 ‘앞항(以戰)+접속사(則)+뒷항

36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266-268쪽.

370) ‘夫’의 어기조사 용법은 지시대명사 ‘夫’에서 발전한 것이므로, ‘這個’이나 ‘那個’로 해석하면 안된다.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461쪽.

371)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18쪽.

(勝)’의 구조인데, 앞항 동작을 하면 뒷항의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다.

⑤ ‘夫+疑問代名詞’

여기조사 ‘夫’는 때로 의문대명사 ‘何’와 함께 쓰여 의문의 어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³⁷²⁾ ‘夫+何’ 구조는 아래의 예문에 2회 출현한다.

- (125) 夫何故? 以其生生之厚. (중략) 夫何故? 以其無死地. 《老子·50章》
(대저 무슨 이유인가? 그가 삶을 삶으로 여김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 대저 무슨 이유인가? 그에게는 죽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125)는 여기조사 ‘夫’와 의문대명사 ‘何’가 연용된 예문이다. ‘故’는 명사이다. ‘以其生生之厚’에서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로서, ‘~ 때문이다’라고 해석된다. 대명사 ‘其’는 주어, ‘生生之厚’은 주술술어문이다. ‘生生’은 동목구조로서 이 절의 주어이며, 앞의 ‘生’은 동사, 뒤의 ‘生’은 명사로 이루어졌다. ‘之’는 주어의 뒤에서 休止를 표시하는 문중 여기조사로 쓰였다. 형용사 ‘厚’는 이 절의 술어이다. 뒷 문장의 ‘以其無死地’에서도 ‘以’는 원인 표시 접속사이며, 대명사 ‘其’는 주어, ‘無’는 술어동사, ‘死地’는 목적어이다.

⑥ ‘夫+副詞+動詞’

여기조사 ‘夫’의 뒤에 부사와 동사가 쓰인 형태를 말하며, 《老子》에 2회 출현한다.

- (126) 夫唯道, 善貸且成. 《老子·41章》
(대저 오직 도라야 잘 빌려주고 또한 이룬다.)
(127) 夫唯嗇, 是謂早服. 《老子·59章》
(대저 오직 정력을 아끼는 것, 이것을 일러 일찍 준비하는 것이라 한다.)

예(126)과 예(127)에서 여기조사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이며, 부사

372)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294쪽.

‘唯’는 ‘獨’, ‘僅’의 의미이다.

예(126)에서 ‘夫唯道’의 ‘道’는 명사가 동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善貸且成’의 ‘且’는 앞뒤 동사 ‘貸’과 ‘成’이 병렬관계임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예(127)에서 ‘嗇’은 ‘愛惜(아끼다)’, ‘保養(보양하다)’를 뜻하며, ‘服’은 ‘備’와 통하여 ‘준비하다’는 뜻이다.³⁷³⁾ ‘是’는 대명사로서 앞의 ‘嗇’을 가리킨다.

⑦ ‘夫+主從複文’

어기조사 ‘夫’의 뒤에 주종 복문과 연용한 형태를 말한다. 주종 복문은 앞뒤 절이 주종 관계인 복문으로, 보통 종속절은 앞에, 주절은 뒤에 위치한다.³⁷⁴⁾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128) 夫輕諾必寡信, 多易必多難. 《老子·63章》

(대저 승낙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믿음이 적어지고, 쉬움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아진다.)

예(128)에서 ‘輕諾必寡信’와 ‘多易必多難’는 모두 가정복문의 형태이다. ‘輕諾’은 가정을 표시하는 종속절이고, ‘必寡信’은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는 주절이다. 뒷 문장 ‘多易必多難’에서도 ‘多易’는 가정을 표시하고, ‘必多難’은 결과를 표시한다. 어기조사 ‘夫’는 가정복문의 맨 앞에 쓰였다.

(2) 蓋

‘蓋’는 議論의 시작을 나타내는 文頭 語氣助詞로서, 어기조사 ‘夫’와 용법이 같다. 發語詞로 쓰인 ‘蓋’는 접속사 기능에서 발전한 것으로, 戰國시기에 이미 語法化를 이루었고 漢代 이후에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³⁷⁵⁾ 《老子》에는 아래의 예(129)에 1회 출현한다.

373)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73쪽.

37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51쪽.

375) 施佳虹, 《古漢語“蓋,且,故,令”語法化過程考察》, 浙江師範大學 碩士論文, 2017, 28쪽.

(129) 蓋聞善攝生者, 陸行不遇兇虎, 入軍不被甲兵, … 《老子·50章》

(대저 듣건대, 섭생을 잘하는 자는 물에서 다녀도 맹수의 공격을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 입은 병사의 공격을 입지 않는다. …)

(130) 蓋天下萬物之萌生, 靡不有死. 《史記·孝文本紀》

(대저 천하 만물이 많이 생겨나면 죽지 않음이 없다.)

예(129)에서 ‘蓋’는 문장의 첫머리에 쓰여 議論의 시작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이다. ‘聞’은 이 문장의 술어 동사이며, 뒷 문장 전체가 ‘聞’의 목적어이다. ‘善攝生者’에서 ‘者’는 앞의 동사구 ‘善攝生’을 명사성 구조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다.

예(130)은 《史記》에서 어기조사 ‘蓋’가 쓰인 용례이다. 예(130)의 ‘蓋’는 발언의 시작을 알리는 문두 어기조사이다.

(3) 載

‘載’는 일반적으로 ‘신다, 적재하다’는 뜻의 동사이다. 허사 ‘載’는 本義와는 무관하게 음을 차용한 것이다.³⁷⁶⁾ 허사로 쓰이는 ‘載’는 부사와 어기조사 용법이 있는데 부사 ‘載’는 ‘再’에 해당하며, 어기조사 ‘載’는 문두나 문중에서 어기의 강조를 표시한다.³⁷⁷⁾

‘載’가 문두에서 발언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의 용례는 1회이다.

(131) 載營魄抱一,³⁷⁸⁾ 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如嬰兒乎? 《老子·10章》

(대저 혼과 백이 하나로 합해지면 능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정기를 오로지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면 능히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을까?)

위 예(131)에서 ‘載營魄抱一’의 ‘載’에 관하여, 王弼은 ‘載’를 동사로 보았으나,³⁷⁹⁾ 陳鼓應은 ‘載’를 助語詞라고 하였다.³⁸⁰⁾ 또한 양희석은 ‘載’는 《詩經》을

37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07쪽.

377) 張玉金 主編, 《古今漢語虛詞大詞典》, 遼寧人民出版社, 1996, 924쪽.

378) ‘營魄抱一’의 ‘抱一’은 ‘魂和魄合而爲一.(혼과 백이 합하여 하나가 되다)’를 가리킨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90쪽.

379) “載, 猶處也. 魂魄, 人之常居處也.”(載는 머무르다는 뜻과 같다. 혼백은 사람이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다.),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22쪽.

380) 陳鼓應은 陸希聲이 《道德經真經》에서 해설한 “載, 猶夫也. 發語之端也.”(載는 夫와 같아서, 발언의 시작

비슷한 선진 문헌에서 특정한 의미가 없는 허사로 자주 쓰이며, 예(131)의 ‘載’를 어기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³⁸¹⁾ 본고는 陳鼓應과 양희석의 해설에 근거하여, ‘載營魄抱一’의 ‘載’를 발언의 시작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용법으로 보았다.

(4) 故

‘故’는 문두에 쓰여 의논하려 함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로 쓰일 수 있다. 앞의 문장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故’를 접속사로 볼 수 없고 번역할 필요도 없다.³⁸²⁾ ‘夫’에 해당한다. 어기조사 ‘故’는 1회 출현한다.

(132) 故物或行或隨, 或歔或吹; 或強或羸; 或培或隳. 《老子·29章》

(대저 만물 중에는 어떤 것은 앞서가고 어떤 것은 뒤따른다. 어떤 것은 내뿜고 어떤 것은 들이마신다.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허약하다. 어떤 것은 안정되고 어떤 것은 위태롭다.)

예(132)의 ‘故’는 앞의 문장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접속사로 분류할 수 없고, 문장의 앞에 놓여 의논의 시작을 알리는 어기조사라고 할 수 있다. 예 문은 ‘或+동사+或+동사’ 구조가 반복되는데, 순역현상이 반복됨을 표현하고 있다.³⁸³⁾ ‘或’은 대명사로서 泛指나 分指를 표시한다.³⁸⁴⁾ 예(132)에 사용된 ‘或’은 分指를 표시하는 것으로, ‘有的’(어떤 것)에 해당한다.

예(132)의 ‘故’자에 관하여, 陳鼓應은 《老子注譯及評價》의 1988년 판본에는 ‘故’자를 ‘夫’자로 표기하였으나, 2005년 판본에는 ‘故’로 수정하고,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다.³⁸⁵⁾ 王弼은 ‘故’자를 쓰고, ‘凡’(무릇)으로 해석하였다.³⁸⁶⁾ 高亨은 ‘故’자 대신에 ‘凡’이나 ‘夫’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³⁸⁷⁾ 이상의 세 학자는 모두 ‘故’가 문두 어기조사로 쓰인 것임을 말해준다.

을 나타낸다.)를 인용하여 載를 어조사라고 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89쪽.

381) 양희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63-64쪽.

382)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84쪽.

383)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72쪽.

38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251쪽.

38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1988년의 214쪽, 2016년의 173쪽.

386)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76-77쪽.

387) 高亨, 《老子正詁》, 開明, 1949, 68쪽.

(2) 文中 語氣助詞

文中語氣詞는 문장의 중간에 사용되는 어기조사를 말하며, 휴지 또는 어기 완화에 쓰이거나 음절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³⁸⁸⁾ 《老子》에 쓰인 문중 어기조사는 ‘之’, ‘其’, ‘也’, ‘者’, ‘兮’, ‘矣’가 있다.

① 之

‘之’는 문장의 중간에 쓰여 음절을 조정하는 어기조사 용법이 있다. ‘之’는 형식상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목적어가 아니며, 단지 음절을 하나 더 늘이는 역할만 한다.³⁸⁹⁾ 이러한 용법은 《老子》에 9회 출현한다.

- (133) 玄之又玄, 衆妙之門. 《老子·1章》
(가마득하고 또 가마득하니, 갖가지 오묘함의 문이다.)
- (134)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老子·48章》
(줄이고 또 줄이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135) 唯之與阿, 相去幾何? 美之與惡, 相去若何? 《老子·20章》
(‘예’와 ‘응’은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아름다움’과 ‘추함’은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136)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 《老子·15章》
(옛날에 훌륭하게 선비 노릇을 한 사람들은 미묘하고 현통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 (137)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 《老子·22章》
(옛날에 ‘굽으면 온전해진다.’라고 말한 것이 어찌 빈말이었겠는가!)
- (138)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후략) 《老子·39章》
(옛날에 하나(도)를 얻은 것들이여!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었고, ...)
- (139) 古之所以貴此道者何? 《老子·62章》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 (140)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 將以愚之. 《老子·65章》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이로써 백성을 밝게 하지 않고, 장차 이로써 그들을 우직하게 한다.)

388)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71쪽.

38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52쪽.

위 예(133)의 ‘玄之又玄’에서 형용사 ‘玄’의 뒤에 쓰인 ‘之’는 대명사가 아니라, 음절을 추가하여 어음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라고 하겠다.³⁹⁰⁾ ‘之’가 형용사의 뒤에 놓여 형식상 마치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玄’은 의동용법이나 사동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단지 음절을 늘리는 작용만 하므로 어기조사로 분류하였다.³⁹¹⁾ 예(134)의 ‘損之又損’는 예(133)의 ‘玄之又玄’와 구조가 같으며, ‘損之’의 ‘之’는 대명사가 아니라, 다만 음절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라 하겠다.

예(135)의 ‘唯之’와 ‘美之’에서, 대부분 통행본에는 ‘之’자가 있는 반면, 竹簡本과 帛書本은 ‘之’자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³⁹²⁾ ‘之’는 어음을 고르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136)-(140)에서 시간사 ‘古’나 ‘昔’의 뒤에 위치한 ‘之’는 음절을 고르는 어기조사이며, 특별한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³⁹³⁾ ‘之’는 ‘今也’, ‘今者’의 ‘也’와 ‘者’처럼 종종 부사의 뒤에 쓰여 단어의 완충 역할을 하며, 이들 ‘也’, ‘者’, ‘之’는 모두 해석할 필요가 없고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³⁹⁴⁾

예(136)에서 ‘善爲士者’의 ‘士’에 대해 郭店簡本은 ‘士’, 帛書乙本은 ‘道’, 통행본은 簡本과 마찬가지로 ‘士’라고 하였다.³⁹⁵⁾ 《老子·15章》은 ‘道’를 터득한 사람의 모양을 형용한 대목이므로,³⁹⁶⁾ 도를 터득한 사람을 ‘善爲士者’로 표현한 것이며, 예(140)의 ‘善爲道者’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예(137)의 ‘古之所謂“曲則全”者’에서 ‘…者’는 앞의 내용을 명사구로 변화시키는 구조조사로서 ‘~한 것’이라 해석된다. 또한 ‘豈虛言哉’에서 ‘哉’는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38)의 ‘昔之得一者’에서 ‘昔之’는 시간의 부사어, ‘得一者’는 주어이다. 뒤 문장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은 술어이다. ‘天得一以清’에서 ‘天’은 주어이며, ‘得一’은 동목구조이며, 접속사 ‘以’는 연결한 뒷항(清)이 앞항(得一)의 결과임을

390) 양희석은 ‘玄之’의 之는 형용사나 동사의 어미로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양희석 주해, 《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21쪽.

391)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52쪽.

392) 김경수 역주, 《老子譯註》, 도서출판문사철, 2015, 271쪽.

393) 方有國, 《上古漢語語法研究》, 四川出版集團, 2002, 7쪽.

394)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48쪽.

395)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文物出版社, 1998, 22쪽.

396) 김학주 譯, 《노자》, 연암서가, 2011, 182쪽.

표시한다. 형용사 ‘淸’은 동사로 활용되었다.

예(139)의 ‘古之所以貴此道者何’에는 고정격식 ‘所以…者’가 쓰인다. 인과복문 중 앞 절에 결과를 먼저 말하는 경우, 보통 어기조사 ‘者’를 써서 제시하고 뒷 문장의 해석을 기다린다.³⁹⁷⁾ 의문대명사 ‘何’는 이 문장의 술어이다.

예(140)의 ‘古之善爲道者’에서 ‘古之’는 시간의 부사어, ‘善爲道者’는 주어, ‘非以明民, 將以愚之’는 술어이다. 부정사 ‘非’는 ‘以明民’을 수식한다. ‘以’는 수단 방법을 소개하는 전치사이며, ‘以+(道)’로서 목적어 ‘道’가 생략된 형태라 하겠다. ‘明’은 형용사의 사동용법이다. ‘將以愚之’에서 ‘將’은 시간부사, ‘以’는 전치사, ‘愚’는 형용사의 사동용법으로 쓰였고, ‘之’는 대명사이다.

② 其

문장의 중간에 쓰인 어기조사 ‘其’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역할도 두드러지지 않으며 단지 음절을 더하기만 한다.³⁹⁸⁾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141)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老子·35章》
(도의 표현은 담담하여 아무런 맛이 없다.)

위 예(141)의 ‘淡乎其無味’에서 其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다만 음절을 더하는 기능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也

어기조사 ‘也’는 주어나 부사어의 뒤에 쓰여 어기를 잠시 멈추거나 늦추는데 쓰일 수 있다.³⁹⁹⁾ 최근 일부 학자의 경우, 문장의 중간에서 휴지 기능을 하는 ‘也’의 용법에 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本稿는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따랐다.⁴⁰⁰⁾

397)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200쪽.

398)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12쪽.

39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200-201쪽.

400) 조은정은 ‘也’가 문장에서 쓰이는 경우, 也는 休止를 나타내는 어기사가 아니라 ‘명사 표지’ 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也’가 이러한 용법으로 쓰일 경우, ‘也’의 뒤에 休止가 있으면 대비나 강조의 어기를 나타낼 수

《老子》에 6회 출현한다.

(142) 其在道也, 曰: 餘食贅形. 《老子·24章》

(그것이 도에 있어서는, 남은 음식이나 군더더기이다.)

(143) 其致之也, 謂天無以清, 將恐裂; 地無以寧, 將恐廢, (후략) 《老子·39章》

(그것을 미루어서 말하면, 하늘이 이것(道)으로써 맑지 못하면 아마 갈라질 것이다. 땅이 이것으로써 안정되지 못하면 아마 터질 것이다.)

(144)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強. 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 《老子·76章》

(사람은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어서는 굳고 강해진다. 초목은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어서는 마르고 딱딱해진다.)

위 예(142)에서 주술구조인 ‘其在道’는 이 문장의 주어이며 어기조사 ‘也’가 주어의 뒤에서 休止를 표시한다.

예(143)에서 ‘其致之也’는 문장의 부사어이며 술어동사 ‘謂’를 수식한다. ‘也’는 休止를 나타내는 문중어기조사이다. ‘其致之也’의 ‘也’는 통행본에는 없지만 帛書本을 근거로 추가하였으며, ‘致’는 ‘推’와 같다.⁴⁰¹⁾

예(144)는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強.’과 ‘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이 서로 대응되는 문장이다. 앞 문장은 ‘人’이 주어이며, ‘之’는 주어와 술어의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다.⁴⁰²⁾ ‘生也柔弱, 其死也堅強.’는 문장의 술어이다. 앞항의 ‘生’과 뒷항의 ‘死’는 동사가 시간의 부사어로 쓰였으며 이들의 뒤에 쓰인 ‘也’는 어기를 잠시 멈추는 기능을 한다. 둘째 문장의 주어는 ‘草木’이며 구조는 앞과 같다.

④ 者

‘者’는 어기조사로서 提示를 나타낸다. 판단문에서, 주어는 ‘者’를 써서 제시하고 술어에는 ‘也’를 써서 종결한다. 또한 진술문이나 묘사문에서 주어의 뒤에 쓰이는데, 그 주어가 일찍이 언급한 적이 없거나 갑자기 출현한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복문에서 원인이나 가정을 표시한다.⁴⁰³⁾

있는데, 이는 ‘也’의 용법과 무관하게 구문이 나타내는 어기라고 하였다. 曹銀晶, <명사표지 也의 기능 및 변천>, 《中國語文論譯叢刊》第38輯, 2016, 207-230쪽.

401)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04쪽.

402) 何樂土는 ‘주어+之+술어’의 ‘之’의 품사에 대하여 접속사로 보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何樂土,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524-526쪽.

《老子》에 사용된 문중 어기조사 ‘者’는 총 22회 출현하며, 그 용법에 따라 주어 제시, 원인 표시, 가정 표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 主語 提示

어기조사 ‘者’가 주어의 뒤에 쓰여 주어 제시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는 9회이다. ‘者’와 연용한 형태에 따라 ‘명사(구)+者, 명사술어’, ‘夫+명사+者, 명사술어’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a. ‘명사(구)+者, 명사술어’

주어 제시의 어기를 나타내는 ‘者’와 연용한 형태가 ‘명사(구)+者, 명사술어’인 용례는 《老子》에 7회 출현한다.

(145) 故善人者, 不善人之師, 不善人者, 善人之資. 《老子·27章》

(그러므로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의 스승이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의 바탕이다.)

(146) 兵者不祥之器, 非君子之器. 《老子·31章》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147) 大邦者下流. 天下之交, 天下之牝. 《老子·61章》

(큰 나라는 하류이다. 천하의 합류점이요, 천하의 암컷이다.)

(148) 道者, 萬物之奧. 《老子·62章》

(도는 만물의 보살핌이다.)

위 예(145)는 주어의 뒤에 어기조사 ‘者’를 써서 주어를 제시한 판단문이다. 고대중국어에서 제시를 표시하는 어기조사는 오직 ‘者’만 있다.⁴⁰³⁾ 판단문에서 系詞를 쓰지 않는 경우, 보통 주어의 뒤에 ‘者’를 써서 제시를 하고, ‘也’를 써서 종결한다. 하지만 때로 판단문 중에 ‘也’를 쓰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者’자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⁴⁰⁵⁾ 《老子》에는 문말에 ‘也’가 쓰이지 않은 ‘주어+者, 술어’의 형태만 출현한다. ‘善人者, 不善人之師’에서 ‘者’는 주어 ‘善人’

403)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7-338쪽.

404)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100쪽.

405)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9-200쪽.

(잘하는 사람)을 提示하는 어기조사이지, 명사구로 성질을 바꾸는 구조조사가 아니다.

예(146)의 ‘兵者不祥之器, 非君子之器.’은 판단문으로 系詞는 사용되지 않았다. ‘兵’이 주어이고, ‘者’는 주어 ‘兵’을 제시하는 어기조사이며, ‘不祥之器, 非君子之器.’는 복문 구조의 술어이다. 뒷항의 ‘非’는 명사구 ‘君子之器’를 부정하는 부정부사이다.

예(147)에서 어기조사 ‘者’는 주어 ‘大邦’을 제시하며 잠시 멈춘다. ‘下流’는 명사술어이다. ‘天下之交’과 ‘天下之牝’은 병렬 복문의 구조이며, ‘之’는 구조조사이다. 예(148)에서 어기조사 ‘者’는 주어 ‘道’를 제시하며, ‘萬物之奧’는 명사술어이다. ‘奧’는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이다.⁴⁰⁶⁾

b. ‘夫+명사+者, 명사술어’

주어 제시의 어기를 나타내는 ‘者’와 연용한 형태가 ‘夫+명사+者, 명사술어’의 용례는 《老子》에 2회 쓰인다.

(149) 夫兵者, 不祥之器. 物或惡之. 《老子·31章》

(대저 병기란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니, 만물이 아마 그것을 싫어할 것이다.)

(150)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老子·38章》

(대저 예란 진실함과 믿음의 얽박함이고, 어지러움의 발단이다.)

예(149)의 ‘夫兵者, 不祥之器.’와 예(150)의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의 앞항은 모두 ‘夫’와 연용한 ‘夫+명사+者’의 형태이다. ‘夫’는 의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어사로서 文頭語氣詞이며, ‘者’는 주어의 뒤에서 제시를 나타내는 文中語氣助詞이다. 예(150)에서 둘째 항과 셋째 항은 문장의 술어이며, 접속사 ‘而’가 이 두 항이 서로 병렬관계임을 나타낸다.

B. 原因 表示

406) 陳鼓應은 ‘奧’는 ‘藏’으로 ‘보우하다’는 뜻을 함유한다고 풀이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79쪽.

어기조사 ‘者’가 원인의 어기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老子》에는 ‘명사+(之)所以+동사(구)+者, 以(爲)+동사술어’ 구조의 先果後因의 인과복문에 쓰인다. 앞항의 끝에 어기조사 ‘者’를 쓰고, 뒷항은 접속사 ‘以’를 써서 원인을 나타낸다. ‘所以…者’는 주어로서 ‘~的原因’의 뜻이며, 술어는 원인에 대한 진술이다.⁴⁰⁷⁾ 《老子》에 4회 출현한다.

(151)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老子·7章》

(천지가 길고 오래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스스로 낳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152)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老子·13章》

(내가 큰 근심을 갖게 된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153)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老子·66章》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잘 낮추기 때문이다.)

(154) 古之所以貴此道者何? 《老子·62章》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이었던가?)

위 예(151)-(154)에서 앞항은 ‘명사+(之)所以+동사(구)+者’의 형태로,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이며, 어기조사 ‘者’는 원인의 어기를 표시하고 아래 문장을 제시한다. 秦漢 시기에 사용된 ‘所以’는 조사 ‘所’에 전치사 ‘以’를 더한 詞組이며, 구어의 ‘…的緣故’에 해당하는데, ‘所以’가 결과를 표시하는 절에서 접속사로 사용된 시기는 대략 漢 이후의 일이다.⁴⁰⁸⁾ 《老子》에 사용된 ‘所以’는 모두 전자에 해당하여 ‘~한 까닭’으로 해석한다.

예(151)-(153)의 뒷절에 쓰인 ‘以’와 ‘爲’는 인과복문에서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예(154)에서 ‘古之’는 ‘시간명사+어기조사’의 형태로 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되며, ‘何’는 원인을 묻는 의문대명사이다.

C. 假定 表示

어기조사 ‘者’는 가정 복문의 종속절 끝에 쓰여 가정의 어기를 표시한다. 가정 복문에서 가정 표시 접속사를 쓰지 않고 조건절에 ‘者’만 사용해도 되는데, 이러

407)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410쪽.

408)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966쪽.

한 용법의 ‘者’는 가정의 어기를 표시한다.⁴⁰⁹⁾ 가정 표시의 표시가 없는 종속절의 끝에 ‘者’를 쓰면 가정의 함의와 불확실한 어기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⁴¹⁰⁾

《老子》에 9회 출현하며, ‘者’와 연용한 형태에 따라 ‘동사(구)+者, 동사구’, ‘형용사(구)+者, 동사구’로 나눌 수 있다.

a. ‘동사(구)+者, 동사구’

어기조사 ‘者’가 가정의 어기를 나타내는 용례 중, ‘동사(구)+者, 동사구’의 형태는 6회 출현한다.

(155) 爲者敗之, 執者失之. 《老子·29章》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움켜쥐면 잃게 된다.)

(156) 勝而不美, 而美之者, 是樂殺人. 《老子·31章》

(이겨도 찬미하지 않거니와, 오히려 그것을 찬미한다면, 이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157) 爲者敗之, 執者失之. 《老子·64章》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움켜쥐면 잃게 된다.)

(158)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老子·77章》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덜고, 부족하면 그것을 보태준다.)

위 예(155)-(158)은 모두 가정복문이지만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 등 표지는 사용되지 않고, 어기조사 ‘者’가 가정의 종속문의 끝에 쓰여 가정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55)와 (157)은 같은 문장이다. ‘爲者’와 ‘執者’는 가정을 나타내는 종속절이며, ‘敗之’, ‘失之’는 가정의 결과인 주절이다. 예(156)의 ‘美之者, 是樂殺人’에서 ‘者’는 가정의 어기를 표시하며, 그 결과는 뒷항인 ‘是樂殺人’이다. 예(158)의 ‘有餘者’와 ‘不足者’는 가정의 종속절이며 어기조사 ‘者’가 가정의 어기를 나타내고 있고, 뒷항인 ‘損之’와 ‘補之’는 가정의 결과인 주절이다. 뒤 문장의 ‘不足者’는 ‘형용사+者’의 구조이다.

b. ‘형용사(구)+者, 동사구’

409)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200쪽.

410) 楊伯峻·何樂士, 앞의 책, 959쪽.

가정의 표지가 없는 가정복문에서 어기조사 ‘者’가 가정의 어기를 나타내는 용례 중, 종속절에 형용사(구)가 사용되고 주절이 동사구로 이루어진 형태는 아래의 예문에 3회 출현한다.

(159) 高者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老子·77章》

(높으면 그것을 눌러주고, 낮으면 그것을 들어준다.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덜고, 부족하면 그것을 보태준다.)

위 예(159)에 쓰인 ‘高者’, ‘下者’, ‘不足者’는 ‘형용사(구)+者’의 구조로서 가정복문 중 종속절에 해당하며, 그 뒷항은 모두 ‘동사+대명사’ 형태의 주절이 온다. ‘者’는 모두 가정의 어기를 표시한다.

⑤ 兮

어기조사 ‘兮’는 진술문이나 감탄문에서 문장의 중간이나 끝에 쓰여 멈춤 표시나 어기 완화 작용을 일으키고, 동시에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阿’, ‘呀’, ‘嘛’ 등으로 해석된다.⁴¹¹⁾ ‘兮’는 《詩經》에 보이는 어기조사 중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데, 여러 제후국에서 채집한 民歌를 모은 《國風》에도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에서 ‘兮’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⁴¹²⁾

《老子》에서 ‘兮’가 문장의 중간에 쓰인 용례는 25회 출현한다.

(160) 道沖, 而用之或不盈. 淵兮, 似萬物之宗; 湛兮, 似或存. 《老子·4章》

(도는 비어있지만, 그것을 쓰면 아마 넘치지 않을 것이다. 깊어서, 마치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심오하여, 마치 (없는데도) 혹 존재하는 듯하다.)

(161) 豫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隣; 儼兮其若客; 渙兮若水釋; 敦兮其若樸; 曠兮其若谷; 混兮其若濁. 《老子·15章》

(신중하여서, 마치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듯하다. 조심스러워, 마치 사망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엄숙하여, 마치 손님인 듯하다. 풀리니, 마치 얼음이 풀어지는 듯하다. 도타우니, 아마도 통나무인 듯하다. 텅 비니, 마치 골짜기인 듯하다. 뒤섞이니, 마치 흐린 물 같다.)

41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28쪽.

412) 尹曉婷, <《詩經》語氣詞研究>, 湖北師範學院 碩士論文, 2015, 13-15쪽.

- (162) 悠兮其貴言. 《老子·17章》
(느긋하여, 그는 쉽게 말하지 않는다.)
- (163) 荒兮, 其未央哉! … 我獨泊兮, 其未兆, 如嬰兒之未孩: 儻儻兮, 若無所歸. … 淡兮其若海, 颺兮若無止. 《老子·20章》
(아득하여 다함이 없구나! … 나만 유독 담백하여 흔적이 없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옷을 줄 모르는 듯하다. 고달프구나,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듯하다. … 담백하여 마치 바다와 같다. 확확 바람이 부니, 마치 멈출 곳이 없는 듯하다.)
- (164)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窈兮冥兮, 其中有精. 《老子·21章》
(보일 듯 말 듯한데 그중에 형상이 있다.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그중에 물체가 있다. 심원하고 어두운데 그중에 정기가 있다.)
- (165) 寂兮寥兮, 獨立不改. 《老子·25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홀로 서서 변하지 않는다.)
- (166)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老子·58章》
(화는 복이 기대있는 바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바이다.)

예(160)의 ‘淵兮’와 ‘湛兮’는 ‘兮’를 써서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兮’가 표현하는 감정은 비교적 강렬하기 때문에 倒置文에 자주 쓰여, 형식적으로 보면 문말에 위치하지 않게 된다.⁴¹³⁾

예(161)에서 ‘豫兮’, ‘猶兮’, ‘儼兮’, ‘渙兮’, ‘敦兮’, ‘曠兮’, ‘混兮’은 모두 倒置文의 형식이다. 뒷항에는 모두 동사 ‘若’이 쓰였다. ‘其’는 추측의 어기를 표시하는 부사이며, ‘大約’(대략), ‘或許’(혹시), ‘可能’(아마)의 뜻을 함유한다.⁴¹⁴⁾

예(162)의 ‘悠兮其貴言’에서 ‘悠’는 ‘悠閑’(한가롭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河上公本, 傅奕本, 林希逸本 등은 ‘悠’를 ‘猶’로 적었는데, ‘悠’, ‘猶’는 通假字이다.⁴¹⁵⁾ ‘兮’는 형용사 ‘悠’의 뒤에 쓰여 休止를 표시한다.

예(163)에서 ‘荒兮’, ‘我獨泊兮’, ‘儻儻兮’, ‘淡兮’, ‘颺兮’의 ‘兮’는 형용사의 뒤에서 음절조정이나 휴지를 나타낸다. ‘荒兮’는 ‘넓고 아득한 모양(廣漠)’을 말하며, ‘泊兮’는 ‘담박하고 조용하다(淡泊, 恬靜)’는 뜻이며, ‘儻儻兮’는 ‘고달파서 축 늘어진 모양’이며, ‘淡兮’는 ‘담박하다(淡泊)’는 뜻이며, ‘颺兮’는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高風)’을 뜻한다.⁴¹⁶⁾

예(164)에서 ‘惚兮恍兮’, ‘恍兮惚兮’, ‘窈兮冥兮’의 ‘兮’는 형용사의 뒤에 놓여 음

413)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69쪽.

414)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415)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23쪽.

416)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33-136쪽.

절조정이나 休止의 어기를 나타내며, ‘A+兮, B+兮’ 형태가 반복된다. 어기를 잠시 멈춤으로써 앞의 형용사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예(165)의 ‘寂兮寥兮, 獨立不改’에서 ‘寂’은 ‘소리가 없음’을 뜻하고, ‘寥’은 형태가 없음을 말한다.⁴¹⁷⁾ ‘兮’는 형용사의 뒤에서 休止를 표시한다. 예(166)에서 ‘禍兮’과 ‘福兮’의兮는 모두 주어의 뒤에 쓰여 休止를 표시한다.

⑥ 矣

어기조사 ‘矣’는 西周시기에 출현한 이후 계속 文言에 사용되고 있다. 주로 진술문, 의문문, 기사문, 감탄문의 끝에 쓰여서 어기를 나타내는데, 때로는 문장의 중간에 쓰여 상응하는 각종 어기를 돕는다.⁴¹⁸⁾ 《老子》에서 ‘矣’가 문장의 중간에 쓰인 용례는 3회이다.

(167)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老子·65章》

(현덕은 깊고도 아득하여, 사물과 함께 되돌아간다.)

(168) 若肖, 久矣其細也夫! 《老子·67章》

(만약 닮았다면, 오래되었으리라, 그 미미함이여!)

예(167)에는 어기조사 ‘矣’가 3회 사용되는데, ‘深矣, 遠矣’의 ‘矣’는 문중에서 어음을 잠시 멈추고, 겸하여 감탄의 어기를 돕는다. ‘與物反矣’의 ‘矣’는 진술어기를 나타내는 문말 어기조사로 분류한다. 예(168)에서 ‘久矣’는 본래 술어이지만 ‘其細’의 앞으로 전치되어 ‘矣’는 문장의 중간에 놓이게 되었다.

(6) 乎

‘乎’는 의문이나 반문을 나타내는 용법 외에, 감탄이나 休止를 표시하는 어기조사 용법이 있다.⁴¹⁹⁾ 아래의 예문에서 ‘乎’는 문중에 위치하여 음절 조정이나 休止

417) 河上公 說, “‘寂’者, 無聲音. ‘寥’者, ‘空無形’.”(河上公이 말하길, ‘寂’이란 소리가 없는 것이고, ‘寥’이란 텅 비어서 형태가 없는 것이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52쪽.

41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716쪽.

41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70-71쪽.

를 표시하는데 감탄의 어기도 내포하고 있다.

문중 어기조사 ‘乎’는 아래의 예문에 1회 출현한다.

(169)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老子·35章》
(도의 표현은 담담하여 아무런 맛이 없다.)

위 예(169)에서 ‘道之出口’의 ‘出口’는 언어를 사용하여 도를 묘사하는 것을 가리키며, 도를 형용할 방법이 없으므로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였다.⁴²⁰⁾ ‘淡乎其無味’의 乎는 어기조사이다. ‘淡乎’의 ‘乎’는 帛書本에는 ‘呵’로, 郭店本은 ‘可’로 쓰여 있는데,⁴²¹⁾ ‘呵’와 ‘可’는 모두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 ‘其’는 어기조사이다. 어기조사 ‘其’가 문장의 중간에 쓰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역할도 두드러지지 않으며 단지 음절을 더하기만 한다.⁴²²⁾

(3) 文末 語氣助詞

문장의 끝에 쓰이는 文末 語氣助詞는 확정·판단·진술 등의 어기를 나타내거나 혹은 음절을 조정하고, 또는 의문·반문·선택·추측 등의 어기를 나타내며, 또는 명령의 어기를 나타내거나, 또는 영탄·찬미·격분 등 강렬한 감정을 나타낸다.⁴²³⁾

《老子》에서 문말에 쓰이는 어기조사는 ‘乎’, ‘焉’, ‘兮’, ‘也’, ‘邪’, ‘與’, ‘矣’, ‘已’, ‘哉’, ‘者’, ‘也哉’, ‘也夫’ 등이 있다. 이들은 진술의 어기, 의문의 어기,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① 陳述의 語氣 表示

본 연구는 판단문이나 진술문에 쓰인 문말 어기조사가 確定·判斷·陳述 등의 어기를 나타내는 경우, ‘陳述의 語氣를 表示’하는 용법으로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420)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277-278쪽.

421) 趙恩正, 《죽간에 반영된 《老子》의 언어》, PB PRESS, 2019, 408-409쪽.

422)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112쪽.

423)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163-169쪽.

한다. 《老子》에는 ‘也’, ‘矣’, ‘已’, ‘焉’가 있다.

A. 也

文末에 쓰인 어기조사 ‘也’는 확인의 어기를 나타내며, 판단문에 상용되거나 판단 기능을 갖는 기타 문장형식에 쓰인다.⁴²⁴⁾ 고대 중국어에서 판단문은 일반적으로 ‘주어+者, 술어+也’ 형식이 쓰이지만, 《老子》의 판단문 중에는, 어기조사 ‘者’와 ‘也’가 함께 쓰인 형태는 보이지 않고, 주어의 뒤에 ‘者’만 쓰이거나, 또는文末에 ‘也’만 쓰인 용례가 있다.⁴²⁵⁾

《老子》에서 어기조사 ‘也’가 문장의 끝에서 진술의 어기를 표시하는 용례는 9회 출현한다.

(170)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 《老子·3章》

(늘 백성들로 하여금 아는 것이 없고 욕심내는 것이 없게 하며, 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감히 억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171) 功遂身退, 天之道也. 《老子·9章》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172) 天下神器, 不可爲也, 不可執也.⁴²⁶⁾ 《老子·29章》

(천하는 신성한 기물이니, 억지로 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다.)

(173) 未知牝牡之合而腴作, 精之至也, 終日號而不嘎, 和之至也. 《老子·55章》

(아직 암수의 교합을 모르는데 고추가 일어나니,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174) 孰知其極? 其無正也. 《老子·58章》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175) 是謂不爭之德, 是謂用人, 是謂配天, 古之極也. 《老子·68章》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이를 일러 ‘사람을 쓴다’고 하며, 이를 일러 ‘하늘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옛날의 지극한 준칙이다.)

(176) 知不知, 尙矣: 不知知, 病也. 《老子·71章》

(알면서도 안다고 하지 않음은 최상이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폐이다.)

424)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0쪽.

425) 조은정은 판본별로 어기조사 ‘也’의 사용 비율을 살펴 본 결과, 郭店本은 52회, 帛書乙本은 37회, 王弼本은 2회, 敦煌本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후대 판본에서 어기조사 ‘也’의 사용이 급감하였음을 밝혔다. 조은정, <문자언어학적 각도에서 살펴본 《老子》판본의 선후 관계>, 《中語中文學》 第60輯, 2015, 171쪽.

426) 陳鼓應은 ‘不可執也.’ 구절이 王弼本에는 빠져있으나 劉師培의 견해에 근거하여 增補하였다고 밝혔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171쪽.

위 예(170)에서 ‘使夫智者’의 ‘使’는 사역동사이다. ‘夫’는 지시대명사로서 형용사 ‘智’를 수식하며, ‘者’는 이 구절을 명사성 단어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다. 문장의 끝에 어기조사 ‘也’를 써서 종결하였다.

예(171)은 판단문이다. ‘功遂身退’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가진 복문인데, 이것은 다시 뒷항 ‘天之道也’의 주어가 된다. 어기조사 ‘也’는 판단문에서 확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72)는 인과 관계의 복문이다. ‘天下神器’는 원인을 나타내며, ‘不可爲也, 不可執也’는 결과를 나타낸다. ‘也’는 진술문의 끝에 쓰여 확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73)에서 ‘精之至也’와 ‘和之至也’의 ‘也’는 판단문의 끝에서 원인을 강조하는 어기조사로, ‘~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⁴²⁷⁾ 예(174)에서 ‘其無正也.’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正’은 ‘定’이다.⁴²⁸⁾ 예(175)에서 ‘古之極也’의 ‘也’는 판단문의 끝에서 확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76)에서 ‘病也’의 ‘也’는 《淮南·道應訓》에 근거하여 보충한 것이다.⁴²⁹⁾ ‘不知知, 病也’에서 ‘不知知’는 문장의 주어이며 ‘不知’와 ‘知’는 전환관계의 긴축복문이다. ‘病也’의 ‘病’은 명사로서 문장의 술어가 되며, ‘也’는 확인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이다.

B. 矣

어기조사 ‘矣’는 진술문에서 변동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표시하거나, 동작이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개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쓴다.⁴³⁰⁾ 현대중국어의 어기조사 ‘了’에 해당한다. 8회 출현한다.

(177) 夫樂殺人者, 則不可得志於天下矣. 《老子·31章》

42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90쪽.

428) 陳鼓應은 “‘其無正’: ‘它們並沒有定准. 指福, 禍變換無端.’(‘其無正’은 ‘그들은 결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복과 화는 변환하여 끝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여, ‘正’을 ‘定’으로 해설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69쪽.

429) 陳鼓應은 예(63)의 문장에 대해, 《淮南·道應訓》에 ‘知而不知, 尙矣; 不知而知, 病也.’라고 되어 있으며, 帛書甲·乙本 및 傅奕本에 ‘尙矣’라고 적혀있는 것을 근거로, ‘…, 尙矣’, ‘…, 病也’로 정리하였다.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5쪽.

430)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2쪽.

- (대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다.)
- (178) 夫代大匠斫者, 希有不傷其手矣. 《老子·74章》
(큰 목수를 대신하여 찍는 자는, 자기 손을 다치지 않음이 드물 것이다.)
- (179) 是以聖人猶難之, 故終無難矣. 《老子·63章》
(그래서 성인은 여전히 그것을 어려워하므로 결국 어려움이 없게 된다.)
- (180)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然後乃至大順. 《老子·65章》
(오묘한 덕은 심오하고 원대하여, 사물과 함께 (참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뒤에야 ‘大順’에 이른다.)
- (181) 今舍慈且勇; 舍儉且廣; 舍後且先; 死矣! 《老子·67章》
(이제 자애를 버리고 용기를 취하거나, 줄임을 버리고 넓힘을 취하거나, 뒤를 버리고 앞을 취하면 죽게 된다.)
- (182) 故抗兵相若, 哀者勝矣. 《老子·69章》
(그러므로 대항하는 군대가 서로 같으면, 슬퍼하는 쪽이 이긴다.)
- (183) 故知足之足, 常足矣. 《老子·46章》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다.)
- (184) 知不知, 尚矣; 不知知, 病也. 《老子·71章》
(알되 안다고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폐이다.)

예(177)에서 ‘則不可得志於天下矣’의 ‘則’은 강조 표시 부사이며 ‘就’에 해당한다. ‘得志’는 동목구이다. ‘於天下’는 동작행위의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구로서 문장의 보어에 해당한다. 여기조사 ‘矣’는 변동적 사실의 어기를 나타낸다. 만약 변동적인 사실의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 즉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 비록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도 ‘矣’자를 써서 종결할 수 있다.⁴³¹⁾ 예(178)에 쓰인 여기조사 ‘矣’도 이와 같은 용법이다.

예(179), (180)에 쓰인 여기조사 ‘矣’는 모두 변동적인 사실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81), (182)의 문장은 가정의 문장이다. 가정문에서 필연적 결과를 나타낼 때 조건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어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矣’를 써서 종결한다.⁴³²⁾

예(183)에서 ‘常足矣’는 판단문이며 ‘矣’는 진술의 어기를 표시한다. 예(184)에서 앞 문장 ‘知不知, 尚矣’와 뒤 문장 ‘不知知, 病也’은 같은 구조이다. ‘知不知’는 ‘知’와 ‘不知’가 전환관계이고, ‘不知知’는 ‘不知’와 ‘知’가 서로 전환관계이다. 앞 문장의 ‘尚矣’와 뒤 문장의 ‘病也’도 동일한 구조라 하겠다. ‘尚’과 ‘病’은 명사술어이다. 王弼本에 ‘尚’은 ‘上’이라고 쓰였는데, 이 두 글자는 옛날에 通字이다.⁴³³⁾ 예(184)

431)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3쪽.

432)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193쪽.

의 어기조사 ‘矣’와 ‘也’는 동일 어기로서 판단문에서 종결을 표시한다.

C. 已

어기조사 ‘已’는 문장의 끝에서 진술, 의문,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며 ‘了’, ‘呢’, ‘呀’에 해당한다.⁴³⁴⁾ 어기조사 ‘已’ 용법은 戰國시기에 출현하여 東漢 이후에 사라졌다.⁴³⁵⁾ 《老子》에는 2회 출현한다.

(185)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老子·2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예쁨이 예쁨인 줄을 알면, 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모두 잘함이 잘함인 줄을 알면, 못하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예(185)에는 ‘已’가 2회 사용되며 모두 진술의 어기를 나타낸다. 王力은 예(185)의 문장에서 “斯는 則, 惡은 醜, 已는 矣와 통한다.”고 하였다.⁴³⁶⁾ ‘斯惡已’의 ‘斯’는 접속사로서 앞 문장의 결과를 표시한다. 陳鼓應은 “惡’는 ‘추하다’는 뜻이며, 老子가 말하는 이 문장의 본의는 ‘美’라는 것이 ‘醜’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美’의 관념이 생기면 ‘醜’의 관념도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⁴³⁷⁾

D. 焉

‘焉’은 보통 문장의 끝에서 ‘於是’, ‘於此’에 해당하는 兼詞로도 쓰이지만, 지시나 지칭의 기능이 사라지고 단순히 어기만을 표시하기도 한다.⁴³⁸⁾ 어기조사 ‘焉’은 다른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강조나 확인의 어기만 표시하는데, 이러한 어기조사 용법은 ‘也’와 비슷하다.⁴³⁹⁾ 《老子》에 5회 출현한다.

433)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305쪽.

434) 王海榮等編, 《古漢語虛詞詞典》, 北京大學出版社, 1996, 413쪽.

435) 曹銀品, <“也”, “矣”, “已”의 기능及其演變>, 北京大學 博士論文, 2012, 106쪽.

436) 王力主編, 《古代漢語》第2冊,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89, 372쪽.

437)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59쪽.

438) 《老子》에서 ‘焉’이 ‘於是’나 ‘於此’의 뜻인 兼詞로 쓰인 용례는 총 5회(17장, 23장, 30장, 34장, 60장)이다.

439) 呂炳昌, <上古漢語中的“焉”字考—以《荀子》中的“焉”字爲例>, 《中語中文學》第33輯, 2003, 9쪽.

- (186) 信不足焉, 有不信焉. 《老子·17章》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긴다.)
- (187) 信不足焉, 有不信焉. 《老子·23章》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긴다.)
- (188) 域中有四大, 而人居其一焉. 《老子·25章》
 (강역에는 네 가지 큼이 있으니, 사람은 그중에 하나를 차지한다.)

위 예(186)-(188)에 쓰인 ‘焉’은 삭제를 하여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兼詞라고 볼 수 없다. 종결의 어기만 나타내므로 어기조사로 분류하였다.

예(186)과 (187)은 같은 문장으로 아마 錯簡으로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예(187)의 두 문장은 帛書甲乙本에는 없다. 예(188)의 ‘其’는 ‘其中’의 의미이다.

② 疑問의 語氣 表示

《老子》에서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어기조사는 ‘乎’, ‘與’, ‘邪’, ‘哉’, ‘者’가 있다.

A. 乎

어기조사 ‘乎’는 문장의 끝에 쓰여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 《老子》에 9회 출현한다.

- (189)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不屈, 動而愈出. 《老子·5章》
 (하늘과 땅 사이가 아마도 풀무와 같지 않은가? 비어있지만 다하지 아니하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 (190)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如嬰兒乎? 滌除玄覽, 能無疵乎? 愛民治國, 能無爲乎? 天門開闢, 能爲雌乎? 明白四達, 能無知乎? 《老子·10章》
 (대저 혼과 백이 하나로 합해지면 능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기를 모으고 부드러움을 이루면 능히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 현묘한 거울을 씻고 털어내면 능히 흠이 없게 할 수 있을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면 능히 무위할 수 있을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능히 ‘여성’이 될 수 있을까? 사망을 명백히 알면 능히 앎이 없을 수 있을까?)
- (191) 天地尚不能久, 而況於人乎? 《老子·23章》

(하늘과 땅도 오히려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임에랴?)

(192) 此非以賤爲本邪? 非乎? 故至譽無譽. 《老子·39章》

(이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음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극한 영예는 영예가 없다.)

위 예(189)의 ‘其猶橐籥乎’에서 ‘其’는 反問을 표시하는 부사로서 ‘豈’와 같으며 ‘難道’라고 해석된다.⁴⁴⁰⁾ 반문 표시 어기조사 ‘乎’와 호응하여 쓰였다. 예(190)은 ‘能…乎?’의 구조가 반복되는데, ‘乎’는 모두 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91)은 ‘尙…, 而況於…乎?’의 구조로, 앞항의 부사 ‘尙’과 뒷항의 ‘而況於’가 호응하여 앞 문장보다 뒤 문장의 상황이 한층 더 나아감을 의미한다. 문장의 끝에 놓인 ‘乎’는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92)의 ‘非乎?’는 ‘不是嗎’에 해당하며, ‘乎’는 의문의 어기를 표시한다.

B. 與

어기조사 ‘與’는 문장의 끝에 쓰여 추측의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며, 추측 표시 부사와 연용할 수 있다.⁴⁴¹⁾ 《老子》에 1회 출현한다.

(193) 天之道, 其猶張弓與? 高者抑之, 下者舉之. 《老子·77章》

(하늘의 도는 아마 활을 당기는 것 같지 않은가? 높으면 눌러주고 낮으면 들어준다.)

위 예(193)의 ‘其猶張弓與?’는 추측의 의문문이다. ‘其’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표시하는데 상용되는 부사이며,⁴⁴²⁾ 추측의 의문 어기를 나타내는 ‘與’와 호응하여 쓰였다.

C. 邪

어기조사 ‘邪’는 문장에 끝에 쓰여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老子》

44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07쪽.

441)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下)(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892쪽.

442)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에 쓰인 ‘邪’는 모두 否定詞와 호응하여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3회 출현한다.

(194)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老子·7章》

(그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게 된다.)

(195) 此非以賤爲本邪? 非乎? 故至譽無譽. 《老子·39章》

(이것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지극한 명예는 명예가 없다.)

(196) 古之所以貴此道者何? 不曰: 求以得, 有罪以免邪? 故爲天下貴. 《老子·62章》

(옛날에 이 도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인가?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

위 예(194)의 ‘非以其無私邪?’와 예(195)의 ‘此非以賤爲本邪’는 ‘非…邪?’의 구조로, ‘~이 아닌가?’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邪’는 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194)의 ‘以’는 원인을 표시하는 접속사이며, 예(195)의 ‘以’는 ‘爲’와 결합하여 ‘以A爲B’ 구조의 고정격식이 되며, ‘A를 B로 삼다’는 뜻이다.

예(196)에서 ‘不曰: 求以得, 有罪以免邪?’는 ‘不曰…邪?’의 구조이며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뜻이다. ‘求以得’와 ‘有罪以免邪’의 ‘以’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D. 哉

어기조사 ‘哉’는 원인을 묻는 의문문의 끝에서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거나, 반문의 부사와 호응하여 반문의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⁴⁴³⁾ 《老子》에 4회 출현한다.

(197)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老子·21章》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이 시작된 상황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것으로 안다.)

(198)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 《老子·22章》

(옛날에 이른바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199) 吾何以知天下然哉? 以此. 《老子·54章》

(나는 무엇으로써 천하가 그러함을 알았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200) 吾何以知其然哉? 以此. 《老子·57章》

44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800-801쪽.

(나는 무엇으로써 그것이 그러함을 알았겠는가? 이것으로써 안다.)

위 예(197)은 원인을 묻는 의문문이다. ‘哉’는 의문대명사 ‘何’와 함께 쓰여 의문의 어기를 강조하고 있다. ‘衆甫’는 만물의 시작을 뜻한다.⁴⁴⁴ 예(198)에서 ‘豈虛言哉’의 ‘哉’는 문장 끝에 쓰여 반문의 어기를 도와줌과 동시에 감탄의 뜻을 함께 갖고 있다. 반문 표시 부사 ‘豈’와 서로 호응되며, ‘嗎’나 ‘呢’에 해당한다.⁴⁴⁵

예(199)의 ‘吾何以知天下然哉?’와 예(200)의 ‘吾何以知其然哉?’는 동일한 구조이다. ‘何以’는 ‘의문사+전치사’의 구조이며 동사 ‘知’의 수단 방식을 나타낸다. 의문사 ‘何’가 전치사 ‘以’의 목적어로 쓰였으므로 ‘以’의 앞에 前置된다. 어기조사 ‘哉’는 의문의 어기를 나타낸다.

E. 者

어기조사 ‘者’는 문장의 끝에서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데, 이때 반드시 다른 의문사와 함께 쓰인다.⁴⁴⁶ 1회 출현한다.

(201) 故飄風不終朝，驟雨不終日。孰爲此者？天地。《老子·23章》

(본래 광풍은 아침 내내 이어지지 않고, 폭우는 종일토록 계속되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천지이다.)

위 예(201)의 ‘孰爲此者?’에서 ‘孰’은 ‘誰’나 ‘什麼’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이다.⁴⁴⁷ 어기조사 ‘者’는 ‘孰’과 호응하여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③ 感歎의 語氣 表示

《老子》에서 감탄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 어기조사는 ‘兮’, ‘哉’, ‘也哉’, ‘也夫’가 있다.

444) 王弼注, 樓宇烈校釋, 《老子道德經注校釋》, 中華書局, 2008, 21쪽.

44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801쪽.

446)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339쪽.

44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 앞의 책, 528쪽.

A. 兮

어기조사 ‘兮’는 감탄, 찬미, 격분 등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말 어기조사로 쓰일 수 있다. ‘啊’, ‘呀’, ‘嘛’로 해석되며, 대부분 韻文에 출현한다.⁴⁴⁸⁾ 《老子》에 문말 어기조사 ‘兮’는 2회 사용된다.

(202)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구나! 명칭하게도!)

(203) 大道泛兮, 其可左右. 《老子·34章》

(큰 도는 흘러넘치니 좌우 어디든 갈 수 있다.)

예(202)에서 ‘沌沌兮’의 ‘沌’은 ‘混沌(무지몽매하다)’는 의미이며, ‘兮’는 강한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203)의 ‘兮’는 감탄의 어기가 비교적 완만하다.

B. 哉

어기조사 ‘哉’는 감탄문에 사용되어, 놀람, 슬픔, 혐오, 분노, 희열, 감탄 등의 어기를 나타내며, ‘阿’에 해당된다.⁴⁴⁹⁾ 1회 출현한다.

(204) 荒兮, 其未央哉! 《老子·20章》

(아득하여라! 마치 다함이 없는 듯하구나!)

위 예(204)에서 ‘荒兮’는 드넓은 모양을 의미하며, ‘未央’은 다함이 없다는 뜻이다.⁴⁵⁰⁾ ‘兮’와 ‘哉’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며, ‘其’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이다.⁴⁵¹⁾

C. 也哉

44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 앞의 책, 628쪽.

44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802쪽.

450) 陳鼓應, 《老子註釋及評介》, 中華書局, 2016, 133쪽.

451)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345쪽.

어기조사 ‘也哉’는 종결을 나타내는 ‘也’와 감탄이나 반문을 나타내는 ‘哉’가 연용된 것으로, 초점은 ‘哉’에 있다.⁴⁵²⁾ 2회 출현한다.

(205) 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 我愚人之心也哉! 《老子·20章》

(사람들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나만 유독 부족한 듯하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구나!)

(206) 是謂盜夸. 非道也哉! 《老子·53章》

(이를 일러 도적이라고 하노니, 이것은 도가 아니로다!)

위 예(205)-(206)에 쓰인 ‘也哉’는 어기조사 ‘也’와 ‘哉’가 연용된 것으로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206)에서 ‘非道也哉’의 ‘非’는 부정부사이다.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非’를 써서 부정을 표시하여 ‘A不是B’를 뜻하는 용법이다.⁴⁵³⁾

D. 也夫

‘也夫’는 어기조사 ‘也’와 ‘夫’가 연용된 형태이다. ‘也’는 확정의 어기를, ‘夫’는 추측과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也夫’는 비교적 확정적인 추측을 나타냄과 동시에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吧’, ‘阿’ 등에 해당한다.⁴⁵⁴⁾ 1회 출현한다.

(207) 若肖, 久矣其細也夫! 《老子·67章》

(만약 닮았다면, 오래 되었으리라, 그 미미함이어!)

위 예(207)에서 ‘久矣其細也夫’의 ‘也夫’는 문장의 끝에 놓여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久矣’는 원래 ‘其細’의 술어이지만, 앞으로 前置되어 강조의 효과를 갖는다.

3) 接尾詞

452)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448쪽.

453)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224쪽.

45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695쪽.

楊伯峻·何樂士는 접사(語綴助詞)에 대해, 다른 단어에 붙어 그 단어의 부가성분이 되고, 그들이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뜻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뜻을 강조하거나 모종의 표지 작용을 하는 품사라고 정의하였다.⁴⁵⁵⁾

《老子》에는 접사 중에 오직 접미사만 출현하며, ‘然’과 ‘焉’이 쓰인다.

(1) 然

‘然’의 본의는 ‘燃燒’(연소하다)이지만, ‘然’은 대명사, 접속사, 부사, 조사, 어기사로도 쓰인다. 허사로 쓰이는 경우, ‘然’은 ‘尔(이)’의 假借字라 할 수 있으며 본래의 뜻과는 무관하다.⁴⁵⁶⁾ 접미사 ‘然’은 동사, 형용사, 부사와 결합한다.

《老子》에서 접미사 ‘然’은 형용사와 결합한 형태만 출현한다. ‘형용사+然’ 구조는 문장에서 부사어나 술어로 사용된다. 3회 출현한다.

(208) 雖有榮觀, 燕處超然. 《老子·26章》

(비록 성대한 볼거리가 있어도, 편하게 머물며 초연하다.)

(209) 使我介然有知, 行於大道, 唯施是畏. 《老子·53章》

(만약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큰길에서 다닐지라도, 오직 비탈길만은 두렵다.)

(210) 繹然而善謀. 《老子·73章》

(느슨하지만 잘 도모한다.)

위 예(208)의 ‘燕處超然’에서 ‘燕處’는 ‘安居(편안히 머물다)’의 의미이다. ‘超然’은 형용사 ‘超’의 뒤에 접미사 ‘然’이 결합한 형태로서 문장의 술어이다. ‘超’는 ‘고상하여 속세를 넘어선 모양’을 형용하는 형용사로 쓰였다.⁴⁵⁷⁾

예(209)의 ‘介然’은 형용사 ‘介’의 뒤에 접미사 ‘然’이 붙은 형태로서, 술어동사 ‘有’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介’는 ‘微小(아주 작다)’라는 뜻이다.⁴⁵⁸⁾ ‘使’는 ‘假使’의 의미로서 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이다.

예(210)의 ‘繹然’도 형용사 ‘繹’과 접미사 ‘然’의 결합 형태로서 문장의 술어로 쓰인다. ‘繹’은 ‘넉넉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455)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493쪽.

45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0, 442쪽.

457) 趙榮珣, 《老子道德經語法讀本》, 上海辭書出版社, 2013, 115쪽.

458)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51쪽.

(2) 焉

고대중국어에서 ‘焉’은 용법이 다양하여 대명사, 겸사, 부사, 어기사, 조사 등으로 쓰일 수 있다.⁴⁵⁹⁾ 그중 ‘焉’이 접미사로 쓰인 용례가 아래의 예(211)에 1회 보인다.

(211) 聖人在天下, 歙歙焉, 爲天下渾其心. 《老子·49章》

(성인이 천하에 있을 적에는,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천하 사람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혼연하게 한다.)

위 예(211)에서 ‘歙歙焉’은 ‘歙’이 중첩되어 그 뒤에 조사 ‘焉’이 첨가된 형태로, ‘AA焉’의 구조이다. 형용사에 조사 ‘焉’을 더하면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⁴⁶⁰⁾ ‘A焉’이나 ‘AA焉’이 부사어로 쓰일 경우 ‘焉’을 부사어의 뒤에 붙은 구조조사로 보는 설이 있지만, 사람들의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다.⁴⁶¹⁾ ‘歙歙’은 ‘두려워하는 모양’을 뜻하며, 성인이 자신을 경계하는 모양을 나타낸다.⁴⁶²⁾ 반면, ‘歙’은 《說文解字》에 ‘縮鼻’(공기를 마시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여 ‘收斂’(줄이다)는 의미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⁴⁶³⁾ 그러나 ‘歙’가 동사라면, ‘歙歙焉’의 구조는 중첩 동사와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가 되므로 틀린 문장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河上公注의 설명이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先秦 문헌에서도 ‘焉’이 접미사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12) 彼將厲厲焉日日相離疾也. 《荀子·王制》

(다른 나라는 장차 (군주와 신하들 관계가) 찬바람이 뽀뽀 부는 듯이, 날이 갈수록 서로 멀어지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459)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223쪽.

460)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修訂本), 語文出版社, 2012, 500쪽.

461) 呂炳昌, <上古漢語中的“焉”字考-以《荀子》中的“焉”字爲例>, 《中語中文學》第33輯, 2003, 12쪽.

462) 河上公本에 ‘歙歙’은 ‘怵怵’(두려워하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다. 吳怡, 《新譯老子解義》, 三民書局印行, 1994, 386쪽.

463) 陳鼓應,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237쪽.

(213) 宋其興乎! 禹湯罪己, 其興也悖焉; 桀紂罪人, 其亡也忽焉. 《左傳·莊公十一年》

(송나라는 흥하겠구나! 옛날 우왕과 탕왕은 자기 자신을 꾸짖음으로써, 나라가 흥함이 번쩍 일어났고, 걸왕이나 주왕은, 남에게 책임을 돌렸기에 나라가 망함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위 예(212)와 예(213)은 형용사의 뒤에 접미사 ‘焉’이 붙어 ‘형용사+焉’ 형태가 쓰인 문장이다. 이때 형용사는 중첩되어 쓰일 수 있다.

예(212)의 ‘厲厲焉’은 ‘AA焉’의 형태로 형용사 ‘厲’이 중첩되어 접미사 ‘焉’과 결합하였다. 문장의 부사어로 쓰인다. ‘厲厲’은 ‘찬 바람이 뽕뽕 부는 모양’을 뜻한다. 예(213)의 ‘悖焉’은 ‘A焉’의 형태로 문장의 술어로 쓰였다. ‘悖’는 ‘盛貌’(왕성한 모양)를 뜻한다.

2. 助詞 用法 特徵

《老子》에 사용된 조사는 ‘之’, ‘所’, ‘者’, ‘是’, ‘然’, ‘焉’,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 24개가 출현한다. 본고는 이들을 구조조사, 어기조사, 접미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조조사는 ‘之’, ‘所’, ‘者’, ‘是’가 있으며, 총 155회 출현한다. 이들은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용법과 詞序에 변화를 주어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용법은 ‘之’, ‘所’, ‘者’가 쓰이고,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용법은 ‘之’와 ‘是’가 있다.

《老子》에 사용된 구조조사의 종류 및 용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5-1>과 같다.

<표5-1> 構造助詞 種類 및 用法

구 분		之	所	者	是	합계	비율(%)
명사성 편정구 표시	명사(구)+之+명사	41					
	형용사(구)+之+명사	6					
	동사(구)+之+명사	18					
	수량사+之+명사	2					
	시간명사+之+명사	3					
	의문사+之+명사	1					
	(대)명사+之+所+동사	8					
	‘之’ 소계	71				71	46
	所+동사		12				
	有所/無所+동사(구)		7				
	所以…者		4				
	‘所’ 소계		19			19	12
	수량사+者			6			
	동사(구)+者			44			
	형용사(구)+者			11			
	‘者’ 소계			61		61	39
	‘명사성 편정구 표시’ 합계	71	19	61		151	97
	목적어 전치 표시	3			1	4	3
	합 계	74	19	61	1	155	100
비율(%)	48	12	39	1	100		

위 표를 보면, 《老子》에 사용된 구조조사는 총 155회 출현한다. 그중 ‘之’가 74회(4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者’는 61회(39%), ‘所’는 19회(12%) 사용되었다.

구조조사 ‘之’는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용법이 71회, 목적어 전치 표시 용법으로 3회 출현한다. 명사성 편정구는 ‘之’와의 결합 형태에 따라, ‘명사(구)+之+명사’, ‘형용사(구)+之+명사’, ‘동사(구)+之+명사’, ‘수량사+之+명사’, ‘시간명사+之+명사’, ‘의문대명사+之+명사’, ‘(대)명사+之+所+동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중 ‘명사(구)+之+명사’가 41회, ‘동사(구)+之+명사’가 18회 사용되어 다른 결합형태보다 출현횟수가 많았다. 또한 ‘之’가 목적어 전치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인 경우는 3회로, ‘是’(1회)보다 자주 사용되었다.

《老子》에 사용된 語氣助詞는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 18개가 있다.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文頭 語氣助詞, 文中 語氣助詞, 文末 語氣助詞로 나누어 그 용법과 사용 빈도를 고찰하였다.

文頭 語氣助詞는 ‘蓋’, ‘夫’, ‘載’, ‘故’가 있으며 발언 시작의 어기를 나타낸다. 文中 語氣助詞는 ‘之’, ‘其’, ‘也’, ‘者’, ‘兮’, ‘矣’가 있으며, 휴지나 음절 조정, 또는 제시·원인·가정 등의 어기를 나타낸다. 文末 語氣助詞는 ‘也’, ‘者’, ‘兮’, ‘矣’, ‘乎’, ‘焉’, ‘已’, ‘與’, ‘邪’, ‘哉’, ‘也哉’, ‘也夫’가 있으며, 진술·의문·감탄의 어기 등을 나타낸다.

《老子》에 사용된 어기조사의 종류 및 용법별 사용 빈도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5-2>와 같다.

<표5-2> 《老子》의 語氣助詞 種類 및 用法

구분	文頭	文中				文末			계	비율 (%)
	발언 시작	休止·음절 조정	제시	원인	가정	진술	의문	감탄		
蓋	1								1	1
夫	20								20	15
載	1								1	1
故	1								1	1
之		9							9	7
其		1							1	1
也		6				9			15	11
者			7	4	9		1		21	16
兮		25						2	27	20
矣		3				8			11	8
乎		1					9		10	7
焉						5			5	3
已						2			2	1
與							1		1	1
邪							3		3	2
哉							4	1	5	3
也哉								2	2	1
也夫								1	1	1
계	23	45	7	4	9	24	18	6	136	100
비율(%)	17	33	5	3	7	18	13	4	100	

위 표를 보면, 《老子》에 쓰인 어기조사는 총 136회 출현한다. 어기조사의 종류에 따른 출현빈도는, 兮(27회, 20%)>者(21회, 16%)>夫(20회, 15%)>也(15회, 11%)>矣(11회, 8%)>乎(10회, 7%)>之(9회, 7%)>焉·哉(5회, 3%) 등의 순이다. 어기조사의 위치에 따른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문중(65회, 48%)>문말(48회, 35%)>문두(23회, 17%)의 순으로, 문중 어기조사의 사용률이 가장 많았다. 이는 ‘兮’, ‘之’, ‘也’, ‘矣’, ‘其’ 등 휴지나 음절 조정을 표시하는 어기조사가 활발히 쓰인 까닭이라 하겠으며, 이는 《老子》의 韻文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兮’는 총 27회 쓰여, 어기조사 중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休止·음절조정 표시의 문중 어기조사로 25회 사용되고, 감탄 어기 표시의 문말 어기조사로 2

회 쓰였다. 戰國時期 저작인 《左傳》에서 어기조사 ‘兮’가 단 2회 출현하는 것과 비교하면,⁴⁶⁴ 어기조사 ‘兮’의 분석 결과를 통해 《老子》가 散文體 문헌에서 볼 수 없는 韻文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者’는 어기조사 중 가장 다양한 용법으로 쓰였다. 총 21회 중에, 가정(9회)>제시(7회)>원인(4회)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중 어기조사로 20회 사용되고,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 어기조사로 1회 쓰였다.

‘也’는 진술의 어기를 표시하는 문말 어기조사(9회)와 休止를 표시하는 문중 어기조사(6회)로 사용되었다. 어기조사 ‘也’는 王弼本(魏晉)에 2회 쓰이고, 敦煌本(唐代)에는 전혀 출현하지 않는데, 簡本·帛書本·傅奕本 등 古本을 참고하여 校訂된 本稿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戰國시기에 어기조사 ‘也’는 文中과 文末에서 여전히 활발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老子》에 사용된 접사 중에는 단어의 끝에 붙은 부가 성분인 접미사만 출현 하며, ‘然’과 ‘焉’이 쓰이며, 4회이다. 조사 중 접미사는 3%에 해당한다. ‘然’은 ‘형용사+然’의 형태가 3회 쓰인다. ‘焉’은 단음절 형용사가 중첩하여 결합한 ‘AA+焉’의 형태가 1회 사용된다.

464) 何樂士는 《左傳》에 쓰인 ‘兮’가 어기조사로 쓰인 용례는 2회이며, 감탄의 어기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413쪽.

VI. 結論

그간 많은 학자가 先秦 시기의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先秦 시기의 어법 체계 역시 상당한 연구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老子》에 대한 문법적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고대 중국어의 문헌을 해석할 때 허사의 용법 이해는 고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戰國 시기 문헌인 《老子》에 쓰인 허사를 정량 조사하여 허사의 용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老子》의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를 품사별로 용법에 따라 분석하고,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老子》의 허사 용법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老子》의 부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老子》에 사용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既’, ‘終’, ‘常’, ‘復’, ‘又’, ‘亦’,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등 총 34개가 사용되며, 총 447회 출현하였다. 이들은 부정·시간·정도·상태·범위·추측·관계 표시 등 7가지 용법으로 쓰였다.

1) 부정 표시

부정 표시 부사는 ‘不’, ‘弗’, ‘非’, ‘未’, ‘無’, ‘勿’이 있으며, 총 271회 출현하여 60%에 해당한다. 이들 중 ‘不’, ‘弗’, ‘非’, ‘未’, ‘無’는 진술 부정을 표시하며, ‘無’와 ‘勿’은 금지 부정을 표시한다. ‘不’는 236회 쓰여 부정부사의 87%에 해당하였다.

2) 시간·빈도 표시

시간·빈도를 표시하는 부사는 ‘將’, ‘既’, ‘終’, ‘常’, ‘復’, ‘又’, ‘亦’이 있으며, 총 59회 출현하여 13%에 해당한다. 이 중 동작 행위의 발생 시간 표시 부사는 ‘將’, ‘既’, ‘終’으로 28회 쓰였다. 동작 행위의 지속성 표시 부사는 ‘常’이 있으며 15회 쓰였다. 동작 행위의 빈도 표시 부사는 ‘復’, ‘又’, ‘亦’이 있으며 16회 쓰였다.

3) 정도 표시

정도 표시 부사는 ‘彌’, ‘愈’, ‘滋’가 있으며, 9회 출현하여 2%에 해당한다.

4) 상태 표시

상태 표시 부사는 ‘固’, ‘誠’, ‘豈’, ‘自’, ‘故’가 있으며, 22회 출현하여 5%에 해당한다.

5) 범위 표시

범위 표시 부사는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이 있으며, 48회 출현하여 11%에 해당한다.

6) 추측 표시

추측 표시 부사는 ‘其’, ‘恐’, ‘或’, ‘必’가 있으며, 26회 출현하여 6%에 해당한다.

7) 관계 표시

관계 표시 부사는 ‘乃’만 쓰이며 앞뒤 두 항의 연결의 의미를 표시한다. 12회 출현하여 3%에 해당한다.

《老子》의 부사 용법은 부정표시(271회, 60%)>시간표시(59회, 13%)>범위표시(48회, 11%)>추측표시(26회, 6%)>상태표시(21회, 5%)>관계표시(12회, 3%)>정도표시(9회, 2%)의 순으로 사용된다. 부정 표시 부사가 271회 쓰여,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둘째, 《老子》의 전치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老子》의 전치사는 ‘於’, ‘以’, ‘爲’, ‘與’, ‘當’, ‘自’ 등 6개가 있다. 이들이 사용된 전치사구의 용법 및 통사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치사의 용법 분석

전치사 ‘於’, ‘以’, ‘爲’, ‘與’, ‘當’, ‘自’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보어나 부사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의 시간·대상·장소·도구·방식·근거·원인·피동을 표시한다.

1) 시간 표시

전치사 ‘於’와 ‘自’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표시한다. 총 4회 출현하여 3%에 해당한다. ‘於’ 전치사구는 보어로 2회, 부사어로 1회 쓰이며, ‘自’ 전치사구는 부사어로만 1회 쓰였다.

2) 대상 표시

전치사 ‘於’, ‘以’, ‘爲’, ‘與’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또는 상태)의 대상을 표시한다. 총 26회 출현하여 23%에 해당한다. 비교의 대상 표시와 동작 행위의 대상 표시로 세분하였다. ‘於’ 전치사구는 비교의 대상 표시는 13회, 동작 행위의 대상 표시는 3회이다. ‘以’ 전치사구, ‘爲’ 전치사구, ‘與’ 전치사구는 동작 행위의 대상을 표시하며, 각각 5회, 2회, 3회 사용된다.

3) 장소 표시

전치사 ‘於’와 ‘當’은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표시한다. 총 26회 출현하며 23%에 해당한다. 동작 행위의 기점·근원, 발생 장소, 도달 장소로 세분하였다. ‘於’ 전치사구는 동작 행위의 기점·근원 표시가 10회,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 표시가 8회, 동작 행위의 도달 장소 표시가 5회이며, 모두 술어의 뒤에서 보어로 쓰였다. ‘當’ 전치사구는 동작 행위의 발생 장소 표시로 3회 쓰이며 부사어로만 쓰였다.

4) 도구 표시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3회 출현한다. 보어로 1회, 부사어로 2회 쓰였다.

5) 방식 표시

전치사 ‘以’만 해당하며, 42회 출현하였다. 이는 전체 전치사의 36%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부사어로 41회, 보어로 1회 사용되었다.

6) 근거 표시

전치사 ‘於’와 ‘以’는 동작 행위의 근거를 소개하였다. 총 13회 출현하여 10%에 해당하였다. ‘於’ 전치사구가 근거를 표시한 경우는 1회이며 보어로 쓰였다. ‘以’ 전치사구는 부사어로 12회 쓰였다. 이 중에 문장의 술어가 생략되어 ‘以’ 전치사구가 단독으로 술어 성분이 된 경우가 4회 출현하였다.

7) 원인 표시

전치사 ‘以’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작 행위의 원인을 표시하며, 1회 사용되었다. ‘是以’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서 부사어로 쓰인 경우이다.

8) 피동 표시

전치사 ‘爲’는 목적어와 결합하여 행위의 주동자를 표시한다. 1회 출현하며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2. 전치사구의 통사 구조

1) 전치사와 목적어의 결합 형태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결합 형태는 ‘전치사+목적어’, ‘목적어+전치사’, ‘전치사+(목적어 생략)’의 3가지로 구분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뒤에 놓이지만, 전치사 ‘以’와 결합한 목적어의 형태는 전치되거나 생략될 수 있었다. 전치사 ‘以’의 경우, ‘以+목적어’, ‘목적어+以’, ‘以+(목적어 생략)’의 출현 빈도는 29 : 6 : 28의 비율로 사용되어, ‘以’의 목적어가 전치되거나 ‘以’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2) 전치사 목적어의 의미 분석

전치사의 목적어를 의미에 따라 유정물, 무정물, 동작 행위, 추상적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중 추상적 개념 목적어는 40회(34%), 무정물 목적어는 20회(18%), 동작 행위 목적어는 16회(14%), 유정물 목적어는 12회(10%) 사용되었다. 추상적 개념의 목적어가 가장 많이 쓰인 까닭은 술어 동작의 근거를 소개하는 전치사 용법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전치사구와 술어의 결합 형태

전치사구가 사용된 문장의 술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타동사 45회(78%), 자동사 10회(16회), 형용사 12회(18%)이다. 또한 전치사구가 쓰인 문장에서 술어가 생략된 용례도 4회 출현하였는데, 비록 술어가 생략되었으나 앞의 문장을 통해 생략된 술어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술어 생략의 경우는 전치사 ‘以’가 쓰인 문장만 해당하였다.

셋째, 《老子》의 접속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老子》의 접속사는 且, 與, 而, 以, 斯, 則, 安, 然後, 而後, 而況於, 雖, 爲, 故, 是以, 是故, 其, 使, 若, 若使, ‘之’ 등 20개가 있으며 총 330회 출현한다. 이들은 연결된 앞뒤 항과의 의미에 따라 병렬, 연결, 전환, 점층, 양보, 인과, 가정 관계를 표시하며, ‘주어+之+술어’의 ‘之’는 특수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접속사 ‘而’와 ‘以’는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었다. 접속사 ‘而’는 연결·전환·병렬·점층 관계를 표시하는 등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출현 횟수도 가장 많았다. ‘以’는 연결·인과·가정 관계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나머지 접속사는 대체로 하나의 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접속사의 용법별 출현 횟수는 인과 관계 표시 용법이 110회(3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인과 복문에서 원인 표시 접속사는 ‘以’와 ‘爲’가 쓰이며, 결과 표시 접속사는 ‘故’, ‘是以’, ‘是故’, ‘安’이 쓰였다.

‘주어+之+술어’ 구는 접속사 ‘之’가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임으로 인해 독립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고,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 또는 복문 중의 단문으로 사용되었다. ‘주어+之+술어’ 구조가 복문 중의 단문으로 사용된 용례는 ‘주어+之+술어’ 구조 중 44%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어+之+술어’의 ‘之’는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넷째, 《老子》의 조사 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老子》에 사용된 조사는 ‘之’, ‘者’, ‘所’, ‘是’, ‘蓋’, ‘夫’, ‘載’, ‘故’, ‘乎’, ‘其’, ‘也’, ‘矣’,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然’, ‘焉’ 등 22개가 있다. 이들은 구조조사, 어기조사, 접미사로 분류된다.

1. 구조조사

구조조사는 ‘之’, ‘者’, ‘所’, ‘是’가 있으며 총 155회 출현한다.

1)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 ‘之’, ‘者’, ‘所’

‘之’는 명사성 편정구를 만드는 구조조사이며, 71회 출현한다. ‘者’는 수사, 동사(구)나 형용사(구)의 뒤에 놓여 명사성 성질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며, 61회 출현한다. ‘所’는 동사(구)의 앞에 놓여 명사구로 바꾸는 구조조사이며, 19회 출현한다.

2) 詞序에 변화를 주는 구조조사: ‘之’, ‘是’

목적어를 술어의 앞으로 전치시켜 사서에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조사는 ‘之’와 ‘是’가 쓰였다. ‘之’는 3회 쓰이며, ‘是’는 1회 쓰였다.

2. 어기조사

어기조사는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등 18개가 있으며 총 135회 출현한다. 이들은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문두·문중·문말 어기조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문두 어기조사

‘蓋’, ‘夫’, ‘載’, ‘故’는 문장의 첫머리에서 발언의 시작을 알린다. 총 23회 출현하며 전체 어기조사의 17%에 해당하였다. ‘夫’가 20회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蓋’,

‘載’, ‘故’의 발어사 용법도 발견할 수 있었다.

2) 문중 어기조사

‘之’, ‘其’, ‘也’, ‘者’, ‘兮’, ‘矣’, ‘乎’가 있으며 문장의 중간에서 휴지·어기 완화·음절 조정 등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총 65회 출현하며 전체 어기조사의 48%에 해당하였다.

문중 어기조사의 사용률이 높은 것은 ‘兮’, ‘之’, ‘也’, ‘矣’, ‘其’ 등 휴지나 음절 조정을 표시하는 어기조사가 활발히 쓰인 까닭이다. 특히 ‘兮’는 총 27회 출현하여 어기조사 중 가장 높은 출현횟수를 보이는데, 이중 文中에서 휴지표시나 음절 조정의 용법으로 25회 사용되었다.

3) 문말 어기조사

‘乎’, ‘焉’, ‘兮’, ‘也’, ‘邪’, ‘與’, ‘矣’, ‘已’, ‘哉’, ‘者’, ‘也哉’, ‘也夫’가 있다. 총 48회 출현하며, 전체 어기조사의 35%에 해당한다. 이들은 진술·의문·감탄의 어기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① 진술의 어기: ‘也’, ‘矣’, ‘已’, ‘焉’

‘也’는 판단문이나 진술문의 끝에 쓰여 확인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矣’는 진술문에서 변동적인 사실을 나타내거나 이미 이루어졌음을 표시하고, 또한 판단문의 끝에서 진술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已’는 ‘了’에 해당하며, ‘焉’은 ‘也’에 해당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② 의문의 어기: ‘乎’, ‘與’, ‘邪’, ‘哉’, ‘者’

‘乎’, ‘邪’, ‘哉’, ‘者’는 의문이나 반문의 어기를 표시하며, ‘者’는 다른 의문사와 함께 출현하였다. ‘與’는 추측의 의문 어기를 표시하였다.

③ 감탄의 어기: ‘兮’, ‘哉’, ‘也哉’, ‘也夫’

‘兮’, ‘哉’, ‘也哉’, ‘也夫’는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也哉’, ‘也夫’는 두 개의 어기 조사가 결합한 형태인데 초점이 뒷글자에 있어 감탄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3. 접미사

접미사는 ‘然’, ‘焉’이 있으며 4회 출현한다. 이들과 결합한 단어는 문장에서 술어나 부사어 역할을 한다. ‘然’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나 술어로 쓰였다. ‘焉’은 중첩된 단음절 형용사와 결합하여 ‘AA焉’ 구조가 되며 문장의 부사어로 쓰였다. ‘乎’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상술한 허사 용법의 분석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以’, ‘爲’, ‘之’, ‘其’, ‘者’, ‘故’ 등 일부 허사의 검류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6-1> 과 같다.

<표6-1> 《老子》 虛詞의 兼類 現像

구분	以	爲	之	其	者	故
전치사	63	3				
접속사	39	1	32	1		57
구조조사			74		61	
어기조사			9	1	21	1
부사				6		1
계	102	4	115	8	82	59

1. 以

‘以’는 총 102회 출현한다. 전치사는 63회, 접속사는 39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치사: ‘以’ 전치사구는 대부분 부사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의 대상, 근거, 도구, 방식, 원인을 표시한다. 보어로 쓰인 경우는 2회에 불과했으며, 이때 동작 행위의 도구와 방식을 표시하였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의 뒤에 놓이는데, 전치사 ‘以’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前置되거나 심지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2) 접속사: 접속사 ‘以’는 연결·인과·가정 관계를 표시하였다.

2. 爲

‘爲’는 4회 출현한다. 전치사는 3회, 접속사는 1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치사: ‘爲’ 전치사구는 동작 행위의 대상이나 피동을 표시하며 문장의 부사어로 쓰였다.

2) 접속사: 접속사 ‘爲’는 인과 복문의 원인 표시 용법으로 쓰였다.

3. 之

‘之’는 총 115회 출현한다. 접속사는 32회, 구조조사는 74회, 어기조사는 9회 쓰

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속사: 접속사 ‘之’는 ‘주어+之+술어’ 형태로, 주어와 술어의 사이에 쓰여 이들은 연결하며, 이 ‘之’자구는 독립성이 파괴되어 문장 중 하나의 성분이 되거나 복문 중 하나의 단문으로 바뀌게 된다.

2) 구조조사: 구조조사 ‘之’는 명사성 수식 구조임을 표시하거나 목적어 전치를 표시했다.

3) 어기조사: 어기조사 ‘之’는 문중에서 休止 표시나 음절 조정을 표시하였다.

4. 其

‘其’는 8회 출현한다. 접속사는 1회, 어기조사는 1회, 부사는 6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속사: 접속사 ‘其’는 가정 표시 용법으로 쓰였다.

2) 부사: 부사 ‘其’는 추측 표시 부사로 쓰였다.

3) 어기조사: 어기조사 ‘其’는 문중에서 휴지를 표시하였다.

5. 者

‘者’는 82회 출현한다. 구조조사는 61회, 어기조사는 21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조사: 구조조사 ‘者’는 명사성 편정구 표시 용법으로 쓰였다.

2) 어기조사: 어기조사 ‘者’는 文中에서 주어제시·원인·가정의 어기를 표시하며, 文末에서 의문의 어기를 표시하였다.

6. 故

‘故’는 59회 출현한다. 접속사는 57회, 어기조사는 1회, 부사는 1회 쓰였다.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속사: 접속사 ‘故’는 인과복문에서 결과를 표시하였다.

2) 어기조사: 어기조사 ‘故’는 文頭에서 발언의 시작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이때 앞 문장과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접속사로 분류할 수 없다.

3) 부사: 부사 ‘故’는 ‘本來’의 의미를 나타내며, 앞 문장과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접속사로 분류할 수 없다.

【參考文獻】

1. 著書類

- 憨山지음·오진탁 옮김, 《감산의 老子 풀이》, 서광사, 1990.
- 高明, 《帛書老子校注》, 中華書局, 1996.
- 高亨, 《老子正詁》, 開明, 1949.
- 郭錫良 主編, 《古漢語語法論集》, 語文出版社, 1998.
- _____,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中華書局, 2014.
- 郭錫良·李玲璞主編, 《古代漢語》(上·下), 語文出版社, 1993.
- 김경수 역주, 《老子譯註》, 도서출판 문사철, 2015.
-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1994.
- 김학목 譯,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 홍익출판사, 2014.
- 김학주 譯, 《노자》, 연암서가, 2011.
- 唐子恒, 《文言語法結構通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 鄧福南 著·宋龍準 譯, 《現代中國語 文法の 諸問題》, 중문출판사, 1992.
- 廖序東, 《文言語法分析》, 上海教育出版社, 1981.
-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中華書局, 1994.
- 朴庸鎭·崔南圭·陳明鎬 共著, 《郭店楚墓竹簡1 老子考釋》, 圖書出版 德, 2011.
- 박원기, 《중국어와 문법화: 현대중국어의 탄생》, 學古房, 2012.
- 方有國, 《上古漢語語法研究》, 巴獨書社, 2007.
- 白兆麟, 《〈鹽鐵論〉句法研究》, 商務印書館, 2003.
-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編, 《北京大學藏西漢竹書·貳》, 上海古籍出版社, 2012.
- 沙少海·徐子宏, 《老子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5.
- 徐中舒主編,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0.
- 安炳國, 《孟子 漢文 文法の 構造 分析》, 에피스테메, 2018.
- 楊伯峻, 《古漢語虛詞》, 中華書局, 1981.

- _____, 《論語譯註》，中華書局，1994.
- _____, 《孟子譯註·孟子詞典》，中華書局，1992.
- _____, 《文言文法》，中華書局，1987.
-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下)(修訂本)，語文出版社，2012.
- 楊樹達，〈馬氏文通刊誤〉，上海古籍出版社，1991.
- 양희석 주해，〈文으로 읽는 노자 도덕경〉，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2018.
- 呂叔湘，〈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2014.
- 呂叔湘·王海棻 編，〈馬氏文通讀本〉，上海教育出版社，2000.
- 倪志儔，〈論孟虛字集釋〉，臺灣商務印書館，1981.
- 吳怡，〈新譯老子解義〉，三民書局印行，1994.
- 王寧 等 編著，〈古代漢語通論〉，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6.
- _____, 〈古代漢語〉第1冊，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1989.
- _____, 〈古代漢語〉第2冊，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1989.
- 王力，〈漢語史考〉，山東教育出版社，1988.
- 王文格，〈四書語言分析〉，四川大學出版社，2005.
- 王弼，〈老子注〉，〈諸子集成〉三，中華書局，1990.
- 王弼注，樓宇烈校釋，〈老子道德經注校釋〉，中華書局，2008.
- 饒尚寬 譯註，〈老子〉，中華書局，2016.
- 殷國光，〈呂氏春秋詞類研究〉，華夏出版社，1987.
- 李林，〈古代漢語語法分析〉，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6.
- 이석명，〈노자도덕경하상공장구〉，소명출판，2005.
- 張玉金 主編，〈古今漢語虛詞大詞典〉，遼寧人民出版社，1996.
- _____, 〈甲骨文語法學〉，學林出版社，2001.
- _____, 〈西周漢語語法研究〉，商務印書館，2004.
- 趙榮珮，〈老子道德經語法讀本〉，上海辭書出版社，2013.
- 조은정，〈죽간에 반영된 《老子》의 언어〉，PB PRESS，2019.
- 朱德熙，〈語法講義〉，常務印書館，1982.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古代漢語研究室編，〈古代漢語虛詞詞典〉，商務印書館，2000.
- 中中韓辭典編纂委員會，〈연세中中韓辭典〉，2015.

-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商務印書館, 2016.
- _____, 《老子注譯及評價》, 中華書局, 2016.
- 陳光磊, 《漢語詞法論》, 學林出版社, 1994.
- 何樂士, 《《左傳》語法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12.
- _____, 《《左傳》虛詞研究(修訂本)》, 常務印書館, 2004.
- _____, 《史記語法特點研究》, 常務印書館, 2007.
- 許威漢, 《先秦文學及語言例論》, 中州古籍出版社, 1984.
- 荊門市博物館編, 《郭店楚墓竹簡·老子甲乙丙》, 文物出版社, 2002.
-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1983.

2. 論文類

- 谷松·金曉哲, <略論《傷寒論》中“而”字的用法>, 《대한한의학회지》, 2011. 1.
-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第6期, 1998.
- 裘錫圭, <說‘以’>, 《古文字論集》, 中華書局, 1992.
- 邱淵, <先秦文獻成書時代述略>, 《安慶師範學院學報》, 2008年 11月.
- 弓海濤, <楚簡句法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권기태, <《老子道德經憨山解》에 나타난 佛敎와 道家思想의 比較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蘄敏, <從語法化視角看副連兼類詞的來源及演變>, 《現代語文》, 2019年 第6期.
- 김애실, <《老子》의 語氣詞 用法 考察>, 《건지인문학》제30집, 2021.
- 김애실·양만기, <《老子》의 否定詞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73집, 2019.
- _____, <《老子》의 接續詞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제76집, 2020.
- 김애실·이영호, <《老子》의 前置詞句 研究>, 《언어학연구》제24권 2호, 2019.
- 김영철, <《韓非子》統治論의 哲學的 根據>,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金銀珠, <先秦詩歌 句中語氣助詞 研究>, 《中國人文科學》제15집, 1996.
- 羅祥義, <出土先秦文獻語氣詞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 龍丹萍, <郭店楚簡《老子》詞類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龍向平, <“當”字副詞、介詞、連詞用法的形成—“當”字語法化及其演變機制淺析>, 《凱里學院學報》, 2012年 10月.
- 劉凌, <戰國楚簡連詞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 李強, <《孟子》“其”字結構和功能分析>, 《名作欣賞》, 2020年 第4期.
- 李雨桑, <狀中短語中“而”的狀語標記化>, 《貴州工程應用技術學院學報》, 2018年 第1期.
- 李運富·孫倩, <論漢語社會語法化與用字變化的互動關係>,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0年 第2期.
- 李軼坤, <《論語》語氣詞的功能類型考察>, 《語文建設》, 2013年 10月.
- 武遠佳, <連詞“不過”探源>, 《忻州師範學院學報》, 2019年 12月.
- 박상령, <고대한어 부사의 정의>, 《인문사회과학연구》제20집, 2008.
- 박향란, <고대 중국어 而의 문법화 연구>, 《언어과학연구》제84집, 2018년 3월.
- 백은희, <《左傳》의文末虛詞“矣”字的用法考察>, 《中國文學》제25집, 1996.
- _____, <고대중국어 지시사 ‘夫’의 문법화와 소실 과정에 대한 연구>, 《中國言語研究》제74집, 2018.
- 白兆麟, <《老子》複句辨析>, 南京,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8年 12月.
- _____, <《老子》之“一”字考釋>, 《杭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年 第3期.
- 邊滢雨, <《論語》에 나타난 몇 가지 副詞에 대한 考察>, 《中國語文論譯叢刊》, 2004.
- 符勁, <《論語》介詞“於”字考察>, 《文學藝術》總第 138期, 2014.
- 謝玉蓮, <《莊子》 접속사 ‘而’에 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謝俊濤, <《老子》句型研究>, 揚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徐正考·張歡, <先秦漢語“唯”的詞性及其發展演變-語法化的逆過程>, 《華夏文化論壇》第21輯, 2019.
- 薛儒章, <‘莫’字用法辨析>, 《天津師大學報》, 1987年 第4期.
- 蘇穎, <上古漢語“則”的多功能來源及其關聯模式>, 《古漢語研究》, 2019年 第1期.
- 蕭海芳, <郭店楚墓竹簡單純否定副詞研究>, 《廣西職業技術學院學報》, 第8卷 第1期, 2015.
- 孫冰潔, <《莊子》“以”字用法分析>, 《現代語文》, 2012. 8.
- 孫惠惠·吳開兵, <《老子乙本卷前古佚書》副詞初探>, 《咸寧學院學報》, 2010年 10月.
- 宋斌, <馬王堆帛書《老子》虛詞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施佳虹, <古漢語“蓋、且、故、今”語法化過程考察>, 浙江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 時兵·白兆麟, <從合助詞再論古漢語語氣副詞的功能>, <杭州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1年 第5期.
- 안기섭·정성임·박상령, <古代漢語 문장성분과 품사에 관한 논의(1)>, <中國人文科學> 32輯, 2006.
- 안재철, <‘以’의 몇 가지 用法 考察>, <中國文學研究> 제59집, 2015.
- 양만기, <《老子》 ‘以’字 用法 考察>, <中國人文科學> 제66집, 2017.
- 楊萌萌, <“主之謂”結構的句法>, <中國語文>, 2019年第3期.
- 楊雪麗, <“無指代詞”新論-先秦文獻中的“莫”、“靡”、“罔”、“無”>,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4年 7月.
- 양희석, <노자의 수사학(1)-음성반복과 어구반복->, <中國人文科學> 제73집, 2019.
- 呂炳昌, <上古漢語中的“焉”字考-以『荀子』中的“焉”字爲例>, <中語中文學> 제33집, 2003.
- _____, <《荀子》 “以”字 用法研究>, <中國語文學論集> 第25號, 2003.
- _____, <3部 經典 中的 “以”字 用法 比較研究-《論語, 孟子, 荀子》->, <中國文學研究> 제33집, 2006.
- 吳金花, <漢語動詞介詞化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 오만중, <善의 意味로 본 《老子》의 道>, <中國人文科學> 제51집, 2012.
- 王景艷, <《論語》中“以”的用法>, <濱州師專學報>, 2004年 9月.
- 王克平, <《荀子》中連詞‘而’的分析>, 北京, <漢字文化>, 2020年 第1期.
- 王琴, <《老子》反義詞研究>, <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 2005年 第3期.
- 王立穎, <《左傳》“以”字的用法考察>, <湖北函授大學學報>, 2014年 8月.
- 王帆, <關於《老子》創作年代的再考証>, <河南社會科學>, 2010年 第1期.
- 王鬱, <連詞‘而’的用法分析>, <語言文字學術研究>, 2018年 12月.
- 王全喜, <《孟子》否定副詞考察>, <淮北職業技術學院學報>, 2015年 6月.
- 王志東, <《老子》中介詞“以”的用法研究>, <哲學與人文科學>, 2015.
- 王鴻濱, <《春秋左傳》介詞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 魏培泉, <古漢語介詞“於”的演變略史>,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六十二本 第四分, 1993.
- 尹曉婷, <《詩經》語氣詞研究>, 湖北師範學院 碩士學位論文, 2015.

- 張耿光, <《莊子》中的否定詞與否定句—《莊子》語言分析之一>, 《貴州大學學報》, 1995年 第3期.
- 張麗靜, <郭店楚簡《老子》甲組虛詞探析>, 《哈爾濱學院學報》, 第39卷 第5期, 2018.
- 張福德, <《史記》中的“以”字析論>, 《古漢語研究》, 1997年 第1期.
- 章楊, <《韓非子》介詞“於”研究>, 安徽大學 碩師學位論文, 2015.
- 張艷, <帛書《老子》詞匯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張鈺, <《郭店楚墓竹簡》虛詞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 張玉金, <談今本《老子》中被刪掉的虛詞>, 《中國語文》, 2008年 第5期, 2008.
- _____, <出土文獻與上古漢語虛詞研究>, 《華南師範大學學報》, 2009年 第3期, 2009.
- _____, <談《老子》中被替換的虛詞>, 《中國語文》, 2013年 第3期, 2013.
- 張志遠·趙志剛, <《老子》中的語氣副詞研究>, 《吉林廣播電視大學學報》, 2018年 第4期.
- 張華, <《左傳》否定詞“非”“未”“勿”“毋”“弗”“不”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 張歡, <《孟子》、《莊子》語氣詞比較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 程文文, <先秦兩漢順承連詞研究—以出土醫書為中心的考察>, 《黃河科技大學學報》, 2018年 1月.
- 정성임, <古代漢語 부사의 범주 재고찰>, 《中國研究》第70卷, 2017.
- 趙榮霞, <從《詩經》用例看“莫”字的詞性—兼與韓學重先生商榷>, 《濟寧師專學報》, 2001年 2月.
- 조은정, <“也”、“矣”、“已”的功能及其演變>,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 _____, <《老子》 여기서 ‘兮’ 고찰—출토문헌과 전래문헌 5종 판본 비교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제54집, 2014.
- _____, <문자언어학적 각도에서 살펴본 《老子》 판본의 선후 관계>, 《中語中文學》 第60輯, 2015.
- _____, <명사표지 也의 기능 및 변천>, 《中國語文論譯叢刊》第38輯, 2016.
- 趙懷英, <古漢語中無指代詞“莫”和否定副詞“莫”的辨析>, 《漢中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9年 第1期.
- 朱丹, <《老子》語言風格探析>, 湘潭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周永研, <《老子》《論語》時間副詞比較研究>, 《現代語文》, 2020年 第2期.
- 陳家春·周舫, <《荀子》副詞的兼類與連用>, 《語文學刊》, 2008年 1月.

- 陳潔, <《老子》虛詞研究>, 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陳成吒, <文章學視覺下的先秦經典成書研究—以《老子》成書年代考察為例>, 《中州學刊》第11期, 2016.
- 陳遠秀, <上古漢語“主之謂”結構的語體考察—以《史記》和《論衡》為例>, 《語言教學與研究》, 2017年 第3期.
- 車淑嫻, <《韓非子》否定副詞研究>, 《西安電子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年 12月.
- 車殷正, <《孟子》중의 虛詞 ‘於’와 ‘以’에 관한 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蔡英杰, <動詞虛化爲介詞的過程及特點>, 《南都學壇(哲學社會科學版)》, 1997年 第2期.
- 詹成燕, <《孟子》中“以”的用法研究>, 《成都紡織高等專科學校學報》, 2012年 1月.
- 崔南圭, <《郭店楚簡》의 ‘於(于)’의 용법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學》제72집, 2016.
- 최정은,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접속사 而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沈家煊, <“語法化”研究綜觀>, 《外語教學與研究》, 1994年 第4期.
- _____, <實詞虛化的機制—《演化而來的語法》評介>, 《當代語言學》, 1998年 第3期.
- _____, <語用法的語法化>, 《福建外語》第56期, 1998.
- 韓學重, <고한어의 부정소 「無」와 그 동의어의 사성 및 유념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學》제21집, 1993.
- _____, <對‘莫’的詞性問題的幾點思考>, 《古漢語研究》, 2000年 第1期.
- 胡曉萍, <《論語》, 《孟子》中介詞“以”用法之分析>, 《綏化師專學報》, 2000年 第4期.
- 豁娟·薛宏武, <《史記》中‘故’的性質、意義與語體分析考察>, 陝西, 《安康學院學報》, 2019年 第6期.
- 黃德寬, <《老子》的虛詞刪省與古本失真>, 《中國典籍與文化論叢》, 1995.

The Study on the Function Words used in 《Laozi(老子)》

Ae-sil Kim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features of the function words used in 《Laozi(老子)》, the literature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of China, through the data of which were investigated quantitatively and analyzed one by one. The categories of the investigation are adverbs, prepositions, conjunctions, and auxiliary words used in 《Laozi(老子)》. The following is the usages and features of the function words used in 《Laozi(老子)》 from this study.

1. The usages of the adverbs used in 《Laozi(老子)》 were researched.

There are 34 adverbs such as ‘不’, ‘弗’, ‘非’, ‘未’, ‘無’, ‘勿’, ‘將’, ‘既’, ‘終’, ‘常’, ‘復’, ‘又’, ‘亦’, ‘彌’, ‘愈’, ‘滋’, ‘固’, ‘誠’, ‘豈’, ‘自’, ‘故’, ‘獨’, ‘唯’, ‘惟’, ‘猶’, ‘各’, ‘皆’, ‘同’, ‘相’, ‘其’, ‘恐’, ‘或’, ‘必’, ‘乃’ in 《Laozi(老子)》. These represent denial, time, degree, state, range, guess, relationship, and so on.

2. The usages of the prepositions used in 《Laozi(老子)》 were researched.

There are 6 prepositions such as ‘於’, ‘以’, ‘爲’, ‘與’, ‘當’, ‘自’ in 《Laozi(老子)》. Prepositions are combined with objects, which indicates action’s time, object, place, tool, way, reason, cause, and passivity.

Combination types of prepositions and objects were researched. In general, the object of a preposition comes after the preposition, which forms the combination of 'preposition + objec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reposition '以', the object very often comes after it or is omitted.

The predicates of the sentences using prepositional phrases are used with transitive verbs 78 times (67%), intransitive verbs 16 times (14%), and adjective 18 times (16%). Also, In the case of the preposition '以', the examples of ellipsis of predicates are found 4 times (3%).

3. The usages of the conjunctions used in 《Laozi(老子)》 were researched.

There are 20 conjunctions such as '且', '與', '而', '以', '斯', '則', '安', '然後', '而後', '而況於', '雖', '爲', '故', '是以', '是故', '其', '使', '若', '若使', '之' in 《Laozi(老子)》. These indicate parallel, consequence, contrast, gradation, concession, causality and con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erms before and after, according to their meanings.

Also, the structure of 'subject + 之 + predicate' is very often found. Among many conjunctions, '而' is most used 108 times (32%), which means consequence, contrast, parallel, or gradation relationship. Next, '故' meaning causal relationship is used 39 times (17%). '以' is used 39 times (11%), meaning consequent, causal, or conditional relationship. '是以' meaning causal relationship is used 35 times (10%). '之' is used 32 times (9%), which is placed between subject and predicate, forming the combination of 'subject + 之 + predicate'. This structure can not be a independent clause, functioning as an element of a sentence or as a simple sentence in a complex sentence.

4. The usages of the auxiliary words used in 《Laozi(老子)》 were researched.

There are 22 auxiliary words such as '之', '者', '所', '是', '蓋', '夫', '載', '故', '乎', '其', '也', '矣',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然', '焉' in 《

Laozi(老子)». These are classified into auxiliary words for structure auxiliary words, mood auxiliary words, and suffixes.

There are ‘之’, ‘者’, ‘所’, ‘是’ in structure auxiliary words. The ones making noun phrases are ‘之’, ‘者’, ‘所’, and the ones changing the order of words are ‘之’ and ‘是’.

There are mood auxiliary words as ‘蓋’, ‘夫’, ‘載’, ‘故’, ‘之’, ‘乎’, ‘其’, ‘也’, ‘矣’, ‘者’, ‘焉’, ‘兮’, ‘邪’, ‘與’, ‘已’, ‘哉’, ‘也哉’, ‘也夫’. These are classified into the beginning, the middle, and the end of mood auxiliary words, according to their position of the sentence. There are ‘蓋’, ‘夫’, ‘載’, ‘故’ in mood auxiliary words used in the beginning of sentence. There are ‘之’, ‘其’, ‘也’, ‘者’, ‘兮’, ‘矣’, ‘乎’ in mood auxiliary words used in the middle of sentence. There are ‘乎’, ‘焉’, ‘兮’, ‘也’, ‘邪’, ‘與’, ‘矣’, ‘已’, ‘哉’, ‘者’, ‘也哉’, ‘也夫’ in mood auxiliary words used in the end of sentence.

There are ‘然’, ‘焉’ in suffixes. The words with these suffixes are used as predicates or adverbs.

This study shows the features of the usages of the function words, which resulted from the quantitative investigation of the function words used in 《Laozi(老子)》.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to find out the usages of the function words of the pre-Qin(先秦) period, and opportunities to examine the developments of the usages of the function words.